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우암 송시열의 저술활동과
교육적 의의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성 태

2018년 2월



우암 송시열의 저술활동과 교육적 의의

지도교수 양진건

김 성 태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김성태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정 환



위 원 박 여 성



위 원 양 정 필



위 원 김 대 영



위 원 양 진 건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년 12월



Uam Song Siyeol's Writing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Seong-Ta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Education
2017.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Jung-Hwan Park,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Yo-Song Park, Prof. of German Studies

Thesis director, Jeong-Pil Yang, Prof. of History

Thesis director, Dae-Young Kim, Prof. of Education

Thesis director, Jin-Geon Yang, Prof.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우암 송시열의 저술활동과 교육적 의의

김 성 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우암 송시열이 유배형을 받고 제주에 왔다가 정읍에서 사사될 때까지 저술활동을 중심으로 그가 남긴 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그는 제주에서 111일 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제주 오현의 마지막 인물로 오현을 완성하면서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다.

송시열은 김장생과 김집을 스승으로 모셨고, 주자와 이이를 계승하였으며 이황도 받아들였다.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를 기치로 효종의 복벌정책을 지지했다. 숙종의 원자 정호를 반대하다 제주로 유배되자 향교에서 책을 빌어다 읽고 글을 썼다. 손자와 시를 짓기도 하고 문인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가 고향 회덕을 떠나 제주로 오는 동안에 쓴 시 5수, 소 3편, 편지 6통, 잡저 1편, 서문 2편, 축문 1편,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에 쓴 시 9수, 편지 7통, 잡저 2편, 서문 1편, 축문 1편, 전기 1편, 제주를 떠나 정읍에서 사사될 때까지 쓴 시 2수, 소 2편, 편지 2통, 잡저 1편, 전기 1편, 묘지 1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와 교류했던 가족과 문인, 제자 사이에 있었던 활동도 고찰하였다.

송시열 저술활동에 담긴 교육적 의의는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가정교육 및 학습공동체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철학적으로는 곧음, 조문석사, 오류를 교육이념으로, 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과 효종의 복벌정책이 내세웠던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를 교육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구성원리를 제시하고, 독서의 순서를 정했으며,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주자대전차의』와 『논맹혹문정의통고』를 저술하였다. 셋째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독서와

토론을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끈음을 바람직한 수양법으로 제시하였다. 끈음은 존재론과 인간론을 가로지르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공부법과 수양법을 관통하는 원리로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가치였다. 넷째, 송시열은 자손들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직접 가르쳤고 멀리 있더라도 편지로 끊임없이 면학하라 당부하면서 가정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다섯째, 송시열은 훌륭한 스승과 우수한 문인 사이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며 학문을 닦았고 협업을 강조하며 서로 권면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직하였다. 또한 치열한 토론을 책으로 남겨 후학들이 학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다.

송시열이 제주교육에 끼친 교육적 영향력을 기리고자 제주 유학 김성우는 소를 올려 그를 굴림서원에 배향하였다. 송시열과 그의 가족, 문인들이 관리나 유배인으로 제주로 오면서 그의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권진웅과 이존중은 제주에 인물성동이는쟁을 전하면서 교육에 힘썼다. 권진웅은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를, 장인식은 굴림서원묘정비를 세웠다. 조정철, 김정희, 최익현, 김윤식도 시를 지어 그를 기렸다.

본 연구에서 송시열이 저술활동을 통해 제주에 미친 교육적 의의를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가정교육 및 학습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사료를 더 많이 발굴하여 그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밝힌다면 조선시대 교육사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송시열, 유배, 제주, 저술활동, 교육적 의의

차례

국문초록	i
I. 서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선행연구 검토와 과제	8
1. 선행연구 검토	8
1) 송시열 관련 연구	8
2) 제주교육 관련 연구	11
2. 동향과 과제	14
III. 제주 도착 전 저술활동	16
1. 시(詩)	17
1) 「탐라로 가는 배에서」	17
2)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19
3)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20
4)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21
5) 「암각시문」	21
2. 소(疏)	23
1) 「기사년 2월에 올린 소」	23
2)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29
3)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	44

3. 편지	47
1) 「송도원에게 보냄」	47
2)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50
3) 「정혼원에게 답함」	55
4) 「아들에게 부침」	59
5) 「은석에게 부침」	64
6) 「무원에게 부침」	66
4. 잡저(雜著)	72
1)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72
2) 「화포집서」	76
3) 「주자대전차의서」	78
4)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82

IV. 제주에서의 저술 활동 88

1. 시(詩)	89
1) 「오월 사일」	89
2) 「탐라 적소에서」	90
3)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92
4)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93
5) 「부질없이 읊다」	94
6) 「치도를 생각하다」	95
7) 「무제」	96
8) 「반궁의 요령 앞에 이르러」	97
9)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98
2. 편지	100
1)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	100
2)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104
3)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109
4) 「권치도에게 보냄」	118
5)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120

6)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124
7) 「민사정에게 답함(기사년 4월)」	135
3. 잡저(雜著)	139
1) 「승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	139
2)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141
3) 「논맹혹문정의통고서」	145
4)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정부인 괘씨의 묘에 고한 글」	147
5) 「임장군경업전」	158

V. 제주를 떠난 후 저술활동 170

1. 시(詩)	170
1)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171
2)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171
2. 소(疏)	172
1)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173
2)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	180
3. 편지	185
1)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185
2)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189
4. 잡저(雜著)	190
1)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191
2) 「삼현려기」	197
3)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200

VI. 송시열 저술활동의 교육적 의의 213

1. 교육철학	213
1) 교육이념	213
2)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	216
3)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	218

2. 교육과정	220
3. 교육방법	222
1) 공부론	222
2) 수양론	224
3) 공부론과 수양론의 통합	224
4. 가정교육	225
5. 학습공동체	227
 VII.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230
1. 굴림서원과 제주 오현 배향	230
2. 교육사상의 전파와 제주교육	236
1) 논쟁의 전파	236
2) 가족의 영향	237
3) 제자들의 활동	238
4) 사상의 계승	239
 VIII. 결론	244
 참고문헌	250
Abstract	258

표 차례

<표 1> 제주 유배기 및 전후 저작.....	5
<표 2> 관찬 제주교육사.....	12
<표 3> 시대별 도내·외 개인 연구 현황.....	13
<표 4> 제주 도착 전 저작.....	16
<표 5> 시간순 제주 도착 전 저작.....	85
<표 6> 제주 유배기 저작.....	88
<표 7> 시간순 제주 유배기 저작.....	168
<표 8> 제주를 떠난 후 저작.....	170
<표 9> 시간순 제주를 떠난 후 저작.....	211
<표 10> 교육이념 관련 저작.....	214
<표 11>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 관련 저작.....	216
<표 12>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 관련 저작.....	218
<표 13> 교육과정 관련 저작.....	220
<표 14> 교육방법 관련 저작.....	222
<표 15> 가정교육 관련 저작.....	225
<표 16> 학습공동체 관련 저작.....	227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은 제주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제주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까? 그가 제주에 머물렀던 기간은 111일이다. 그 립에도 제주 오현으로서 굴림서원에 배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물로 선정되면서 제주 오현을 완성하였다. 제주 오현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그가 끼친 교육적 영향력을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송시열의 영향력은 충암(冲庵) 김정(金淨),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동계(桐溪) 정온(鄭蘊),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와 송시열로 이어진 제주 오현의 면면에서도 알 수 있다. 김정은 기묘사화로 제주로 유배 왔다가 사사되어 충암묘에 모셔지면서 굴림서원의 원류가 되었는데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는 『기묘록(己卯錄)』을 직접 베껴주면서 송시열에게 힘써 배우라고 했던 기묘제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김상헌은 송시열의 스승이었고, 그의 손자 김수항은 생사를 함께 한 송시열의 정치적 동지였다. 정온은 남인이면서도 영창대군 옥사와 인목왕후 폐모론을 반대하였고 척화에 있어서도 김상헌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송인수는 송시열의 종조부로 정유삼흉(丁酉三凶) 김안로의 전횡을 막으려다 실각하여 제주 목사로 좌천되었다. 네 사람 모두 송시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제주 오현이 확정되고 제주교육의 경향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송시열이 미친 영향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굴림서원은 제주에서 유일한 서원이었고, 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그 지역 교육적 풍토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제주에서 선진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죄를 지어 유배된 인물이 전부였다. 고려시대 쌍돛을 다는 대중선을 띄울 정도로 놀라운 조선 기술을 지녔던 제주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금지하는 출륙금지령 탓에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 목사를 비롯한 여러 관리와 임금을 비롯하여 무수한 유배인을 통해서만 제주 사람들은 선진 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주 오현으로 꼽혔다는 사실은 그들이 제주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제주 오현은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송시열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송시열을 굴림서원에 배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은 제주 유학(幼學) 김성우(金聖雨)다. 송시열과 제주 사람들 사이에 교육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지하는 위리안치형을 받았으나 2명 동생과 손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제주에 왔고 한라산에 오르고 싶다는 뜻을 비칠 정도로 활동에 제약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장기(長鬢)에서 4년, 거제(巨濟)에서 1년 유배 생활을 할 때 서당을 열어 주위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비록 제주에서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았던 탓에 서당을 열지는 못했지만 제주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노력은 없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송시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문인들이 많이 제주를 다녀가면서 그의 교육적 영향력을 넓혔다. 그는 제주로 유배 올 때 동생 시도, 시걸, 손자 주석과 함께 왔다. 그들은 송시열이 덕원으로 유배 갈 때에도 함께 했었다. 송시열이 제주에서 문인들에게 편지를 많이 보낸 것을 보면 위리안치된 그를 보기 위해 제주를 찾았던 사람들이 편지를 전해준 일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제주를 떠난 후에도 그의 문인들은 관리나 유배인으로 제주를 많이 찾았다. 김진구(金鎭龜), 김춘택(金春澤), 권진웅(權震應), 이존중(李存中), 장인식(張寅植), 이극생(李克生), 김정희(金正喜), 조정철(趙貞喆), 최익현(崔益鉉) 등은 송시열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에 바탕하여 제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랐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송시열이 제주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

론 송시열을 비롯한 제주 오현을 중심으로 제주에 왔던 여러 관리와 유배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이 제주교육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료가 많지 않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송시열은 저술활동을 통해 많은 글을 남겼고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기리는 글을 남긴 문인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그와 그의 문인들이 남긴 글을 분석하여 그가 제주에 미친 교육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저술활동은 글을 쓰는 행위와 결과물인 저작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시나 편지 등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교육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저작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저자에게서 교육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제주교육에 끼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온전히 파악하려면 제주에서 쓴 글뿐만 아니라 제주로 올 때 쓴 글과 제주를 떠난 후에 쓴 글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시와 편지를 비롯하여 서문, 전기 등 많은 글을 남겼다. 그리고 유배형을 받고 제주로 올 때도, 제주를 떠나 정읍에서 사사될 때에도 다양한 글을 많이 썼다. 그가 유배로 제주에 왔기 때문에 유배에 이어 사사될 때까지 그의 생각과 감정이 그가 남긴 글 속에 담겨있으므로 가능하면 모든 글을 분석 대상으로 놓아야 교육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송시열의 교육적 영향은 그가 미친 직접적 영향과 그의 가족과 문인이 가져온 간접적 영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논자는 주로 송시열이 남긴 저작을 분석하여 그가 남긴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그가 제주에 머문 시간은 111일이다. 제주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했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글은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글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의 글을 분석하는 일도 의의가 깊다 하겠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교육사상 연구 방법에는 실증적인 접근 방법과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¹⁾

실증적인 접근 방법에는 구체적으로 문헌적 접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근, 역사적·계통적 접근, 유형적·비교적 접근 방법이 있다. 또한 철학적인 접근 방법에는 사상의 구조 분석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 해석학적 접근, 언어적·기호학적 접근, 비판이론적·변증법적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에 대한 고찰을 중심에 두었다. 그리고 문헌 자료는 역사적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차 사료를 발굴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당시의 일을 기록한 사료는 『조선왕조실록』과 『송자대전부록』에 실린 연보에 기록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남긴 시, 편지 등 저작을 통해 그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근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개인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송시열은 시대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접근 방법은 필수적이다. 또한 역사적·계통적 접근 방법도 필요하다. 송시열은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다. 따라서 서인이 어떻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는지, 각각의 특성은 무엇이고 대립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를 온전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유형적·비교적 접근 방법도 역사적·계통적 접근 방법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송시열의 교육사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론과 소론의 분당과 대립뿐만 아니라 남인과의 대립 관계를 살피고 서로의 사상적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송시열은 거제와 장기에서 유배생활을 한 적도 있는데 그곳에서 살 때의 모습과 제주에서의 생활모습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사상의 구조 분석적 접근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사상의 구조 분석적 접근 방법은 이성애 기대 사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판단, 추리, 유추 등을 통해 사상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송시열의 교육사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한국고전번역원(www.itkc.or.kr) 국역 『송자대전』 가운데 송시열이 제주에서 쓴 글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쓴 글

1) 팽영일(2013), 「교육사상 연구의 방법과 한계」, 『한국교육사상연구회2013년 연차 학술대회』, 한국교육사상연구회, pp.59 -63.

만으로는 그의 교육적 활동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그는 위리안치된 상태였으므로 활동의 제약도 심했다. 그의 뜻과 상관없이 교육적 활동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가 유배형을 받고 고향을 출발하여 제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쓴 글과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가던 중 정읍에서 사사될 때까지 쓴 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제주 유배기 및 전후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시기
1	시	「탐라로 가는 배에서」	『송자대전』 제2권	유배 전
2	시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 전
3	시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 전
4	시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 전
5	시	「암각시문」	양순필(1992)	유배 전
6	시	「오월 사일」	『송자대전』 제2권	유배기
7	시	「탐라 적소에서」	『송자대전』 제2권	유배기
8	시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기
9	시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기
10	시	「부질없이 읊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기
11	시	「치도를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기
12	시	「무제」	『송자대전』 제4권	유배기
13	시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송자대전부록』 제11권	유배기
14	시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송자대전부록』 제11권	유배기
15	시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 후
16	시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유배 후
17	소	「기사년 2월에 올린 소」	『송자대전』 제20권	유배 전
18	소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송자대전』 제20권	유배 전
19	소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	『송자대전』 제20권	유배 전
20	소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송자대전』 제20권	유배 후
21	소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	『송자대전』 제20권	유배 후
22	편지	「송도원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70권	유배 전
23	편지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113권	유배 전
24	편지	「정헌원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15권	유배 전
25	편지	「아들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5권	유배 전
26	편지	「은석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6권	유배 전
27	편지	「무원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8권	유배 전

28	편지	「박화숙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68권	유배기
29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유배기
30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자대전』 제89권	유배기
31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89권	유배기
32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송자대전』 제89권	유배기
33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유배기
34	편지	「민사정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02권	유배기
35	편지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자대전』 제113권	유배 후
36	편지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송자대전』 제128권	유배 후
37	잡저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자대전』 제136권	유배 전
38	잡저	「송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	『송자대전』 제134권	유배기
39	잡저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송자대전』 제136권	유배기
40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유배 후
41	서문	「화포집서」	『송자대전』 제139권	유배 전
42	서문	「주자대전차의서」	『송자대전』 제139권	유배 전
43	서문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송자대전』 제139권	유배기
44	축문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유배 전
45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유배 전
46	전기	「임장군경업전」	『송자대전』 제213권	유배기
47	전기	「삼현려기」	『송자대전』 제145권	유배 후
48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유배 후

장르별로 분류하면 시 16수, 소 5편, 편지 15통, 잡저 4편, 서문 3편, 축문 2편, 전기 2편 및 묘지 1편이다. 주로 시와 편지가 많다. 배소에 갇힌 신세라 심정을 토로하는 시를 많이 지었고, 가족과 문인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도 많이 썼다. 상소문도 많은 편인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썼다.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었기에 학문적 과업을 마무리하고 서문을 적어 책으로 엮으려고 하였고 홀로있던 선인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전기도 썼다. 축문의 경우에도 삶을 돌아보고 이별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송시열의 저작은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가정교육 및 학습공동체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그가 무엇을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그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핵심 교재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해석하였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셋째, 교육방법은 성리학적 체계에 따라 공부론과 수

양론으로 나눠 살핀 다음에 양자를 통합한 측면에서도 분석할 것이다. 넷째, 그는 가정교육에 힘썼다. 특히 손자와 증손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격대교육적 측면에서도 그의 교육활동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인을 가졌던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학습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집단 지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때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송시열의 가족과 문인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도 살필 것이다. 그들은 송시열은 존경했고 그의 정신을 잇고자 하였다. 따라서 송시열의 교육적 영향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었다. 더욱이 그들은 송시열이 겪었던 시공간적 제약보다는 자유로운 경우가 많았다. 제주 사람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기가 쉬웠고 교육적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주로 국역된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검토하지 못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번역된다면 보다 총체적으로 송시열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 오고 다시 나가서 사사되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니 송시열의 전체 저작과의 상호관련성을 밝히는 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한 인물의 특정 시기를 연구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그 인물의 전 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방 교육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파편적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전체를 그리려는 상상력이 많은 오류를 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에 관한 의미 있는 성찰과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지방교육사와 한국교육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과제

1. 선행연구 검토

1) 송시열 관련 연구

송시열에 대한 연구는 그가 차지하는 학문적, 정치적 위상에 비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구자도 부족하고 관련 연구도 적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철학, 사상, 역사, 문화 등 여러 면에 걸쳐 참신한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선 이상익²⁾, 이선열³⁾, 조남호⁴⁾, 홍정근⁵⁾, 함영대⁶⁾, 전재동⁷⁾, 이기용⁸⁾, 황의동⁹⁾, 우경섭¹⁰⁾, 안은수¹¹⁾, 조성산¹²⁾ 등이 송시열의 성리학설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재검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의리학과 관련해서 박신환¹³⁾은 그 연원을 탐구했고, 우경섭¹⁴⁾은 허형(許衡) 인식과 문묘출향론을 검토했

- 2) 이상익(2004), 「우암 송시열에 있어서 이와 기의 상호주재 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제23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3) 이선열(2009), 「17세기 우암학단의 虛靈개념 논변」, 『동양철학연구』 제58권, 동양철학연구회; (2009), 「17세기 율곡학파의 인심도심 논변 -이세필, 송시열, 윤증의 “氣用事” 논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57권, 동양철학연구회; (2010), 「송시열과 박상현의 미발 논변 -미발과 기질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36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4) 조남호(2009), 「조선후기 유학의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 유학에서 허령지각과 지의 논변 -송시열, 김창협, 한원진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34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5) 홍정근(2008), 「우암 송시열의 心體에 대한 견해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48권, 한국동서철학회.
- 6) 함영대(2008), 「경전 해석과 한국한문학」, 『孟子或問精義通考』와 우암 송시열의 학술정신,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한국한문학회.
- 7) 전재동(2008), 「송시열과 박세채의 퇴계설 비판 -『退溪四書質疑疑義』 “논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한국한문학회.
- 8) 이기용(2007), 「우암 송시열의 리기, 심성론 연구」, 『한국철학논집』 제21권, 한국철학사연구회.
- 9) 황의동(2008), 「우암의 성리학과 학문적 위상」,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과 학문적 차이」, 『동서철학연구』 제40권, 한국동서철학회.
- 10) 우경섭(2008), 「우암 송시열의 호연지기론」, 『동서철학연구』 제48권, 한국동서철학회.
- 11) 안은수(2008), 「우암 심성론 특징과 의의 -미발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48권, 한국동서철학회.
- 12) 조성산(2004), 「송시열의 성리학 이해와 현실관」, 『한국사학보』 제17권, 고려사학회.
- 13) 박신환(2010), 「우암 의리학의 율곡 연원과 후원 -石潭과 石室」, 『율곡사상연구』 제21권, 율곡학회.
- 14) 우경섭(2008), 「송시열의 許衡 인식과 文廟黜享論」, 『진단학보』 제106권, 진단학회.

으며, 오석원¹⁵⁾은 의리사상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배상현¹⁶⁾, 한기범¹⁷⁾과 김현수¹⁸⁾는 송시열의 예학을 연구했고, 임부연¹⁹⁾, 조준하²⁰⁾와 우경섭²¹⁾은 춘추사상을 탐색했다.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정재훈²²⁾, 경세사상은 지두환²³⁾, 광신환²⁴⁾, 정재훈²⁵⁾이 연구했다. 송시열의 문학에 대해서도 김성용²⁶⁾, 정경훈²⁷⁾, 이상주²⁸⁾, 이종묵²⁹⁾, 한석수³⁰⁾, 정민³¹⁾, 조규희³²⁾ 등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김문준³³⁾, 한기범³⁴⁾, 오항녕³⁵⁾, 박성순³⁶⁾ 등은 송시열의 학문을 제자들이 어떻게 계승하였는가를 살폈고,

- 15) 오석원(2008), 「우암 송시열의 의리사상」, 『유교사상연구』 제33권, 한국유교학회.
- 16) 배상현(2008), 「송시열의 예학사상과 그 의리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17) 한기범(2009), 「예송기 이유태의 왕조례 예설과 예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제46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18) 김현수(2008), 「송시열의 예학사상 고찰 -시의적, 의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제48권, 한국동서철학회.
- 19) 임부연(2009),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 -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 『종교문화비평』 제15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20) 조준하(2008), 「우암 송시열의 주체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21) 우경섭(2006), 「송시열의 華夷論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제101권.
- 22) 정재훈(2004), 「우암 송시열의 정치사상 -주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23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23) 지두환(2008), 「우암 송시열의 경세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24) 광신환(2008), 「송시열의 변통법과 개혁사업」, 『유교사상연구』 제32권, 한국유교학회.
- 25) 정재훈(2008), 「17세기 우암 송시열의 정치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26) 김성용(1998), 「송시열 산문의 권위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21권, 한국한문학회.
- 27) 정경훈(2003), 「우암 비지문의 미학적 검토」, 『한문학보』 제9권, 우리한문학회; (2005), 「우암 송시열의 散文에 나타난 『春秋』의 한 양상 -舊發據義와 傳疑之法에 대하여 -」, 『울곡사상연구』 제10권, 울곡학회; (2008), 「우암 송시열 散文의 문예적 면모」,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28) 이상주(2006), 「조선후기 산수평론에 대한 일고찰 -華陽九曲을 중심으로 -」, 『한문학보』 제14권, 우리한문학회; (2010), 「송시열 문학의 影響源과 異端的 면모」, 『한문학논집』 제31권, 근역한문학회; (2009), 「〈幄對說話〉의 사실성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39권, 동방한문학회.
- 29) 이종묵(2006), 「우암 송시열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10권, 한국한시학회.
- 30) 한석수(2008), 「중원지역 전통문화의 문학지리학적 고찰: 華陽洞의 문학 -우암 송시열과 그 제자들의 한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3권, 한국고전학회.
- 31) 정민(2008), 「우암 선생 <首尾吟> 134수 管窺」,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32) 조규희(2006), 「조선 유학의 “道統” 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제61권, 2006.
- 33) 김문준(2008), 「수암 권상하의 춘추정신과 도학사상」, 『한국철학논집』 제23권, 한국철학사연구회.
- 34) 한기범(2008), 「우암 송시열에 대한 후대인의 추송과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 35) 오항녕(2008), 「기억의 시넵스: 효종과 송시열, 그리고 정조」, 『동서철학연구』 제48권, 한국동서철학회.
- 36) 박성순(2007), 「면암 최익현 心主理說 연구 -우암 송시열 心說에 대한 그의 태도를 중심으로」,

조성산³⁷⁾은 17세기말~18세기초 낙론계 주자학적 의리론에 대하여, 이연숙³⁸⁾은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에 대하여, 김봉곤³⁹⁾은 조선후기 호남지역 사족의 노론 활동을 고찰하였다.

정낙찬⁴⁰⁾은 송시열의 교육방법이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고루 강조함으로써 성리학과 의리론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그가 강조했던 직(直)과 의(義)에 그 뜻이 잘 드러난다고 보았고, 김익수⁴¹⁾는 송시열 철학의 요체를 직(直)으로 보고 수양론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자로서의 송시열을 탐구한 논문도 여럿 보인다. 신창호⁴²⁾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이 갖는 아동교육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그 책이 조선의 독자적인 아동교육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영조의 어제문(御製文)과 함께 송시열의 발문(跋文)⁴³⁾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인정하였고, 박종배⁴⁴⁾는 송시열이 이황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와 정경세의 『주문작해(朱文酌海)』를 엮으면서 두 책에 없는 주희의 글을 보완하여 『절작통편(節酌通編)』을 지어 강학 교재로 만들었던 점에 주목하였다. 『절작통편』은 방대한 주자서로 안내하는 길잡이였고, 숙종 이후에는 국왕 교육 교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김문준⁴⁵⁾은 송시열이 한글로 쓴 『계녀서』가 갖는 교육적 의의를 밝혔고, 윤경희⁴⁶⁾는 송시열이 여성에 대하여 쓴 비지문(碑誌文), 제문(祭文), 행장(行狀)을 살펴 그가 남성우월적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존중과 경의를 품고 사대부 여성의 전범적 삶을 표현하였다고 주장

『한국사학보』 제27권, 고려사학회.

37) 조성산(2003), 「17세기말-18세기초 낙론계 문풍의 형성과 주자학적 의리론」, 『한국사상사학』 제21권, 한국사상사학회.

38) 이연숙(2002),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제23권, 역사실학회.

39) 김봉곤(2011), 「문중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지역의 사회와 문화: 조선후기 호남지역 사족의 정치, 사회적 동향-17세기 광주 순천박씨 가문의 성장과 노론으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38권, 한국고문서학회.

40) 정낙찬(2011), 「우암 송시열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제43권, 한국교육철학회.

41) 김익수(2008), 「송시열의 직철학과 교육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42권, 한국사상문화학회.

42) 신창호(2011), 「『동몽선습』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제3호, 한국교육사학회.

43) 『宋子大全』 제146권, 「童蒙先習跋」.

44) 박종배(2011),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제3호, 한국교육사학회.

45) 김문준(2004),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 문화』 제23권, 한국사상문화학회.

46) 윤경희(2012), 「우암 송시열의 여성인식 재고-비지문, 제문, 행장 등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39권, 한국한문교육학회.

하였다. 양진건⁴⁷⁾은 송시열이 제주에서 손자 주석과 함께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역학계몽(易學啓蒙)』, 『강목(綱目)』을 읽었던 활동⁴⁸⁾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였고, 이봉규⁴⁹⁾는 송시열이 사칠론이나 인심도심론에서는 이황과 대척점에 섰으나 함양론에 있어서는 『소학』과 『주자가례』를 초학의 입문서로 삼았던 이황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켜 조선 후기 교육과정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 김성태·양진건⁵⁰⁾은 송시열이 제주유배가 끼친 제주교육에 대한 영향을 연구했으며, 김성태⁵¹⁾는 송시열이 제주유배시절에 쓴 한시를 살펴 그 속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찾았다.

송시열의 제자들의 활동을 연구한 결과도 나왔다. 김대식⁵²⁾은 송시열의 수제자였던 권상하 문하의 강학 활동이 갖는 교육적 특성을 밝혀냈고, 김상기⁵³⁾는 화서학파의 한 사람으로서 유인석, 최익현과 함께 위정척사 운동에 참여했던 유진하가 송시열의 학문을 철저하게 계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양진건·강동호⁵⁴⁾는 최익현이 제주유배시절에 지은 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영향을 탐색했고, 편지에 담긴 교육적 의미도 밝혔다.

2) 제주교육 관련 연구

제주교육사 관련 연구 현황⁵⁵⁾은 관찬 연구와 개인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관찬 연구는 도 단위나 산하기관, 부서 등에서 발행한 통사 및 단대사인데 <표 2>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관찬 교육사를 종합한 것이다. 총

47) 양진건(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48)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崇禎62年 己巳」.

49) 이봉규(2010), 「함양론과 교육과정으로 본 조선성리학의 개성」, 『퇴계학보』 제128권, 퇴계학연구원.

50) 김성태·양진건(2014), 「우암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 『석당논총』 제59권,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51) 김성태(2015), 「송시열의 제주유배한시의 교육적 의미」, 『제주도연구』 제44권, 제주학회.

52) 김대식(2015), 「권상하 문하의 강학 활동 연구 -강문팔학사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제25권 제2호, 교육사학회.

53) 김상기(2016), 「유진하의 학문과 문인들의 민족운동」, 『한국사상사학』 제52권, 한국사상사학회.

54) 양진건·강동호(2014),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 제35권, 경성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3), 「면암 최익현의 제주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35권, 한국교육사학회.

55) 아래는 김해영·김유리(2012),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제41권,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 pp.7-41을 참고하고, 2012년에서 현재까지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11편 가운데 통사는 4편이고 나머지는 근·현대사 위주다.

<표 2> 관찬 제주교육사

연도	제목	발행
1974	『제주교육통사』	제주도교육연구원
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1987	『제주교육연혁지 I II』	제주도교육위원회
1991	『제주교육행정 발전사』	제주도교육청
199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청
	『통계로 본 제주교육 100년』	제주도교육청
2002	『서귀포 교육 50년사』	제주도 서귀포교육청
2004	『제주시 교육 50년사』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 50년사』	제주도 북제주교육청
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교육 100년』	제주교육박물관
201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른 유형의 교육사 저술로는 단위학교에서 30년, 50년, 80년 또는 100년을 기념하여 편찬하는 교지(校誌)가 있다. 『신성여학교100년사』(2009), 『대정초등학교 100년사』(2009), 『제주고등학교100년사』(2011) 등이 있다. 또한 『제주도지(濟州道誌)』를 비롯하여 시·군·읍·면에서 발행하는 향토지에서 제주교육에 대해 다루는 경우가 있다. 1993년과 2006년 발행된 『제주도지』에서 교육사를 시대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뤘고, 『남제주군지』(2006), 『구좌읍지』(2000) 등에서도 지역 교육의 역사를 별도의 편(篇)에 담아 서술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제주교육사에 매진했던 학자로는 강석규, 김종업, 김봉옥, 김용덕, 양진건, 고창석, 양철호, 문창규, 오송희 등이 있다. 다음 표는 도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학위논문 및 단행본 등 63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시대별 도내·외 개인 연구 현황

	학회지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비고
	도내	도외	박사	석사		
탐라상고사	2	1		1	4	삼국, 고려시대 포함
근세-조선	15	17	1	3		
근대	4	2		3		개화기, 일제강점기 포함
현대	3					미군정, 4·3, 6·25 포함
기타	3	1		3		

표에 따르면 조선시대 연구가 61%를,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대에 대한 연구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를 포함한 상고사 연구와 현대교육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한 연구가 근현대사에 치우친데 반해 개인 연구는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로는 김종업⁵⁶⁾, 양순필⁵⁷⁾, 고창석⁵⁸⁾, 양진건⁵⁹⁾, 김해영⁶⁰⁾, 오송희⁶¹⁾, 김유리⁶²⁾, 김인기⁶³⁾, 양은숙⁶⁴⁾, 강동호⁶⁵⁾ 등이 있는데

56) 김종업(1977), 「조선조 제주도 교육에 대한 논고」, 『제주대학교논문집』 제9권 1호.

57) 양순필·양진건(1987),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6권.

58) 고창석(1996), 「조선시대 제주의 사학-정사와 향학당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 제5권.; 고창석·양진건(1989),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화』 제9권.

59) 양진건(2012), 「추사 교육전통의 남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학술논문집』.; (2011), 「조선시대 제주도주민의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제주도주민의 표류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3권.; (2010),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2006),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끼친 척사논의의 영향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0권.; (2006),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중창, 이건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19권.; (2005), 「제주교육행정의 역사적 정리: 60년대~80년대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제26권.; (2005), 「세종조 도서보급 정책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제16권.; (2004),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제24권.; (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5권.; (2002),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4권.; (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제4권.; (1999),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 제21권.; (1999), 「미군정기 제주교육」, 『탐라문화』 제17권.; (1999), 「제1공화국시대 제주교육행정사 연구」, 『백록논총』 제1권.; (1998), 「조선조 제주도 기술교육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0권.; (1997),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제18권.; (1997), 「미군정기 제주교육」, 『탐라문화』 제17권.; (1997),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19권.; (1996), 「탐라국의 유학수용 연구: 제주교육의 정체성 규명을 위하여」, 『한국교육사학』 제18권.; (1995), 「

특히 양진건은 유배인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을 치밀하게 탐구하여 밝혀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제주 오현의 중심인물인 송시열에 대해서는 그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연구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송시열이 제주에 끼친 영향을 엄밀하게 밝혀내는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2. 동향과 과제

선행 연구를 송시열과 제주교육으로 나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송시열 관련 연구의 측면에서 보자면, 첫째, 송시열에 대한 연구는 철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정치학적 접근이나 문학적 접근도 적지 않았으나 철학적 접근이 압도적이었다. 둘째, 송시열 탄생 400주년인 2007년을 전후로 송시열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풍성해

-
-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4권.; (1994), 「제주 우도의 교육: 해방 이후」, 『탐라문화』 제14권.; (1992),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육사상 연구」, 『제주도연구』 제9권.; (1992), 「조선조 제주도 교육시설」, 『탐라문화』 제12권.; (1992), 「일제 하 제주도 초등학교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권.; (1991), 「제주도와 충승의 전통교육 비교」, 『탐라문화』 제11권.; (1990),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23권.; (1988), 「제주 오현의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7권.; (1986),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 도통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권.; 양진건·현은선(2014), 「추사 김정희 제주유배기록에 나타난 화목의 교육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제17권.; 양진건·강동호(2014),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4권.; (2014),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 제35권.; (2013),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35권.
- 60) 김해영·김유리(2012)
 - 61) 오송희(2001), 「조선후기 제주향교 운영실태」, 『제주도사연구』 제10권.
 - 62) 김유리(2012), 「규창 이건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제20권.; (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제40권.
 - 63) 김인기(2011), 『조선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4) 양은숙(2012),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5) 강동호(2016),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52권.; (2013),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동호·양진건(2016), 「동계 정온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교육사학연구』 제26권.; (2015),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연구」, 『탐라문화』 제48권.

졌다. 이전에는 송시열을 완고한 사대주의자로서 조선의 쇠망을 앞당긴 인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송시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교육 관련 연구의 측면에서 보면 관찬 연구와 개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관찬 연구는 기록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근·현대 교육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선시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의 교육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 연구는 조선시대 교육을 분석하는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되었다. 특히 제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주 중심의 관점에서 지방사를 서술하려는 주체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중앙 중심의 일방적 역사 이해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역사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역사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선행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려고 한다. 첫째, 송시열이 사상가이자 정치가적인 면모가 강하기는 하지만 교육에 기여한 바도 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육학적인 접근이 적었기에 그의 교육자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는 접근을 할 것이다. 둘째, 송시열이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가 미쳤던 교육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나 역사적 서술이 적은 관계로 밀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가 남긴 저작을 살핍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교육적 의의를 추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송시열의 가족, 문인 등이 남긴 글과 사실(史實)에 기초하여 그가 끼친 교육적 영향의 정도를 가늠해 볼 것이다.

Ⅲ. 제주 도착 전 저술활동

송시열은 1689년 1월 29일「기사년 2월에 올린 소」를 올려 숙종의 원자 정호가 너무 이르다고 비판하였다가⁶⁶⁾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2월 3일 유배형에 처해졌다.⁶⁷⁾ 2월 8일 고향을 떠나 3월 4일에 제주에 이를 때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시와 편지를 많이 쓴 편인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소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 제주로 오는 동안에도 학문적 탐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 서문 두 편을 쓰기도 했고 스승 김장생에게 작별 인사를 담아 축문도 올렸다.

<표 4> 제주 도착 전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시	「탐라로 가는 배에서」	『송자대전』 제2권
2	시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송자대전』 제2권
3	시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4	시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5	시	「암각시문」	양순필(1992)
6	소	「기사년 2월에 올린 소」	『송자대전』 제20권
7	소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송자대전』 제20권
8	소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	『송자대전』 제20권
9	편지	「송도원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70권
10	편지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113권
11	편지	「정훈원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15권
12	편지	「아들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5권
13	편지	「은석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6권
14	편지	「무원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8권
15	잡저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자대전』 제136권
16	서문	「화포집서」	『송자대전』 제139권
17	서문	「주자대전차의서」	『송자대전』 제139권
18	축문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66) 『宋子大全附錄』 제11권.

67)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 2월 3일(신축)」.

1. 시(詩)

『송자대전』에는 시가 제1권에서 제4권까지 실려 있다. 제1권에는 부(賦), 오언 고시, 칠언 고시가, 제2권에는 오언 절구, 칠언 절구가, 제3권에는 오언 율시, 오언 배율이, 제4권에는 칠언 율시가 담겼다. 논자는 아래에서 『송자대전』에 실려 있는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탐라로 가는 배에서」

송시열은 같은 제목의 시를 두 편 남겼다. 두 편 모두 유배지를 향하는 배 위에서 지은 시로 송시열의 외로운 심사가 잘 묻어나 있다.

쫓기는 나그네 외로운 배로 떠나니
큰 물결 만 리에 깊어라
평생에 충의를 지켰으니
우제묘(虞帝廟) 찾을 필요 없구려⁶⁸⁾

첫 번째 시에서는 쫓겨나는 신하의 외로움이 드러나나 평생에 걸쳐 충의를 지킨 자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난다. 한유(韓愈)가 조주(潮州)로 유배 갈 때 그곳에 전염병이 돈다는 얘기를 듣고 순임금을 모신 우제묘(虞帝廟)에 들러 자신의 무사 안녕을 빌었다. 송시열은 한유를 떠올리며 자신은 운명을 탓하지도,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드러냈다.

두 번째 시에는 공자가 바다에 가려고 했던 일과 정자가 유배 길에 풍랑을 만났던 고사를 되짚었다. 풍랑 속에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할 때 정자만이 태연자약하였다.

공자께서는 바다에 뜨려 했고
부옹도 염여의 시절 있었지

68) 『宋子大全』 제2권, 「耽羅舟中」, “逐客孤舟去 鯨波萬里深 平生仗忠義 虞廟不須尋.”

천추에 서로 느끼는 뜻을
오늘날 그 누가 알라⁶⁹⁾

위에서 부옹(涪翁)은 정이(程頤)을 가리키는데 그가 부릉(涪陵)에서 귀양살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부릉은 현재 충청시 푸링구다. 정이가 부릉으로 갈 때 염여(鹽潁)를 건너는데 파도가 심하게 일었다. 염여는 현재 충청시 평제현에 있는 양자강 상류를 가리킨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정이만이 고요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자 강기슭에서 있던 나무꾼이 “목숨을 버릴 생각에서 그런 것인가, 이치를 통달해서 그런 것인가[舍去如斯 達去如斯]”라며 감탄하였다 한다. 송시열은 공자와 정자의 뜻을 자신이 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보는 점을 안타까워하는 외로움을 토로했다. 강대수(姜大遂)는 제주 오현의 한 사람인 정온(鄭蘊)을 기리며 만시(輓詩)를 지었다. 여기에서도 정이의 고사를 빗댄 시구가 나온다.

삼광과 오악의 융결된 기운이
사람에 모여 우리 공이 태어나니
큰 물결에 지주처럼 우뚝 섰다가
제주 바다에 귀양객이 되었다네
천하에 나쁜 기운 시원히 걷히어
군신 간의 마음이 다시 깊어지니
바른 언론은 대궐을 요동시켰고
끝은 도리는 충정을 다했네
역경을 만남이 어찌 이리 잦던가
외로운 충정은 애통한 일이었네
조용히 흰 칼날로 배를 찢었으니
창천에 물어봐도 당당한 마음이네
목숨을 버릴 때에 학력을 알겠고
온전히 보존하여 부끄럽지 않더니
아 현인이 용사의 해를 맞게 되어

69) 『宋子大全』 제2권, 「耽羅舟中」, “孔聖思浮海 涪翁鹽潁時 千秋相感意 今日有誰知.”

나라는 병들고 봉황은 떠나 버렸네
 북두성 구르고 은하수 기우는 새벽
 산이 높고 물이 긴 듯한 유풍이라
 맑은 시냇물에 젖은 눈이 어리나니
 국가를 부지한 고금의 오동이라네⁷⁰⁾

정은은 영창대군의 죽음을 비판하다 제주로 유배되었고 인조가 청에 항복하는데 반발하여 자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주로 바다를 건널 때 큰 파도가 치는데도 흔들림이 없었고 청에 굴복하자 흰 칼을 들어 배를 가르려고도 했을 만큼 꺾은 자세를 흘트리지 않았다. 기개는 학문을 닦은 데서 나온 것으로 강대수는 정은의 행위를 정이가 염여를 건널 때 보인 태연한 자세에 비길만한 것이라고 칭송한 것이다. 그래서 정은은 제주 오현으로 추앙받았고 1691년(숙종 17년) 봄에 제주 유생이 서울로 와서 정은의 손자 정기윤(鄭岐胤)을 찾아 굴림서원에 보관하기 위한 정은의 문집을 구하기도 하였다.⁷¹⁾

2)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송시열은 제주로 오는 중에 2월 17일 정읍에서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에게 시를 지어 보냈다. 이단하는 손자 송회석, 박세채는 손자 송순석의 장인으로 두 사람 모두 『맹자』 호연을 놓고 송시열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던 학문적 동지이기도 했으나 송시열과 달리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서서 불화하는 봉당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송시열과 적극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지 않았기에 송시열은 그들을 설득하려고 이 시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위로는 주자를 아래로는 울곡을 위해
 폐단을 제거코자 마음을 다했는데

70) 姜大遂, 『桐溪集續集』 제2권, 「輓詩」, “光嶽扶輿氣 於人鍾我公 洪濤砥柱立 瀛海客途窮 宇宙氛仍豁 君臣契更融 危言動紫極 直道罄丹衷 逆境遭何屢 孤忠事可憫 從容蹈白刃 肝膽質蒼穹 舍去方知學 全歸未愧終 嗟賢蛇在歲 瘁國鳳藏空 斗轉河斜夜 山高水遠風 清溪映淚睫 扶鼎古今桐.”

71) 『桐溪集』, 「桐溪先生文集年譜」.

이제 탐라국을 향해 떠나면서
영릉 바라보고 효종 생각에 울었다네⁷²⁾

송시열은 학문적으로는 주희와 이이를 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효종과 같은 곳을 지향했다고 적는다. 도통을 이어 윤휴와 윤증을 비판하였으나 오히려 탄핵되어 유배길에 오르게 되자 안타까운 심정을 담았다. 영릉은 효종이 묻힌 곳으로 존주 대의와 복수설치를 위해 복벌을 꿈꿨으나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해 한스러움이 깊었다.

3)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송시열은 강진에 이르러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르려 하였으나 풍량이 심했다. 만덕사에 거처를 정한 송시열은 풍량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광일, 박중회를 비롯하여 인근에 살던 문인들이 찾아왔다. 그는 만덕사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 그들과 학문적 토론을 벌였다. 이 시는 그 때 박광일의 시를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당년의 장한 뜻 철갑으로 옷을 삼고
창 잡아 해 향해 내두르려 했었지
임금께서 홀연 천상으로 가시니
울면서 남기신 편지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갔네⁷³⁾

이 시에서 송시열은 효종과 함께 복벌 계획을 세웠던 일을 기리고 있다. 2행은 노나라 양공의 고사를 빌렸다. 춘추 시대 초 평왕(楚平王)의 아들 노 양공(魯陽公)이 한(韓) 나라와 싸우는데 해가 저물자 창을 잡아 휘두르니 해가 90리를 물러섰다고 한다. 송시열은 효종과 함께 뜻을 철갑처럼 굳건하게 하고 노 양공이

72) 『宋子大全』 제2권, 「耽羅道中寄示畏齋玄石(朴世采 己巳二月十七日 行到井邑川原驛作)」, “上爲 閩翁下栗翁 要除弊事罄愚衷 如今却向耽羅去 回望寧陵泣孝宗(孝廟嘗教曰 明天理 正人心 吾責也 今日與我共此者 捨卿其誰乎)”

73) 『宋子大全』 제2권, 「萬德寺次朴生韻」, “當年壯志鐵爲衣 擬把金戈向日揮 龍馭忽然天上去 泣將 遺札故山歸”

해를 향해 창을 던지던 기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효종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효종이 전한 어찰만을 간직한 채 귀향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적었다.

4)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송시열이 만덕사에서 머물 때 안여해(安汝諧)도 함께 했다. 송시열은 그의 시를 차운하여 이 시를 지었다.

음은 호리고 양은 맑아 함께할 수 없고
구름의 용과 진흙의 돼지 길이 같을 수 있는가
선창에서 하룻밤 꿈 깨고 나니
가소롭구나 괴안(槐安)이 상도(上都)가 되었네⁷⁴⁾

송시열은 이 시에서 그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당파성을 드러낸다. 당쟁은 더 이상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정치적 투쟁이었다. 이미 한 차례 유배를 거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경험을 했던 송시열로서는 이성적 토론에 근거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음과 양이 함께 할 수 없고, 용과 돼지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존재다. 주체를 정(正)으로, 타자를 반(反)으로 인식하는 흑백논리가 시 전체를 관통한다. 그런데 절에서 잠이 깨니 이단이 정도가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 모든 것이 남가일몽처럼 허무하게 느껴지는 외로운 심사를 담았다.

5) 「암각시문」

송시열은 백련사에서 6일 동안 머무르면서 바람이 잦기를 기다렸으나 순풍이 불지 않아 3월 1일 그냥 제주를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풍량이 일어 소안도에 배를 댔다. 2일에는 소안도에 머물며 바람이 자기를 기다리다가 3일에 다시 배에 올라서 4일에 제주로 왔다.⁷⁵⁾ 그런데 송시열이 머물렀던 곳은 소안도가 아니라

74) 『宋子大全』 제2권, 「萬德寺次安生韻」, 「陰濁陽清莫與俱 雲龍塗豕豈同途 禪窓一夢居然罷 可笑槐安作上都.」

75)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崇禎62年 己巳」.

보길도일 수도 있다. 송시열이 승선을 기다리며 지었다는 시가 보길도 바위 위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위에 새겨 넣었다고 하여 「암각시문」이라고 한다. 보길도는 고산 윤선도가 만년을 보냈던 곳으로 유명하다. 송시열과 윤선도는 제1차 예송논쟁에서 극렬하게 부딪히고 송시열이 승리한다. 평생에 걸친 정적이었으면서도 송시열이 병에 걸렸을 때 의학으로 유명했던 윤선도에게 약을 청했고, 윤선도가 비상(砒霜)을 처방했는데 송시열은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하여 병을 치료했다. 그의 강직함이 잘 드러나는 고사다.

팔십을 넘은 늙은이가
푸른 파도 만리 속에 있네.
말 한마디가 어찌 큰 죄리오마는
세 번 내쫓기니 또한 궁하다 하겠네.
북녘 대궐 하늘을 뒤돌아 보았건만
남쪽 바다에는 다만 계절풍만 부네.
담비털옷을 내리셨던 옛 은혜 새기면서
외로운 충의에 북받쳐 눈물만 흐르네.⁷⁶⁾

늙은 몸으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말 한 마디에 제주까지 유배되는 형벌이 지나치다고 한탄한다. 윤희 또한 죽음을 당하면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남겼다. 숙종에 대해서는 원망하면서도 담비 갓옷을 내려주었던 효종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고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나치게 솔직하게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송자대전』에 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시를 시간적 순서로 정리한다면,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2월 17일,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와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2월 26일, 「암각시문」 3월 2일 그리고 「탐라로 가는 배에서」 3월 3일에 쓴 것으로 나열할 수 있다.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에서는

76) 양순필(1992), 「우암 송시열의 제주유배시 소고」, 『백록어문』 제9권, p.82. “八十三歲翁 蒼波萬里中 一言胡大罪 三黜亦云窮 北極空瞻日 南溟但信風 貂裘舊恩在 感激泣孤衷.”

자신의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유배형이 부당하다는 뜻을 내비친다.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에서는 좌절된 복벌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에서는 이단 세력이 정치를 농단하는 세태를 한탄한다. 「암각시문」으로는 늙은 몸으로 귀양길에 오른 회한을, 「탐라로 가는 배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직한 자세를 보였다.

송시열이 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학문이 지향해야 할 바,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배형을 받은 죄인의 처지이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바는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자세는 수양론 및 인성교육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다.

2. 소(疏)

송시열은 제주로 가면서 소를 올렸다. 「기사년 2월에 올린 소」에서는 원자 정호가 너무 이르다고 비판하다 유배형에 처해졌다. 고향을 떠나면서 지은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쓴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는 효종과 명성왕후의 편지를 조정에 올리려고 썼다. 특히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에서는 그가 기해독대에서 효종과 나눴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았다.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에 「기사년 2월에 올린 소」와 함께 효종과 명성왕후의 편지를 올리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 편 모두 효종과 명성왕후의 편지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와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는 『숙종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기사년 2월에 올린 소」

「기사년 2월에 올린 소」는 1689년 2월 1일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 송시열이 쓴 것은 1월 29일이었고 숙종이 읽은 것이 2월 1일이었다. 보통 왕자의

명호가 5-8세 사이에 정해지는데 숙종은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때에 세자로 삼겠다고 나섰다. 더군다나 후궁 소생이어서 대군도 아니었다. 그래서 송시열은 세자 책봉이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였다. 이 소로 인해 송시열은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된다.

앞드려 말씀드리건대, 신이 선정(先正) 신 성혼(成渾)의 일을 위하고 또 신의 아버지 신 송갑조(宋甲祚)의 원통함을 위해서 천지 부모 전에 신원(伸冤)을 아뢰고자 하여 소(疏)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삼가 전하께서 대명령(大命令)이 있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문(敎文)이 발표됨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백 리(百里)를 갔습니다. 지금 또 들으니, 성명(聖明)께서 참언(讒言)을 물리치고赫然(赫然)히 위단(威斷)하셨다고 하기에, 신은 거의 죽게 된 중에도 벌떡 일어나, “이것은 참으로 석개(石介)가 이른바, 성덕(聖德)의 일이다.” 하였습니다.⁷⁷⁾

송시열은 원래 성혼과 선친 갑조의 신원을 위해 소를 썼다가 숙종이 대명령, 즉 원자 정호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를 새로 쓴다. 송 인종이 여이간(呂夷簡), 하송(夏竦) 등을 파직시키고, 두연(杜衍), 안수(晏殊), 범중엄(范仲淹), 구양수(歐陽脩) 등을 진용(進用)하게 하자 태자 중윤(太子中允) 석개(石介)가 경력성덕시(慶曆聖德詩)를 지어 칭송한 일을 빌어 숙종이 올바른 인사를 등용하기를 바랐다. 경력성덕시는 현인을 등용하면 다른 현인도 이에 따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시열은 송 신종의 고사를 들어 숙종의 원자 정호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원자 정호가 너무 이르다는 것이었다.

옛날 송 신종(宋神宗)이 나이 28세에 곧 철종(哲宗)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후궁(後宮) 주씨(朱氏)였습니다. 그러나 횡거(橫渠) 장자(張子)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므로, 정자(程子)가 그의 공정한 충성을 아름답게 여겼고, 주자(朱子)와 여동래(呂東萊)가 한천정사(寒泉精舍)에서 함께 편집한 『근사록(近思錄)』에

77) 『宋子大全』 제20권, 「己巳二月疏」, “伏以臣爲先正臣成渾事 又爲臣父臣甲祚之冤 欲以伸白於天地父母之前矣 疏既成而旋伏聞 殿下有大命令 至於敎文日行百里 今又聞聖明聖殄 威斷赫然 臣於垂死之中 蹶然以爲此眞石介所謂聖德事也.”

표장(表章)했으니, 대저 장자, 정자, 주자, 여동래가 전후하여 한 가지 뜻이었던 것은 종사(宗社)를 위한 마음이 천리(天理)의 정(正)에 순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리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인심이라 하여 또한 어찌 틀림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초순에 지금 영상(領相) 신 김수흥(金壽興)이 글을 급히 보내며 신에게 알리기를, “후궁(後宮)에 왕자(王子)의 경사가 있다.” 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일전에 매양 함께서 걱정했던 터이므로 사민(士民)에게 속히 알리고자 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은 힘이 빠져 정신이 혼몽하고 귀가 어두운 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입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그 욕이 듣건대, 제신(諸臣) 중에서 위호(威號)가 너무 이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철종(哲宗)은 열 살이었으나, 번왕(藩王)의 자리에 있었는데, 신종(神宗)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太子)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대개 가왕(嘉王)과 기왕(岐王)의 협逼(嫌逼)이 있었는데도 이와 같이 우유부단(優柔不斷)하였던 것은 제왕(帝王)의 큰 거조(舉措)는 항상 여유있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협逼의 염려가 있지도 않음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 신하에게서, 정후(正后)에게 경사가 있으리라는 말이 있는 것은 대개 일에 앞서 주밀(周密)하고 상진(詳盡)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이것은 중종조(中宗朝) 언호(彦浩)의 말과 서로 비슷하나, 저 사람은 간사하고 이들은 정당합니다. 저 사람은 신씨(愼氏)의 복위(復位)를 저지하고자 하여 공교한 말을 해서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원인을 만들었으나, 이들은 종묘사직(宗廟社稷)을 위하여 ‘혹 그렇게 될는지.[惑然]’ 하는 염려를 해서입니다. 지금 만약 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 말을 공격한다면 크게 잘못입니다.⁷⁸⁾

숙종이 경종을 30세에 얻은 것처럼 신종은 28세에 철종(哲宗)을 낳았다. 경종의 어머니가 후궁 장씨였던 것처럼 철종의 어머니도 후궁 주씨(朱氏)였다. 철종이 탄생하자 장재(張載)가 매우 기뻐했다. 장재는 중국 북송(北宋) 중기의 학자로서

78) 『宋子大全』 제20권, 「己巳二月疏」, “昔 宋神宗年廿八 乃生哲宗 其母後宮朱氏也 橫渠張子聞而喜甚 則程子美其公忠 而朱子呂東萊表章於寒泉之編 夫張程朱呂之前後一揆者 爲宗社純乎天理之正也 既曰天理 則今日人心 亦豈有異同哉 去年十一月之初 今領相臣金壽興 走書以報於臣曰 後宮有王子之慶 蓋於日前 每同憂虞而欲士民速知也 臣於委頓昏聩之中 不覺心忤而口噓也 至於今日竊聞諸臣有位號太早之說 蓋哲宗十歲 而尚在藩王之位 至於神宗有疾 而始冊爲太子 時有嘉岐二王之嫌逼 而猶且如此優游者 以帝王大舉措 常貴於于也 況今日無有嫌逼之慮耶 今日諸臣有正后有慶之說者 蓋有先事周詳之慮也 此與中宗朝彥浩之說相似 而彼邪而此正 彼則欲沮愼氏之復而巧爲之說 以己己卯之禍 此則爲宗社爲或然之憂也 今若持彼說以攻此說 則大謬矣.”

『정몽(正蒙)』에서 송나라 최초로 ‘기일원(氣一元)’의 철학사상을 전개했다. 우주의 만유(萬有)는 기(氣)의 집산에 따라 생멸·변화하는 것이며 이 기의 본체는 태허(太虛)로서, 태허가 곧 기라고 설파하였다. 정호와 정이는 장재가 기빠한 바를 긍정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이었다고 기렸다. 이 두 형제는 불가나 도가에서 나타나는 이(理)의 개념을 성리학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모든 존재의 기초가 되는 보편적 법칙이다. 또한 동래 여조겸(呂祖謙)과 주희는 『근사록(近思錄)』을 엮으며 정호와 정이의 일을 기록하였다. 여조겸은 주희, 장식과 함께 동남삼현(東南三賢)으로 불리며 폭넓은 학식을 자랑했다. 송시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종사를 위한 마음이 천리에 부합했을 뿐 아니라 인심에도 어울렸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왕자가 태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신도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적는다.

그러나 송시열은 원자 정호는 너무 이르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송 신종의 사례를 다시 거론한다. 신종은 철종을 낳았으나 번왕(藩王)의 자리에 두었다가 자신이 병이 들자 비로소 태자로 삼았다. 철종은 열 살이 넘어서야 태자가 되었던 것이다. 신종의 아우인 가왕(嘉王)과 기왕(岐王)이 견제를 하였으나 신종은 서들지 않았다. 그러나 숙종에게는 견제 세력도 없고 정후, 즉 중전이 왕자를 낳을 가능성도 있으니 세자 책봉을 서두르는 것이 송시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신하들의 논리는 중종조의 언호를 비롯한 무리들이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반대했던 주장과 비슷했다. 단경왕후는 중종의 정비였다. 아버지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고 중종반정 당시 반정파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반정파가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사저를 찾았을 때 떨고 있던 남편을 달래며 반정을 지원했던 신씨였으나 반정파는 반정이 성공하자 왕후의 폐위를 주장했고 7일 만에 폐위를 이뤄냈다. 그런데 1515년 계비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은 후 사망하자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이 신씨의 복위를 주장했고 훈구파는 반대했다. 송시열은 훈구파의 주장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했고, 반면에 자신을 비롯한 서인의 세자 책봉 반대는 그런 이해(利害)에서 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훈구파는 끝내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송시열로서는 사화를 통해 선비들을 도륙했던 훈구파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둘째, 송시열은 제1차 예송논쟁에서 부딪혔던 허목의 주장의 허구성을 논파한다. 허목의 상소가 오히려 왕위를 혼드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기억하건대, 이전에 허목(許穆)의 예론(禮論)이 제례자(制禮者)의 본의와 틀리는 것이 있기에 신이 선대왕(先大王)의 하문(下問)을 받아 감히 예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의논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허목이 또 상소(上疏)하여 국본(國本)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올렸으니, 그때에 전하께서 춘추 이미 두어 살이 되셨는데 허목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온 조정이 놀라고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고(故) 상신(相臣) 정태화(鄭太和)가 진언하기를, “원자가 탄생되신 때는 바로 국본이 이미 정해진 날입니다. 이미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베풀고 팔방(八方)에 반사(頒赦)하였는데, 이제 이 허목의 소에 국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을 하였으니, 신은 그 뜻의 소재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쓰이지 않았습니 다. 그 뒤에 적휴(賊讎) 등이 아울러 허목의 말을 인연해서 남몰래 화의 기틀을 돈우어 마침내 지금 영사(領事) 신 김수항(金壽恒) 이하를 쫓아냄으로써 역적 허견(許堅)의 모의가 더욱 방자해졌습니 다.⁷⁹⁾

송시열은 제1차 예송논쟁이 벌어졌을 때 허목이 상소를 올려 숙종이 이미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한 일을 거론했다. 당시 정태화가 원자가 탄생하면 바로 국본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허목의 상소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결국 송시열은 굳이 세자 책봉을 서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본은 정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허목의 의견은 윤희를 거쳐 허견(許堅)으로 이어졌다. 그의 아버지 허적(許積)은 제2차 예송논쟁에서 승리하여 김수항을 비롯한 서인을 축출하고 남인의 영수가 되었다. 송시열은 허목의 주장이 왕위를 혼드는 불손한 주장이었던 것처럼 윤희, 허견으로 이어진 남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79) 『宋子大全』 제20권, 「己巳二月疏」, “又記昔年 許穆禮論 有異制禮者之本意 臣承先大王下詢 敢論禮意之不然矣 其後 穆又上疏 進國本未定之言 當時殿下已衣若干尺矣 而穆言如此 舉朝驚惶 莫知如何矣 故相臣鄭太和進言曰 元子誕生之辰 卽國本已定之日也 今已告廟陳賀 頒赦八方 而今此穆疏 乃以國本未定爲言 臣未知其意之所在也 由是 其言不售矣 其後賊讎等竝緣穆言 潛挑禍機 竟逐今領事臣金壽恒以下 而逆堅之謀益肆矣.”

송시열은 을사사화도 거론했다.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비롯한 대운파가 득세하였고, 인종은 유관(柳灌), 이언적(李彦迪) 등 사림의 명사들을 증용했다. 당시 송시열의 종증조인 송인수는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소운파인 윤원형과 윤원로를 탄핵했다. 그러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형을 비롯한 소운파가 득세하면서 이기(李芑)와 허자(許磁) 등이 중심이 되어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운파 함께 했던 사림파를 제거하였다. 송인수 역시 이 때 사사되었다.

그리고 인종(仁宗)이 후사(後嗣)가 없었으니, 당시의 천위(天位)가 명종(明宗)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마는, 이기(李芑)와 허자(許磁) 등이 ‘명종이 눈을 시물(視物)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 신하들이 싫어한다.’는 말을 지어내어 사류(士類)를 도륙(屠戮)하기에 이르렀는데, 신의 종증조 대사헌 송인수가 그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신이 그때의 야사(野史)를 읽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⁸⁰⁾

윤원형, 이기, 정순봉 및 임백령과 더불어 을사오적으로 꼽히는 허자는 허목의 증조다. 반면 송인수는 송시열의 종증조다. 송시열은 허목을 외척을 비롯한 훈구파의 계승자로, 자신은 송인수를 비롯한 사림파의 후계자로 대립적 구도를 세운 다음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시열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롯한 서인들의 마음은 장자, 정자, 주자 및 여조겸의 마음과 같으므로 자신의 진심을 헤아려 주기를 기원하였다. 자신을 주자를 중심으로 한 도통의 계열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요즈음 성명(聖明)께서 비록 참소하는 사람을 통렬히 배척하시지만 이것을 계승하여 사특한 마음을 부릴 길을 찾을 자가 있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으며, 성명이 위에 계시어 스스로 그러한 걱정이 없기는 하나 참소하는 사람의 종자가 천만세(千萬歲)의 뒤에 일어나지 않을 줄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참설(讒說)이

80) 『宋子大全』 제20권, 「己巳二月疏」, “且如仁廟無嗣 當時天位不歸於明廟而何歸乎 而芑磁等做出廷臣不喜 聞明廟眼視物之言 以至士類屠戮 而臣從曾祖大司憲麟壽爲之首臣 每讀其時野史 不覺痛哭而流涕也.”

여러 번 거듭하면 자모(慈母)도 복을 던지게 되고 세 사람의 말은 호랑이를 만들어 내는 법이오니, 옆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오늘날 제신(諸臣)들의 마음도 장자(張子), 정자(程子), 주자(朱子), 여동래(呂東萊)의 마음과 같지 않음이 없다고 생각하시어 ‘정후(正后)께서 혹 그렇게 될는지’ 하는 말이, 기묘년의 화를 기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과 다르다고 여기신다면, 종묘사직에 다행한 일이며 신하와 백성에게도 다행한 일입니다.⁸¹⁾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종이 철종을 얻었을 때 장황거가 기뻐했고, 정자는 그의 충정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주자와 여조점은 『근사록』을 편집할 때 그 일을 표창하였다. 송시열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참철을 거듭해서 듣다보면 증자의 어머니도 아들을 믿지 못했고, 위왕(魏王)도 호랑이가 시장에 나타났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는 고사를 빌어 자신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말라고 숙종에게 당부하였다.

2)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이 상소문은 2월 8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연보에 따르면 송시열은 제주로 떠나면서 아들 송기태에게 효종의 수찰을 바치게 했기 때문이다.⁸²⁾ 송시열은 1657년 11월에 효종에게서 밀유(密諭)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 여러 차례 밀유를 받았으나 태워버리라는 명 때문에 간직하지 못했다. 송시열은 우선 효종의 수찰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적는다. 효종의 수찰을 여러 차례 받았고, 여러 차례 사대(賜對)한 일을 비롯하여 독대를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임을 드러내고 여러 대에 걸쳐 충성된 마음을 변치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효종이 송시열에게 보낸 밀유는 1659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보낸 3통이 남아있는데 1694년 윤5월 11일이 되어서야 숙종의 명을 받고 송시열의 아들 송기태가 상소문 세 벌과 명성왕후의 언문 편지⁸³⁾ 한 폭을 함께 바치게 되었다.⁸⁴⁾

81) 『宋子大全』 제20권, 「己巳二月疏」, “今者聖明雖痛斥讒人 而安知不有繼此而求逞者耶 聖明在上 自無其憂 而讒人種子 安知不起於千萬歲之後乎 慈母投杼 三人成虎 伏望殿下以張程朱呂之心 謂今日諸臣之心 無不如此也 以正后或然之說 爲異於己卯基禍之心 則宗社幸甚 臣民幸甚.”

82)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崇禎62年 己巳」.

83) 『宋子大全拾遺』 卷首, 「明聖大妃諺札」, “선도례우흐오시던원노대신으로늑칠년을멀니가간관만 스지여의다시드러오서 연석의드르시니그비감흐온말어이다니리잇가듯즈오니수이도라가려흐

치사(致仕)한 봉조하(奉朝賀) 신 송시열은 황궁히 머리를 조아려 삼가 백 번 절하고 주상 전하께 말씀을 올립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대, 정유년에 소신이 모상(母喪)을 겨우 벗은 뒤에 성조(聖祖)의 밀물(密勿)하신 교지가 혹 때로 내려왔으나 외인(外人)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하여 반드시 곧바로 불태우게 하셨으므로, 비록 차마 못할 바가 있었으나 또한 감히 명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무술년(1658, 효종9) 7월에 명을 받고 조정에 나올 때에 직산(稷山)에 도달하여 성후(聖候)가 조금 편안치 못하시다는 소식을 들었고, 진위(振威) 회도원(希道院)에 이르니, 경기 감사 신 이일상(李一相)으로 하여금 신에게 빨리 들어오도록 하라고 유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창황하게 빨리 달려 성 밖에 도착하였는데, 도승지 신 김좌명(金佐明)으로 하여금 성후가 편치 못하여 곧바로 인견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유시하셨습니다. 그 뒤에 제신(諸臣)들을 따라서 등대(登對)하게 하셨으나 조섭(調攝)하시는 데에 해로울까 두려워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기해년(1659, 효종10) 봄에는 자주 사대(賜對)를 하셨는데, 하루는 제신들이 물러 나갈 때에 신에게 명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한 승지와 사관을 나가게 하시고, 또 환시(宦侍)들로 하여금 좌우(左右)의 문달(門闌)을 활짝 열어 놓게 하신 다음 그들을 꾸짖어 물러가게 하고는 하교하시기를, “대양 송 효종(宋孝宗)이 장남헌(張南軒)을 악대(幄對)하던 일을 의거하고자 하였으나, 인심(人心)이 시끄러워 꺼리지 않을 수 없기에 뜻대로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그와 같이 하노라.” 하시고, 이어 대화할 시간을 내려 주시고 여러 시간이 되어서야 곧 파했습니다. 그 뒤에도 비록 비밀의 유시가 있었으나 반드시 소각하게 하기를 전과 같이 하셨습니다.⁸⁵⁾

신다호오니 주상도간절하야머르시과터히시거니와즉금변턴이공극하고 국개위의호고민싱이원 괴만스은디 너던상스조차나시니 주상도저모신사람이만괴를당하야근로호는양이민망호오니이제 켜경스툐유종중망으로누도은혜를넘어겨시니엇디쉴티고가시리닛가서울집이겨을이서어호읍거니 와부디성너의드러와머르소서미망인이도가의참여호는일이업스오디녕부식지금드러오지아니호 시니 주상이기드리지못하야히시미김석연하야면유하라호는이다 경신십이월이십이일오시 년유.”

84) 『肅宗實錄』 제26권, 「숙종 20년 윤5월 11일 정축 3번째 기사」.

85)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致仕奉朝賀臣宋時烈 誠惶誠恐頓首頓首 謹百拜上言于主上殿下 伏以粵自丁酉歲 小臣母喪纔去之後 聖祖密勿之教 時或下來 然不欲外人知之 必令即付炎火 故雖有所不忍 而亦不敢違命矣 戊戌七月 承命赴朝 行到稷山 微聞聖候違豫 至振威希道院 則使京畿監司臣李一相 諭臣疾速入來矣 臣蒼黃疾馳 進至城外 則使都承旨臣金佐明 諭以聖候苦惱 未即引見之意 其後俾隨諸臣登對 而以恐妨調攝 未嘗淹晷而退 己亥春 頻數賜對 一日諸臣退出之時 命臣留身 亦使承旨史官出去 又使宦侍洞開左右門闌 然後叱使屏退下教曰 每欲依宋孝宗幄對張南軒事 而人心嘵嘵 不能無顧忌而未果也 今始爲之矣 仍賜酬酢 移晷乃罷矣 其後雖有密諭 必使即火如前矣.”

특히, 송시열은 송 효종이 남헌(南軒) 장식(張栻)과 북벌을 논했던 것처럼 성조(聖祖), 즉 효종과 독대하여 북벌을 논했던 일을 강조한다. 송 효종은 남송의 두 번째 황제였는데 선대 송 고종과 달리 항상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벌을 준비했다. 즉위 직후 주화파를 배척하고 주전파의 핵심인 장준(長浚)을 재상으로 등용했다. 그의 아들 장식 역시 대표적인 주전론자였다. 그래서 송 효종은 장식과 악대(幄對), 즉 휘장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친 다음 후금을 치기 위한 북벌을 논했다. 그런 고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효종과 북벌을 논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려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악대설화(幄對說話)」⁸⁶⁾를 지어 이때 효종과 나눴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두기도 하였다.

송시열은 선대왕인 현종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적는다. 효종이 내린 수찰을 현종이 받아 송시열에게 건넸다.⁸⁷⁾

그해 4월에 선대왕으로 하여금 궁중의 깊은 곳에서 서연(書筵)을 열게 하시고, 이어 지금 올린 수찰을 내려 주셨는데, 또한 환시(宦侍)를 물리치셨으므로 그간에 있었던 곡절에 대하여는 절대로 본 자가 없으며, 대체로 돌아와서 비밀리에 대답할 말을 썼으나 초고를 절반도 작성하지 못해서 성후(聖候)가 크게 악화되시어 허둥지둥 달려들어가 제신들과 약로(藥爐)를 에워싸고 함문(閤門) 밖에 앉아 있자, 환시(宦侍)가 급히, “영상(領相)과 이판(吏判)은 들어오시오.” 하고 부르기에, 기력을 다하여 달려 들어가서 빨리 부르기를, “신등이 왔습니다.” 하였으나, 이미 옥음(玉音)은 들리지 않았으니, 아 애통한 일입니다.⁸⁸⁾

효종은 기해년 3월 11일 송시열과 독대하였고 그 해 5월 4일에 승하하였다.⁸⁹⁾ 조선시대에 독대는 기해독대 외에는 선조와 유영경, 숙종과 이이명의 독대 등이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아니었다.⁹⁰⁾ 그래서 효종도 독대를 자주 할 수 없었기에 당시 세자였던 현종에게 손수 서찰을 써서 비밀스럽게 송시열에게 전하도록 하였

86) 『宋子大全拾遺』 제7권.

87) 『宋子大全附錄』 제3권.

88)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其四月 使先大王開筵于深處 仍賜今所進手札 而亦屏宦侍 其間曲折 絕無見之者矣 蓋歸而密修對語 未及半藁而聖候大漸 顛倒趨入 與諸臣圍藥爐 而地坐於閤門之外 宦寺急呼曰 領相吏判入來 盡氣趨入 疾呼曰臣等來矣 而已不聞玉音矣 嗚呼痛哉.”

89) 『宋子大全附錄』 제3권.

90) 이덕일(2000), p.134.

다. 송시열이 효종이 내린 계책에 대한 답장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효종이 만 40세 나이로 급서하였다. 효종은 머리 위에 중기가 났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치료하지 않다가 4월 27일에야 처방을 받았다.⁹¹⁾ 그런데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송시열은 효종이 내린 밀찰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숙종에게 받치려고 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에게 유배령을 내리면서 사관을 시켜 밀찰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송시열은 도의상 사관에게 전할 수는 없고 손자 주석을 통해 올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수찰(手札) 안에는 불태우라는 말이 있지 않으므로 가슴에 간직하고 내려와서 명산(名山)의 암석(巖石) 사이에 감추어 두었는데, 이제 신더러 사관(史官)에게 부쳐 올리라 하셨으나 아, 이것을 어찌 감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올리겠습니까. 신이 마땅히 병이 조금 낫기를 기다려 몸소 나아가 직접 진달해야 할 것이나 스스로 생각건대, 천신(賤臣)의 병이 더욱 위독해져서 이 또한 조석(朝夕) 사이도 믿기 어려운데, 만약 다시 등대하다가 갑자기 먼저 죽게 된다면 끝내 성상(聖上)께서 거두어들이시는 지극한 뜻을 저버리게 되겠기에, 신이 감히 죽음을 참고 포복(匍匐)하여 겨우 현정(縣庭)에 나가서 삼가 손아(孫兒)인 전 현령(縣令) 신 송주석(宋疇錫)에게 부쳐 공경히 받들고 대궐(大闕)에 나아가 어디에 올리라는 성교(聖敎)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대개 천신의 손자 송주석은 외람되게도 은명(恩命)을 받아서 일찍이 시종(侍從)이 되어 가까이에서 모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으니, 신은 이미 몸소 올릴 수 없으므로, 그로 하여금 신을 대신하여 받들어 올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하게 남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몸소 올리지 못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친히 받들어 개탁(開壻)해 주소서. 인하여 생각건대, 교유하신 말씀이 보통 때와 달라서 천향(天香)이 아직도 엄습해 있으니 전하께서는 또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또한 신이 상신(相臣) 정재승(鄭載嵩)과는 대대로 구의(舊義)를 반드시 강명(講明)해야 할 줄을 알고 있으며, 또한 참판(參判) 신 이선(李選)이 만약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그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⁹²⁾

91) 『孝宗實錄』, 「효종 10년 기해(1659), 4월 27일(정사)」.

92)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今茲手札內 無有火之之語 故懷抱下來 藏之名山巖石間

송시열은 송주석이 밀찰을 올리면 직접 숙종이 읽어보기를 바랐다. 그리고 우의정을 지냈던 정재승과 밀찰에 담긴 뜻을 해석하고 싶은 생각을 드러냈다. 정재승은 효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정태화의 아들이어서 당색은 서인이었으나 성품이 원만해 숙종의 신임을 받았다. 이선(李選)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9년 기사환국에 기장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송시열은 배도(裴度)의 고사를 들어 자신이 밀찰을 올리려는 이유를 밝혔다. 배도가 죽음을 맞아 황제에게 받았던 옥대를 돌려 드렸던 것처럼 자신도 밀찰을 돌려 드린다는 것이다. 송시열이 어느 정도 죽음을 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 신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소를 함봉(緘封)하려니, 나랏일에 죽기가 이렇게 더딘 것만 한스럽습니다. 옛날 배도는 죽을 때에 임하여 선제(先帝)가 주었던 옥대(玉帶)를 되돌려 드리면서 말하기를, “감히 지하로 가지고 돌아갈 수 없거니와, 또한 감히 인간(人間)에 머물러 둘 수도 없습니다.” 하였으니, 대저 옥대 같은 보배 따위를 가지고도 배도는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이 수택(手澤)이야 어찌 감히 배도가 얻었던 보배 따위에 비교나 할 바이겠습니까.⁹³⁾

배도(裴度)는 당나라 사람으로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하여 헌종(憲宗), 목종(穆宗), 경종(敬宗), 문종(文宗) 4대에 걸쳐 조정의 중신이 되었다. 배도는 재상의 지위에까지 올랐는데 그것은 배도가 황제에게 받은 옥대를 돌려준 덕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송시열도 배도처럼 어렸을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인조, 효종, 현종 및 숙종 네 임금의 모셨다. 더구나 배도는 신유학의 선구인 한유(韓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헌종 황제에게 배불정책을 추

矣 今使臣付史官以上 噫 豈敢入襁以進者哉 臣所當俟病少間 躬詣面陳 而自念賤疾彌留 此又朝夕難恃 若復等待 湔先朝露 則終孤聖上徵取之至意 故臣敢忍死匍匐 謹就縣庭 謹付孫兒前縣令臣疇錫 敬奉詣闕 以俟聖教 俾進於何地 蓋賤息疇錫 猥蒙恩命 曾已侍從 昵侍甚久 臣既不能躬進 則使之替臣呈納 猶愈於入襁之苟簡也 臣不能躬進之罪 萬萬難贖矣 伏望殿下親自捧拆焉 仍念教語異常 天香猶襲 殿下亦何以爲心 亦知臣與相臣鄭載嵩 不可不世講舊義 亦知參判臣李選 若不以死報效 則其罪難貫也.”

93)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噫 臣血泣緘封 只恨褥蟻之此遲也 昔 裴度臨死 還納先帝所賜玉帶曰 既不敢將歸地下 則又不敢留在人間 夫以玉帶之寶 而度尙如此 況茲手澤 何敢比於度之所得.”

진하라고 건의하다 사형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황제에게 간언하여 목숨을 구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송시열은 효종의 밀찰을 수택(手澤)이라 하였는데 수택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손때가 묻어 생기는 윤기를 이른다. 여기에서는 효종의 밀찰을 가리킨다. 그만큼 송시열이 밀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주 들여다보았다는 의미다.

송시열은 미리 밀찰을 올리지 못한 이유를 밝힌다. 밀찰에 담긴 내용이 기해독대 때 나눈 이야기보다 더 많다는 말을 통해 밀찰의 중요성도 알린다.

신이 무술년(1658, 효종9) 7월에 조정에 들어가 기해년 4월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밀물(密勿)히 받은 모유(謀猷)가 독대할 때의 설화보다 더 많은 적이 있었으므로, 그때의 설화를 신이 비밀히 책자에 기록하여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림(翰林) 신 이세장(李世長), 이광직(李光稷) 등이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반드시 사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고, 매우 간절히 보기를 청하였으나, 신이 처음에는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끝없이 청하기에 신이 생각하기를, 신의 자손이 무궁하게 보관할 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사관에게 부탁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의 첨정(僉正) 신 김만중(金萬中)을 시켜 아주 비밀하게 봉해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이광직(李光稷)은 이미 죽고, 이세장(李世長)이 이미 한청(汗靑)에 올렸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이것이 성조조(聖祖朝)의 실록에 있을 것이오니, 시험 삼아 취하시어 열람하신다면 성조의 규모(規模)의 대략(大略)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수찰(手札)을 내려 주실 때에 선대왕께서 받들어 가지고 꿰어앉아 말씀하기를, “밀찰(密札)이 있소.” 하시기에, 신이 땅에 엎드려 받았습니다. 그것을 주고받을 즈음에 선대왕의 엄숙하고 공경하심이 이와 같으셨는데, 신이 감히 판사람을 시켜서 올리겠습니까. 또 엎드려 생각건대 비록 이것을 사신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또한 산삭(刪削)한 데가 있을 것이니 이것은 다만 성명(聖明)께서 재단하고 참작하여 처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⁹⁴⁾

94)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臣於戊戌七月入朝 以至己亥四月 其間密勿所受謀猷 未有多於獨對時說話 其時說話 臣密錄於冊子 而深藏之矣 翰林臣李世長李光稷等 馳書以爲不可不錄於史冊 請見之甚切 臣初以爲難矣 二人請之不已 臣以爲臣之子孫 未保其寶藏於無窮 不若託之史官之爲愈 故遂使今僉正臣金萬中 密密封去 則光稷已死 而世長遂已登諸汗靑云 此則想在聖祖朝實錄 試取而乙覽焉 則可知聖祖規模大略矣 今茲手札下賜之時 先大王(春宮時)奉持而跪 云有密札 臣伏地而受 其授受之際 先大王之嚴敬如此 臣何敢付諸別人以進乎 又伏念 雖以此付諸史臣 亦使

송시열은 1658년 7월 12일 행호군(行護軍)으로 출사한다.⁹⁵⁾ 그리고 그해 9월 18일 이조판서에 제수된다.⁹⁶⁾ 12월 10일에는 효종에게서 초구(貂裘)를 하사받았다.⁹⁷⁾ 초구란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갓옷으로 효종은 송시열의 노고를 치하하고 북벌정책에 좀 더 매진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하사하였다. 그리고 밀찰도 여러 차례 받았으나 그때마다 읽고 나서 없애라고 하여 없앴다가 마지막 밀찰은 효종이 급서하게 되면서 없애라는 어명을 내리지 못하자 송시열이 보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송시열이 초구를 받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밀찰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밀찰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밀찰을 받치라는 권유가 없지 않았다. 당시 한림이었던 이세장과 이광직이 사책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밀찰을 올리라고 권유하였다. 이세장은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으로 1663년에 예문관 검열이 되었고, 이광직은 김상헌의 손녀사위로서 1660년에 한림에 들어가서 검열, 지평, 정언 등을 역임했다. 한림은 예문관의 다른 표현으로 한원(翰苑)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두 사람은 1663년 이후에 밀찰을 올리라고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은 처음에는 두 사람의 권유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자손들이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서 첨정 김만중을 통해 올리려고 하였다. 김만중은 김장생의 증손이자 후일 숙종의 정비인 인경왕후의 당숙이 된다. 송시열의 문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첨정은 종사품 관직이다. 그런데 이광직은 서른을 넘기자 죽고 이세장이 이미 한청 즉 국사에 올랐다고 하여 단념한다. 이세장은 대강을 기록하여 사초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1680년이 넘어서야 송시열은 밀찰을 올리려고 하였다. 밀찰을 올리는 문제로 송시열은 상당 기간을 고민했다. 1680년은 숙종 6년이므로 효종 사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밀찰을 올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공을 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 소를 쓸 때가 1689년이므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또 다시 보관하였다. 그러므로 송시열은 효종의 밀찰의 의미를 새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가 산삭하는 것을 염려했다는 말에서 이를 짐작할 수

有節略處 此則只在聖明財酌以處也.”

95) 『孝宗實錄』, 「효종 9년 무술(1658), 7월 12일(정미)」.

96) 『孝宗實錄』, 「효종 9년 무술(1658), 9월 18일(임자)」.

97) 『孝宗實錄』, 「효종 9년 무술(1658), 12월 10일(임신)」.

있다. 산삭은 필요 없는 글자나 글귀를 지워 버리는 것을 일컫는다.

송시열은 명성왕후가 전한 언문 편지에 대해서도 적는다. 그는 1680년 겨울에 그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경신년(1680, 숙종6) 겨울에 신이 명을 받들고 조정에 들어와서 비록 성명께 위로의 유시를 받았으나, 종적(蹤跡)이 편안하지 못하여 감히 편안히 서울에 있지 못하고 물러나가 서교(西郊)의 조묘(祖墓) 아래 엎드려 날을 보냈는데, 뜻밖에 명성성모(明聖聖母)께서 시정(寺正) 신 김석연(金錫衍)을 시켜 언문으로 쓴 어찰(御札)을 전해 주시고, 이어 몇 마디 말씀 구두로 전해 주셨는데, 대개 송조(宋朝) 고태후(高太后)가 사마광(司馬光)을 애써 만류하던 고사(故事)를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더욱더 황공하여 감히 신을 신을 틈도 없이 즉시 들어가 사은(謝恩)하였습니다. 이것을 더욱 어찌 여염에 머물러 두고 감히 후세 자손의 부녀로 하여금 서로 전하면서 버릇없이 구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울러 정납(呈納)하오나 감히 천신(賤臣)의 손자를 시켜 보내지 못하고 이웃에 사는 일가 사람 영모전 참봉(永慕殿參奉) 송석필(宋奭弼)을 시켜 공경히 받들어서 올리오니, 이 사람은 성모(聖母)의 사촌 친척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도 애모(哀慕)하시어 슬픔에 목메심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두렵고 비통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⁹⁸⁾

송시열이 청풍에서 해배된 것은 1680년 5월 24일이었고, 관직에 서용된 것은 그해 10월 2일이었다. 송시열은 한양으로 올라가기는 했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도성 밖에 머물렀다. 그런데 12월 24일 명성왕후가 편지를 보내 간곡하게 청하자 도성으로 들어왔다. 편지는 예빈시정(禮賓寺正) 김석연이 대신 전했는데, 그는 명성왕후의 동생으로 숙종의 외숙이 된다. 경신대출척을 주도했던 김석주와는 사촌 사이다.

송시열은 자신과 명성왕후의 관계를 사마광과 고태후의 관계에 빗댔다. 신법을

98)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且惟庚申冬 臣承命冒入 雖蒙聖明慰諭 蹤跡有所不安 不敢晏然在京 退出西郊祖墓下 跼伏度日矣 不意明聖聖母使寺正臣金錫衍 傳授諺書御札 仍口傳若干語 蓋依宋朝高太后勉留司馬光故事也 臣尤增皇隕 不敢竣履 卽入謝恩矣 此尤何敢留在閭閻 敢使後世子孫婦女 相傳褻玩乎 今竝呈納 而不敢付諸賤息 使隣居宗人永慕殿參奉宋奭弼 敬奉以進 此於聖母四寸親也 伏想殿下亦不勝哀慕悲咽也 臣無任涕泣忱惕惶隕之至.”

주장하던 왕안석에 맞서 구법을 옹호했던 사마광은 송 신종 때에는 낙양에 은거하며 『자치통감』을 편찬하는데 몰두하다가 철종이 즉위하고 고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자 정계에 복귀하여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구법파의 흐름을 따랐던 주자학자들에게서는 공명정대한 인물로 높이 평가받았지만 보수적인 정치가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송시열이 주자를 절대시했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고태후가 구법의 신봉자였으나 명성왕후는 송시열의 정적이자 대동법을 시행하고 화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던 김육의 손녀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모를 찾긴 어렵다. 명성왕후가 송시열에게 손을 내민 것은 홍수(紅袖)의 변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남인과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효종과 편지를 통해 논의했던 내용을 자세히 적었다. 우선 효종은 도성을 탄탄하게 복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승려를 동원하여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밀물(密勿)했던 교시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올립니다. 하나, 성조(聖祖)께서 늘 탄식하기를, “무릇 병화(兵禍)를 입은 나라치고 외방(外方)은 비록 탕잔(蕩殘)되었더라도 서울은 견고하였으므로 끝내 패망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약간의 병란(兵亂)만 있으면 도성이 먼저 무너져서 공사(公私)의 저축과 노적을 모두 적인(敵人)에게 빼앗기니, 매우 탄식할 일이다. 무엇 때문에 조종(祖宗)의 규모가 이와 같이 영성하였는가. 일찍이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또 조지서(造紙署)의 동구(洞口)를 막고자 한 것은, 난리를 당하여 이곳을 이어(移御)의 처소로 삼으면 공사의 인물이 모두 무사히 보전될 것이요 따라서 적이 반드시 와서 다투고자 할 경우, 이곳은 적인을 죽여 보내는 곳이 된다고 여겨서이다. 그러나 이때는 백성을 부역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히 뜻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하시기에, 천신(賤臣)이 대답하기를, “남한산성 역사 때에는 다 승도(僧徒)들을 사용하였고, 민정(民丁)들은 일체 쓰지 않았습시다. 지금은 승도의 무리가 남한산성을 수축할 때보다 배나 됩니다.” 하였습니다.⁹⁹⁾

99)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當時密勿之教畫一錄呈 一 聖祖常歎曰 大凡被兵之國外方雖蕩殘 根本堅固 故終不至敗亡矣 我國則小有兵亂 都城先潰 公私蓄積 皆付敵人 甚可歎也 何故祖宗規模如是疏闊也 嘗欲修築北漢城 又塞造紙署洞口 以爲臨亂移御之所 公私人物 皆保無事 而敵人必欲來爭 是敵人送死之地 然此時役民爲難 故不敢生意耳 賤臣對曰 南漢時 皆用僧徒民丁則一切不用 今時僧徒之衆 倍於南漢時矣.”

성조 즉 효종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도성이 무너진 점을 지적하며 외적이 침입할 수는 있으나 도성이 무너진다면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조지서 동문을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조지서는 한성의 창의문 밖 장의사동에서 종이를 만들던 관청이다. 장의사동은 북한산에서 흘러오는 맑은 시내와 있고 넓은 돌이 많아 종이를 제조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효종은 이곳이 유사시 피난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송시열은 승려들이 남한산성을 쌓은 것처럼 북한산성을 쌓는 데에도 승려들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승려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보았다. 남한산성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인조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항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산성은 고려시대의 중흥산성(中興山城)을 바탕으로 축성한 성인데 숙종 때가 돼서야 완성되었다. 효종 때도 논의는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효종은 마정(馬政)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국부의 기준이 되는 말의 수도 적지만 더 큰 문제는 군마로 쓸 수 있는 말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비판했다.

하나, 교시하기를, “국군(國君)의 부(富)는 말의 수로 계산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마정(馬政)은 엉성하다. 그리고 남방의 말은 성질이 유약해서 전진(戰陣)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우니, 모든 남방에 있는 목장을 다 서북 지방에 옮긴다면 생산되는 말이 다 쓸 만할 것이다. 남방의 목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耕作)하게 하고 인하여 그 사람들을 수군(水軍)으로 삼고, 산군(山郡)의 수군을 일체 척파(斥罷)한다면 마정과 해방(海防) 두 가지가 모두 적의(適宜)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¹⁰⁰⁾

군마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말이 남쪽 지방에서 길러지는데 이 말들은 성격이 순해서 군마로는 적합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종은 목장을 서북지방으

100)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敎曰 國君之富 以馬計之 我國馬政疏脫 且南方之馬 其性柔脆 難用於戰陣 凡南方牧場 皆移於西北 則所產皆可用 南方牧場 使民人耕作 仍以其人爲水軍 山郡水軍 一切斥罷 馬政與海防 兩得其宜矣.”

로 옮기고 남쪽 목장은 농토로 전환하여 백성들이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수군으로서 해안을 방비하도록 전환하고자 하였다.

효종은 도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려는 부역을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조세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 역불승유책에도 어긋난다.

하나, 승도(僧徒)들은 놀고 먹어서 다만 양민이 생산한 곡식을 소모하고 있어 그 해가 막심하다. 일시에 아울러 제거하면 또 의외의 변고가 있을 것이므로, 고법(古法)을 의거하여 도첩(度牒)을 발급받은 다음에 중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이리하여 조금씩 포(布)를 거두어들인다면 중이 되는 자는 점점 적어지고 양민(良民)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¹⁰¹⁾

송시열은 도첩제를 통해 승려의 수를 통제하고 어느 정도의 부역도 감당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무도 지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양민의 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민을 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포병 10만 명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승려의 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효종은 성을 보수하려고 하였다. 북벌을 위해서는 수비를 먼저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서로(西路)의 성지(城池)로서 도로에 당해 있는 것은 수축 보완할 수 없으나, 그 밖의 것은 비밀히 수선하고 다스려서 피란민으로 하여금 다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비록 도로에 당해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그 성체(城體)를 보완하되 여장(女牆)은 시설하지 말고, 또 성안에 모두 벽돌을 비축해 두도록 한다면 때에 당하여 여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¹⁰²⁾

101)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僧徒遊手遊食 只耗良民所生之穀 害莫甚焉 欲一併除去 則又有意外之變 欲依古法給牒 然後爲僧 而略略收布 則爲僧者漸少 而良民漸多矣.”

102)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西路城池當路處 不可修補 其外密密繕治 使避亂人民 皆得入保 雖當路處 徐完體城 勿施女牆 又使城內皆蓄甓甃 則臨時築女牆.”

효종은 성을 정비하면서도 도로와 인접해있는 성지는 제외했다. 도로를 축소하면 백성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성을 정비한다는 사실이 쉽게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을 보수하는 일을 비밀리에 추진하는 이유는 청나라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청은 계속해서 조선이 전력을 증강하지 못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청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성을 보수하고 여장을 만들 수 있는 벽돌도 성 안에 비축해두려고 하였다.

효종은 호란 당시에 적에 투항하여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다.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 우리나라 백성 중에 세력 있고 교활한 자는, 오랑캐에게 투항한 자들이 뜻을 얻어 횡행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갑자기 난리가 발생할 경우 모두 피하려 하지 않고 항복할 것이니, 이것이 가장 염려된다. 성조(聖祖) 말년에 기내(畿內) 사람으로 무단히 저들에게 투항한 자가 있었는데, 저들이 압송해 보내면서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나, 성조는 말씀하시기를 ‘이놈을 주살(誅殺)하지 않는다면 나라 체면이 서지 않는다.’ 하시고, 바로 효시(梟示)의 의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현종(顯宗)이 즉위하시자 마침내 선왕의 뜻을 받들어 그를 죽였습니다.¹⁰³⁾

효종은 청에 투항했다가 조선으로 되돌려 보낸 자를 처벌하고자 하였다. 청에서는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효종은 그럴 경우 다른 마음을 먹는 자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현종은 즉위하게 되자 효종의 뜻을 받들어 그 자를 처단했다.

효종은 군사를 확충하려고 하였다. 여러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백성들이 군사가 되는 것을 꺼렸다. 경제가 어려웠고 복구에 군사를 동원하는 일도 많았으며 당연히 군사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103)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我民豪猾者 見投虜者得志橫行 皆有歆羨之心 一朝亂生 則皆不肯避而迎降矣 此最可慮 聖祖末年 畿內人有無端投彼者 自彼押送而曰 勿殺也 聖祖以爲不誅此漢 則無以爲國 卽定梟示之議矣 顯廟初服 竟承先旨而戮之矣.”

하나, 옛날에 양민을 선발하여 기병과 보병을 삼고 즉시 해당되는 계급을 내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왕궁을 숙위(宿衛)하게 하고 겸하여 기예(技藝)를 익히게 하였으므로, 병사된 자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쓰이기를 사모했는데, 어찌 도피할 이치가 있었겠는가. 지금은 각사(各司)에 나누어 임명하여 천레(賤隸)의 역사를 시키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일 피하기를 마치 사지(死地)를 피하듯이 한다. 지금 만약 옛 제도를 회복하여 각처의 사환(使喚)을 각각 본사(本司)의 노비로 충당하여 정하고, 정군(正軍)은 다시 나누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양민들이 반드시 도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각사의 노비는 다 하리(下吏)들이 사사로이 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이것이 민망한 일이다.¹⁰⁴⁾

효종은 부역은 노비에게 시키고 군사는 정예화 하여 복벌을 대비하려고 하였다. 그들에게 적절한 계급을 부여하고 왕궁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효종은 복벌을 대비함은 물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는 훈신이나 종척(宗戚) 대신에 무신을 특채하여 군사양성을 꾀하였고 어영청(御營廳)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강화하였으며 금군(禁軍)을 기병으로 전환하고 내삼청(內三廳)을 통합하였으며 나아가 수어청(守禦廳)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군비강화책을 내놓았다.

효종은 숙위(宿衛) 체제도 개편하고자 하였다. 숙위는 숙직하면서 궁궐을 경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하나, 교시하기를, “옛날 숙위는 다 사대부의 자제로 삼았었는데, 그 뜻이 깊다. 일위(一衛)를 설치하여 ‘자제위(子弟衛)’라 하고 사대부 자제 중에서 호건(豪健)한 자를 선발하여 충원하고, 때때로 어전에서 습사(習射)하게 하여 은의(恩義)로써 맺게 하되, 여기를 거치지 않고 나온 자는 총부(摠府)의 곤수(閫帥)를 허락하지 않고 자 한다. 이렇게 한다면 앞을 다투어 응모해서 숙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다만 ‘자제위’라는 명칭이 매우 아름답지 못하니, 마땅히 고쳐야 하겠다.” 하셨습니다.¹⁰⁵⁾

104)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古者 選良民爲騎步 卽賜該階 使之宿衛王宮 而兼習技藝 故爲兵者以爲榮而慕用焉 寧有逃避之理 今則分差於各司 使以賤隸之役 故民之避之如避死地 今若復古制 各處使喚 各以本司奴婢充定 而正軍則更勿分差 如是則良民不必逃矣 但各司奴婢 皆爲下吏所私 收拾爲難 是可悶也.”

원래 숙위는 사대부의 자제를 뽑았다. 효종은 예전처럼 사대부의 자제 가운데 건장한 자를 골라 무예를 익히게 하고 서로 단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숙위 출신만을 오위도총부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하려고 했다. 이를 통해 숙위를 정예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자제위라는 명칭을 바꾸려고 하였다. 자제위는 고려 공민왕이 젊고 잘생긴 청년을 뽑아 시중을 들게 하려고 설치한 것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명칭은 바꾸려고 하였다.

태종은 모든 양인이 군역을 지는 양인개병제를 추진했다.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는 군병이 되거나 군병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의복 등을 대는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 오위도총부가 다섯 군단으로 이루어진 중앙군을 통솔했는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차츰 해이해졌고, 이는 두 차례 큰 전란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효종은 군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하나, 백성으로써 병사를 기른다면 훈국(訓局)의 제도이다. 나라가 가난해지고 백성이 병들게 되니 병사로써 병사를 기른 어영(御營)의 제도이다. 다음에야 병사와 백성, 두 가지가 편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현종(顯宗) 때에 이미 유혁연(柳赫然)을 시켜 변통하게 하였으나, 받들어 시행하기를 성실히 하지 못해서 훈국(訓局)의 병사가 아직도 많습니다.¹⁰⁶⁾

효종은 오위(五衛) 체제를 오군영(五軍營)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오위와 달리 오군영은 직업군인을 근간으로 한 제도였다. 그는 특히 어영청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포수를 양성하는 군영이었다. 훈국은 훈련도감(訓練都監)을 가리키는데 이는 오군영의 한 가지로서 가장 먼저 창설되고 중추기구였으나 효종 때까지는 여전히 양민을 기반으로 군역을 지게 하였다. 효종은 양민보다는 직업군인을 양성하여 군대를 정예화하려고 하였다.

105)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敎曰 古者宿衛 皆以士大夫子枝爲之 其意深矣 欲設一衛 謂子弟衛 選士大夫子豪健者以充之 時使習射於前 結以恩義 不由於此而進者 不許總府閫帥 如是則爭先應募而宿衛固矣 但子弟衛之名 甚不美 當有以改之.”

106)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以民養兵 (訓局之制)則國貧而民病 以兵養兵(御營之制)然後兵民兩便 此則顯廟時 已令赫然變通 而奉行不誠 訓局兵尙多矣.”

또한 효종은 복벌을 위해 여러 문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장인 이완(李浣)과 유혁연(柳赫然)을 발탁했다. 유혁연은 효종 때 어영대장에까지 이르렀으나 남인 계열이라서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현종 때에는 훈련도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훈련별대(訓練別隊)를 창설해 급료병 수를 줄여 재정적 곤란을 덜었는데 송시열은 이를 지적하며 그의 성실성을 의심했다. 훈련별대는 나중에 병조의 정초군(精抄軍)과 함께 금위영(禁衛營)으로 합쳐진다.

효종은 세도가나 지방호족을 억제하고자 어사제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득세한 이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백성은 피폐해지고 국고는 비어갔다. 그는 어사제를 활용하여 사익만을 쫓는 자들을 억제할 계획을 세웠다.

하나, 일찍이 교시하기를, “한사(漢史)에 이르기를 ‘조광한(趙廣漢)이 호강(豪強)을 엄격히 제압하여 소민(小民)들이 직소(職所)를 얻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결(田結)을 감축한 것도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어사(御史)가 염문(廉問)할 때에 겸하여 이런 유(類)도 살펴서 다스리게 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민유중(閔維重) 등이 염문할 때에 받은 교서(敎書)에 이 조건이 있었다.¹⁰⁷⁾

조광한(趙廣漢)은 한나라 선제(宣帝) 때 경조윤(京兆尹)에 이른 인물인데 부정을 적발하는데 귀신처럼 밝은 것으로 유명했다. 효종은 조광한처럼 어사를 선발·배치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를 적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효종은 세제를 개편하려고 하였다. 재성청은 원래 인조가 대동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자 설치한 관청이다.

하나, 재성청(裁省廳)을 설치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먹는 자가 적어야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저 성조(聖祖)의 뜻은, 방금의 국사는 한 가지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폐단을 따라 고칠 수 있겠는가. 요점은 다만 한 ‘사(私)’자를 제거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나부터 이 한 글자를 버리고 난 다음에 따르지 않는 신하가 있다면 비록 대신이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유중(閔維重), 홍처윤(洪處尹)

107)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嘗教曰 漢史稱趙廣漢威制豪強 小民得職 我國田結之縮 亦由於此 御史廉問時 欲令兼察此類以治之(閔維重等廉問時受教 有此條件).”

이 명을 받고 염문할 적에, 모든 궁가(宮家)가 외방에서 작폐하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일체 염문하여 아뢰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설둔(設屯), 염분(鹽盆), 어전(漁箭), 원당(願堂) 등과 같은 것으로, 그에 대한 봉서(封書)가 아직도 제신(諸臣)의 가정에 있을 것이니, 만약 가져다 예람(睿覽)하신다면 당시의 성지(聖旨)가 탁연(卓然)하셨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건대 ‘수신하여 황극(皇極)을 세우고 백성을 보호하여 방본(邦本)을 견고히 하고 선비를 가르쳐 속학(俗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일생적인 성교(聖敎)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나의 직임(職任)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독대한 설화(說話)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곁들여 아뢰지 않겠습니다.¹⁰⁸⁾

효종은 재성청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고 하였다. 그는 민유중과 홍처윤에게 궁가의 부정부패까지도 자세히 조사하라고 명을 내릴 정도였다. 궁가가 둔전이나 염분, 어장이나 원당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조사하여 부패를 일소하고 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3)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

숙종은 송시열에게 효종에게 받은 어찰을 올리라고 명을 내렸다.¹⁰⁹⁾ 송시열은 어찰에 담긴 의미를 주석하여 올리려고 하였으나 유배형에 처해진 후 경황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나중에 정읍에서 사사될 때 손자 주석에게 대신 올리라고 맡겼으나 주석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 그래서 아들 기태가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난 후에야 숙종에게 올리게 되었다.

죽을죄를 지은 신(臣) 송시열은 황궁히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 번 절하고 주상전하께 말씀을 올립니다. 엎드려 말씀드리건대, 신이 1월

108) 『宋子大全』 제20권, 「擬進孝廟御札疏」, “一 設裁省廳 以去冗費 然必須食之者少 然後冗費可省也 大抵聖祖之意 以爲方今國事 無一不病 豈可隨弊而革之 其要只在於去一私字 然自予去此一字 然後臣下有不率者 則雖大臣 斷不可饒矣 閔維重洪處尹受命廉問也 諸宮家外方作弊之事 使之一切廉問以啓 如設屯鹽盆漁箭願堂等事也 其封書尙在諸臣家 若取以睿覽焉 則可知當時聖旨之卓然矣 竊伏念 修身以建皇極 保民以固邦本 教士以正俗學 此是尋常聖敎也 嘗曰 明天理正人心 此非予之職任乎 其詳在於獨對說話 此不復贅焉.”

109) 『肅宗實錄』, 「숙종 20년 기사(1694, 강희33), 윤5월 11일(정축)」.

2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고 신이 일찍이 성조(聖祖)께 받은 어찰을 사관에게 부쳐 올리게 하였습니다. 신이 당초에 그옥이 수찰 속의 말뜻에 대한 곡절을 주석(註釋)하여 올리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창졸간(倉卒間)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시(近侍)가 또한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는데, 신이 늙고 병들어 정신이 혼모해서 문자를 이루기가 어려워 여러 날을 미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성은(聖恩)을 힘입어 형주(刑誅)를 면하고 절도(絶島) 중에서 목숨을 보존케 하셨으므로 신이 성은에 감읍(感泣)하던 중에 앞드려 생각건대, 오직 이 어찰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이미 성명(成命)을 받들었으니, 신도 뒤따라 사관(史官)이 돌아가는 편에 계사(啓辭)를 부쳐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¹¹⁰⁾

송시열은 효종의 어찰만을 올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어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는 유배를 보내며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것에 대해 숙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송시열은 다시 배도의 고사를 인용한다. 배도가 받은 옥대보다는 효종의 어찰이 더욱 중요하므로 당연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옛날 당(唐) 나라의 신하 배도(裴度)가 선제(先帝)에게 받은 옥대(玉帶)를 자기가 죽을 때 사황(嗣皇)에게 되돌려드리면서 아뢰기를, “감히 지하로 가지고 돌아갈 수 없사옵고 또 인간(人間)에 머물러 두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배도는 옥대 따위의 보배를 가지고도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이 성조(聖祖)의 수택(手澤)을 감히 배도가 얻은 보배 따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성명(成命)이 있음에리까. 지금 신이 만약 죄를 무서워하고 지극히 황공하게 여겨 끝내 감히 진입(進入)하지 못하고, 이를 받들어 충사(蟲蛇)가 들끓는 더러운 땅에 둔다면 불경(不敬)스러움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천신(賤臣)의 자식 전 군수(郡守) 신(臣) 송기태(宋基泰)를 시켜 공경히 세 폭(幅)의 어찰을 받들고 궐에 나아가 명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111)

110) 『宋子大全』 제20권, 「進孝廟手札明聖諺札疏」, “死罪臣宋時烈 誠惶誠恐頓首頓首 謹血泣百拜上言于主上殿下 伏以臣於正月二十九日 伏承聖旨以臣曾受聖祖御札 使付史官以進 臣當初竊欲註釋手札中辭意曲折以進 此非倉卒可爲者 近侍又不可久留 故徑請回還 而臣老病昏耗 文字難成 遷延累日矣 卽者 蒙恩得免刑誅 使假喘息於絶島之中 臣銜恩感泣之中 伏竊以爲惟茲御札之進 既奉成命 臣亦以追達 附啓於史官之歸矣.”

송시열은 유배를 떠나면서 아들 기대에게는 집안을 당부하였고 손자 주석으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하였다. 어찰은 송기태에게 맡겨 궁궐에 올리도록 하였다. 소중한 어찰을 벌레와 뱀이 들끓는 더러운 땅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였는데 그가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난다.

송시열이 소를 올리는데 비판의 소리가 있었다. 죄인이 소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죄인(罪人)으로서 어찌 감히 교만하게 투소(投疏)를 하는가.”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고사(古事)가 있습니다. 옛날 송(宋) 나라 신하 장준(張浚)은 귀양 가 있으면서도 여러 번 소를 올려 진언(進言)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은 삼가 성명의 교서를 받들었는데도 엄(嚴)하여 감히 말씀을 올리지 않는다면, 왕명(王命)을 설만히 여긴 죄는 실로 분위(分位)를 범한 형벌보다 더 크고 또한 성조께서 뜻 두었던 일을 마침내 민멸(泯滅)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이것은 신이 만 번 죽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¹¹²⁾

송시열은 송나라 장준이 귀양지에서도 여러 번 소를 올렸던 고사를 빌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장준은 정승 진희(秦檜)에 의해 영주(永州)로 귀양 갔으나 충성심을 담은 소를 열 번이나 쉬지 않고 올린 덕분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송시열은 명성왕후에게 받은 언찰도 같이 올리겠다고 하였다. 소중한 언찰을 가지고 제주로 가는 도중에 바다를 건널 때 아무 탈 없이 갈 수 있을지가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신이 경신년(1680, 숙종6) 12월 22일 서교(西郊)에 엎드려 있을 때에 우리 명성성모(明聖聖母)께서 지금의 수원 부사(水原府使)

111) 『宋子大全』 제20권, 「進孝廟手札明聖諺札疏」, “念昔唐臣裴度 受其先帝玉帶 將死 還納于嗣皇 謂既不敢將歸地下 又不合留在人間 度以玉帶之寶 而猶且如此 況此聖祖之手澤 敢擬於度之所得哉 而況有成命者耶 今臣若以畏罪惶恐之至 而終不敢進入 奉以處蟲蛇腥穢之地 則其爲不敬莫大焉 茲敢使賤息前郡守臣基泰 敬奉三幅御札 詣闕 俟命焉.”

112) 『宋子大全』 제20권, 「進孝廟手札明聖諺札疏」, “人或以爲渠以罪人 何敢偃然投疏云爾 則此有古事 昔 宋臣張浚在謫 猶累疏進言 況今臣恭承明教 而嚴不敢進呈 則慢命之罪 實有大於犯分之誅 亦使聖祖志事 終歸泯滅 此則臣雖萬死 罪不可贖.”

김석연(金錫衍)을 시켜 어찰을 내려 보내셨으므로 신이 일찍이 공경히 받들어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감히 몸에 지니고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아울러 진납(進納)하오니, 신은 황공하고 두려워서 매우 애타고 몸떨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¹¹³⁾

김석연은 명성왕후의 동생으로 숙종의 외숙이 된다. 그도 기사환국에 송시열과 함께 축출되었다가 1694년 갑술옥사로 다시 기용된다.

송시열은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와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에서 배도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배도가 선제에게 받은 옥대보다 그가 효종과 명성왕후에게서 받은 편지가 더 소중하다는 견해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우위에 두는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여 학생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닿아있다. 또한 기해독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주고받았던 편지를 통해 북벌정책을 놓고서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은 정치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토론이나 양방향 통신 수단을 이용한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3. 편지

송시열은 유배길에서 자손과 문인에게 편지를 쓴다. 자손에게는 흔들림 없이 자신을 닦고 집안을 잘 다스리라는 당부를 남겼고, 문인들에게는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학문적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학문의 요체인 곧음[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1) 「송도원에게 보냄」

송도원의 이름은 규렴(奎濂)이고, 도원은 그의 자다. 그는 김수항의 매제로서

113) 『宋子大全』 제20권, 「進孝廟手札明聖諺札疏」, “抑又有一事 臣於庚申十二月二十二日 伏在西郊 我明聖聖母 使今水原府使臣金錫衍送下御札 臣嘗敬奉襲藏矣 茲亦不敢隨身越海 故竝以進納焉 臣不勝惶恐危怖煎灼震慄之至.”

김상헌의 손녀사위가 된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으로 예조 판서와 좌참찬을 지냈으며 송시열, 송준길과 함께 삼송(三宋)으로 일컬어졌다. 1674년 예송논쟁으로 귀양을 가게 된 송시열과 송준길의 무죄를 상소하였다가 파면을 당하였으나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집권하자 다시 기용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 때에는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송시열은 송도원에게 2월 3일 이 편지를 보냈다. 숙종은 송시열을 귀양 보내면서 효종의 친필 서찰을 받치라는 명을 내렸다. 송시열은 서찰을 올리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시말을 편지에 적었다.

금번 사관(史官)에게 내린 전유(傳諭)는 조보(朝報)에 나지 않았다 하네. 대체로 상(上)께서 효묘(孝廟)의 친필 서찰을 보시고자 하는 데다 그 나머지 말뜻도 당시의 책략(策略)을 알고 싶으신 까닭에서였네. 어찰(御札)을 내릴 때에 현묘(顯廟)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주셨으니, 지금 사관에게 대신 부칠 수 없고, 노신이 병들어 몸소 나아가지도 못하겠기에, 주손(疇孫)을 내려오게 하고 나도 조금 올라가다 만나서 즐려고 하였네.¹¹⁴⁾

전유는 의정(議政) 또는 유현(儒賢)에게 전하던 일을 말하고, 조보란 조정의 소식 또는 조정에서 내는 신문이라는 뜻이다. 편지에 따르면 숙종은 효종의 어찰을 올리라는 명을 비밀리에 내렸다. 송시열은 숙종이 효종이 세웠던 북벌정책을 위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서 어찰을 올리라고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효종이 직접 쓰고 현종이 무릎까지 꿇고서 전해준 서찰을 사관에게 전해 올리는 것이 송시열로서는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자에게 대신 올리라고 하고 자신도 몸이 성치는 않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서 손자에게 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송시열은 어찰과 함께 소를 올리려고 하였다. 그는 상소 내용을 사관이 미리 알아버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남인이 정권을 잡은 이상 자신의 상소가 그대로 임금에게 전해질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손자가

114) 『宋子大全』 제70권, 「與宋道源」, “今番史官傳諭 不出朝報云 蓋自上欲見孝廟手札 而其餘辭意亦欲知當時謨猷故也 御札 時顯廟親跪以授 則今不可遞付史官 而老臣病不能躬進 欲使疇孫下來而此亦稍進以授之.”

올리기를 바랐다.

또 상소의 내용이 남이 함부로 보아서 안 되는 것이므로, 검담(黔潭)이나 송애(松崖) 같은 조용한 곳에서 봉하여 올리려 하였네. 그런데 뜻밖에 본관(本官)이 빨리 보고를 해 버려 사단(事端)을 야기하였으니 탄식할 일이네. 위에 말한 계획이 겨우 정하여지자, 나의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문을 닫고 있으니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네.¹¹⁵⁾

송시열은 상소문을 밀봉하는 장소로는 검담서원이나 송애 김경여(金慶餘)의 묘암(墓菴) 같은 조용한 곳을 골랐다. 검담은 검담서원을 가리키는데 송준길이 1669년에 지은 보만정(保晩亭)이 1695년 숙종이 검담으로 사액하자 사액서원이 되어 송준길을 모시는 곳이 되었다.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에 자리하고 있다. 김경여는 본관이 경주(慶州)이고 자는 유선(由善) 호는 송애(松厓)다. 아버지는 찬성(贊成)에 추증된 광유(光裕)이며, 어머니는 은진 송씨(宋氏) 남수(楠壽)의 딸로서 송시열과는 한집안이다. 인조반정의 주역 이귀(李貴)의 사위이며,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기도 하다. 송규렴에게는 대고모부(大姑母夫)가 된다. 김경여의 묘는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에 있다.

송시열이 소를 올리려는 계획은 당시 정권을 잡은 남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숙종의 명은 받은 사관이 송시열이 소를 올리려는 계획을 발설하자 남인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미 유배형을 받은 송시열로서는 죄인의 신분이었으므로 남인들은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이 소를 통해 정치적 복권을 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자 송주석도 소와 어찰을 대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동생 송희석(宋晦錫)이 1688년 10월에 죽자 장사를 지내려 갔다가 장례식이 끝나고서 여주의 옛집에 들러 우제(虞祭)를 지내다 보니 쉽게 내려오지 못했다.

또 듣자니 주석(疇錫)이 장례를 지내고 나서 여주의 옛집으로 돌아와 반곡(反哭)

115) 『宋子大全』 제70권, 「與宋道源」, “且疏辭不可煩諸耳目 欲於黔潭或松崖墓菴靜處封進矣 不料本官馳報 惹起事端 可歎可歎 右計才定 而賤疾斗劇 竟不成行 方此塞門 事事不成貌樣.”

을 하였다 하니, 주석이 쉽게 내려오지 못할 듯하여 매우 심란하구려. 이 일은 보통의 예와 매우 다르므로 조만간 주선하여 보내겠으니 자네가 모든 일을 지휘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편지를 남에게 대신 쓰게 하여 이만 그치네. 자신(子愼)의 정문(旌門)에 대한 일은, 힘을 다하기 바라네.¹¹⁶⁾

송주석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송시열은 송규렴에게 소와 어찰을 올리는 일처리를 당부하였다. 편지를 직접 쓸 정도로 건강이 좋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글을 대신 쓰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적지도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송시열은 송규렴에게 자신 송상민(宋尙敏)에 대한 일도 당부하였다. 송상민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자신, 호는 석곡(石谷)이다. 송시열, 송준길의 문인으로서 제2차 예송논쟁으로 송시열이 덕원으로 유배될 때 이를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영의정 허적의 탄핵을 받고 궁궐 앞에서 장살되었다. 1680년 경신 출척으로 공조좌랑에 추증되었는데 송시열은 이에 합당한 기념사업을 송규렴에게 당부한 것이다.

2)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송시열은 만덕사로 자신을 찾아왔던 사원 박광일과 수여 박중희에게 2월 29일 편지를 썼다. 사원이라는 자를 지닌 송시열의 문인으로는 박태보도 있었다. 그는 박세당의 아들이자 윤선거의 외손이기도 하였는데, 송시열과 윤선거가 대립할 때 친족 관계를 넘어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1689년 5월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되어 가는 중에 과천에서 죽었다. 따라서 송시열과 만덕사에서 토론을 할 수가 없고, 박중희도 읽으라는 편지를 쓴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박광일에게 보낸 것이다.

둘이 함께 나를 멀리까지 전송하여 지진두(地盡頭)까지 와서 이별하니, 망연함이 심하였네. 사원(士元)이 논한 호연장(浩然章)의 의리(義理)는, 조목(條目)은 자세

116) 『宋子大全』 제70권, 「與宋道源」, “而又聞疇孫自葬所反哭於驪江舊居 其來似不易 甚以爲撓 此事甚異常規 早晚疇去 凡百指揮如何 倩草不宣 ○子愼旌門事 須致力也.”

하였으나 대강(大綱)은 깊이 거론하지 못하였네. 장(章) 머리에서 문답한 하나의 심(心) 자가 바로 일장(一章)의 대지(大指)이고, 그 다음에는 용(勇) 자 축(縮) 자로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근본을 삼았고, 또 다음에는 ‘지언(知言)’을 말하였으니, 지언은 바로 궁리(窮理)의 일이기 때문에 뒤에 말한 것이네. 이는 바로 『대학(大學)』의 차서(次序)와 같기 때문에 주자가 훌륭한 물음이라고 극찬한 것이네. 지언에 이르러서 또 심(心) 자를 골자(骨子)로 삼아 수미(首尾)가 서로 맞았으니, 그 면밀함은 후유(後儒)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닐세.¹¹⁷⁾

송시열이 백련사라고도 하는 만덕사에 든 것이 2월 26일이므로 박광일과 박수여는 2-3일 정도를 함께 머물며 『맹자』 「공손추」 상편 ‘호연장’을 살폈다. 일찍이 박광일은 송시열의 권유에 따라 ‘호연장’에 천착하여 1687년 「맹자호연장문답(孟子浩然章問答)」을 지어 송시열에게 가르침을 구했는데 이 때에 송시열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¹¹⁸⁾ 박광일의 아버지인 박상현도 송시열의 문인이었다. 그는 이이와 성혼 사이에 있었던 미발과 기질의 상관성에 관한 논쟁을 이어받아 송시열과 논쟁을 벌였고, 이는 한원진과 이간으로 이어져 조선 사상사의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였다.¹¹⁹⁾

송시열은 1674년 「호연장질의(浩然章質疑)」를 지었다. 자신의 견해를 이단하, 박세채, 윤증, 김창협, 이희조 등에게 물었던 것으로 보아 이 문제는 최소 15년간 송시열이 매달렸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송시열은 박광일이 ‘호연장’을 잘 분석하기는 했으나 기본적 의미를 잡아내지는 못했다고 평했다. 부동심(不動心)의 심이 그 장의 핵심이기에 맨 처음 맹자가 거론했다. 다음은 북궁유지호용(北宮黝之好勇), 맹시사지호용(孟施舍之好勇), 상문대용어부자(嘗聞大勇於夫子)의 용과 자반이축(自反而縮)의 축을 지적했는데 이는 호연지기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맹자가 지언(知言)을 풀이한 것은 지언이 궁리의 일환이었기 때문으로 주

117) 『宋子大全』 제113권, 「與朴士元朴受汝」, “連袂遠將 至於地盡頭別去 殊惘然也 士元所論浩然章義理 條目雖詳 而大綱猶未甚舉 章首問答一心字 是一章大指 次以勇字縮字 爲浩氣張本 而又次之以知言 知言是窮理之事 故居後 正如大學之次序 此朱子所以極稱其善問也 至於知言而又以心字爲骨子 首尾相應 其縝密非後儒所可及也.”

118) 문석운(2009), 「조선 후기 성리학에서 『맹자(孟子)』 호연장(浩然章) ’논란과 그 의의」, 『한국문화』 제47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p.5.

119) 이선열(2010), p.212.

자는 이 순서가 『대학』의 흐름과 일치하다며 극찬하였다. 부동심과 용기 그리고 곧음으로서의 축(縮)은 송시열의 곧음[直]과 어울린다. 벽립만인을 늘 되뇌이며 한 치의 흐트러짐을 허락지 않았던 그의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송시열은 ‘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한다’ 이하 부분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통 「호연」의 핵심을 그 앞부분으로 보고, 다음 부분에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한다.[宰我子貢善爲說辭]’로부터 이하는 이 장에서 필요 없는 군더더기 같으나 그 본말과 문장 맺은 체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으로써 공자(孔子)를 거론하는 근본으로 삼고 끝에 유약(有若)의 말로 결론(結論)이었으니, 이는 내가 어찌 부동심(不動心)에 그칠 뿐이겠느냐를 말한 것이네. 이와 같이 연관시켜 보면 일장(一章)의 뜻이 시원스럽게 통할 것인데, 제군들도 이와 같이 보았는지 모르겠네.¹²⁰⁾

공손추는 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하고 염우(冉牛), 민자(閔子)와 안연(顏淵)은 덕행을 잘 말하였지만 공자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서도 정작 스스로를 말을 잘 못한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맹자는 말도 잘 하니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오른 것이냐고 물었다. 맹자는 유약(有若)의 말을 덧붙이면서 대답을 대신하며 공자의 위대함을 기렸다. 자신은 공자를 배우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하였다. 유약은 공문십철은 아니나 자(子)를 붙일 정도로 훌륭한 제자였는데 그는 공자를 인간이 존재한 이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송시열은 편지와 함께 시를 적어 보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보길도에 남겼다는 「암각시문」일 수도 있다. 잔인한 권력 투쟁과 허망한 인생사에 대한 회환이 담겨 있는 운어 즉 시를 적었으나 정권을 잡은 남인들이 어떻게 할지 염려되어 바로 없애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지어 보내는 운어(韻語)는 시비(是非)와 영욕(榮辱)을 꿈결과 환상으로

120) 『宋子大全』 제113권, 「與朴士元朴受汝」, “自宰我子貢善爲說辭以下 雖於此章似贅 然細看源委 收殺之體 則因以此爲孔子張本 終以有若之言結之 以爲我豈止於不動心而已 如此串貫則一章之意 通透灑落矣 未知諸君如此看過否.”

여긴 뜻에 불과할 뿐이나,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지은 시를 뜻이 있어 지은 시라고 한다면 역시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것이니, 즉시 불에 태우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게나. 손자 아이가 지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네. 모두 여러분이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네.¹²¹⁾

시비와 영욕을 꿈결과 환상으로 생각한다는 데에서 회한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시열은 남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조그마한 빌미도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정도로 당쟁은 극심했다.

과거에 김곡운(金谷雲)과 수답한 시에, “탄식스럽네 애공 십사 년 봄에 공자가 기린 보고 눈물지은 것이”라 하였는데, 시배(時輩)들이 무진년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이 시(詩)를 전파하면서 감히 당저(當寧)의 연기(年記)를 지적했다고 하였네. 대체로 무진년은 을묘년에서 14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네. 소인(小人)들이 사람을 잡는 데에 교묘하기가 이와 같으니 겁이 나네.¹²²⁾

송시열은 김수증과 권상하에게 시를 지어 보낸 적이 있다. 곡운은 김수증의 호이고, 김상헌의 손자다. 황강(黃江)은 권상하가 은거했던 충청북도 한수면 황강리를 가리키며 권상하를 지칭하기도 한다. 권상하는 그곳에 서재를 지었는데 송시열이 주자의 시, 「재거감흥(齋居感興)」에 나오는 ‘가을 달빛이 차가운 물 위에 비쳤다(秋月照寒水)’를 따서 ‘한수재(寒水齋)’라는 편액을 써주었다. 권상하는 한수재를 호로 삼았다. 다음은 그 시의 전문이다.

탄식하노니 노 애공 십사 년 봄에
황황하던 공자께서 기린 보고 눈물지었지

121) 『宋子大全』 제113권, 「與朴士元朴受汝」, “所步韻語 不過以爲是非榮辱只是夢幻之意 而簣鼓之人以無心爲有心 則亦足以死人 須卽火 勿以示人也 孫兒之作亦然耳 總惟僉照.”

122) 『宋子大全』 제113권, 「與朴士元朴受汝」, “○昔年與金谷雲清陰之孫壽增有酬答之章 而云歎息哀公十四春 遑遑尼父泣麤身 時輩遲待戊辰年而始傳播此詩 以爲敢指當寧年記 蓋戊辰是去乙卯十四年也 小人之巧於捉人如此 可怕可怕.”

누가 음사를 좇아낼 수 있을는지
 도리어 틈 만드는 사람 될까 두렵구나
 여수는 출렁출렁 그 물결 넓어지고
 석담은 쓸쓸하게 우물 길 막혔구나
 지금의 세도 무너진 지 오래 되었으니
 천추토록 기다려도 그 죄 똑같은 것을
 (선부에 “이끼가 우물에 가득하고 칙덩굴이 길에 덮였다.” 하였다.)¹²³⁾

이 시는 노 애공 14년 봄에 일어난 획린(獲麟) 사건을 빌었다. 그때 노나라 서쪽에서 기린이 잡혔는데 누구도 그 동물이 기린인지를 몰랐다. 오직 공자만이 기린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사람들이 기린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자신의 도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 대해 탄식했다.

송시열은 공자를 빌어 이이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 상황을 개탄했다. 여수(驪水)는 여주에 살았던 백호 윤휴(尹鑰)를 가리키고, 석담(石潭)은 이이의 호이자 그가 살았던 해주의 석담을 가리킨다. 이이는 1570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해주 야두촌으로 갔다. 그곳은 그의 처가의 전장(田莊)이 있었다. 다음해 그는 석담구곡(石潭九曲)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지어 제자들을 기르고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도 지었다.¹²⁴⁾

을묘년은 숙종 1년으로 송시열이 덕원으로 유배를 떠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진년은 숙종 14년 되는 해이다. 윤중은 숙종 12년 병인년부터 위 시를 빌어 송시열을 비판했다.¹²⁵⁾ 당저는 현재의 왕을 일컫는데 숙종에 해당된다. 송시열은 숙종을 노 애공에 빗댄 정도로 정적들의 공격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윤중은 한때 송시열의 문인이었으나 회니시비(懷尼是非)와 신유의서(辛酉擬書) 사건을 거치면서 갈라지기 시작하여 경신환국 이후 남인 처리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하며 노소분당이 된 후 숙종 14년인 1688년이 되자 노론과 소론 사이의 갈등도 극심했다.

123) 『宋子大全』 제4권, 「次古韻 示谷雲黃江(權尙夏) 求和」, 「歎息哀公十四春 遑遑尼父泣麤身 誰能成得放淫事 堪怕還爲修隙人 驪水蒼茫源派闊 石潭寥落井塗堙 祇今世道荊榛久 佇待千秋知罪均」 (選賦澤葵依井黃葛冒塗.)”

124) 한정주(2015),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다산초당, pp.37-39.

125) 『宋子大全附錄』 제11권.

3) 「정혼원에게 답함」

정혼원(鄭混源)은 송시열의 제자이자 정홍명(鄭弘溟)의 아들이고 정철(鄭澈)의 손자로 이름은 리(洙)이다. 혼원은 그의 자이다. 정철은 이이, 성혼과 함께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송시열은 이 편지를 1689년 2월에 보냈는데 본지와 별지로 나뉘어 있다. 송시열은 우선 먼저 받은 편지에 답장도 못했는데 다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한다.

지난번 편지의 답장을 아직 보내지 못했는데 오군(吳君)이 와서 또 다음 편지를 전해 주어 아울러 외롭고 적막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네. 지난번 편지에 동봉한 별지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지로 말씀드리네. 대체로 주자가 임종하려 할 당시에 문인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과 성인이 만사를 응하는 것은 ‘직(直)’일 따름이다.” 하고, 4일이 지나 또 이르기를, “도리란 이와 같을 뿐이다. 다만 서로들 단단하게 발을 붙여야 비로소 진보될 것이다.” 하였네. 내가 사문(師門)에서 들은 것은 이러하였는데 여휴(驪鑣)가 주자의 도를 배척하고부터는 이 도리가 없어졌으니 지금 세상이 ‘부직(不直)’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네. 오늘날 칼자루를 잡은 자는 여휴의 봉당이니 휴 당시의 논의가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것이네. 그 화독(禍毒)이 다시 문청(文淸)에게 미칠까 두렵네. 그러나 지금은 그 당시와는 차이가 있으니 다만 조용히 사태의 추이를 기다릴 뿐이네. 나의 삭탈관직은 또한 오히려 늦은 것이네. 앞으로의 일이 어떤 상황에 이를지 모르겠네.¹²⁶⁾

송시열은 주자가 임종할 때 했던, ‘천지가 만물을 생하는 것과 성인이 만사를 응하는 것은 직(直)일 따름이다’는 말과 ‘도리란 이와 같을 뿐이다. 다만 서로들 단단하게 발을 붙여야 비로소 진보될 것이다’라는 말을 꺼낸다. 천지가 만물을 낳는 자연의 이치와 성인이 모든 일을 대하는 이치는 직, 한 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나는 법칙을 인문학적으로 읽어내는 성리학적 특성이 잘 드

126) 『宋子大全』 제115권, 「答鄭混源」, 「前書未答 吳君來傳後書 並慰孤寂 前書所胎別紙 乍有得失 故別紙以報 大抵朱子將易箕語門人曰 天地之所以生萬物 聖人之所以應萬事 直而已矣 後四日又謂曰道理只是如此 但相牢固著足 方有進步處 愚之所聞於師門者如此矣 自驪鑣排斥朱子之道 此理消滅 今世之好爲不直無怪也 今日爲刀者 已是驪鑣之黨 鑣時論議必將復張 竊恐禍毒復及於文淸也 然今時則與彼時相遠 只得靜俟而已 愚之削奪亦已晚矣 未知前頭事 至於何界也. ”

러난다.

송시열은 윤휴를 비롯한 남인을 부직(不直)의 무리로 비난한다. 그러나 그 때는 남인이 정권을 잡았으므로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정철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철은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事) 때 위관(委官)으로서 동인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이후 동인은 복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광해군을 지지했던 복인은 인조반정 후 거의 사라졌고 남인이 살아남아 서인과 대립하였다. 그런데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철도 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송시열은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별지에서 송시열은 정리가 전에 보낸 편지에서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고 지적한다. 송시열은 정리의 아버지 정홍명이 최명길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서로 잘 지냈던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묻는다.

별지

전번에 보내온 별지에, ‘세가자제(世家子弟) 이하 두세 줄의 내용은 비록 지적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사세(事勢)가 참으로 매우 난처하였기 때문에 선인(先人)이 일찍이 창랑(滄浪)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와 같이 말한 본뜻을 모르겠네. 그 이른바 ‘지적하는 곳’이란 창랑을 가리킨 것인데, ‘참으로 매우 난처하였기 때문에 선인이 일찍이 창랑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다.’고 한 이 말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이른바 ‘사세가 참으로 매우 난처했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 한 말인가? 만약 ‘창랑이 간당(奸黨)과 합세하여 그 세력이 두렵기 때문에 기야(畸爺)가 두려워서 원한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전혀 의리(義理)도 되지 않고 문세(文勢)도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 당시에 인홍(仁弘)의 세력이 치성(熾盛)하므로 창랑이 그에게 환심을 사려 했던 것은 사세에 얽매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기야께서 용서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의리는 되지 않더라도 문세는 통할 것이네. 아무쪼록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¹²⁷⁾

127) 『宋子大全』 제115권, 「答鄭混源」, ‘別紙 前來別幅所謂世家子弟以下數行文字 雖有指摘處 其時事勢 誠極難處 故先人未嘗畜怨於滄浪者 未詳遣辭之本意矣 其所謂指摘處 指滄浪也 誠極難處

창랑은 최명길의 호고 기야는 정홍명의 호다. 송시열이 보기에 정홍명이 최명길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병자호란 때 대표적 주화론자인 최명길을 대표적 척화론자인 김상헌을 이은 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비록 최명길도 서인이기는 하였으나 대표적인 서인인 정철의 아들인 정홍명이 최명길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시열은 광해군 시절 득세하던 정인홍을 비롯한 복인의 견제를 피해 최명길이 정홍명에게 다가섰던 것으로 이해하고서 정리에게 사실을 확인하려고 묻는다.

송시열은 정홍명과 최명길의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홍명과 최명길이 친밀한 사이였다면 정홍명이 최명길 초상 때 상차, 즉 상중에 상주가 거처하며 집상하는 처소까지 가서도 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후 교의(交義)가 조금도 쇠하거나 끊긴 일이 없었다.’는 말도 의혹되는 바가 있네. 과연 끊긴 사실이 없었다면 창랑의 초상 때 기야가 어찌하여 그의 상차(喪次)에까지 갔다가 끝내 들어가서 곡하지 않았겠는가. 이는 온 나라가 알고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 윤(成尹) 측의 사람들이 공공연히 말하면서 원망하는 점이네. 혹시 자네가 이런 말을 듣지 못하여 끊긴 일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알고 싶네.¹²⁸⁾

성혼 쪽 사람과 파평 윤씨 사람들은 정홍명이 최명길 초상에 조문을 한 일을 비판하였다. 성혼은 사위인 윤황, 외손인 윤선거, 외증손인 윤증으로 이어지면서 소론의 사상적 원류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송시열은 성혼을 서인의 정신적 지주로 받아들였지만 윤선거와 윤증은 윤희와 동류로 보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당시는

故先人未嘗畜怨於滄浪 此語全未曉得 所謂事勢誠極難處云者 指何事而言也 若謂滄浪與奸黨合勢 其勢可畏 故畸爺畏之而未嘗畜怨云爾 則此全不成義理 全不成文勢矣 若謂其時仁弘之勢熾盛 滄浪之求悅於彼者 拘於事勢而不得已 故畸爺容怨云爾 則雖不成義理 而文勢則可通矣 須於後便詳示如何.”

128) 『宋子大全』 제115권, 「答鄭混源」, “其曰厥後交義少無衰替云者 亦有所疑焉 若果無替則滄浪之喪 畸爺何以至其喪次而終不入哭也 此則非但舉國之所知 成尹諸人所以公誦而望之者也 豈君適未聞此 而有無替之語耶 欲知之耳.”

남인의 세상이었고 소론은 노론에 비해 박해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송시열은 소론이 남인과 결탁하여 노론을 핍박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리에게 한마디 말, 한 글자 글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는 최명길(崔鳴吉)이 월정 윤근수(尹根壽)에게 보낸 편지와 월정에게 올린 제문을 자신의 문집에 실을 것처럼 정홍명이 잠와(潛窩)에게 보낸 답장을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윤근수는 선조 때 영의정까지 올랐던 윤두수의 동생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기용되었다. 그리고 이명준(李明俊)은 이정암, 이항복을 거쳐 성혼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인조 때 병조참판을 역임했다.

‘창랑이 월정(月汀)에게 올린 편지와 월정에게 제(祭)한 글을 이미 그의 문집 속에 간행하였으니 선인의 잠와(潛窩)에게 답한 편지를 지금까지 숨기는 것은 그럴 이유가 없을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간(重刊)을 하기로 결정하여 널리 배포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던 것이니 이것이 어찌 대감이 판각(板刻)하라고 권해서 그런 것입니까? 세상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너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대감이 이(洩)를 권해서 판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재(愼齋) 선생이 일찍이 이미 판각을 해 놓고 도로 깎아 버린 일은 큰 잘못이라고 여겨지는데 대감의 뜻은 반드시 신재 선생의 뜻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라고 한 이 글은 말과 뜻이 다 완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개운하게 하였네. 윤선거의 부양(孚養)에 대한 제문(祭文)을 기록해 보내네.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직부직(直不直)을 알 수 있을 것이네.¹²⁹⁾

송시열은 정리가 정홍명의 편지를 공개하는 것을 칭찬하였다. 최명길은 윤근수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문도 썼다. 윤근수는 이황의 문인이면서도 1575년 을해당론으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게 되자 이이, 성혼과 함께 서인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정철이 건저(建儲) 문제로 화를 당할 때 광해군을 적극 추천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상당수 서인들이 숙청당했지

129) 『宋子大全』 제115권, 「答鄭混源」, ‘至於滄浪上月汀書及祭月汀文 既刊於其集中 則先人之答潛窩書 到今隱祕 似無其理 故決意重刊 不憚其廣布 此豈大監勸刻而然耶 世人之疑 可謂不知之甚也 設或大監勸洩而入刻 有何不可乎 愼齋先生曾以既刊還削 大以爲非大監之意 必與愼齋先生之意一般也 此數行則語意俱到 令人神醒 尹祭孚養文錄去 見此則可知其人之直不直也.’

만 그는 원로 대신으로 조정에 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명길은 아버지 최기남이 계축옥사 때 실각하여 병사했고 그 또한 한 동안 과거를 볼 자격도 얻지 못하기도 했다. 계축옥사는 광해군에게 위협이 되는 영창대군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고자 대북파가 벌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소북파는 물론 서인과 남인도 대부분 몰락하였다. 이처럼 최명길과 윤근수는 같은 서인이면서도 운명이 서로 많이 달랐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고 제문을 써주기도 하는 사이였다. 정홍명의 아버지 정철은 서인이면서도 광해군을 지지했던 인물이지만 이명준은 1613년 계축옥사 때 영덕으로 유배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장령에 복직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도 모두 서인이었으나 운명은 상당히 달랐다. 그러면서도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유지했다. 정리는 아버지가 교류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했고 아버지의 문집을 중간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다. 송시열은 정리의 이런 점을 칭찬했다.

송시열은 정리에게 윤선거가 쓴 부익(孚翼) 정양(鄭養)을 위해 쓴 제문을 적어 보내며 윤선거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한다. 최명길과 윤근수, 정홍명과 이명준의 관계와 달리 윤선거와 정양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이다. 정양은 윤선거처럼 병자호란 때 난을 피해 강화로 갔다가 성이 함락되자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수년간 은거하다가 벼슬길로 나갔으며 송시열, 유계 등과 친교를 맺었다. 이에 비해 윤선거는 가족마저 버리고 혼자 평민 옷으로 변장하고 강화를 빠져나왔다. 송시열은 윤선거의 이러한 행동을 곧지[直] 않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송시열은 유배를 가면서도 강직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세가 어렵다고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엄격함 그대로다.

4) 「아들에게 부침」

송시열은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르기 직전에 아들 송기태에게 편지를 보냈다. 송시열에게 효종의 어찰을 바치라는 어명이 내려진 것은 제주로 유배 갈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거제로 유배 갔을 때에도 어명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송시열은 어찰을 올리지 않았다.

거제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어찰(御札)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권했지만 끝내

듣지 않은 것은, 어찰을 받던 날 ‘은밀히 간직하여 함부로 내어놓지 말라.’는 성상의 하교를 차마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래에 비록 주상의 명이 있었으나 내 몸소 바치지 않으면 그 역시 온당치 못한 일이므로 그때에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효묘(孝廟)께서 뜻하신 일을 금상(今上)께서 일찍 알아야 하고 지난날 기세를 꺾었다는 말을 농담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너로 하여금 대신 올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당시 네가 내 앞에 없었고 급한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 주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정원(政院)에서 끝내 저지하면 은밀히 간직하였다가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올리도록 하여라.¹³⁰⁾

한 가지 이유는 효종이 어찰을 전해주던 날 ‘은밀히 간직하여 함부로 내어놓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어찰을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자신이 직접 바치고 싶었지만 유배지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 받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이런 송시열의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다. 어명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송시열도 부담스러웠다. 또 숙종이 효종의 뜻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꼈다. 그래서 다시 유배지로 떠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직접 올리지는 못하고 아들에게 대신 올리라 한다. 혹시 자기가 죽게 되더라도 꼭 올리라고 당부한다.

송시열은 윤선거가 구천과 경연광의 일을 거론하고 글로도 남긴 것을 비판하였다. 구천은 춘추 시대 월나라 임금이고, 경연광은 오대 때 진(晉)나라 사람이었다.

당윤(堂尹)은 ‘구천(句踐)은 속임수를 썼고, 경연광(景延廣)의 행위는 미친 짓이었다.’는 말을 차마 하였고, 문자(文字)에 드러내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더구나 구천의 사적에 대해서는 주자(朱子)께서도 옳게 여기셨는데 그는 주자를 불신했으니 어쩔 수 있겠느냐. 내가 일찍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상(聖上)의 총애를 크게 받아 다시 더 염려할 것이 없게 되었고 이제 이 어찰(御札)을 너에게 부탁하게 되니, 네가

130) 『宋子大全』 제125권, 「寄子」, “御札 巨濟時諸人勸出甚力 而終不聽者 以當日密勿聖教 有不忍違故也 今者雖有上命 非躬進則未安 故其時亦不聽人言矣 旋思之 孝廟之志事 今上不可不早知 而舊時沮撓之說 或不能調戲 故卒爲使汝呈進之計矣 其時汝不在前 而事出倉皇 故不能詳言 是可恨也 政院終若阻攔則須密藏之 我死後更進之 可矣.”

알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략 말하는 것이다. 기타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주손(疇孫)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이미 뱃머리에 도착하였으니 곧 떠날 것이다.¹³¹⁾

당윤은 윤선거를 가리킨다. 구천은 와신상담의 주인공으로 오왕 부차의 침략으로 월나라가 멸망하자 그의 신하가 되어 굴욕을 참고 어려움을 견딘 후 신하 범려(范蠡)의 도움을 받아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경연광은 후진의 초대 황제인 석경당(石敬瑭)이 죽자 그의 조카 석중귀(石重貴)를 옹립하고 실권을 잡았다. 그는 요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던 협약을 거부하고 요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하고 결국 자결하였다. 주자는 구천은 긍정하였으나 경연광은 비판하였다. 송시열은 윤선거가 두 사람을 거론한 이유가 자신을 겨냥하여 구천의 권모술수와 경연광의 만용을 비판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효종과 복별정책을 논의했던 어찰을 올려 본의를 분명히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송시열은 송기태에게 선조의 묘와 사당을 지키고 제사를 이어나가라고 당부하였다. 송시열에게는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었으나 아들 셋, 송순(宋純), 송희(宋懷), 송석(宋惜)은 어렸을 때 죽었고, 큰딸은 권유(權愈), 작은딸은 윤박(尹博)에게 출가했다. 대가 끊긴 송시열은 사촌 송시형(宋時瑩)의 장남 송기태를 양자로 맞았다. 송기태는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송은석(宋殷錫), 송주석(宋疇錫), 송무석(宋茂錫), 송순석(宋淳錫)과 송희석(宋晦錫)이고, 딸은 최성서(崔星瑞)에게 시집갔다.

너를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뜻은 일찍이 은석(殷錫)에게 보낸 편지에 말하였듯이 청음 선생(淸陰先生)이 김동지(金同知)를 청 나라에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은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는 선조의 묘와 사당을 지켜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도록 하여라.¹³²⁾

131) 『宋子大全』 제125권, 「寄子」, “堂尹忍以句踐詐矣 延廣狂矣 至形諸文字 心切痛焉 況句踐事朱子是之 而渠不信朱子 奈何奈何 吾未嘗爲此言者 意有所在也 今則大被聖上寵獎 無復可慮 而今以此御札託汝 汝不可不知 故略言之 自餘都付疇孫矣 吾行已到船頭 朝夕舉帆矣.”

132) 『宋子大全』 제125권, 「寄子」, “汝不可入來之意 曾於殷錫書言之矣 吾以淸陰先生不許金同知隨入虜中之意處汝 汝則一以守墳墓祠堂 不絕香火自任也.”

송시열은 이미 맏손자 송은석에게 편지로 일러두었듯이 다시 한 번 송기태에게 가문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 송시열은 김상헌의 예를 들었다. 김상헌은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출병을 요구하자 반대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로 끌려간다. 이때 아버지를 모시려는 아들 광찬(光燦)에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상헌은 생부가 김극효(金克孝)지만 백부 김대효(金大孝)에게 3세에 입양되었다. 그 또한 자손이 없어 사촌동생 김상관(金尙寬)의 둘째 아들 김광찬을 양자로 두었다. 김광찬은 인목왕후(仁穆王后)의 조카사위이자 영창대군의 사촌 매형이다.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한 김상헌은 아들이 청나라로 따라오는 것을 반대하였다. 김광찬은 아들 셋과 딸 다섯을 두었는데 아들은 김수증(金壽增), 김수흥(金壽興), 김수항(金壽恒)이고, 딸은 이정악(李挺岳), 홍주천(洪柱天), 이중휘(李重輝), 송규렴(宋奎濂), 이광직(李光稷)에게 출가했다. 김수흥과 김수항은 영의정을 지냈고, 김수증의 손녀는 숙종의 후궁인 영빈 김씨다. 제주로 유배가면서 송시열은 멸문지화는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또한 송시열은 아들에게 전년에 죽은 손자 회석의 묘표를 마련하라고 하였다. 회석은 1688년 10월에 죽었다. 비문은 자신이 지어 손자 주석에게 전해두었으니 속리산에서 마땅한 돌을 구해 세우라고 하였다.

내가 만일 무사했더라면 금년 봄에는 꼭 회석(晦錫)의 묘에 조그만 묘표(墓表)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 틀렸다. 올 때에 조카 기학(基學)에게 부탁하여 속리산(俗離山)에서 돌을 구하도록 하였는데, 대체로 그곳의 석질(石質)은 옥과 같아 적은 것이라도 백세(百世)는 마멸되지 않는다. 연락하여 의논하도록 하여라. 비문은 이미 지어서 주석에게 주었다.¹³³⁾

송시열은 제주로 가면서 비문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지었으면 굳이 손자 편에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로 가는 와중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 상황을 가늠하며 가사도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비롯하여 가문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였다. 나랏일뿐만 아

133) 『宋子大全』 제125권, 「寄子」, ‘吾若無事則必欲於今春刻樹小表於晦墓矣 今已意阻矣 來時屬學姪求石於俗離 蓋其品如玉 雖小可以百世不磨矣 須與通議也 文則已成而授贖矣.’

나라 집안일도 허투루 두지 않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대체로 이후 모든 일은 모두 너에게 달렸다. 내가 매양 너의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기품이 남보다 뛰어나지만 과단성 없이 머뭇거리는 습성이 일생의 병통이다.’고 하였다. 이 병통은 울곡(栗谷)께서도 자책(自責)하시던 것인데, 더구나 그 밖의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제 너의 혈기가 이미 쇠약했으니 이 병통이 더할 것이다. 그러나 잔단 가정일과 여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다시 누구에게 책임지워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느냐. 이제부터 정신과 근력(筋力)을 가다듬어 한결같이 법도로써 종족을 보존하고 가정을 다스리기를 천만번 빌고 또 빈다.¹³⁴⁾

송시열은 아들이 기품은 있으나 우유부단한 점이 늘 안타까웠다. 이이도 자신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자책한 적이 있으니 지나치게 자기비하를 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정을 잘 다스리길 기대했다.

송시열은 박태보가 자신의 아버지 송갑조를 무함했던 일도 윤선거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태보는 박세당의 아들이자 윤선거의 외손으로 송시열과 윤선거가 부딪혔을 때 윤선거를 지지하였다.

박태보(朴泰輔)가 선부군(先府君)을 무함한 것은 틀림없이 윤(尹)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치도(致道)가 말하기를 ‘서문식(徐文弼)이라고 하는 자가 이(尼)로부터 와서 그 일이 윤(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명언(明言)하였다.’고 하였다. 나는 세도(世道)를 위해서 부득이 그의 아버지를 공격했으나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망을 갚는 것은 직(直)으로써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어찌 윤(尹)을 책망하겠느냐.¹³⁵⁾

134) 『宋子大全』 제125권, 「寄子」, “大抵此後凡百 都在於汝矣 吾每謂汝諸子 以爲汝父氣稟人所不及 而只其因循之習 爲一生病根云矣 此病栗谷猶自訟 況餘人乎 今汝血氣已衰 則此病當有加矣 然區處家事 教督諸子 更誰責而任他耶 須從此抖擻精神 策勵筋力 一以法度爲保族宜家之地 千萬至祝 千萬至祝.”

135) 『宋子大全』 제125권, 「寄子」, “朴泰輔之誣先府君 固疑其出於尹矣 致道云有徐文弼稱名人自尼來 明言其出於尹矣 吾爲世道不得已而攻其父 其怨我則宜矣 然報怨當以直矣 然此奚責於尹哉.”

여기에서 윤(尹)은 윤중(尹拯)을 가리키고, 이(尼)는 이성(尼城)으로 윤중이 살던 곳으로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魯城)의 옛 이름이다. 송시열이 살았던 회덕과는 계룡산을 사이에 두고 있다. 권상하는 이성에서 온 서문식이 박태보가 송갑조를 비난한 것은 윤중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송시열에게 전했다. 송시열이 윤중의 아버지 윤선거를 비난하자 윤중이 박태보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 송갑조를 비난한 것으로 생각했다. 서로를 비난할 수는 있으나 송시열은 상대를 비난할 때에도 곧음[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중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는 대범함을 보였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랐느냐에 맞춰 비판과 험담이 나뉘지는 것이다.

박태보는 송갑조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기사환국 때에는 인현왕후의 폐비를 극력 반대하였고 그 일로 숙종의 친국을 받고 진도로 유배 가다가 1689년 5월 4일 과천에서 죽었다. 송시열은 그의 죽음을 듣고 슬퍼하여 고기를 먹지 않았고 자손들에게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5) 「은석에게 부침」

송시열이 맏손자 은석에게 편지를 썼다. 순풍이 부는 대로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를 것이라는 말을 손자에게 전하며 기태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우리 일행은 어제 이미 재[嶺]를 넘었으니 바람만 불면 조석간(朝夕間)에 곧 바다를 건널 것이다. 너의 아비가 따라오고자 해도 이제는 늦었다. 그리고 선조의 묘와 사당은 너의 아비가 내 대신 보살피고 제사를 모셔야 하니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음 선생이 북행(北行)할 때, 김 동지(金同知)가 수행하여 모시겠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그 뜻이 다른 것이 아니었으니 이 점을 알아야 한다.¹³⁶⁾

송기태는 노령인 아버지가 제주로 가는데 따라나서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136) 『宋子大全』 제126권, 「寄殷錫」, “吾行昨已踰嶺 得風則朝夕越海矣 汝父雖欲追及 不可得矣 丘墓祠堂 汝父當代我修祀 切不可犯危隨來也 淸陰先生北行時 不許金同知侍奉者 其義無他也 此不可不知也.”

도리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시열은 자신을 보필하기보다는 가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손자에게 아버지를 만류하며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였다. 송시열은 김상헌을 예로 들며 그가 청나라 심양으로 잡혀갈 때 아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한 뜻을 잘 새기라고 하였다. 청음은 김상헌의 호고, 김동지는 김상헌의 양자 김광찬이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북행(北行)은 김상헌이 청나라 심양으로 잡혀간 일을 가리킨다. 김광찬은 김상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까지 따라갔다가 억류가 풀린 소현세자가 귀국하게 되자 김상헌과 함께 돌아오는 효성스러움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1637년 아버지 김상헌이 척화를 주장하며 자살을 기도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그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행길을 함께 했던 것은 그 일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송시열은 맏손자 은석에게 전년, 1688년에 죽은 막내손자 회석의 뒷일을 부탁했다. 송시열에게는 손자가 다섯 있었는데 은석, 주석, 무석, 순석, 회석이다. 그중 회석이 가장 먼저 죽었다. 회석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아들은 무원(婺源)이고, 딸은 김시정(金時淨)에게 출가했다.

흥농(興農) 만가(萬家)의 목화밭은 착실한 사람에게 도지(賭地)나 병작(竝作)으로 주어서 추수를 하여 만가에 보내 주어라. 도둑이 두려우니 판교(板橋), 호음(好音)도 함께 살피도록 하여라. 길 떠날 시간이 임박하여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이만 줄인다.¹³⁷⁾

송시열은 회석이 죽자 그의 아들 무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으로 은석을 세웠다. 송시열은 초년에는 대전 소제(蘇堤)에 살면서 흥농촌(興農村)에 능인암(能仁菴)을 지어 제자를 가르쳤다. 1683년에 능인암 아래에 남간정사(南澗精舍)를 새로 열어 제자를 받았다. 그 근처에 회석의 땅이 있었는데 목화를 길렀다. 만가(萬家)라고 한 이유는 증손 무원의 아명이 증만(曾萬)이었기 때문으로 무원의 집이라는 뜻이다. 송시열은 목화밭을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도록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 무원

137) 『宋子大全』 제126권, 「寄殷錫」, 「興農萬家綿田 須授著實人 或賭地或竝作 秋收而送於萬家 可也 盜患可畏 板橋好音 須竝看檢也 所欲言者 臨行不一.」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판교와 호음에 있는 다른 땅도 잘 관리하여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판교는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을 가리키고, 호음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를 가리킨다. 송시열은 어렸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만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 같다. 막내 손자에게도 여러 곳에 있는 땅을 물려줄 정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이 판교와 호음에 도둑이 들까 걱정했던 이유는 흉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청빈한 것으로 유명했다. 가세가 넉넉지 않아 외가에서 태어났고 8살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후명을 받을 때도 자리를 깨끗한 것을 바꾸라는 권유를 부모가 자리를 깔고 누운 적이 없었다며 물리쳤다. 경신 대기근 때에는 익산 군수였던 동생 송시도가 보내준 곡식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손에게도 땅을 물려줄 정도로 재산을 모은 것이다. 아버지가 가난했기에 그에게 물려준 재산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도 벼슬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증손에게 땅을 물려준 일은 이례적이다. 송시열이 항상 청렴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6) 「무원에게 부침」

송시열은 1689년 2월 15일 새벽 증손자 무원에게 편지를 썼다. 송시열은 전년에 아버지 회석을 잃은 무원의 곁을 떠나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했다. 당시 13세였던 증손이 아비 상을 마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한 채 제주로 유배가야 하는 당시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네 아비의 무덤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었구나. 이는 사설(邪說)이 횡류(橫流)하여 정로(正路)를 막아 예의지국이던 우리나라가 금수와 같은 이적(夷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의 역량은 생각지 않고 부질없이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다가 세상에 원수만 많이 만들었으므로 적휴(賊讎)의 잔당들이 기회를 타서 제멋대로 하니 지금의 사세는 이미 늦었다.¹³⁸⁾

송시열은 당시를 사설이 횡행하여 예의지국이 이적의 나라로 전락한 때로 보

138) 『宋子大全』 제128권, 「寄婺源」, “汝父墳土未乾 而吾有此行矣 蓋邪說橫流 幾於塞路 禮義箕邦 將入於夷狄禽獸矣 吾不量其力 妄爲辭闢之計 以致仇敵溢世 而賊讎餘孽 乘機逞志 今事蓋已晚矣.”

면서 그 중심에는 윤희 세력, 즉 남인이 있다고 보았다. 혼자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다 보니 원수만 많이 생기고 사세는 기울었다고 절망한다.

송시열은 회석이 죽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전한다. 회석은 송시열에게 세상을 고민하기 보다는 집안일을 돌보라고 권유했다. 노령인 할아버지를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시열은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

네 아버지가 지난겨울 병이 위독했을 때 조용히 나에게 말하기를, “할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위한 계책만 하시고 자신을 위한 도모는 하지 않으시니 어찌 명철(明哲)하게 몸을 보존하는 도를 생각지 않으십니까?”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나? 절의(節義)에 있어서는 권순장(權順長), 김익겸(金益兼)에서부터 삼학사(三學士)까지 모두 배척을 당하고, 도학(道學)에 있어서는 울곡(栗谷)에서부터 주자(朱子)까지 그리고 위로 감히 공성(孔聖)까지 차례로 모욕하였다. 적휴(賊鑪)가 ‘공자도 휘(諱)할 것이 없다.’ 하고, 마침내 반대하는 김만중(金萬重)을 탄핵하였고, 박태손(朴泰遜)은 장주(莊周)가 공자를 업신여긴 말로 시제(試題)를 내어서 선비들에게 시험 보였다. 내 어찌 한 그릇의 물로 큰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러나 세상에 맹자나 주자같이 그것을 막고 종식시킬 책임을 지는 분이 없으니 어찌 차마 수수방관만 하겠느냐. 가령 사도(斯道)가 나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보존된다면 퇴지(退之)가 말한 ‘만 번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한 바로 그런 심정이다.”고 하자, 네 아버지가 놀라며 대답하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와 자손들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¹³⁹⁾

송시열은 권순장, 김익겸과 삼학사가 비판받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권순장은 병자호란 때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로 피했다. 의병을 일으켜 성을 지키다 함락되자 화약고에 불을 질러 분사하였다. 그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처와 누이는 자결하였고, 아우 권순열(權順悅)과 권순경(權順慶)도 적과 싸우다 전사하

139) 『宋子大全』 제128권, 「寄婺源」, “汝父於去冬疾革時 從容謂余曰 祖只爲世道計而不爲身謀 獨不思明哲保身之道乎 余曰 今世是何世乎 以節義則由權順長金益兼以至於三學士而俱見排斥 以道學則由栗谷以至於朱子 又敢以上及於孔聖而次第受侮 賊鑪謂孔子不足諱 而遂劾金萬重 朴泰遜以莊周侵侮孔子說爲題試士 吾豈不知杯水不能救車薪之火乎 然而世無如孟朱者任其拒熄之責 則何忍袖手傍觀而已乎 若使斯道由我而一毫不泯 則退之所謂滅死萬萬無恨者也 汝父洒然而答曰 信然矣 吾儕子孫與有光矣.”

였다. 김익겸은 김장생의 손자이자 김집의 조카다. 그 또한 권순장,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강화성 남문에 화약궐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걸터앉아 화약을 폭발시켜 자결하였다. 김상용은 김상헌의 형이다. 송시열은 장손 은석을 박승건(朴承健)의 딸과 결혼시켰는데 박승건의 장모가 김상용의 딸이었다. 윤중 입장에서는 아버지 윤선거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평민 차림으로 강화도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강화에서 자결한 사람의 존재가 불편했을 수도 있다. 송시열의 큰형 시희는 1627년 정묘호란 때 전사했고, 형수 김씨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아버지 갑조는 다음해에 국치를 당한 슬픔에 더해 아들과 며느리의 잃은 상처로 세상을 떴다. 그래서 송시열은 윤중을 윤희의 무리로 보면서 그가 권순장과 김익겸을 폄하한 것으로 본 듯하다. 윤중은 김상용이 강화유도대장(江華留都大將)이었으므로 성이 함락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자결할 수는 있으나 권순장과 김익겸은 목숨을 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삼학사는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와 윤집(尹集)으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친을 배척하여 청나라로 잡혀갔던 인물들이다. 홍익한은 난중에 두 아들과 사위를 잃었고, 아내와 며느리는 자결하였다. 척화파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청나라로 끌려가 처형되자 어머니와 딸 하나만 남게 되었다. 오달제도 척화파의 대표로 자진하여 청나라로 끌려가 심양성(瀋陽城) 서문 밖에서 처형됐다. 윤집도 오달제와 함께 척화를 담은 상소를 올렸다가 그와 운명을 같이했다. 그의 부인 김씨는 김상헌의 조카이며 그의 손녀는 홍익한의 손자 홍우석(洪禹錫)에게 출가하였다.¹⁴⁰⁾ 당시 조선으로서는 청나라 눈치를 봐야만 했기 때문에 삼학사를 높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김상헌을 계승한 송시열로서는 이런 당시 상황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송시열은 윤희가 율곡과 주자를 비롯하여 공자까지 비판했던 일을 다시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의 호 우암(尤庵)은 주자의 고향인 중국 저장성 우계(尤溪)의 ‘우’와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의 ‘암’에서 가져온 것이라고도 한다. 김만중도 기사환국 때 남해로 유배되었는데 장희빈의 모친에 대한 추문을 지어내고 궁중 기밀을 유포한 홍치상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140) 『國朝人物考』 제64권.

는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자결한 김익겸이다. 그러나 송시열은 김만중이 윤희를 비판했던 이유로 유배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태손은 1688년 대사성으로 시험 감독관이 되어 『장자』 「어부」 ‘행단의 어부가 공자에게 답하다(杏壇漁父答孔子)’를 성균관 유생들에게 시제로 냈다. 송시열은 과거에서 노장(老莊)을 과제(科題)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세가 기울어져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퇴지 한유(韓愈)의 말을 빌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송시열은 윤증이 자신의 아버지 갑조를 비판한 일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윤증이 박태보를 빌어 송갑조를 비판한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은진 송씨와 파평 윤씨는 혼인관계로 긴밀했다. 송시열의 종숙인 희조(熙祚)는 윤창세(尹昌世)의 딸과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자 종형 방조(邦祚)의 아들 시형(時螢)을 양자로 받아 처남인 윤전(尹烜)의 딸과 혼인시켜 송기태를 비롯하여 4남 2녀를 얻었다. 송기태는 나중에 송시열의 양자가 되었다. 송기태의 생모는 강화에서 순절했고 친조부 방조는 형제 중 유일하게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었다. 방조의 처외조부는 정종(定宗)의 아들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이었고, 그의 장남 시영(時榮)도 강화에서 순절했다. 또한 송기태의 부인은 선조의 큰형인 하원군(河原君)의 봉사손(奉祀孫) 이정한(李挺漢)의 딸이었다.

아아, 네 아버지는 이제 죽었으니 누가 다시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나는 아홉 번 죽어도 후회가 없겠다만 증(拯)이 직(直)으로써 보복하지 않고 위로 선부군(先府君)에게까지 모욕하는 말을 하니 이는 한없이 절통한 일이다. 그러나 선부군의 대절(大節)은 푸른 하늘같고 빛나는 태양 같으며 또 성조(聖祖)의 명훈(明訓)이 있으니, 어찌 선부군을 손상시킬 수 있겠느냐? 이 일은 네가 몰라서는 안 된다.¹⁴¹⁾

곧음[直]을 강조했던 송시열로서는 윤증이 송갑조를 비판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인목왕후는 폐

141) 『宋子大全』 제128권, 「寄婺源」, “嗚呼 汝父今其死矣 誰復有信及者乎 吾則九死而無悔也 惟拯也不以直報怨 誣讎之言 上及於先府君 是則窮天至痛也 然府君之節 如青天如白日 又有聖祖明訓 其何傷於府君乎 此事汝不可不知也.”

모되어 서궁에 유폐된다. 송갑조는 1617년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다음 비밀리에 서궁을 찾아 폐모를 배알하였으나 다른 합격자들은 서궁을 없애라는 소¹⁴²⁾를 올렸다. 그런데 그들이 상소문에 송갑조의 이름도 함께 올렸다. 박태보는 이를 근거로 송갑조를 비판한 것이다. 송시열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689년 1월에 소¹⁴³⁾를 올리기도 했다.

무원의 아명은 증만(曾萬)이었다. 송희석은 아들의 아명을 고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송시열은 무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청음 선생은 김상헌을 가리킨다. 김상헌이 송시열에게 지어준 시¹⁴⁴⁾가 있는데 그 속에 ‘무원의 정맥을 따른다’는 구절이 있다. 무원은 주자의 고향으로 주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네 아버지가 너의 유명(乳名)을 미처 고쳐주지 못하였는데, 이제 너를 무원(婺源)이라고 부르겠다. 무원은 주자(朱子)의 고향이다. 청음 선생(淸陰先生)이 일찍이 나에게 시(詩)를 주셨는데, ‘무원의 정맥(正脈)을 따른다.[婺源追正脈]’라고 한 구절이 있었으니, 이는 선정(先正)께서 도(道)로써 먼려(勉勵)하신 깊은 뜻이다. 대체로 도학(道學) 두 글자는 사화(士禍) 이후로 세상에서 꺼리는 말이 되었다. 그러나 너의 외가에서만은 택당 선생(澤堂先生) 이래로 공공연히 전승하면서 그 논설(論說)에 모두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주로 하였다. 너는 이를 연원(淵源)으로 삼아 조금이라도 다른 말에 의혹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명(命名)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¹⁴⁵⁾

송시열은 사화와 환국으로 사대부들이 죽음을 맞기도 하지만 증손으로 하여금 도학을 공부할 것을 당부한다. 무원의 어머니는 덕수(德水) 이씨로 택당 이식(李植)의 손녀다. 이이(李珥)와 이순신(李舜臣)도 덕수 이씨다. 이식은 1610년(광해군

142) 『光海朝日記』, 「광해군 9년 정사(1617) 12월 18일(기유)」.

143) 『宋子大全』 제20권, 「辨皆毀牛溪之謗仍白先誣疏」.

144) 『淸陰集』 제4권, 「次宋持平時烈韻」, “黃河不見淸 鳳鳥不聞鳴 撫世傷今日 懷賢起遠情 微言絕 洙泗 古樂杳咸談 誰識龍門士 胸中有太平 高人棲遁處 水際復雲邊 夢去穿深峽 書來出沃川 婺源追正脈 義象玩遺編 吾道遭廻日 期君重廓然.”

145) 『宋子大全』 제128권, 「寄婺源」, “汝父未及改汝乳名 今名汝以婺源 婺源是朱子鄉關也 淸陰先生嘗贈余詩曰 婺源追正脈 此先正之勉人以道之深意也 夫道學二字 自士禍以來 爲世所諱 而惟汝外家自澤堂先生以來 乃能公誦 而其爲論說 一主於大全語類 汝須以此爲淵源 毋或遷惑於異言 則庶不負吾今日命名之意矣.”

2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낙향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나아갔고 1642년(인조 20년) 김상헌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여 심양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원래 『선조실록』은 대북파인 기자헌(奇自獻)과 이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찬술되었다. 그러다보니 대북파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고 더구나 여러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사초 또한 부실하였다. 인조가 즉위한 후 실록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광해군일기』 편찬 작업이 겹치면서 미뤄지다가 1641년(인조 19년) 당시 대제학 이식이 나서면서 『선조수정실록』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송시열은 증손 무원에게 외증조 이식이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 연구에 매진했던 것처럼 학문에 힘쓰라고 당부하였다.

송시열은 증손이 어린 나이였고 아버지를 잃었지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학습하라고 당부하였다. 아버지 송희석은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어린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아아, 너의 나이 이미 13세이다. 너의 아비가 병이 심할 때에도 오히려 매를 때리면서 너를 가르치던 일이 생각나지 않느냐. 너는 모름지기 너의 외할아버지와 두 외삼촌을 따라 매일 공부하되 조금이라도 방과(放過)하지 말아서 언제나 죽은 네 아비의 뜻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라.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먼 길을 온 뒤라 너무 피곤하여 다하지 못한다. 기사년(1689, 숙종15) 2월 15일 새벽 증조부는 촛불을 켜고 쓴다.¹⁴⁶⁾

송희석이 죽자 무원은 외가로 간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은 무원에게 외할아버지와 두 외삼촌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송무원의 외조부는 이단하(李端夏)이고, 외삼촌으로는 이번(李蕃)과 이전(李田)이 있었다. 열심히 공부하여 먼저 떠난 아버지의 뜻을 잘 세우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1689년 3월 1일 이단하에게 벽립만인(壁立萬仞)과 직지일자(直之一子)를 써 보내며 무원을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¹⁴⁷⁾

146) 『宋子大全』 제128권, 「寄婺源」, “噫 汝年已十三矣 汝不念汝父疾甚時 猶行鞭撻而課汝乎 汝須從汝外大父及兩舅氏 逐日課讀 毋或斯須放過 一以勿孤汝亡父之志爲心也 所欲言者 不止此 而行役之餘 憊甚不一 己巳二月十五日曉 曾祖父呼燭作此.”

송시열은 송규렴에게 효종과 명성왕후의 편지를 임금에게 올리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적어 보냈다. 만덕사에서 호연을 놓고 토론을 벌였던 박광일과 박중희에게는 며칠 동안 토론으로도 다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짚으며 사상적 핵심이 곧음[直]에 있음을 강조한다. 곧음에 대해 강조한 내용은 「정혼원에게 답함」, 「무원에게 부침」에도 담겨있다. 특히 증손 무언에게 보낸 편지에는 무원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주희와 김상헌을 잘 이어받으라는 데 있음을 밝히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읽어야 할 책으로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선정하면서 학문의 요체로 삼아야 할 내용을 확정하였고, 13세란 나이가 학문에 힘써야 할 때임을 밝혀 나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 수준에 대한 개념의 일단을 비치기도 하였다. 아들과 장손에게는 조상을 잘 모시고 자녀를 잘 가르치며 교육에도 한 치 빈틈을 두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손자 및 증손 교육에까지 마음을 쏟는 모습은 현대에 주목받는 격대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깊다.

4. 잡저(雜著)

송시열은 강진까지 따라온 외손을 돌려보내면서 글을 적었고, 홍익한의 문집인 『화포집』 서문과 『주자대전』 주석서인 『주자대전차의』의 서문을 썼다. 『주자대전차의』는 『논맹혹문정의통고』와 함께 그가 평생을 매달렸던 학문적 과업으로서 『주자대전』 전체에 대한 주석서인데 중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과 이황을 비롯한 동인의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고 종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주로 가는 길에 김장생 묘를 지날 때는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도 올렸다.

1)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시열은 딸 둘을 두었다. 큰딸은 권유(權愈), 작은딸은 윤박(尹博)과 결혼했다. 권유의 아버지는 권시(權謨)이고, 할아버지는 권득기(權得己)다. 윤박의 아버지는

147) 『宋子大全附錄』 제11권.

윤문거(尹文舉)이고, 할아버지는 윤황(尹煌)이다. 윤문거는 윤선거의 형이다. 그러므로 윤박과 윤증(尹拯)은 사촌지간이다. 또한 윤증은 권시의 큰딸과 결혼했다. 송시열의 당숙인 송희조(宋熙祚)는 윤선거의 고모와 결혼했고, 송시열의 사촌 형 송시형(宋時瑩)은 윤선거의 사촌 누이와 결혼했으며 윤증의 아들 윤행교(尹行敎)는 송시열의 5촌 조카 송기후(宋基厚)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듯 세 집안은 결혼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예송논쟁에서 송시열과 윤선거가 부딪쳤고 이때 권시는 윤선거를 지지하면서 송시열과는 멀어졌다. 그래서인지 권득기의 묘갈명은 송시열이 썼지만 권시의 묘갈명은 윤증이 썼다.

너희 두 손자가 험한 길에 나를 전송하느라 해상(海上)의 소사(蕭寺)까지 왔다가 돌아가는구나. 나는 죄는 큰데도 책벌(責罰)이 가벼워서 아직까지 목숨을 보전하고 있으니, 성은(聖恩)이 지극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러나 시의(時議)로 본다면 진정 회옹(晦翁)이 이른바 ‘머리를 목 위에 붙인다.[頭黏頸上]’는 때이니, 너희들과는 지금이 영결(永訣)이 될 것이다. 옛날 시인(詩人)이 위양(渭陽)에서 외삼촌(外三寸)을 전송하는 시를 읊었는데, 주자가 이를 잘한 일이라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번 길에 너희 어머니를 보지 못한 것을 생각지 못하느냐. 더구나 윤손(尹孫)은 겸하여 형을 잃고 외롭기까지 하니, 오직 권손(權孫)은 더욱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도와야 한다. 성인(聖人)이 예(禮)를 만들 적에 외삼촌[外舅]에게는 삼월복(三月服)을 입게 하고, 이모[從母]에게는 오월복(五月服)을 입게 한 것은 모(母) 자가 같기 때문이다. 148)

해상의 소사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로 보인다. 권, 윤 두 외손이 송시열을 따라 그곳까지 왔다가 1689년 2월 25일 떠났다. 송시열은 시절이 수상한데 기꺼이 동행했던 외손을 보내놓고 고마운 마음에 글을 적었다. 회옹은 주자의 호다. 주자는 ‘머리를 목 위에 붙인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금방 죽게 되었다’는 뜻이다. 송시열은 외손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면서 위양의 정(情)과 관련된 고사를

148) 『宋子大全』 제136권, 「海上送權尹二孫北歸說」, “汝二孫間關送我 至海上蕭寺而歸 我則罪大責薄 尙此假息 聖恩至矣 夫復何望 然以時議觀之 則正晦翁所謂頭黏頸上者 與汝輩從此訣矣 昔詩人詠渭陽之送 而晦翁以爲善端 汝輩此行 豈不念母之不見耶 況尹孫兼且終鮮 惟權孫益加相愛之心 以相周旋可也 聖人制禮 服外舅三月 而從母五月者 以母字之同故也.”

들었다. 춘추 시대 진 강공(秦康公)이 외삼촌(外三寸)인 진 문공(晉文公)을 전송하면서 지은 시, 『시경(詩經)』 「진풍(秦風)」 위양에 “외삼촌을 배웅하러 위수까지 나왔는데, 무엇을 드리리까. 수레랑 말을 드리지요.(我送舅氏 曰至渭陽 何以贈之路車乘黃)”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외손자가 외조부를 전송할 때도 위양의 정이라고 한다. 송시열은 외손에게 배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손에게 윤손을 잘 돌봐주라고 하였다. 윤손이 형을 잃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다. 권씨 외손으로는 이정(以鎡), 이개(以錯), 이진(以鎭), 이발(以發)이 있는데 넷 중에 누가 송시열을 따라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윤씨 외손으로는 은교(殷敎)와 주교(周敎)가 있었는데 형을 잃은 아우가 왔다는 말로 보아 주교가 배웅을 온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은 두 외손이 더욱 우애 깊게 지내기를 바랐다. 남매보다 자매가 더 가깝기에 성복(成服)에서도 차이를 두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성복에는 오복제도(五服制度)가 있는데 참최삼년(斬衰三年), 재최삼년(齊衰三年), 대공(大功, 9월), 소공(小功, 5월), 시마(緦麻, 3월)의 5가지이다. 그런데 외삼촌일 때는 3월복을, 이모일 때는 5월복을 입는 것처럼 이종사촌끼리 더욱 친밀하게 지낼 것을 당부한 것이다.

송시열은 주자의 말을 통해 외손에게 교훈을 전했다. 주자는 임종에 이르러 학문의 요점을 곧음[直]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했다. 주자는 성인이 만사에 대응하는 성(性)과 천지가 만물을 내는 이치[理]를 하나로 보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했다. 인간의 도덕법칙과 자연의 존재법칙을 하나로 보고 당연(當然)과 자연(自然)이 일치하는 것을 최고의 상태로 본 것이다. 이러한 최고의 상태가 바로 곧음[直]이다. 꾸준히 옳은 일을 행하고 그른 일을 하지 않으면 곧음에 이르게 된다.

너희들은 이미 자식을 두었거나 혹은 앞으로 둘 것인데, 작별에 임하여 한마디 말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자는 임종 시에 문인에게 이르기를, “학문을 하는 요점은 오직 무슨 일이든지 그 옳은 것을 성실히 구하고 그른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래도록 쌓이고 쌓이면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어 하는 일이 저절로 모두 사곡(私曲)함이 없게 된다. 성인이 만사에 대응하는 것과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이 모두 곧음[直]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도리가 또

한 이와 같을 뿐이니, 다만 서로 인도하여 견고(堅苦)하는 공부를 힘쓰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회옹(晦翁)이 집대성한 것은 그 요점이 다만 이 한 글자에 있었을 뿐이다.¹⁴⁹⁾

주자는 공부를 할 때 협동학습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속세를 떠나 혼자 벽을 마주하고 수행을 하는 불가의 공부법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서로 도우며 뜻을 전일하게 하여 애써 노력하는[堅苦] 공부를 진정한 것으로 본 것이다.

송시열은 가학(家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손의 증조 만회 권득기(權得己)가 강조했던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옳은 것을 구하라’는 교훈을 조부 탄곡 권시(權譔)가 잘 지켰으니 두 외손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더구나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옳은 것을 구하라.’한 것은 바로, 권손(權孫)의 증조인 만회 선생이 끼친 교훈(敎訓)이요, 조부인 탄곡(炭谷)이 대를 이어 전수한 것이니, 너는 더욱이 가슴이 새겨 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이 글을 읽어서 이치를 관찰하지 못하면 끝지 못한 것을 끝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의 가르침은 반드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상자에 가득한 황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다 함께 힘쓰라. 기사년(1689, 숙종15) 2월 25일에 쓰다.¹⁵⁰⁾

또한 송시열은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격물치지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이는 주자가 팔조목의 처음으로 둔 것으로 학문의 기초가 된다. 송시열은 이러한 가르침이 황금으로 가득 찬 상자를 남겨주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도의 옥대보다 효종의 어찰을 더욱

149) 『宋子大全』 제136권, 「海上送權尹二孫北歸說」, “汝等或已抱子 或將抱矣 臨別可無一言之贈乎 晦翁將易簣 語門人曰 爲學之要 惟事實求其是 決去其非 積集久之 心與理一 自然所發 皆無私曲 聖人所以應萬事 天地所以生萬物 直而已矣 又曰道理亦只是如此 但相倡率 下堅苦工夫 然則晦翁所以集大成者 其要只在此一字而已.”

150) 『宋子大全』 제136권, 「海上送權尹二孫北歸說」, “況凡事必求是 是權孫曾王考晚悔先生垂訓 而乃祖炭谷公世守衣鉢也 汝尤不可以不服膺也 然人不能讀書觀理 則以不直爲直者多矣 此聖人之教必以格致爲先也 吾之所言只此而已 此豈不愈於黃金滿籩乎 汝等共勉之 己巳二月二十五日.”

중요한 것으로 본 것처럼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송시열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2) 「화포집서」

『화포집』은 삼학사 가운데 한 사람인 화포 홍익한(洪翼漢)의 문집이다. 그는 병자호란이 끝난 후 윤집, 오달제와 함께 청에 끌려가 처형당했다. 청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조는 삼학사 가족을 우대하지 못했다. 송시열은 삼학사 유족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1671년 「삼학사전」을 지었고 홍익한의 묘문(墓文)도 써주었다. 숙종은 1687년에 홍익한에게 충정(忠正), 오달제(吳達濟)에게 충렬(忠烈), 윤집(尹集)에게 충貞(忠貞), 이시직(李時稷)에게 충목(忠穆), 송시영(宋時榮)에게 충현(忠顯)이라는 시호를 추증했다.¹⁵¹⁾ 그런데 홍익한의 외손 심정기(沈廷耆)가 1688년 12월 22일 송시열의 고향 회덕으로 현감이 되어 와서 외조부 문집의 서문을 부탁한 것이다. 그는 해원군(海原君) 이건(李健)의 사위이기도 하다. 이건(1614-1662)은 선조의 일곱 번째 아들인 인성군의 셋째 아들이다. 인성군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진도로 안치되었다가 사사된 후 가족들은 다시 제주도로 유배된다. 이때 규창 이건은 제주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규창집(葵窓集)』에 기록했다.

내가 이미 화포 선생(花浦先生)의 묘문(墓文)을 지었다. 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삼강(三綱)이 없어지지 않고 구법(九法)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그 외생(外甥)인 사군(使君) 심정기(沈廷耆)가 문집 몇 권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아, 판사람의 문장이라면 몰라도 이분의 문장에 어찌 감히 서문을 쓰겠는가. 이로써 삼가 사양하였더니 태수(台叟)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는 내 선비(先妣)의 뜻이다. 선비가 손수 수집한 것으로, 마음속에 늘 맺혀 있던 것이 오직 이 한 가지뿐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모친의 무덤에 가겠는가.”하므로 나 역시 눈물을 적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¹⁵²⁾

151) 『肅宗實錄』, 「숙종 12년 병인(1686, 강희25), 12월 21일(신미)」.

152) 『宋子大全』 제139권, 「花浦集序」, “余既爲花浦先生述墓文矣 嗚呼 三綱不淪矣 九法不斁矣 今其宅相沈使君廷耆台叟氏以文集若干卷 來屬余爲玄晏 嗚呼 他作或可爲 於此作豈可易爲乎 以此

태수(台叟)는 심정기의 자다. 구법(九法)은 홍범(洪範) 구주(九疇)를 가리키는데 하나라 우왕이 요순 이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천지의 대법으로 정치 도덕의 아홉 가지 법칙을 일컫는다. 송시열은 홍익한의 절의(節義)가 드높아 굳이 문집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문집을 내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여전히 청이 건재한데다가 홍익한을 비롯한 삼학사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익한만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은 살해당했고 아내와 며느리는 자결하였다. 그의 어머니와 딸만 남았는데 그 딸의 아들이 심정기다. 송시열은 그 딸의 효성에 감동하여 서문을 적었다.

선생은 절의가 이미 우주를 버티고 이름이 일월처럼 빛났는데, 어찌 문자가 있어야만 천백년 이후까지 증거가 되겠는가. 그러나 선생에게서 나온 문자는 도저히 매몰시킬 수 없다. 인심은 사그라지기 쉬운 법인데, 평인 이하가 어찌 천리, 민이(民彝)를 늘 마음에 보존해 두겠는가. 하지만 이 문자를 본다면 반드시 마음에 환해지고 마음에 분발될 것이니, 이 어찌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지금 세상에는 인을 이룩하고 의를 취한 일을 흠모(欽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혹 배척까지 하는 실정이므로 심지어 오윤(吳尹) 두 선생마저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이런 것을 보고도 오히려 그 식견을 고치지 않으면 이는 참으로 금수이다. 어찌 그들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말하겠는가. 하물며 태수씨의 선비(先妣)의 성효(誠孝)는 돼지와 물고기도 감동시키기에 충분함이라. 그 아들에 태수씨 같은 이가 있음이 당연하다. 이는 더욱 성교(聖敎)를 빛나게 할 만하다.¹⁵³⁾

여기에서 오윤(吳尹)은 오달제와 윤집을 가리킨다. 송시열은 삼학사의 절의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

敬辭則台叟氏泫然而泣曰 此吾先妣志也 先妣手自裒集 耿耿蘊結於心者 惟此一事而已 今又不成 則吾何以藉手而上吾母之墓乎 余亦潸然而更思之.”

153) 『宋子大全』 제139권, 「花浦集序」, “先生既節支宇宙 名懸日月 豈待文字而徵於千百歲之後乎 然文字之出於先生者 則誠不可泯滅也 人心易泯 平人以下 常時豈能存存於天理民彝哉 若見此文字 則必炳然而心明 躍然而心起矣 此豈可不傳於人人哉 況今世不徒不慕成仁取義之事 而或見排抑則並與吳尹二先生而入人齒牙 觀此而猶不革其見識 則此真禽獸也 奚足與言是非哉 況台叟氏先妣之誠孝 足使豚魚感動 其有台叟氏也宜矣 此尤可以光扶聖敎矣.”

고, 삼학사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공정한 평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여기에서 송시열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평민 이하는 삼학사를 잊어버릴 것으로 보았고 사대부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것으로 보았다.

송시열은 『화포집』 서문을 1689년 봄에 썼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송자대전 제139권』 「주자대전차의서문」 앞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서문을 쓴 1689년 2월 12일¹⁵⁴⁾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아, 세도가 날로 쇠해가는 것이 슬프고 사문(斯文)이 더욱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적었다. 금상(今上) 13년에 선생에게 충정(忠正), 계휘(季輝)에게 충렬(忠烈), 성백(成伯)에게 충정(忠貞), 죽창(竹窓) 이공 시직(李公時稷)에게 충목(忠穆), 나의 종형인 송공 시영(宋公時榮)에게 충현(忠顯)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다. 아, 성학(聖學)이 고명하여 먼저 힘쓸 바를 앞이 이와 같았으므로, 꾀음사둔(詖淫邪遁)한 설(說)이 거의 종식되었다. 아, 아름답다. 숭정 기원 후 기사년 봄에 덕은 송시열은 쓴다.¹⁵⁵⁾

계휘(季輝)는 오달제(吳達濟)의 자고, 성백(成伯)은 윤집(尹集)의 자다. 오달제에게는 충렬, 윤집에게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죽창(竹窓) 이시직(李時稷)과 송시열의 종형(從兄)인 송시영(宋時榮)은 병자호란 때 강화성이 포위되고 남문이 함락되자 모두 자결하였다. 심정기가 홍익한을 위해 작은 묘표를 세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되자 송시열의 손자 우석이 묘비를 다시 세우기도 했다.¹⁵⁶⁾

3) 「주자대전차의서」

송시열은 『주자대전차의』를 오래전에 완성하였으나 계속해서 정정했다. 그러다가 1689년 2월 12일에 권상하에게 서문을 지어주면서 김창협, 이회조와 함께 김

154)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55) 『宋子大全』 제139권, 「花浦集序」, 「嗚呼 慨世道之益衰 懼斯文之愈斁 遂垂涕而爲之書如此 今上十三年贈先生諡以忠正 季輝忠烈 成伯忠貞 竹窓李公諱時稷忠穆 洎余從兄宋公諱時榮忠顯 嗚呼 聖學高明 知所先務如此 詖淫邪遁之說 庶幾熄矣 嗚呼休哉 崇禎己巳春 德殷宋時烈書。」

156) 『陶谷集』, 「花浦先生墓表」.

토하도록 당부했다.¹⁵⁷⁾ 그는 서문에서 『주자대전차의』를 쓴 이유를 밝힌다. 조선 시대에 『주자대전』은 필독서였지만 95책에 달할 정도로 워낙 양이 방대하여 선비들로서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퇴계 이 선생이 『주자대전』에 있는 간독(簡牘)을 손수 초(抄)해 내어 20편을 만들고 이름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라 하였다. 또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라는 책자를 만들어, 요긴하고 해득하기 어려운 곳을 풀이하여 몽사(蒙士)를 가르쳤으니, 그 공로가 컸다. 그 뒤에 정 문숙공(鄭文肅公)이 또 『주문작해(朱文酌海)』 8권을 만들어 세상에 간행했으니, 이는 『주자서절요』의 우익(羽翼)이다. 이 두 가지 글을 보면, 전날 『주자대전』을 대할 때 바다를 보는 것처럼 아득한 느낌을 갖던 이도 요약을 말미암아 박람(博覽)에 이를 수 있다.¹⁵⁸⁾

여기에서 정 문숙공은 정엽(鄭曄)을 가리킨다. 이미 이황(李滉)이 『주자대전』에 실린 편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쓰고, 이를 주석한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를 펴냈다. 그리고 정경세(鄭經世)는 『주자대전』 가운데 잡저를 중심으로 긴요한 부분만을 뽑아 『주문작해(朱文酌海)』 16권 8책으로 엮었다. 송시열이 『주문작해』의 발문을 써주기도 했다. 정경세는 유성룡의 문인으로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남인이면서도 오윤겸과 정엽을 통해 이이와 성혼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김장생과 더불어 학문을 논했다. 또한 송시열과 함께 양송으로 일컬어지던 송준길을 사위로 맞았다. 송준길도 정경세를 통해 이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호학과와 영남학파가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송시열은 정엽이 『주문작해』를 지었다고 하였으나 정엽을 정경세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윤겸(吳允謙)은 성혼의 문인으로 영의정을 역임했고, 정엽은 이이, 성혼, 송익필의 문인으로 대사헌을 지냈다. 서인의 거두였으며 늘 이이, 김장생, 김집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었다고 주장했던 송시열이 영남학파의 거두인 이황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157)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58) 『宋子大全』 제139권, 「朱子大全節疑序」, “退溪李先生手抄朱子大全簡牘爲二十篇 名曰朱子書節要 而又有記疑一冊 以釋其肯綮難解處 以訓蒙士 其功大矣 其後文肅鄭公又爲酌海八卷行於世 蓋節要之羽翼也 看此二書 前日望洋於大全者 可以由約而盡乎博矣.”

두 학파를 종합하려고 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주자의 학설을 종합한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 오면서 제주 사람들은 주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주자서절요』, 『주자서절요기의』, 『주문작해』는 주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주자의 편지와 잡저를 중심으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주자대전』의 전모를 밝혀주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송시열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주자대전』 전체 내용에 대한 주석 작업에 착수하여 『주자대전차의』를 완성하였다. 중국에서도 『주자대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석서가 달리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의』라는 글이 『주자서절요』에만 그쳤고, 『주문작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손자 주석(疇錫)과 더불어 『기의』를 속편(續編)하고 『작해』를 통석(通釋)하며, 이에 그 나머지까지도 언급하여 스스로의 유망(遺忘)에 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참람될까 두려워서 문곡(文谷) 김 상국(金相國)에게 품의하였더니, 상국이 기꺼이 듣고 나서 서로 돕기를 허락하였다. 이에 내가 기록되는 대로 질문한바, 그릇된 데를 바로잡고 빠진 것을 보충한 바가 매우 정밀하고 박학(博洽)하였으며, 그의 백중(伯仲)인 곡운(谷雲)과 지당(地堂)의 논의(論議) 한두 가지도 가끔 들어 있다. 대저 이 세 분은 문정 선생의 사손(嗣孫)이다. 선생이 일찍이 주자(朱子)가 주해(註解)한 주자서(周子書)를 80세 이후에도 강론하였으니, 독실히 좋아함이 늙어서도 쇠하지 않았다 이를 만하였다. 대저 율곡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고정(考亭)을 주로 하였고, 율곡 선생이 별세한 후에 모두가 그 비문(碑文)을 문정에게 부탁하려 하였으니, 문정의 학문한 바와 좋아한 바를 여기서도 상상할 수 있다. 상국(相國)의 형제는 사실 가정의 연원(淵源)을 이어받은 까닭에 이번 이 간역(刊役)에 내가 이와 같이 못 잊는 바이다.¹⁵⁹⁾

159) 『宋子大全』 제139권, 「朱子大全筭疑序」, 「顧惟記疑之書 止于節要 而酌海則闕焉 余與孫疇錫嘗欲續記疑 通釋酌海 而因以及於其餘 以自備遺忘 而惟僭踰是懼 稟議于文谷金相國 則相國喜聞而許其相助 余乃隨所筭而奉質焉 則其所訂誤補漏 極其精博 而間或有其伯仲谷雲止堂一二議論 蓋此三公 文正先生之嗣孫 而先生嘗以朱子所註周子書 講論於八十歲之後 則可謂好之篤而老而不衰者歟 蓋栗谷先生之學 專主於考亭 而其沒後碑文 諸意欲屬之文正 則其所學所尚 因亦可想矣 今茲相國兄弟實得家庭之淵源 故於斯役也 拳拳如此也. ”

여기에서 문곡 김상국은 김수항을 가리킨다. 문곡은 그의 호이고, 상국은 정승을 뜻한다. 송시열은 목차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김수항에게 자문을 구했다. 논의가 더 필요할 때는 곡운, 지당과도 의견을 나눴다. 곡운은 김수증(金壽增), 지당 김수흥(金壽興)의 호다. 세 사람은 김상헌의 손자이며 문정은 김상헌의 시호다. 김상헌은 1601년 길운절(吉雲節)의 역옥(逆獄)을 다스리기 위해 안무어사로 6개월 동안 제주도에 머무르기도 했다. 고정은 주희가 늘그막에 살았던 곳이자 그의 호이기도 하다.

송시열은 목차를 포함하여 초고를 완성하자 권상하와 김창협에게 완성하게 했다. 김창협은 김수항의 아들이다. 흑수(黑水)는 윤희를 가리키는데 송시열이 그와 갈라진 후로 그를 지칭하는 표현이었고 참적(讒賊), 적휴((賊鑄)라고도 불렀다.

편차가 대강 이룩되자, 나의 우인(友人) 권상하(權尙夏)에게 부탁해서 상국의 아들 창협(昌協)와 함께 손질하게 하였는데, 나는 기력이 더욱 쇠하고 늙어서 더 이상 힘쓸 수가 없다. 아, 근래 사문(斯文)의 재액(災厄)이 극심하여, 『주자대전』 문자가 먼저는 흑수(黑水)에 의해 더럽혀졌으나 세상 사람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따르는 자가 있었다. 대저 세상 사람이 이를 모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괴이한 말에 혼동하게 되었다. 만일 이 글이 끝내 울타리 밖에 버려진 물건으로 되지만 읽는다면, 어찌 이 글을 인해 그 문로(門路)를 깨쳐서,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백관(百官)의 부화(富華)함을 다 구경할 이가 생기지 않겠는가. 숭정 기원 후 기사년(1689, 숙종14) 봄에 덕은 송시열은 쓴다.¹⁶⁰⁾

송시열은 혼자 작업하지 않았다. 김수항, 김수증과 김수흥의 자문을 받았고 권상하와 김창협에게 마무리 작업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가 독학이 아니라 협업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학습에 있어서도 협동학습은 독학자가 갖는 오류의 가능성을 낮춰준다. 김창협은 김수항의 아들로 노론 가문 출신이면서도 이황에 심취

160) 『宋子大全』 제139권, 「朱子大全筭疑序」, “編帙粗成 乃屬友人權尙夏致道 俾與相國胤子昌協仲和 同其梳洗 而余益衰老 不能復致力矣 噫 比來斯文之厄極矣 大全文字先爲黑水所汚穢 而世人 不以爲怪 而反有信從者 蓋世人不知故不好 不好故皆爲異言所汨亂也 萬一此書終不爲筭籬邊物 則安知不有因此得其門 而盡見宗廟之美百官之富也 崇禎己巳春 德殷宋時烈序.”

해 평생 연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송시열이 주자 학설을 종합하려 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송시열이 주자설을 종합하려 한 것은 윤희가 주자의 증용장구가 틀렸다고 하는 등 주자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극복 대상으로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주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정리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앨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시열은 1689년 2월 8일 고향을 출발하여 2월 11일 고정을 지났다.¹⁶¹⁾ 고정(高井)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를 가리키는데 송시열의 스승 김장생 묘가 있는 곳이다. 주희가 만년을 보냈던 고정(考亭)과 소리가 같다. 송시열은 주희와 김장생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정(高井)이라고 일컬은 것 같다.

충정 62년인 기사년 2월 11일(기유)에 문인 송시열이 조정에 죄를 얻어 멀리 탐라도로 귀양 가는 길에 문원공(文元公)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의 묘가 있는 이곳 고정(高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전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천 선생(伊川先生)이 귀양 가면서 숙모에게 뵙고 가기를 청한 일을 주자(朱子)가 불만스럽게 생각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히 묘에 올라가 참배하지 못하고 송강(松江)의 후손 정천(鄭滄)을 시켜 글을 가지고 가서 고하게 합니다.¹⁶²⁾

정이(程頤)는 송 철종(宋哲宗) 소성(紹聖) 4년(1097) 11월 65세의 나이로 부릉(涪陵)으로 귀양의 명을 받았는데 바로 떠나지 않고 숙모를 찾아뵙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주희(朱熹)는 황명을 바로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송시열은 정이의 고사를 빌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정천을 대신 보낸다. 정천은 정철의 현손이자 인현왕후의 백부인 민정중(閔鼎重)의 외조카로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송시열의 문인이 돼 제주까지 따라왔다.

송시열은 도통의 계보를 세운다. 공자를 이어 주자가, 그리고 주자를 이이가

161)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62) 『宋子大全』 제151권, 「告沙溪先生墓文」, “維崇禎六十二年己巳二月十一日己酉 門人宋時烈得罪于朝廷 遠謫耽羅 戛過高井文元公沙溪金先生之墓 而竊嘗受教以爲朱子不滿于伊川請見叔母之事 故不敢登拜 使松江後孫鄭滄撰文以告曰.”

이었으며 김장생이 뒤를 따랐다고 보았다.

생각전대 군성(群聖)을 모아 대성(大成)한 분은 공자이고 군현(群賢)을 모아 대성한 분은 주자입니다. 전후의 성현이 그 법도는 비록 같으나, 그 박문(博文)과 약례(約禮) 두 가지가 지극하고 공부(功夫)와 역행(力行)이 함께 도저(到底)하여서 요(堯), 순(舜), 우(禹) 이후로 대성의 도(道)에 한 가지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 없이 전일하기로는 주자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곡 선생의 학문은 오로지 주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다행히 주자의 뒤에 태어나 학문이 거의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하였는데, 우리 선생께서는 바로 그 계통을 이으셨습니다. 전에 강론하실 때를 보면 비록 주자(周子), 정자(程子), 장자(張子)의 말이라도 동이점이 있는 것은 취사(取捨)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자가 아니었더라면 공자의 도가 밝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공자의 도가 밝아지지 않았더라면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귀에 익고 가슴에 새겨져서 비록 성인이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¹⁶³⁾

요, 순, 우의 도를 집대성한 이가 공자였고, 공자의 도를 밝힌 이가 주자였다. 이는 주자의 도가 어긋나지 않게 후대에 전했으며 김장생은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및 장재(張載)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차이점을 취사선택하여 정리하였다. 송시열은 공자의 위대함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자의 위대함을 드러낸 이가 바로 주자였음을 강조하였고 이이와 김장생이 훌륭했던 이유도 주자를 후대에 잘 전달한 데에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김장생을 이어받은 자신도 통의 계열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윤휴, 윤증을 비롯한 남인과 소론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송시열은 윤휴를 비롯하여 윤선거와 윤증을 비판한다. 그가 거제도로 유배를 간 것도 제2차 예송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난신적자에게 엄격했던

163) 『宋子大全』 제151권, 「告沙溪先生墓文」, “竊惟集群聖而大成者孔子也 集群賢而大成者朱子也 前後聖賢 其揆雖一 然其博約兩至 功力俱到 無一不合於堯舜禹以來大成之道 則未有若朱子之專者也 以故栗谷先生之學 專出於此 嘗曰幸生朱子之後 學問庶幾不差 惟我先生實承其統緒矣 竊聞於講論之際 雖周程張子之說 有所異同 則不無取舍矣 常曰 微朱子則孔子之道不明 不明則不傳矣 惟茲小子耳熟而膺服 以爲雖聖人復起 不可以易斯言也.”

송시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불행히도 패려한 기운이 뭉쳐서 출생한 윤희(尹鑄)란 자가 있어서 감히 주자를 공격하고 배척하기에 전력을 다하므로, 제가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고 힘을 다하여 그 자를 배척하였다가 그의 질시의 대상이 되어 거제도(巨濟島)로 귀양 가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윤선거(尹宣舉)는 우계 선생(牛溪先生)의 외손이요, 또 사숙(私淑)한 사람이면서도 윤희를 도와 매우 힘써 사문(斯文)을 해치므로 제가 또한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칠 때는 그 당여(黨與)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한 『춘추(春秋)』의 필법에 의하여 선거(宣舉)를 아울러 공격하였더니, 그의 아들 윤拯(尹拯)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여 회개할 도리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저를 원수로 여겨 드러내놓고 혈뜯으며 윤희를 추겨 주어 그들의 세력을 남몰래 치성(熾盛)하게 만들었고 종국(宗國)이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도 감히 울곡 선생을 혈뜯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좀 지나치게 공격하였더니, 그로 인하여 저를 원수같이 미워하면서 혈뜯고 욕하는 말이 바다가 넘치듯 하수가 가득하듯 한데, 그의 동조자들에게는 또한 옛날 울곡 선생을 공격하던 사람의 자손이 많습니다. 지금 조정에 일이 있어서 소자가 마침내 이 귀양길을 떠나게 되자 윤拯(尹拯)은 곧 날뛰고 있습니다만, 진실로 우리 도가 저로 말미암아 다 망하지 않게 된다면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한이 없겠습니다.¹⁶⁴⁾

송시열은 윤희(尹鑄)가 주자를 상대화하였고, 윤선거는 그런 윤희를 지지하였기 때문에 비판했다. 윤선거는 성혼의 외손이자 문인이면서도 윤희를 비판하지 않는 점을 송시열은 이해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의 수제자였던 윤증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갈라선 점도 비판했다. 윤희가 주자를 비판하는데도 윤선거와 윤증이 윤희를 옹호하는 바람에 이이마저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종국(宗國)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데 송시열은 남인 세력이 득세하면서 나라의 기틀

164) 『宋子大全』 제151권, 「告沙溪先生墓文」, “不幸有尹鑄者 戾氣所鍾 乃敢攻斥朱子 不遺餘力 小子不自揣量 極力觝排 爲其所嫉 曾有巨濟之行 先是尹宣舉以牛溪宅相故 又爲私淑之人 而黨鑄甚力 以阨斯文 小子又以春秋之法 亂臣賊子 先治其黨與 并與宣舉而攻之 則其子極不思自反蓋愆之道 而反讎視小子 顯有抑揚 使其勢潛熾 宗國將亡 又敢爲詆侮栗谷之說 小子不勝驚愕 攻擊之言 或過其中 因以仇嫉謗讟 海溢河漫 彼之相與黨助者 又多昔時攻栗谷人之子孫也 今因朝家有事 小子遂有此行 而拯乃騫騰 小子因以爲苟使吾道 由吾不至盡亡 則雖滅死萬萬 無恨矣.”

이 흔들린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를 중국이라고 함으로써 청을 인정하지 않고 명을 이은 것은 우리나라라고 여기는 그의 소증화사상이 드러난다.

송시열은 자신이 편협하고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주자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자는 사문난적으로 보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문득 스스로 생각건대,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힘써 실천하지 못하고 기질(氣質)을 잘 변화시키지 못한 탓으로, 이것이 혈기의 사심에서 나온 것이요, 의리의 정도(正道)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남해(南海)의 귀신이 벌주어 죽일 뿐만 아니라, 선생께 죄를 지음이 심할 것입니다. 우선 이 뜻으로써 선생의 존령(尊靈)께 고하여 조문석사(朝聞夕死)의 터전을 삼을까 하니, 원하건대 선생께서는 굽어 흠향하소서.¹⁶⁵⁾

송시열은 주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수양이 부족하여 포용력을 기르지 못한 탓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반성적 태도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 태도이므로 이 점은 제주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원자 정호를 비판하는 소를 올렸다가 유배형에 처해져 제주로 오는 동안에 쓴 글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 시간순 제주 도착 전 저작

날짜	종류	제목	출처
1.29.	소	「기사년 2월에 올린 소」	『송자대전』 제20권
2.3.	편지	「송도원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70권
2.	서문	「화포집서」	『송자대전』 제139권

165) 『宋子大全』 제151권, 「告沙溪先生墓文」, “旋自惟念雖受教育之恩 行之不力 未能變化氣質而不自知 此出於血氣之私 而或非義理之正耶 苟如是則不但南海之神罰而殛之 而其得罪於先生甚矣 姑以此奉質於先生尊靈 要以爲朝聞夕死之地焉 願先生鑑臨焉 尙饗.”

2.	편지	「정혼원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15권
2.8.	소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송자대전』 제20권
2.11.	축문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2.12.	서문	「주자대전차의서」	『송자대전』 제139권
2.15.	편지	「무원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8권
2.17.	시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송자대전』 제2권
2.	편지	「은석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6권
2.25.	잡저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자대전』 제136권
2.26.	시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2.26.	시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2.	소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	『송자대전』 제20권
2.29.	편지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113권
3.2.	시	「암각시문」	양순필(1992)
3.2.	편지	「아들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5권
3.3.	시	「탐라로 가는 배에서」	『송자대전』 제2권

위에서 「화포집서」, 「정혼원에게 답함」, 「은석에게 부침」과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는 언제 썼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화포 홍익한의 외손 심정기가 회덕 현감으로 와서 송시열에게 서문을 부탁하였기에 송시열이 제주로 떠나기 전에 「화포집서」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혼원에게 답함」은 송시열이 삭탈관직 되었다는 내용과 오균이 와서 전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향을 떠나기 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개를 이미 넘었고 바람만 불면 바다를 건널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은석에게 부침」은 만덕사에서 지내는 동안에 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는 소중한 편지를 가지고 바다를 건널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르기 전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

송시열의 제주 도착 전 저술활동을 정리하면, 「탐라 도중에 외재, 현석에게 보

내다」,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주자대전차의서」에서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밝혔고,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화포집서」에서는 북벌정책을 비롯한 정치적 입장을 나타냈다. 도통을 축으로 한 학문적 입장과 북벌을 축으로 한 정치적 입장은 존주대의에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점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을 수 있으므로 교육철학적 함의를 담는다.

「탐라로 가는 배에서」,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정혼원에게 답함」, 「무원에게 부침」,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학문적 요체가 곧음[直]에 있음을 강조했고, 「주자대전차의서」와 「화포집서」는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답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적 의의를 갖는다.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정혼원에게 답함」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여의치 않으면 편지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 학습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보여준다. 특히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와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는 차운시의 형식을 빌어 형식면에서도 토론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아들에게 부침」, 「무원에게 부침」,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대 교육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나 격대교육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V. 제주에서의 저술활동

송시열은 1689년 3월 4일에 와서 5월 26일에 떠날 때까지 111일 동안 제주에 머물렀다. 제주에서는 주로 시와 편지를 썼다. 제주가 극변이고 위리안치형을 받았기에 교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상하에게 보낸 편지가 많아 수제자에 대한 사랑과 사상적 유업을 부탁하는 학문적 애정이 잘 드러난다. 학문에도 힘써 『논맹혹문정의통고』를 마무리하였고, 윤리적 가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임장군경업전」을 쓰기도 하였다.

제주에서 쓴 저작에 나타나는 어조는 김수항이 사사된 4월 9일을 기준으로 상당히 달라진다. 이전에는 안빈낙도하는 면모를 보이지만 이후에는 슬픔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삶을 마무리하려는 절연한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시에서 많이 드러난다.

<표 6> 제주 유배기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시	「오월 사일」	『송자대전』 제2권
2	시	「탐라 적소에서」	『송자대전』 제2권
3	시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4	시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송자대전』 제2권
5	시	「부질없이 읊다」	『송자대전』 제2권
6	시	「치도를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7	시	「무제」	『송자대전』 제4권
8	시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송자대전부록』 제11권
9	시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송자대전부록』 제11권
10	편지	「박화숙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68권
11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12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자대전』 제89권
13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89권
14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송자대전』 제89권
15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16	편지	「민사정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02권
17	잡저	「송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	『송자대전』 제134권
18	잡저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송자대전』 제136권
19	서문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송자대전』 제139권
20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21	전기	「임장군경업전」	『송자대전』 제213권

1. 시(詩)

송시열이 제주에서 쓴 시를 김수항이 사사된 4월 9일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반궁의 요령 앞에 이르러」, 「탐라 적소에서」는 전기,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부질없이 읊다」, 「무제」,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오월 사일」, 「치도를 생각하다」는 후기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전기 작품에서도 3월 17일 양현 출향이 결정되어 송시열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기도 하였으나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지내는 삶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시를 썼다. 후기 작품에서는 김수항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를 여러 수 지어 제자이자 정치적 동지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잘 드러냈다.

1) 「오월 사일」

「오월 사일」은 오언절구 형식을 취한다. 송시열이 이 작품을 언제 썼는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이 시가 『송자대전』 2권 「탐라로 가는 배에서」와 「탐라 적소에서」 사이에 실려 있다. 「탐라로 가는 배에서」는 1689년 작품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탐라 적소에서」는 송시열이 유배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월 사일」은 제주도 유배 시절에 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5월 4일은 효종의 휘일(諱日) 즉 돌아간 날로 송시열이 곡을 하고 글을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¹⁶⁶⁾

이날이 무슨 날이던고
외로운 충정 상제께서 강림하시리
새벽에 통곡하고 나서
무릎 안고 다시 시 읊었노라¹⁶⁷⁾

166)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67) 『宋子大全』 제2권, 「五月四日」, “此日知何日 孤衷上帝臨 侵晨痛哭後 抱膝更長吟.”

송시열은 장렬왕후가 1688년 8월에 승하하자 문상을 갔다가 효종이 묻힌 영릉에도 들러 작별을 고했다.¹⁶⁸⁾ 워낙 연로한 탓에 앞일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해 제주로 유배되어 위리안치된 상황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곡을 하고 시를 지었다. 송시열은 1차 예송논쟁이 끝나고 충북 괴산 화양동에 은거했다. 그리고 주희의 무이9곡을 본떠 화양계곡의 아름다운 9곳을 화양9곡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 중 제3곡이 읍궁암(泣弓岩)인데 송시열이 5월 4일 효종 제삿날이 되면 그곳에서 통곡하였다 하여 그렇게 이름 지었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된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2) 「탐라 적소에서」

이 시의 형식은 오언절구이며 저술일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주에서 쓴 글이다. 제목이 ‘탐라적소에서’인데 탐라는 제주를 가리키고 적소란 귀양지를 말하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유배형에 처해져서야 비로소 제주에 온다.

아우와 형 손자와 자질이
하늘 끝에서 같이 있음 기쁘구나
백수 어느 때 고향을 향할거나
낮선 타향 고향만 같구려¹⁶⁹⁾

1, 2행에는 위리안치의 형을 받았으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를 땅 끝도 아닌 ‘하늘 끝[天外]’이라 표현한데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먼 곳이었다. 그러나 아직 죽음을 앞둔 사람 에게서 볼 수 있는 초조함도 보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김수항에게 사사의 명이 떨어지기 전일 가능성이 높다. 김수항이 4월 9일에 후명을 받았으므로 이 시를 쓴 시기는 유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윤3월 어느 때로 추정된다. 또한 4월 29일 동생 송시도가 병이 깊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동생을 보내면서 송시열이 상당히 슬퍼하였고, 이 시에는 가

168)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69) 『宋子大全』 제2권, 「耽羅謫所」, “弟兄孫子姪 天外喜同堂 白首何丘首 他鄉似故鄉.”

죽과 행복하게 지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이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안치형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손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송시열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언젠가 복권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기대도 없진 않아 보인다. 또한 제주를 좋아한 것인지 유배 생활에 익숙해진 덕인지 제주 생활을 고향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낀다. 이처럼 송시열은 유배 생활 가운데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다. 유배를 오는 도중에도 그러했다. 유배형이 떨어졌을 때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즐거워했고, 죄인의 처지라 한라산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한스럽게 생각했다.¹⁷⁰⁾ 제주로 가는 배에 오를 때에는 소식의 시¹⁷¹⁾를 외었다. 소식은 「6월 20일 밤, 바다를 건너며」란 시를 하이난 섬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마치고 떠나면서 지었다. 유배 당시 소식의 모습을 그린 동파입극도(東坡笠屐圖)도 유명한데 허유는 제주에 유배 중인 스승 김정희를 찾아 이 그림을 따라 완당선생海天一笠像(阮堂先生海天一笠像)을 그렸다.¹⁷²⁾ 또한 송시열은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려 모두 우왕좌왕할 때 주희의 「취하축융봉」¹⁷³⁾을 읊으면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¹⁷⁴⁾

송시열은 검소하게 산 것으로 유명하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가 요를 깔지 못하고 살았으며 송시열은 사약을 받을 때에도 자리를 새로 바꾸자는 제자들의 청을 거절했다. 벼슬한 기간도 길지 않아 형편도 곤궁했다. 익산 군수로 있던 동생 송시도가 보내준 쌀과 콩으로 연명한 적도 있었다.¹⁷⁵⁾ 높은 벼슬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아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송시열의 적거지를 찾았다. 김정희에 따르면, 송시열은 적거지 근처 뒷밭에서 채소를 직접 길렀다고 한다. 노론의

170) 『宋子大全附錄』 제14권, 「權尙夏錄」.

171) 蘇軾, 「6월 20일 밤, 바다를 건너며(六月二十日夜渡海)」, “남쪽 변방에서 아홉 번 죽어도 내한 될 것이 없고(九死南荒吾不恨) 이 유람의 기이한 감회 평생에 제일이다(茲遊奇絕冠平生)”, 리귀원(2009), 김세영 옮김, 『중국 문인의 비정상적인 죽음』, 에버리치홀딩스, p.307.

172) 김권섭(2010), 『선비의 탄생』, 다산북스, p.451.

173) 朱熹, 「醉下祝融峰」, “내가 만리길을 걸어 바람 받으며 서있으니(我來萬里駕長風) 골짜기에서 피는 구름은 내 가슴속을 씻어준다(絕壑層雲許盪胸). 막걸리 석 잔을 마시니 호기가 솟아(濁酒三盃豪氣發) 낭랑히 시를 읊으며 축융봉을 날 듯이 내려왔다(朗吟飛下祝融峰).”

174)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75) 『宋子大全』 제42권, 「答李靜伯(辛亥)」.

영수이면서 80을 넘긴 인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교육적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3)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이 시는 칠언절구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를 지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첫째 행에 ‘한라산’, ‘영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제주에서 지은 것이다. ‘영주(瀛洲)’는 중국의 진시황과 한 무제가 불사약을 구하러 사신을 보냈다는 가상의 선경을 가리킨다. 진나라 때 방사인 서복(徐福)이 불로초를 찾아 서귀포를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어 제주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음력에서 봄은 1월에서 3월까지고, 선산을 생각한다는 것은 유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있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 시를 지은 때는 3월 중하순이 될 것이다.

한라산 아래를 영주라 이름하니
산 위에 아직도 한 길 눈이 쌓였네
멀리서 생각건대 교산엔 꽃이 난만하고
제수를 만들어 부모 산소에 올리리라¹⁷⁶⁾

제주를 ‘제주’나 ‘탐라’가 아니라 ‘영주’로 표현한 것은 제주가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인데 한라산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송시열은 기이하게 여긴 때문이다. ‘영주’는 신비로운 땅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셋째 행에 나타난 교산(橋山)은 원래는 중국 상고 시대 전설상의 임금인 황제(黃帝)가 묻혔다는 산으로 제왕의 능이 있는 산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선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묻힌 곳이 회덕 판교리(板橋里)이고, 송시열의 호 가운데 교산노부(橋山老夫)가 있으며, 마지막 행에서 부모 산소에 제수를 올리고 싶은 심정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고향을 떠나 극지로 유배되면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176) 『宋子大全』 제2권, 「春日憶先壟」, “漢挈山下號瀛洲 山上猶看丈雪留 緬憶橋山花爛熳 應隨油粉薦雙丘.”

주변을 정리하였다. 먼저 의금부 도사가 도착하기 전에 가묘에 배사하였다.¹⁷⁷⁾ 2월 8일 집을 떠나면서 아들 송기태에게 효종의 수찰을 조정에 바치게 하였고, 2월 11일에는 연산을 지나다가 스승 김장생 묘소에 정철(鄭澈)의 후손이자 그의 문인인 정천(鄭沔)에게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告沙溪先生墓文]」을 지어 보냈다.¹⁷⁸⁾ 2월 16일에는 권상하에게 자신이 끝내지 못한 학문적 과업을 부탁하였다. 배에 오르기 전에는 증손 송무원(宋婺源)의 외조부 이단하(李端夏)에게 증손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벽립만인(壁立萬仞)과 직지일자(直之一字)를 전했고, 증손 송일원(宋一源)에게는 불성부직(不誠不直)이라 적어 보냈다. 외손에게도 『주자행장(朱子行狀)』을 읽으라고 당부하였다.

조상께 배사하고 스승에게 글을 바쳤으며 후손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고 제자에게 학문적 과업까지 당부한 송시열에게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후명(後命)을 받은 후 제주를 떠나면서 지은 「황고(皇考) 수옹 선생(睡翁先生)과 황비(皇妣) 정경부인(貞敬夫人) 곽씨(郭氏)의 묘에 고한 글」¹⁷⁹⁾에서도 그의 효성스러움은 잘 나타난다. 이처럼 돌아가신 부모께도 효를 다하고자 애쓰는 송시열은 제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4)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이 시는 칠언절구로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주석은 송시열의 손자인 송주석으로서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 올 때 따라 와서 송시열의 수발은 든다. 옥주는 진도(珍島)의 별명이다.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될 때 김수항은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4월 9일 사사되었다.¹⁸⁰⁾ 김수항은 김상헌의 손자로서 송시열의 문인이기도 하다. 김상헌 또한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다. 이 시는 송시열이 김수항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었다.¹⁸¹⁾

177) 『宋子大全附錄』 제14권.

178)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79) 『宋子大全』 제151권.

180) 이덕일(2000), p.377.

181) 『宋子大全附錄』 제11권.

인재가 어느 시대인들 이보다 성할까
천지의 경륜 지사가 슬퍼한다
옥도의 슬픈 바람 대나무에 부니
전후에 걸친 단심 하늘이 알리라¹⁸²⁾

천지(川止)는 화천군(花川君) 심정과 지정(止亭) 남곤을 가리키고, 지사는 조광조를 일컫는다. 심정과 남곤은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를 모조리 숙청한다. 조광조와 함께 했던 김정도 그 때 제주로 유배 왔다가 사사되었다. 송시열은 자신을 조광조에 빗대며 김수항의 죽음을 슬퍼한다. 김정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다. 김수항을 대나무로 은유하며 그 붉은 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예언한다.

이 시는 손자 송주석의 시를 차운하여 지었다. 차운(次韻)이라는 형식은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시를 짓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토론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학(家學)의 전통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교육의 한 축이었던 가학의 모습은 제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다.

5) 「부질없이 읊다」

「부질없이 읊다」는 칠언절구로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1행에서 참된 유현은 이이와 성혼을 가리킨다. 두 사람은 3월 18일에 문묘에서 출향되었다.¹⁸³⁾ 또한 현신은 김수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이 4월 9일에 사사되었으니 이 시는 그 이후에 지은 것이라 하겠다.

참된 유현 출향되고 현신이 죽으니
시인을 원망 앓고 하늘을 원망하네
주자를 출생시킴 뜻 있는 듯했지만
문득 경원의 해를 만나게 했구려¹⁸⁴⁾

182) 『宋子大全』 제2권, 「次疇韻哭沃州」, “人材何代盛於斯 川止經綸志士悲 沃島悲風吹竹樹 丹衷前後上天知.”

183)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28), 3월 18일(을유)」.

2행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원망한다고 하였으나 유리안치된 죄인으로
 로서 사사당할 지도 모르는 엄혹한 현실 때문에 쉽사리 말을 할 수 없었던 탓인
 듯하다. 경원의 해[慶元年]는 1195-1200년 사이에 있었던 경원의 당금[慶元 黨禁]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중국 남송의 한탁주는 참언으로 조여우(趙汝愚)를 재상의
 지위에서 몰아내고, 주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받들고 있는 정자(程子)의 학
 을 위학(僞學)이라 배격하여 그들이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
 니라 많은 명사(名士)에게 죄를 씌워 탄압하였다. 송시열은 자신을 주희와 동일
 시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리라는 의연한 자세를 다짐한다. 여기에서도 곧음[直]을
 강조했던 송시열의 삶의 자세가 잘 드러난다.

6) 「치도를 생각하다」

「치도(致道)를 생각하다」는 칠언절구로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1행에
 ‘만 리 바닷길에 소식이 끊겼으니(萬里滄溟消息斷)’라는 시구가 있어 송시열이 제
 주도에서 쓴 시라는 것이 드러난다. ‘헤어진 지 여름이 지났으니 마음 어떠한가
 (相離涉夏意何如)’라는 시구로 보면, 시를 쓴 때는 5월 어느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음력에서 여름은 4월에서 6월까지고 송시열은 5월 26일에 제주도를 떠났기 때문
 이다. 치도는 권상하의 호다. 권상하는 송시열의 수제자로서 송시열이 유배길에
 올랐을 때 처음부터 동행하다가 2월 16일에 헤어진다.¹⁸⁵⁾ 송시열이 자신이 남긴
 학문적 과업을 권상하가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제주까지 따라오는 것을 만류하였
 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문적 토론 상대자가 없는 유배지는 적막했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권상하에게 편지를 5통이나 보냈다. 박세채에게 1통, 민진강에게 1통
 보낸 것과 비교하면 송시열이 얼마나 권상하를 그리워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
 런 권상하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치도를 생각하다」이다.

헤어진 지 여름이 지났으니 마음 어떠한가
 전엔 덕불고의 외람된 말 하였지

184) 『宋子大全』 제2권, 「(漫吟)」, “眞儒黜享賢臣死 不怨時人只怨天 生出晦翁如有意 却令逢著慶元
 年.”

185) 『宋子大全附錄』 제11권.

만 리 바닷길에 소식이 끊겼으니
책상을 마주했던 옛 일이 생각나네¹⁸⁶⁾

2행에 나온 덕불고(德不孤)는 논어 이인(里仁) 편에 나오는 ‘덕은 외롭지 아니한 지라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德不孤 必有隣)’에서 유래한다. 강직했던 송시열도 주위에 동생과 손자 등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인간적 외로움이 잘 묻어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7) 「무제」

이 시는 제주에서 지은 시로는 유일하게 칠언율시 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송자대전』 제2권에 실려 있다.

바닷가 이곳 온 지 몇 날이던가
쫓겨난 신하 외로운 생각 끝이 없어라
비 내리는 산허리 구름은 늘 캄캄하고
안개 낀 성 머리 햇빛이 없구나
듣건대 여니가 참 도학이라니
정자 주자는 명칭이가 되겠군
가없구나 옥도의 냇 길이 떠났으니
누가 창오를 향해 정중을 취할 건가¹⁸⁷⁾

1행에는 송시열이 바닷가에서 지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유배를 당했는데 그 때마다 거제도과 제주도 바닷가에서 살았다. 숙종 1년에 처음 유배형을 받았을 때에는 함경도 덕원으로 갔다가 경상도 장기로 이배되었다. 그 후 다시 거제도로 이배되어 거기에서 1년 동안 지내다가 청풍으로 이배되었다가 해배를 맞는다. 그는 거제도에 머물 때 반곡서당을 세워 후학을 가르치

186) 『宋子大全』 제2권, 「憶致道」, “相離涉夏意何如 猥說年前德不孤 萬里滄溟消息斷 連床能憶舊時無.”

187) 『宋子大全』 제4권, 「無題」, “衝海此來知幾日 逐臣羈思莽何窮 雨渾山腹雲常黑 霧暗城頭日不紅 聞說驪尼眞道學 却看閩洛是侏侗 可憐沃島魂長逝 誰向蒼梧取正中.”

기도 하였다. 2행에는 절해고도에 위리안치된 사람의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3행의 ‘비 내리는 산허리 구름은 늘 캄캄’한 것으로 보아 한라산이 높은 산임을 실감할 수 있다. 구름이 산허리에 걸릴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땅 끝에서 다시 배에 올라 다다른 바다 끝이라는 거리만으로도 기가 질리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풍광은 더욱 유배객의 심사를 외롭게 하였을 터다. 그런데다 섬이란 곳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안개도 자주 끼고 습도도 높다. 습도가 높다는 것은 쾌적함과 거리가 있으니 80을 넘긴 송시열은 더욱 힘들었을 터다.

5행의 여니(驪尼)는 윤희와 윤선거를 말한다. 윤희가 여주(驪州)에 살았고 윤선거는 노성(魯城)에 살았는데 이성(尼城)은 노성의 옛 이름이기 때문이다. 민락(閩洛)은 정명도, 정이천 형제와 주회를 가리킨다. 정명도와 정이천은 낙양(洛陽) 사람이고, 주회는 지금의 복건성(福建省)인 민(閩) 땅 사람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윤희와 윤선거를 정명도, 정이천 및 주회의 대립항으로 놓고, 김수항마저 떠난 조정이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창오는 순임금이 죽은 곳으로 여기에서는 숙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정중을 지키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가는 당시의 정세를 걱정하는 것이다.

7행에 ‘가엸구나 옥도의 냇 길이 떠났으니’라는 시구가 있다. 옥도는 진도(珍島)의 옛 이름이다. 옥도의 냇은 김수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시는 4월 9일 김수항이 사사된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수항의 죽음은 송시열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를 여러 편 지었다.

8)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는 이이와 성혼이 출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로서 『송자대전 부록』 제11권에 실려 있다. 원성(原城)의 유학 안전(安臧)이 2월 22일 이이와 성혼을 문묘의 배향에서 내치라는 소를 올렸다.¹⁸⁸⁾ 3월 3일 진사 홍만적이 안전의 주장을 비판하였으나 숙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⁸⁹⁾ 그러자 진사 이현령이 3월 12일 홍만적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고,¹⁹⁰⁾ 3월 14일 대사간 권

188)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2월 22일(경신)」.

189)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3일(경오)」.

190)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2일(기묘)」.

해와 헌납 이현조도 이이, 성혼의 출향을 청했다.¹⁹¹⁾ 3월 15일 숙종은 이현령이 세 차례나 소를 거듭하자 출향의 시비를 가리라고 명한다.¹⁹²⁾ 3월 17일 진사 심제현이 이이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¹⁹³⁾ 영부사 이상진이 차자를 통해 이이와 성혼의 출향을 주장하자 숙종은 엄비를 내렸고,¹⁹⁴⁾ 다음날 이이와 성혼의 출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시는 3월 말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구만 남았다.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님 위한 눈물 옷깃 적시네¹⁹⁵⁾

반궁은 제주국에 있는 국학기관을 말한다. 요려는 허리와 팔이 잘린 공자의 소상(塑像)을 가리킨다. 이는 주희가 어떤 사람에게 준 글에 “근자에 들으니, 향교(鄕校)가 승방(僧房)이 되고 공자의 소상이 허리와 팔이 잘린 채 길가에 버려졌다.” 한 말을 전용(轉用)한 것이다.¹⁹⁶⁾ 송시열은 이이와 성혼의 출향을 반궁의 요려로 은유하여 슬픔을 전한다. 또한 안전이 두 사람의 출향과 함께 자신을 종통을 어지럽히고 국본을 동요시켰다고 비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만년의 영광이라고 여긴다. 송시열은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자신이 주희와 이이를 계승했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했다. 여기에서 송시열의 강직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그는 수양의 방법으로 곧음[直]을 강조했는데 이 시에서 그의 강직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평소 부인에게도 항상 존대했고,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소탈하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나 주희의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직된 자세를 보였다. 사문난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9)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는 동생 송시도(宋時燾)가 송시열을 따라

191)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4일(신사)」.

192)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5일(임오)」.

193)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7일(갑신)」.

194)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3월 17일(갑신)」.

195)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却到泮宮腰膂處」, “却到泮宮腰膂處 泣麟餘涕謾沾裾.”

196) 『宋子大全附錄』 제11권.

제주에 왔다가 병에 걸려 4월 29일 제주를 떠나자 송시열이 지은 시다.¹⁹⁷⁾ 『송자대전 부록』 제11권에 시의 일부가 남아 있다. 송시도는 송시열과 함께 김장생을 사사하였고, 송시열이 덕원으로 유배되었을 때에도 벼슬을 그만두고 따라가 시중을 들었다. 제주에도 따라와 위리안치로 거동이 여의치 않았던 형을 대신하여 동생 시걸, 종손(從孫)주석과 굴림서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하늘 가 저 기러기 차마 못 보겠네¹⁹⁸⁾

송시열은 동생 송시도와 이별하면서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혼이 갈가리 찢기는[魂斷] 심정으로 동생이 떠난 수평선을 바라보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기러기는 두 번 짝을 짓지 않으며 하늘을 날 때 열을 흘뜨리거나 차례를 잃지 않는다. 송시열은 기러기를 통해 성실한 삶의 자세와 깊은 형제애를 드러낸다. 부모에 대한 효와 더불어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은 오류를 인간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 제주 사람들에 상당한 교육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오월 사일」에는 충성,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에는 효도, 「탐라 적소에서」와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에는 자애, 「부질없이 읊다」와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무제」와 「치도를 생각하다」에는 친구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다. 조선시대 핵심 가치인 오류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인간에게 본질적인 핵심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송시열의 시가 제시하는 여러 가치는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치도를 생각하다」에서는 권상하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토론을 하던 일을 떠올리고 김수항이 세상을 떠나자 손자가 지은 시를 빌어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를 짓는다. 늘 학문적 토론을 하고 시를 짓는 모습은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197)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98) 『宋子大全附錄』 제11권, 「魂斷海門空極目」, “魂斷海門空極目 不堪天末雁行聯.”

2. 편지

송시열은 제주에 간혀 지내면서도 문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교류했다. 볼 수 없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늘 찾았던 것이다. 학문적 유업을 당부했던 권상하에게 많은 편지를 쓴 것으로 보아 그가 제주에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제주로 올 때 시를 지어 보냈던 박세채에게 제주를 떠나면서 편지를 썼다.

1)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

송시열은 이 편지를 1689년 5월 16일에 화숙 박세채에게 보냈다. 박세채는 야천 박소의 후손으로 박세당과 친척이고 송시열의 손자 순석의 장인이다. 그의 후손인 박영효도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 김상헌과 김집에게 배웠으며 서인에 속했으나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때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1694년 노론의 김춘택을 도와 갑술환국을 이끌었다. 송시열은 후명을 받고 5월 17일 별도포로 옮겼으므로 이 편지는 적거지에서 보낸 마지막 날에 쓴 것이다.

이제 집사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었네. 하고 싶은 말은 한없이 많으나 한두 가지도 말할 수 없으니, 이는 천고의 유감이네. 전날 효묘에게 명을 받을 때 효묘께서,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루는 일은 나의 책임이오. 나와 더불어 이 일을 함께할 사람은 모(某)가 아니고 (독대할 때에 혹 경(卿)이라 칭하기도 하고, 혹 선생이라 칭하기도 하였네.) 누구이겠는가.” 하였네. 그때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명을 받지 않았다 할 수는 없네. 또 이지무(李枝茂)가 일찍이 학문을 논한 책자(冊子) 한 권을 올리자 손수 천신(賤臣)에게 주시면서 ‘혹 주자설(說)에 위배됨이 없느냐.’고 하였으니, 이는 주자께서 공맹의 정통을 받았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네.¹⁹⁹⁾

199) 『宋子大全』 제68권, 「與朴和叔(己巳五月十六日)」, “與執事不復相見而死 所欲言者何限 而不得一二 此爲千古之恨耳 昔嘗受命於孝廟 以爲明天理正人心 此吾責也 與我共此者 匪某 (獨對時或稱卿或稱先生矣) 而誰 其時辭謝不敢當 而不可謂不受命矣 有李枝茂嘗進論學一冊子 則手以授賤臣曰 莫或有違於朱子之說否 蓋明知朱子得孔孟之正統也.”

이지무는 163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정언(正言), 사서(司書), 장령(掌令)을 지냈고 서장관(書狀官)으로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가 되어 청나라를 다녀온 적도 있다. 그가 효종에게 학문을 논한 글을 올리자 효종은 송시열에게 평을 부탁하며 주자의 사상에 어울리는 지를 물었다. 효종은 또한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하는 일을 같이 할 사람으로 송시열을 지목하기도 했다. 송시열은 이를 통해 효종이 자신을 주자에 정통한 사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았다.

송시열은 주자를 절대시하였다. 주자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는 난신적자로 처단하려고 하였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유학은 국시였기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 사고력을 핵심으로 해야 하는 학자로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었고 송시열은 지나치게 엄격했다.

적휴가 감히 주자를 공격한 이후로 내가 놀랍고 걱정됨을 금치 못하여 미운을 배척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였네. 한 수레의 쉼[薪]이 타는 불을 한 잔의 물로는 끌 수 없음을 잘 알았으나, 꼭 사사(士師)가 아니라도 난신과 적자를 벨 수 있다는 말을 확신하여 사생이나 화복을 헤아리지 않고 입을 계속 놀리다가 이리저리 격화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네. 그러나 진심으로 달게 여기고 후회하지 않는다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기대가 없지 않은 것은 집사가 있기 때문이니, 바라건대 이 졸자(拙者)를 경계로 삼지 말아 주면 천만번 다행일까 하네.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적에는 그 말이 선하다 하였으니, 집사는 행여 이를 믿어 주구려. 이 글을 입으로 부르다 보니, 이만 줄여야 되겠네.²⁰⁰⁾

여기에서 미윤(美尹)은 파평 윤씨 선거와 증 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은 주자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한 윤휴를 옹호했던 윤선거와 윤증을 극력 비판했다. 그래서 송시열은 박세채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윤증이 입장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박세채는 회니논쟁에서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화해를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 『황극탕평론』을

200) 『宋子大全』 제68권, 「與朴和叔(己巳五月十六日)」, “粵自尹鑑敢攻朱子 不勝驚憂 并斥美尹 不遺餘力 固知車薪之火 非一杯可救 而篤信不必士師可誅之說 不計死生禍福而嘵嘵不已 輾轉層激 以至於此 然誠甘樂之 不爲悔也 猶且不能無望於此世者 惟執事在爾 伏望勿以拙者爲戒 千萬之幸 人之將死 其言也善 幸執事之信之也 口呼不宣.”

통해 노소분당을 막으려 했으나 역시 실패하였으며 나중에는 소론의 영수가 되었다. 하지만 노론에 우호적이었고, 『양명학변』을 통해 양명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송나라의 주자학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학의 연원을 신라까지 추적하였다. 그의 문인이자 정몽주의 후손인 정제두는 김수항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양명학을 신봉했고 강화학파를 열었다. 그의 문인 이광사는 동국진체를 완성하여 대홍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 글씨를 남겼다. 김정희가 제주로 유배 올 때 대홍사에 들렀다가 이광사의 글씨를 비판하였으나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대홍사에 들러 그 글씨의 수준을 인정하였다.

중숙(重叔) 김만중은 승지로 있으면서 윤희를 비판하다가 파직된다.²⁰¹⁾ 윤희가 공자마저도 비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적휴가 주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고 있으니, 어찌 탄 것을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러나 공자도 휘(諱)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너무 심하네. (공자도 휘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대해 김중숙(金重叔)이 답전에서 반박하다가, 도리어 파직되는 벌을 받았네.) 불행하게도 미운이 그를 존중하다가 결국 그를 종주(宗主)로 삼아 주자도 본받을 것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성(異姓)과의 혼인 때문이네. 공자를 모욕하는 말로 시제(詩題)를 내어 많은 선비들을 시험한 일이 불행히 귀종(貴宗)에서 나왔으니, 오늘날의 세도(世道)가 어떠한가. 미운은 그 지위에다가 가언(嘉言)과 선행(善行)까지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믿고 높였으며, 이로 인하여 윤희의 설(說)이 유행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맹자께서 인의를 배운 양묵(楊墨)을 도적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였던 이유이네.²⁰²⁾

박태손은 1688년 시험감독관으로서 『장자』 「어부」를 성균관 유생들에게 시제(詩題)로 냈다. 박태손과 박세채는 모두 반남 박씨다. 송시열은 박태손을 비판하면서

201) 『肅宗實錄』, 「숙종 1년 을묘(1675, 강희14), 윤5월 26일(계축)」.

202) 『宋子大全』 제68권, 「與朴和叔(己巳五月十六日)」, “尹鑄以攻朱子爲能事 他何足言 然至於孔子不當諱之說則甚矣 (孔子不當諱之說 金重叔駁於榻前 而反被罷職之罰) 不幸美尹尊之 其流至於其宗 乃有朱子不足法之說 (因異姓婚姻) 以譏侮孔子之說爲題 以試多士之事 不幸出於貴宗 今日世道何如也 以美尹地位 而又有嘉言善行 故舉世信而尊之 因此而鑄說得行 此孟子所以力攻學仁義之楊墨 甚於寇敵也.”

박세채가 박태손에 대해서도 학문적 입장을 바르게 하도록 설득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시열은 맹자가 도적보다 양목을 더 심하게 공격했던 일을 거론하며 윤희보다 윤선거를 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목은 양자와 목자를 가리킨다. 양자는 위아(爲我)를, 목자는 겸애(兼愛)를 주장했다. 맹자는 양자를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목자를 극단적 이타주의자로 비판했다.²⁰³⁾ 맹자는 그들이 도둑보다도 위험하다고 보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격렬한 언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박세채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주길 당부한다. 윤희와 윤선거는 이미 세상을 뒀고, 윤증과는 완전히 결별한 이상 박세채의 지지가 절실했다.

귀종(貴宗)은 야천(冶川)의 정학(正學) 연원이므로 지금 여기에 이르렀어도 사람들이 꾀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네. 그러나 집사는 이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미촌의 가언과 선행은 바로 인의를 배우다가 잘못된 양목의 경우와 같네. 양목의 잘못된 점을 맹자가 아니면 어느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일찍이 생각건대 미운의 몸과 학문은 이미 대체를 상실한 때문에, 마치 백정이나 창녀의 집에서 예불하고 독경하는 것과 같아 진실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집사는 이를 어떻게 보는가?²⁰⁴⁾

야천 박소(朴紹)는 조광조의 문인으로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훈구파의 탄핵을 받고 파면된 후 경상도 합천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박세채의 고조다. 미촌은 윤선거의 호다. 이미 윤선거가 세상을 뒀으므로 여기에서는 윤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윤증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송시열은 여러 스승에게 배웠고 많은 문인들과 교류했다. 토론을 통해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주자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을 절대시하

203) 『孟子』, 「盡心」 上.

204) 『宋子大全』 제68권, 「與朴和叔(己巳五月十六日)」, “貴宗 是冶川正學之淵源 而今乃如此 人之不以差怪也宜矣 執事亦嘗以爲憂乎 美村之嘉言善行 正如學而差之楊墨仁義也 楊墨之差 非孟子則孰能知之 愚嘗以爲美尹身與學 既失大體 則禮佛讀禮於屠兒娼家 恐非其真也 未知執事以爲如何.”

였다. 주자를 비판하거나 성리학의 테두리를 넘어서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난신 적자라고 극력 배척하였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폭넓게 교류하면서도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극도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편협성과 당파성을 드러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송시열이 배소까지 간 것은 1689년 3월 5일이었다.²⁰⁵⁾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것은 3월 7일이다. 배소에 도착하여 짐이 정리되자마자 편지를 쓴 것이다. 권상하와 헤어진 것이 2월 16일이니 보름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달 24일에 일행이 강진의 만덕산 백련사에 도착하였네. 배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순풍도 얻지 못하여 그곳에서 4일 동안 머물렀네. 긴 대는 순이 돌고 동백은 화려하게 꽃을 피워 참으로 별경이었네. 그곳에서 날마다 수행한 선비 박광일(朴光一), 박중회(朴重繪) 등과 의심난 것들을 강론하였는데, 서로 부합된 것이 많아서 다행스러웠네. 29일 석양에 행장을 꾸려 배에 올랐다가 이달 초하룻날 닻을 올렸으나 저녁에 큰 바람을 만나 사람마다 시달려서 밤중에는 포구의 마을에 들었네. 다음날은 그곳에 머물러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네. 초3일에 배를 띄워 큰 바다로 나왔으나 해가 지면서 풍세(風勢)가 고르지 못하여 간신히 해안에 도착하니 동녘이 벌써 환해졌었네. 일행이 모두 피곤하여 해안 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초5일에는 바람을 무릅쓰고 주성(州城)에 들어왔네. 그러자 금오랑(金吾郎)은 한창 가시울타리 둘러치는 일을 독려하고 있었네. 언뜻 풍토를 살펴보니 사람이 살 곳은 아니나, 기후가 또한 이상하여 한라산에는 눈이 잔뜩 쌓였고 산 아래는 꽃들이 화려하게 피었으며 상추를 벌써 먹고 있었네. 성은이 관대하여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곳에서 쉬도록 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 어찌 한이 있겠는가.²⁰⁶⁾

205) 『宋子大全附錄』 제11권.

206)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三月七日)」, “前月廿四日 一行到康津滿德山白蓮寺 以舟楫未具 又未得風 留四日 脩竹胎筍 冬柏盛開 眞異境也 日與隨行士子朴光一重繪等 講論疑義 多相契 可幸 廿九夕 裝載登船 今月一日發碇 夕遇大風 人無不病 夜入浦村 翌日 留而待風 三日發船出大洋 日暮風勢不順 艱得到岸 則東方既白矣 一行皆病 留岸村一日 五日冒風入州城 金吾方督柵棘矣 乍看風土 則非人所居 而氣候亦異常 漢挈之山 積雪甚厚 而山下則花事爛熳 已食蒿苳矣 聖恩寬大 使此罪臣 假息於此間 感戴釐祝 何可涯矣.”

여기에서 주성(州城)은 제주도를 가리킨다. 송시열은 강진과 제주 풍광에 대한 감흥을 담는다. 강진에서는 대나무에 순이 돋고 동백이 꽃을 피운 경치에 매료되었고, 제주에서는 한라산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산 아래에는 꽃이 만발하고 상추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란 것에 놀랐다.

송시열은 아버지 갑조가 모함을 받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1689년 1월에 상소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유배형을 받았다.

오직 날조된 옥설이 선인(先人)에게까지 미치니, 나는 빨리 죽어 버리고만 싶으나 되지 않네. 어찌해야 하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선인께서 세우신 의리는 위로 백일(白日)과 그 광채를 겨룰 만하니 설령 흉악한 무리들에게 무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내려다보고 계시니 무슨 손상됨이 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달래면 이 목숨 아직까지 붙어 있는 것도 큰 죄는 되지 않을까?²⁰⁷⁾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나 아버지의 행위는 언젠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연한 자세가 잘 드러난다.

송시열은 제주로 오는 배 안에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읽었다. 두 사람은 12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고 8년 간 사단칠정으로 논쟁을 폈다. 그 편지를 모은 것이 『양선생사칠이기왕복설(兩先生四七理氣往復說)』인데 송시열은 이 책을 읽은 듯하다. 더구나 제주로 올 때 파도가 심해 사공들도 뜻을 내리고 부처에게 빌 뿐이었는데 송시열은 주자의 시를 외고 퇴계와 고봉의 편지를 읽었던 것이다.²⁰⁸⁾

배 안에서 퇴계(退溪)와 고봉(高峰) 사이에 왕복한 편지 3책을 보았는데, 그 세밀하고 조심스러움은 참으로 물셀 틈이 없다고 할 만하였네. 그분들이 몸을 온전히 하여 천수를 다 누리고 훌륭한 이름이 무궁하기에 마땅하였네. 창주공(滄

207)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三月七日)」, “惟誣辱之言 上及先人 此則亟欲滅死而不可得也 奈何奈何 第惟先人所撐拄 上與白日爭光 雖爲兇舌所誣 上天監臨 有何傷損乎 以此自喻 則一息尚存 不至大罪也耶.”

208)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州公)이 일찍이 말하기를 ‘그대가 퇴계를 배우지 않고 잘못 주자를 배웠으니 앞으로 화패가 적지 않으리라.’ 하였는데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더욱 그 말을 실감하게 되네. 그러나 참으로 주자를 배워서 털끝만큼이나마 소득이 있다면 비록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한이 없겠네. 옛날에 이른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괜찮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한 말일세. 그러나 어떻게 그 만분의 하나인들 바랄 수 있겠는가.²⁰⁹⁾

창주 김익희는 김장생의 손자로 효종 때 대사헌에 올랐다. 그는 송시열이 이황을 거치지 않고 주자를 배운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송시열은 김익희의 비판을 받아들여 이황을 연구했다. 이황과 기대승은 조선의 대표적인 논쟁인 사단칠정론을 겨뤘기에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퇴계전서』의 「차의(筴疑)」를 마쳐달라고 당부하였다.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 오면서 제주에도 사단칠정론이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권상하의 제자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서 인물성동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제주로 유배 오면서 이 또한 제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송시열은 주자가 한탁주에게 모함을 받았으나 끝내 사사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송 영종 때 외척 한탁주는 조정을 좌지우지했는데 유일한 장애물이 주희와 가까운 재상 조여우(趙汝愚)였다. 한탁주는 주희를 탄핵함으로써 조여우를 실각시킨다. 이 때 주희는 납니위첩(納尼爲妾) 등을 인정하였고, 4년 뒤 1200년에 죽는다. 이 사건이 바로 경원의 당금이다. 자신의 처지를 주자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에 비록 주자를 역당의 우두머리라 하여 그를 배죽이자고 청하는 소가 있기까지 하였으나 한탁주(韓侂冑)가 끝내 그를 죽이지 못한 것은, 온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며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네. 오늘날은 당시와 이미 세대가 멀어졌는데 또 주자를 공격하다가 공자에게까지 미쳐간 시기를 당하였

209)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三月七日)」, “惟誣辱之言 上及先人 此則亟欲滅死而不可得也 奈何奈何 第惟先人所撐拄 上與白日爭光 雖爲兇舌所誣 上天監臨 有何傷損乎 以此自喻 則一息尚存 不至大罪也耶 舟中 看過退溪高峯往復書三冊 其周詳謹慎 可謂置水不漏 宜其全身盡年而令名無窮也 滄洲公嘗言君不學退溪 而誤學朱子 將見禍敗不貲矣 到此地頭 益見其言之有味也 然實學朱子而有得於毫末 則雖滅死而萬萬無恨 古所謂朝聞夕死者如是矣 而何可望其萬一耶.”

네. 나같이 미미한 사람의 힘으로 그 만분의 하나일망정 구해 볼까 하였으니 모진 재앙을 당하기에 마땅하지 않겠는가. 오늘날의 일은 성상의 어짊과 밝으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여기에만 그치고 말았겠는가. 성은이 이미 이와 같고 내가 존숭하는 분은 주자요 율곡이니, 위로 하늘에 묻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또한 사문(斯文)에도 할 말이 있을 것이네.²¹⁰⁾

송시열은 주자가 비난받던 시기보다 자신의 시대가 더 엄혹하다고 생각했다. 윤후에 의해 공자까지도 비판을 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이가 비판받는 것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신은 떳떳하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시열은 『주자대전차의』를 비롯한 여러 서책을 정리하라고 권상하에게 당부하였다. 중화 김창협의를 도움을 받는다면 좋겠다는 말도 전했다.

오직 편찬 중인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이 일을 만나 마음에 걸려 잊혀 지지 않네. 이것은 꼭 주자가 만년에 예서(禮書)에 연연하였던 것과 같네. 이 일은 오직 그대와 중화(仲和)에게 달려 있네. 중화도 재앙의 조짐이 한창 성하니 아마 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네. 그러나 지금 벼슬에서 물러났으니 어버이를 봉양하는 여가에 혹 감정(勘定)하는 일에 전일할 수 있을 것도 같네. 모름지기 그와 상량하여 하기 바라네. 생각건대, 하늘의 마음은 사람을 곤궁하게 하여야만 도가 형통하게 된다고 여기는가 보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기력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겠네. 흥농(興農)과 화양(華陽)에서 가지고 온 서책들을 모름지기 기록하여 보여 주기 바라네. 모(某)의 편지를 또 별본으로 만들어 두려고 한다니 뜻은 매우 좋으나 중화(仲和)에게는 알려지지 않도록 하게. 그것이 미안하기는 하나 늘 그의 외삼촌이 염려되어서이네. 이 점을 헤아려 처리하게.²¹¹⁾

210)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三月七日)」, “且如當時雖以朱子爲逆黨之魁 至有乞斬之章而侂冑終不敢下手者 以天下凡有血氣者莫不尊親故也 今之時與當時既相遠 又當攻斥朱子 以及於孔子之時 乃以眇然瑣力 要救其萬一 宜乎禍變之此酷也 今事如非聖上之仁明 則其得止此而已乎 聖恩既如此 而吾所主者朱子也 栗谷也 則上質皇天而無愧矣 亦庶乎有辭於斯文矣.”

211)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三月七日)」, “惟所修大全劄疑 未及卒業 而遭此其所耿耿於心者 一似朱子晚年之於禮書也 此事惟在高明及仲和 而仲和禍變方殷 恐未暇念及於此 然亦差除之撓 則晨昏之餘 似當專一於勘定 須與商量也 意者 天心厄人而亨道乎 所欲言者 氣縮不宣 ○自農自華 隨行書冊 須錄示 某札又欲摸置別本 意甚善矣 不使仲和知之 似未安 而每以其渭陽爲慮也 此則量處也.”

김창협은 김수항의 아들로 김수항이 기사환국에 진도로 유배되자 따라가 봉양했다. 이처럼 시절이 수상하였기에 김창협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은 권상하의 요량에 맡긴다고 하였다. 더욱이 김창협의 외삼촌 나양좌는 윤선거의 문인으로 소론에 섰으므로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지향이 다른 점을 염려했다.

송시열은 별지에서 주부자(朱夫子) 즉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나온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다(動而生陽 靜而生陰)’를 거론한다. 그는 오랫동안 동정과 음양의 의미 및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태극도설(太極圖說)에 ‘동(動)하여 양(陽)을 낳고 정(靜)하여 음(陰)을 낳는다’는 것을 일찍이 혼자서 망령되이 논하기를 ‘태극의 동정이 바로 음양인데 왜 동정이 음양을 낳는다고 말하였는가? 생(生)이란 한 글자를 놓은 것이 더욱 늘어지는 듯하나, 주 부자(周夫子)의 글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밀하니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짧은 견해로 이렇게 단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네. 그러나 생각이 여기에 이를 때마다 자못 시원스럽지 못하였네. 그런데 뒤에 주자가 태극도 아래에 붙인 해설을 보니 바로 두 생(生) 자를 없애 버리고 ‘태극의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다.’ 하였네. 역시 주자도 여기에 흠이 있다고 여겨 원문을 개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의 뜻이 뛰어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대번에 잠에서 깨어난 듯 환히 깨달을 수 있게 하였네. 여기에서 비로소 ‘선현의 글은 뒷사람이 감히 한 글자도 고치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정론이 아니었음을 알았네. 내가 어렸을 때 일찍이 문원 선생(文元先生)을 모시고 앉았다가 외람되이 여쭙기를, “이 두 생(生) 자를 위(爲) 자의 뜻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생께서는 깊이 생각에 잠기셨다가, “감히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하였네. 이로부터는 감히 다시 의심을 품지 않았었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주자의 설로 선생께 묻지 못한 것이 매우 한스럽네. 전일 그대의 질문에 대답할 때 여기에 언급은 되었으나 자세하게 말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다시 말하여 명석한 가르침을 구하네. 이는 바로 조화와 성명(性命)의 근원이 되는 곳이니 자세히 끝까지 추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네.²¹²⁾

212)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三月七日)」, “太極圖說動而生陽 靜而生陰處 嘗竊妄議以爲太極之動靜 卽是陰陽 何以曰動靜生陰陽乎 下一生字 尤涉拖引 周夫子文字 極其簡潔精密 何敢以童觀生此穿穴也 然而每思索到此 殊不自得也 及見朱子所釋圖下說 則卽去兩生字 而曰太極動而陽靜而陰 亦豈朱子有病於此而改定元文耶 其語意卓然 使人一見而灑然如寐之得醒 始知先賢文字 後人不敢一字改易云者 非定論也 記昔少時嘗侍坐於文元先生 僭率稟問 以爲此兩生字 以

동이 양을 낳고 정이 음을 낳는다고 하면 동정은 상위 개념이 되고 음양은 하위 개념이 돼버린다. 그래서 송시열은 ‘태극의 동정이 바로 음양(太極之動靜 卽是陰陽)’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자가 ‘태극의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다(太極動而陽靜而陰)’라고 푼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문원공 김장생에게 생(生)을 위(爲)로 푸는 것이 어떠한가 여쭙었다가 스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았다. 위로 푼다고 하더라도 음양이 마치 태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존재자로 오해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이 부분은 권상하도 의문을 가져 송시열에게 답을 구했던 듯하다. 그래서 스승에게 좀더 집요하게 묻지 않은 것이 한탄했다. 베이컨(Francis Bacon)은 지식 탐구의 지침으로 우상론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극장의 우상(idola theatri)은 한 학파의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는 태도로서 사실에 따라 결정을 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²¹³⁾ 송시열은 자신이 극장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한계를 범했다고 본 것이다. 늘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송시열의 태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3)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시열은 1689년 4월 2일에 권상하에게 편지를 썼다. 김수항의 사사 결정이 있었던 윤3월 28일에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때였다.²¹⁴⁾ 자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때였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동안 쓰고 있던 책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여기에 온 뒤로는 일체 아무 일이 없어 약간의 서책을 마무리할 수 있을 듯하였네. 그리하여 외람스레 스스로 겸손치 못하고 마음속으로, 우연하지 않은 그 무엇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였으나 지금은 화의 기미가 이처럼 절박하여 머리 또한 목 위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뜻도 그만이네. 원래 시작

爲字意看如何 先生沈吟曰 不敢如此看 自是不敢復爲致疑矣 今日深恨未及以朱子說 奉質於先生也 日者與高明奉對時 雖說及此 而未暇詳焉 故敢復奉告 以求明教也 此是造化性命源頭處 不可不仔細究竟也.”

213) 힐쉬베르거(1988), 강성위 옮김, 『서양철학사 하권 근세와 현대』, 이문출판사, p.101.

214)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28) 윤 3월 28일(을축)」.

하지 않은 것이야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시작하고서 끝내지 못한 것이 약간 있다네. 손자 아이들이 앞으로 그대에게 받들어 드릴 것이니 유의하여 일을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는 모두 주자가 끼친 교훈이며 스승이 남겨 주신 뜻이었던 까닭에 감히 금방 죽음이 있다고 하여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네. 모름지기 중화(仲和)와 협력하고, 또 동보(同甫), 여구(汝九), 미백(美伯) 등 여러 벗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또한 힘이 될 걸세. 그중에서도 『논맹혹문(論孟或問)』과 『논맹정의(論孟精義)』를 합하여 편차하는 일은 일거리가 크고 복잡하여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가 되네.²¹⁵⁾

그는 권상하에게 중화 김창협(金昌協), 동보 이희조(李喜朝), 여구 이기홍(李箕洪), 미백 최방언(崔邦彦) 등 여러 문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다. 권상하의 학문도 높지만 여러 사람의 협업이 더욱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문왕은 유리에 간혔을 때 『역단(易象)』을 지었고,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고서도 『사기(史記)』를 엮었고, 정이천이 부주에 귀양 가서 『역전(易傳)』을 지었다. 송시열도 제주도에 귀양 왔으니 여기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겠다고 생각했다.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허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주에서 송시열이 작업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논맹혹문정의통고(論孟或問精義通攷)』다. 그가 책을 마무리한 때는 1689년 윤3월 12일이다.²¹⁶⁾ 그는 자신이 사사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문」을 쓴 후 권상하에게 교감하고 수정하라고 전한 것이다.

『역전(易傳)』은 부주(涪州)에서 힘을 얻었음이 미제(未濟) 괘의 주(注)에서 증명되네. 이는 대체로 조물주의 뜻이 없지 않은 것인데, 오늘날은 화의 기미가 이미 절박하여 아마 잠깐의 여유도 없을 듯하네. 여기에 온 뒤에 『논맹혹문』의 수정

215)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此來一切無事 庶可整釐得若干書冊矣 僭不自遜 竊意有不偶然者存乎其間也 今則禍機此迫頭 亦不粘頸上矣 此志已矣 其元未下工者 姑置不論 其已始而未能卒業者 有若干焉 孫兒等將以奉納于座下矣 幸留意畢功如何 此皆朱門緒餘而先師遺意 故不敢以夕死而自沮焉 須與仲和協力 又求助於同甫汝九美伯諸友 則亦可以得力矣 最是論孟或問精義通編 工夫浩大 訖事未易 可念也.”

216) 『宋子大全附錄』 제11권.

을 끝냈네. 이는 『논맹정의』의 주를 나누어 『흑문』의 해당 조목 아래에 편입하여 『흑문』을 읽는 사람에게 주 선생의 변론(辯論)과 취사(取捨)의 가늠을 알게 하였네.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이러한 뜻을 가지고 『논맹정의』를 애써 구하였으나 헛수고만 거듭하다가 지난해 참관 이택지(李擇之)가 연경(燕京)에서 사들여왔기에 서둘러 편찬을 시작하였으나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력저력 오늘에 이르렀네. 여기 오고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므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 이를 보내니 다시 살피고 바로잡아 잘못이 없도록 함이 어떻겠는가.²¹⁷⁾

정이(程頤)가 부주로 귀양갔다가 『역전』을 지었다. 그때 미제 패를 제대로 풀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이를 찾아와 그 뜻을 풀어주었다. 송시열은 자신도 제주에서 그런 행운을 만날 수도 있기에 연구를 멈출 수 없다고 하였다.

주자는 『논어흑문』, 『맹자흑문』, 『논어정의』, 『맹자정의』를 지었다. 그런데 『흑문』에는 여러 학설에 대한 장단점만 있을 뿐 학설 자체는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송시열은 40여 년간 여러 학설이 실려 있는 『정의』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가 택지 이선(李選)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가 그 책을 구해왔다. 송시열은 『정의』를 참고하여 『흑문』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보충 설명을 추가하여 『논맹흑문정의통고』를 쓴 것이다.

송시열은 남인의 득세로 회옹 주희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 짓고 권상하에게 감수를 부탁했다.

흑수(黑水)의 도가 다시 성해져서 회옹(晦翁)이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한 뜻이 막히고 어두워지며 사라지고 있네. 죽기 전에 나머지 것을 손질하여 동지들에게 잘 전하여 그것을 강론하고 밝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끝나고 말았네. 자네는 지금 내가 저번 날 부탁한 여러 책들까지 모두 힘써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세상의 일이란 비록 급하거나 갑작스럽게 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또한 머뭇거리는 것도 꺼리는 것이네. 자네에게는 이 시기가 참으로 귀중한 때

217)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易傳得涪州氣力 可驗於未濟註說矣 此蓋造物不無意思 而今日則禍機已迫 恐無須臾之暇也 來此後 畢修論孟或問 蓋以精義分註 編入於或問逐條之下 使讀或問者 知先生辨論取捨之權衡矣 蓋自數十年前 已有此意 力求精義 不翅飢渴而不得也 頃歲 李參判擇之買於燕市以來 亟加編摩 而傍無強輔 遷就至今矣 此來無他酬酢 始得卒業 謹此呈納 幸更加勘訂 俾無訛舛如何.”

이네. 이 사건이 퍼져 가는 것을 보니 자네도 면치 못할 듯 하니 만일 성도은자(成都隱者)를 만날 수 있다면 꼭 다행이겠네.²¹⁸⁾

흑수(黑水)는 윤휴를 가리킨다. 그가 여주 여강(驪江)에 살아서 여휴(驪鑪)라고 불렸으나 적대관계인 서인 쪽에서 ‘검다’는 의미의 ‘여(驪)’를 ‘흑(黑)’, ‘강(江)’을 ‘물[水]’로 바꿔서 윤휴를 폄하하는 이름을 붙였다. 상황이 어려워 정국 변화의 피해가 권상하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成都隱者]를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송시열은 이이와 성혼의 문묘 출향을 안타까워하면서 이황의 사상을 정리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이이만이 아니라 주자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이황의 사상을 포괄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남인의 사상적 원류이기도 한 이황까지도 받아들이면서도 성리학의 테두리를 넘어서려고 했던 윤휴에 대해서는 극단의 적개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송시열은 조선의 사상적 토대였던 성리학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양현(兩賢)을 출향(黜享)한 뒤로 선비들이 무슨 마음으로 과거를 보려하겠는가. 모름지기 현제(賢弟)와 재윤(才胤)을 다른 일은 버려두고서 오로지 이 일만을 돕게 한다면 매우 좋은 일이겠네. 요즈음 선비들이 『퇴계집(退溪集)』을 보는 사람이 많으나 그중에는 생각할 부분도 없지 않으니 이 점은 몰라서는 안 될 것이네. 내가 일찍이 그러한 부분을 적어 모아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네. 이번에 새로 손질한 두어 건의 문자를 손자가 물어볼 것이니 모름지기 다른 일은 그만두고 감정(勘定)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후인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²¹⁹⁾

218)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黑水之道 復爲昌熾 晦翁著書垂世之意 晦塞而沈痼矣 欲及未死之日 修補餘殘 要使同志密傳而講明之 今則已矣 幸於今日 並與前日所託諸書 勉就了當 如何 天下事 雖戒急卒 亦忌因循 吾友此日眞可惜也 觀此火色 吾友亦恐不免 若遇成都隱者 則尤幸矣.”

219)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兩賢黜享之後 士子亦何心於場屋哉 須令賢弟才胤捨置外事 專意奉助 至佳至佳 今世士子 看退溪集者多矣 其中不無商量處 此則不可不知也 愚嘗錄出 以爲一冊子 不知今在何處 所修數件文字 孫兒從當呈稟矣 須捨置他事 專一勘定 以惠後人 如何.”

양현은 이이와 성혼을 가리킨다. 그들은 1682년(숙종 8년) 문묘에 배향되었다가 1689년(숙종 15년) 이이는 불교에 들어갔던 일, 성혼은 최영경(崔永慶)의 옥사와 임진왜란에 주화론(主和論)을 편 일로 출향된다. 그러나 1694년(숙종 20년) 다시 배향되었다. 현제(賢弟)는 권상하의 아우 상유(尙游)를 가리키고, 재운(才胤)은 재주 있는 자손이라는 뜻으로 그의 아들 옥(煜)을 이른다. 동생과 아들 모두 작업에 참여하라는 것으로 보아 온힘을 다해 『논맹혹문정의통고』와 『퇴계집』 감정을 비롯한 여러 학문적 과제에 집중하라는 당부다.

송시열은 당시 선비들이 학문에 힘쓰고 자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세태를 비판한다. 이는 또한 자신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다. 윤휴를 비롯한 남인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을 품게 되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실기(實紀)』에 실린 한 조목을 보니, 주 선생께서 선비의 풍습이 밖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서 늘 학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우선 『맹자』의 도성선(道性善)과 구방심(求放心) 두 장을 보아 마음을 수렴하고 응정(凝定)하기를 힘써서 극기구인(克己求仁)의 공을 이루어라.” 하였네. 대체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이러한 뜻이 여러 번 서로 대화하는 사이에 나타났으나 그것을 간요하게 간추리고 명백히 나타내어 밝힌 것으로는 이 조목만한 곳이 없네. 이것은 우리들이 오늘날에 의당 가슴에 새겨야 할 점이네. 혹은 이 조목에 치지 공부(致知工夫)가 없다고 의심할 것이나 이는 극기구인(克己求仁)이 치지(致知)를 버리고서는 불가함을 알지 못해서이네. 자하(子夏)가, “널리 배우되 뜻을 독실히 하고, 간절히 묻되 생각을 가까이하면 인(仁)은 그 속에 있다.” 하였으며, 또 독서를 전일하게 함이 한층 방심(放心)을 구하는 하나의 큰 방법이네. 우연히 『실기』를 보다가 마음에 깨우쳐지는 점이 참으로 깊었기 때문에 애오라지 받들어 알리는 것일세.²²⁰⁾

220)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賞觀實紀所收一條 先生見士習馳騫於外 每語學者 且觀孟子道性善及放心兩章 務收斂凝定 以致克己求仁之功 蓋於大全語類 此意思屢見於酬酢間 然其節約緊要 明白表章 未有如此條者 吾儕今日所當服膺者也 或疑此條無致知工夫 此不知克己求仁而捨致知不可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 又專一讀書 尤求放心之一大節度 偶見實紀 警省於心者實深 故聊以奉告.”

주자에 대한 전기로는 주자의 제자 이방자(李方子)가 편찬한 『주자연보』와 명나라 대선(戴銑)이 편찬한 『주자실기(朱子實紀)』가 있다. 송시열은 1679년 12월 거제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두 책을 검토하고 교정하여 『문공선생기보통편(文公先生紀譜通編)』을 펴냈다.²²¹⁾ 송시열은 『주자실기』의 한 조목을 빌어 극기구인(克己求仁)에 힘쓰라고 당부한다. 근거는 맹자와 자하였다. 맹자는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놓은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뿐이다(學問之道無也 求基放心而已矣)’²²²⁾ 라며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아 지키고[存心], 기르라[養心] 하였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고 기르려면 인간 본성이 본래 착하다는 것을 탐구해야 한다[道性善]²²³⁾고 보았다. 널리 배우고[博學] 뜻을 독실하게 하며[篤志] 간절하게 묻고[切問] 생각을 가까이하여[近思] 인을 구하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공부론과 수양론의 접점이 드러난다. 최고의 덕, 인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인간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이 점을 강조하며 실천할 것을 기대한다. 독서는 방심을 구하는 큰 방법이다. 다시 말해, 독서가 단순히 공부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수양법이 되는 것이다.

송시열은 윤증과 사이가 나빠지자 그의 아버지 선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젊은 무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기에서 젊은 무리들은 소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무리들이 나를 견지하는 말들은 하나가 아니나 그중에서 가장 큰일은, 내가 길보(吉甫)에게 일찍이 아무 말도 없었다가 그 아들이 나를 헐뜯고 욕을 한 뒤에 내가 비로소 길보의 옳지 못함을 말하였다는 것이네. 이 말은 너무도 괴이한 말일세. 길보가 윤휴와 서로 사귀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휴가 권수부(權秀夫)의 매부가 된 때부터 서로 친해졌을 것이니 권수부는 길보의 매부이네. 내가 승정 을해년(1635, 인조13) 가을에 휴를 과거장에서 만나, “장가갈 때 혼례를 고례(古禮)로 행하였습니까?”고 묻자, 대답하기를, “처음에 세속의 풍습대로 행하려고 오 상공(吳相公)에게 위요(圍繞)를 부탁하자 오 상공이 ‘내가 갈 수는 있네. 그러나 위요는 세속의 풍습인데, 왜 고례로 행하려 하지 않

221) 『宋子大全附錄』 제7권.

222) 『孟子』, 「告子」 上.

223) 『孟子』, 「滕文公」 上.

는가.’ 하기에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였네. 이에 의거하여 보면 윤희가 권수부의 집에 장가든 때가 당연히 갑술년(1634, 인조12)에서 을해년(1635, 인조13) 사이였을 것이며, 길보와 윤희와의 사귄도 어찌면 이때에 있었을 것이네. 내가 윤희를 사문난적으로 배척한 것은 정축년(1637, 인조15)으로 난리 뒤였고, 길보를 난적의 한 무리라며 배척한 것은 또 그 뒤의 일이었으며, 증(拯)이 내 집에 드나든 것은 또 그 뒤였네. 그때에 동춘(同春)이 지금 우리 집안의 어른인 송 고창(宋高敞)에게, “윤증의 일은 나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네. 우암이 항상 그의 아버지를 이단(異端)이라고 배척하는데 지금 그가 머리를 숙이고 글을 배우니 저들 사제(師弟) 사이가 끝내 무사하게 보전되겠는가?” 하였으니, 이를 근거로 본다면 내가 윤희를 배척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네. 어떻게 그 아들을 노여워하여 그 아버지를 배척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²²⁴⁾

송시열은 윤희와 윤선거가 친해진 계기는 윤희(1617-1680)가 수부(秀夫) 권준(權僞)의 매부가 될 때로 본다. 권준은 또한 길보(吉甫) 윤선거의 매부이기도 하다. 송시열은 1635년(인조 13년) 과거장에서 윤희를 만났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윤희에게 혼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물었는데 윤희는 오 상공(吳相公)에게 위요(圍繞) 즉 상객(上客)을 부탁하자 오히려 고례를 권해 고례로 하였다고 답한다. 오 상공은 오윤겸(吳允謙)으로 윤희는 그의 문하에서 배운 적이 있다. 그는 17세 때 관례와 19세 때 혼례 모두 스스로 예경을 고증하여 고례를 행할 정도로 뛰어났다. 송시열은 윤희를 사문난적으로 규정한 것을 1637년(인조 15년)으로, 윤선거를 같은 무리로 본 것을 그 다음이라고 하였다. 1653년(효종 4년) 동학사 모임과 1665년(현종 6년) 동학사 모임을 거치기 전까지는 서로 극단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학문적 관점 차이로 보면서 서로를 인정하였다.

윤증(1629-1714)이 송시열에게 배우기 시작한 것은 1657년(효종 8년)이었다.

224)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少輩持我之說不一 而其中最以爲大事者 某於吉甫未嘗有言 而及其子詆詈某然後 某始言吉甫之不是 此說極怪 吉甫之與鑑交歡 未知的在何時而蓋自鑑之爲權秀夫妹壻時而相友也 蓋權是吉甫妹壻也 余於崇禎乙亥秋 見鑑於場屋 爲問昏時以古禮行之否 答曰 始欲行以俗禮 請圍繞於吳相公 則吳相曰吾可往矣 然圍繞 是俗禮也 何不以古禮行之云 故從其言矣 據此則鑑之入權家 當在甲戌乙亥間 而吉甫之友鑑 似在此時矣 余之斥鑑以斯文亂賊者 在丁丑亂後 斥吉甫以亂賊之黨者 又在其後 而拯之出入吾家 又在其後矣 其時同春語今門長宋高敞曰 尹拯之事 吾所不能爲矣 尤菴每斥其父爲異端 而今乃屈首受書 彼師弟終保無事耶 據此則吾之斥鑑 當在四十年前矣 何以謂怒其子而斥其父耶.”

1652년(효종 3년) 이미 윤증을 제자로 받았던 동춘 송준길은 송 고창(宋高敞), 즉 고창 군수를 지낸 송국귀(宋國龜)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염려하였다. 송시열이 윤증을 제자로 받아들인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시열은 처음부터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배척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운 학문적 성취에도 자신과는 입장이 다른 점을 안타까워했다.

송시열은 윤선거보다도 윤증을 더욱 비판했다. 여기에서 유현은 김집(金集), 권은 권순장, 김은 김익겸을 가리킨다. 강도(江都)는 강화도(江華島)를 일컫는 말인데 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강도(江都)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일찍이 많이 용서하였네. 그가 병자년 청참로 사소(請斬虜使疏)로 의롭다는 이름을 크게 떨쳤고, 또 강도의 일이 있는 뒤에 스스로 몸을 파묻어 버리고 유현(儒賢)을 따라 받들 때는 허물을 고치고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실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그 아들에 이르러, 그때 죽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도리에 심분 옳다고 하였고, 권(權)과 김(金)을 배척하여 반드시 죽었어야 할 의리가 없다 하였으며, 또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죽을죄를 진 신(臣)’이라고 말했던 것은 강도에서 죽지 못한 연유에서가 아니고 소명(召命)에 나아가지 아니한 허물 때문이었다고 하였으며, 또 그 아버지가 스스로 벼슬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옛날 일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며 시세(時勢)와 사람들을 헤아려 보고서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고 하였네. 이렇게 되고 보니 옛날 그에게서 취하여 주장하였던 일들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한 것이 한이 되게 하였네. 또 강도 당시에 선복(宣卜)이라 이름을 고쳤다는 일이 드러났네. 이는 아마 상소한 때의 성명이 오랑캐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이러한 해괴하고 가소로운 짓을 한 것이니 추하기 짝이 없네. 그렇다면 비록 감싸 주고 싶더라도 그럴 수가 있겠는가. 지난날 애석해 함과 오늘날 배척하는 것은 그의 일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 것이네. 무엇이 의심될 일이겠는가.²²⁵⁾

225)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至於江都事 則吾嘗甚恕 蓋以其丙子請斬虜使之疏 大振義聲 又江都後自廢而從事於儒賢 則有改過自新之實也 及其子以其時不死爲十分道理 斥權金爲無必死之義 又以其嘗稱死罪臣者 非以江都不死之故 以不赴召命之過也 又以其自廢者 非自恥前事也 乃量時量人而不出也 然則前日所取而進之者 皆歸虛地 而使人恨其見欺 而又江都時改名宣卜之事發出 則是恐怯於上疏時姓名爲虜所覺而爲此駭笑之事 醜莫甚焉 夫然則雖欲回護得乎 前日之愛惜 今日之譏斥 因其事而異義 何足疑乎.”

윤선거는 병자호란 때 「대학청참로사소(太學請斬虜使疏)」²²⁶⁾를 지어 청의 사신을 베고 화의를 배척하자고 주장하였고 강화도에서 권순장, 김익겸, 김상용 등과 죽음으로 성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자 홀로 빠져나온 일을 참회하며 벼슬을 마다하고 은거하였기에 송시열은 그를 용서하였다. 그러나 윤중은 강화유도대장(江華留都大將)인 김상용이 자결한 것은 절의 높은 행동이었으나 권순장과 김익겸이 자결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윤선거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표현한 것도 강화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왕의 부름을 마다한 때문이었고, 출사를 포기한 것도 당시 조정의 상황과 주도적 인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시열은 윤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윤선거가 강화를 빠져나올 때 노비로 변장하고 이름도 ‘선복’으로 고쳤던 일을 거론하며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

송시열은 문곡 김수항이 사사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3월 28일에 명이 내렸고 이 편지는 4월 2일에 쓰였으며 김수항은 4월 9일 사사된다. 4일 만에 명이 내려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송시열은 제주에 있으면서도 정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문곡(文谷)이 끝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통곡과 베어지는 아픔이 어찌 끝이 있겠으며, ‘은 나라가 시들었다’라는 통곡도 어찌 단지 괥유도(郭有道)에게만 한정되겠는가. 중의 무리가 항상 이 어른을 원수처럼 보더니 오늘날 손을 빌려 살해하였으니, 그 마음에는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림들에게는 이제부터 더욱 모시고 받들 분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나 그는 양현(兩賢)과 육육(戮辱)을 함께 당하였으니 옛날에 호평(胡絃)과 심당(沈鏜) 무리가 주자를 죽이자고 청한 때가 공자 사당에 모셨던 공자 소상(塑像)의 허리가 잘려지던 때였고 보면 왜 그토록 세대는 달라졌는데도 사건은 서로 부합될까. 이는 아마 윤수가 자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사건이 은연중에 일치되는 것으로서 조금도 괴이할 것이 없는 것이네. 이 연평(李延平)이 일찍이 기자헌(奇自獻)을 찾아가 사례하기를, “정암(靜菴)이 남곤(南袞), 심정(沈貞)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까닭에 사림이 참으로 비통하게 여기며, 문묘에 종사하고자 하는 데에 이르렀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승의 도덕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아마 앞으로 영공(令公)과 같은 분들로 말미

226) 『魯西先生遺稿』 제4권.

암을 것이며, 따라서 정암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였네. 이 말이 비록 농담으로 한 말인 것 같지만 또한 그러할 만한 이치는 있네. 다만 지금은 선비의 기세가 참벌(斬伐)을 당한 뒤라서 더욱 세도(世道)가 쇠잔하여진 데다가 절개를 바꾸는 것이 마치 순욱(荀彧)이 조조(曹操)에게 가고 진군(陳群)이 한나라를 잊어버린 때와 같으며,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저들이 더욱 창궐하며 한 세상을 농락하니 매우 곤란한 일일세. 어찌하면 좋겠는가.²²⁷⁾

송시열은 후한 태부 진번(陳蕃)과 대장군 두무(竇武)가 환관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자, 유도 곽태(郭太)가 들에 나가 통곡하며 “사람이 죽으니 온 나라가 시들었다(人之云亡邦國殄瘁)”라며 통곡한 고사를 인용하며 김수항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는 이이, 성혼의 출향과 함께 김수항의 사사가 결정된 것을 경원 당금 사건에서 호굉, 심당이 한탁주의 사주를 받고 주자를 탄핵했을 때 공자 소상도 훼손되었던 일에 빗댔다. 김수항을 주자에, 이이와 성혼을 공자에 비긴 것이다. 또한 정암 조광조가 남곤과 심정에 의해 사사되었지만 나중에 문묘 종사되었다고 연평 부원군 이귀(李貴)가 기자현에게 했던 말을 빌어 김수항이 사사되고 이이와 성혼이 출향되었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으로 희망했다. 송시열은 사세가 어려워 순욱이 원소의 아래에, 진군도 유비 밑에 있다가 조조에게 갔던 것처럼 여러 선비들이 절개를 잊고 세상 속에 숨어버리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4) 「권치도에게 보냄」

송시열은 주희가 남헌 장식(張栻)과 주자(周子), 즉 주돈이의 『태극도설』에 담긴 중정인의설에 대해 논했던 부분을 거론한다. 그는 주희와 주돈이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주희는 중과 인을 동으로 보고, 정(正)과 의를 정(靜)으로 보았는데 주돈이는 욕심이 없는 상태를 정(靜)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227)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四月二日)」, “文谷竟至於斯 痛哭傷割 曷有其極 殄瘁之慟 奚但郭有道而止哉 拯徒常於此老 視若仇讎 今乃假手而殺之 豈不大快於其心哉 士林從此益無宗主矣 然乃與兩賢 同其戮辱 昔紘鏜輩請斬朱子 乃在孔廟塑像腰膺斷絕之時 何其異世而相符耶 蓋運氣自然相關 事之冥會 無足怪也 李延平嘗往謝奇自獻曰 靜菴被袞貞殺死 故士林至誠悲痛 至欲從祀文廟 今吾師之道德益高 蓋將由令公輩而與靜菴同歸矣 此雖似戲言而亦有其理矣 第今士氣 當於斬伐之餘 益以衰微變換 當如彧之附曹群之忘漢 而彼挾天子以令諸侯者 益復猖獗籠絡一世 難矣難矣 奈何.”

대해 이전에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성인은 욕심이 없어 마음이 고요하므로[靜] 중정인(中正)의 동과 정에 두루 통하므로 주돈이와 주희의 논의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풀었다.

주 선생(朱先生)이 남軒(南軒)과 태극도(太極圖)의 중정인(中正)의 설을 논하면서 중(中)과 인(仁)을 동(動)으로 삼고 정(正)과 의(義)를 정(靜)으로 삼아, 주자(周子)의 ‘욕심이 없는 까닭에 고요하다[無欲故靜]’와는 다른 점이 있는 듯 하였네. 그것은 주 선생은 인(仁)의(仁義)와 중정(中正) 자체가 동(動)과 정(靜)으로 나누임을 말한 것이고, 주자(周子)는 마음을 두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같지 않은 듯 하였던 것이었네. 그런데 내가 일찍이 함부로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마음에는 동(動)과 정(靜)이 있으나 오직 성인만은 인욕이 없으면서 고요[靜]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중정인(中正)의 동과 정에 두루 돌며 관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선생이 주장하여 말한 것은 비록 다르나 그 체(體)와 용(用)을 논한다면 결국 일치한다.” 하였네. 이 같은 해석은 비록 말은 되었으나 끝내 노력만 낭비했음을 알았네. 그렇다면 내가 함부로 한 해석은 혹시 그 본지를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시 주 선생이 해석하신 도설을 보니, 중(中), 인(仁), 감(感), 정(正), 의(義), 적(寂)이란 말씀들은 사실 마음을 두고 한 말이었네. 그렇다면 두 선생 말씀은 본디 한 뜻이었던 것을 지난날에 그것을 자세히 읽지 못하여 함부로 판 구멍을 파고들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네. 내가 일찍이 앞에 말한 설로 자네에게 말했을 때 자네가 맞는 이야기라고 하였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를 그르치고 남까지 그르친 죄가 심한 것일세. 이에 급히 이를 써서 묻는 것이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²²⁸⁾

그런데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지내면서 주희의 해석을 다시 읽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래서 주희의 중(中), 인(仁), 감(感), 정(正), 의(義), 적(寂)

228)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 “朱先生與南軒論太極圖中正仁義之說 而以中仁爲動 正義爲靜 似與周子無欲故靜者有異 蓋朱先生以仁義中正 自分動靜 而周子則以心言 故似不同矣 愚嘗妄爲之說曰 心有動靜 而惟聖人無欲而主於靜 故能周流通貫於中正仁義之動靜矣 然則二先生所主而言者雖殊 而論其體用 則終歸於一致矣 如是解釋 雖說得行 而終覺費力 然則愚之所妄解者 無乃失其本旨耶 遂復取朱先生所解圖說 其曰中也仁也感也正也義也寂也者 實以心言也 然則二先生所言 自是一意 而前日讀之不詳 妄生穿穴 此是余之罪也 曾以前說語致道 則致道以爲然矣 然則余之自誤而誤人 甚矣 今亟書此以質焉 未知致道以爲如何.”

이 마음을 두고 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날 권상하에게 잘못 가르친 부분을 수정하라고 편지를 썼다. 주희가 존재론을, 주돈이는 심성론을 다룬다고 생각했으나 양자 모두 심성론을 얘기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송시열은 유배 생활 가운데에서도 학문적 탐구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범한 오류를 수정하기를 그치지도 않았다. 일가를 이룬 대학자가 보여주는 끊임없는 학문적 열정은 제주도 교육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더욱이 송시열은 편지 마지막에 ‘이에 급히 이를 써서 묻는 것이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쓴다. 제자라 하여 단정적으로 어떤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구하면서 토론의 가능성을 열어 새로운 결론에 다가가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다. 더군다나 아무런 안부 인사나 다른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순전히 학문적 사색의 결과만을 편지에 담고 있다는 점도 송시열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증명한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 또한 제주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5)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송시열은 이 편지를 자신에 대한 모함을 해명하는 데 할애한다. 여러 모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송시열은 비록 몸은 제주도에 있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앙 정계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카 기덕(基德)과 종손(從孫) 강석(康錫)이 제주를 찾아 송시열이 형이 더해진다는 소식을 전하는²²⁹⁾ 등 직접 만나서 듣는 경우도 없진 않았으나 제주도를 왕래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때였기에 주로 편지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편지보다 훨씬 더 많은 편지를 송시열이 썼을 것으로 보인다.

증(拯)은 그들 무리와 항상 대윤(大尹)이 윤희와 한패였던 자취를 감추고자 하였으나 오늘날 휴의 잔당이 탑전(榻前)에서 천신(賤臣)의 죄를 논할 때 증의 부자를 극구 칭찬한 다음 휴를 변백(辨白) 신구(伸救)하여 그의 판작을 회복시켰으며, 또 의제(義濟)의 벼슬도 회복시켰고, 또 의제의 아우도 벼슬을 시켰네. 그러면서 증을 대사헌에 의망(擬望)하였으니 그들이 윤희와 한패였던 사실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면하지 못할 걸세. 이것이 주자가 말한 ‘자연히 바꾸

229) 『宋子大全附錄』 제11권.

지 못할 공론'이란 것일세. 그 뒤로도 김두명(金斗明)과 나양좌(羅良佐) 등이 계속 서로 편이 되어 나를 욕하던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더욱 하늘의 이치가 지공무사함을 볼 수 있네.²³⁰⁾

여기에서 '대윤(大尹)'은 윤선거를, '탑전(榻前)'은 '왕의 자리 앞'을 일컫는다. 송시열은 윤증이 윤선거와 윤휴의 관계를 감추려고 하였으나 이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정에서 자신의 죄를 논하면서 윤선거와 윤증을 칭찬하고 윤휴는 죄가 없다하여 관작을, 그의 아들 윤의제(尹義濟)는 벼슬을 회복시켜 주었고, 다른 아들에게도 벼슬을 내렸으며 윤증은 대사헌 임용 후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윤증과 윤의제는 모두 권시(權譏)의 딸과 결혼하여 동서 사이이기도 하다.

송시열은 윤증이 자신과 권상하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했다고 보았다. 윤증은 권상하의 아버지 권격이 홍문관 벼슬을 청탁하려고 쓴 편지를 송시열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이를 항의하려고 송시열을 찾은 권상하가 절교를 선언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고 송시열은 윤증은 비난했다.

증이 말을 날조하여 선장(先丈)과 이 사람을 무함한 내막을 오늘에야 비로소 살살이 알았네. 이는 그가 박상순(朴尙淳)에게, “권모가, 모가 그의 아버지 권격이 옥당(玉堂) 벼슬을 구하는 편지를 남에게 보여 주더란 말을 듣고 모에게 찾아가 보여 달라고 하자, 모는 처음에는 보여 주려고 하지 않다가 되풀이 하여 간청을 한 뒤에야 마지못하여 꺼내서 보여 주었는데 권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필적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좋지 않은 편지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남에게 내보이시다니 마음이 매우 편치 못합니다. 오늘부터 절교를 고합니다’ 하고서 떠났다고 하니 권의 의로운 처신이 나보다 낫다.” 했다고 하였네. 박(朴)은 이 말을 서종적(徐宗績)에게 전하였고, 서(徐)는 이 말을 서문환(徐文煥)에게 전하였고, 문환은 이를 내 손자 순석(淳錫)에게 말하였네. 그의 흉악한 간교가 이처럼 극악한 데 이를 줄은 미처 생각조차 못하였네. 이는 일거에 휩쓸어 죽여 버리려는 꾀일 것이네.²³¹⁾

230)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 “拯與其徒 每欲爲大尹掩護黨鑑之跡 今日鑑之遺孽 於榻前罪賤臣時 極贊拯之父子 因伸白鑑而復其官爵 又復義濟官 又官義濟之弟 而再擬拯於大憲其黨鑑之實 不言而自不得免矣 此朱子所謂自然不易之公論也 此後斗明良佐等 亦且回互而辱我乎 於此益見天理之至公無私也.”

여기에서 권모는 권상하를, 모는 송시열을 가리킨다. 윤중은 아버지를 험담하는 송시열에게 바로 절교를 선언한 권상하가 아버지의 묘문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송시열을 찾아갔던 자신보다 의기가 높다고 칭찬했다. 송시열은 이를 그와 권상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윤중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순은 1682년(숙종 8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서종적은 회인현감을 지냈으며, 서문환도 현감을 지낸 인물이다. 송순석은 박세채의 사위이기도 하다.

송시열은 윤휴와 이환의 익명서 사건을 빌어 윤중과 나량좌의 행위를 비판했다. 1679년(숙종 5년) 역모 사건을 담은 익명서가 나돌았다. 이환이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윤휴가 관련자로 회부되었다. 다음해 이환과 윤휴 모두 처형당했다.

휴가 이환(李煥)과 밤중에 익명서를 성문에 게시하고서는 몰래 소를 울려 익명서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모두 죽이라고 청하였는데, 오늘날에 윤중 무리가 그 풍습을 이어받았고, 지난날 나량좌가 회상(檜相)이라 한 편지를 위조하여 마치 하송(夏竦)이 석수도(石守道)의 널[棺]을 열어 보려한 것과 같은 짓을 하였으니 이는 모두 휴의 심법에서 배워 온 것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겉으로는 나와 고개를 끄덕이며 친한 척 하면서도 남모르게 휴에게 세상의 화거리라고 격동시켜 나를 죽이려 하였던 그러한 계획인 것이네. 중과 양좌가 돌려가며 본받고 배워 오늘날의 일이 빚어진 것이네.²³²⁾

여기에서 회상은 남송(南宋)의 진회(秦檜)를 가리킨다. 나량좌는 송시열과 김수항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송시열이 김수항을 진회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위작하였다. 진회는 금나라와 전쟁을 벌일 것을 주장하는 악비를 비롯한 주전파를 숙청한 대표적 주화파 인물이었다. 그래서 송시열은 나량좌를 송의 간신 하송에 비꼴다. 하송은 수도 석개(石介)가 범중엄을 지

231)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 “拯造言誣先丈及此漢曲折 今者始得其纖悉 蓋渠謂朴尙淳曰 權某聞某以其父求玉堂書示人 就某而求見 某始不肯出示 反復懇迫 然後不得已而出示 權曰 未知定是吾親筆也 然以此不美書 示人於久遠之後 心甚不安 從此告絕云云而去 權之處義 優於我矣 朴以此傳於徐宗績 徐以此傳於徐文渙 文渙以此言于賤孫淳錫矣 不料其凶狡至此而極也 此一舉而盡鑒之計也.”

232)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 “鑑也與李煥 夜揭匿名書於城門 而以密疏請盡殺匿名書所錄之人 今拯輩傳其衣鉢矣 日者 良佐偽作檜相書 欲如夏竦發石守道棺之爲 此皆其師得鑑之心法 陽與我唯諾而陰激鑑以世禍 以殺我之遺謀也 拯與良佐 轉相祖述 以致今事.”

지하고 자신을 간신으로 비판하자 석개의 편지를 위조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서 금나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을 자행했다. 송시열은 윤희가 윤선거의 제문에 자신을 세상의 화거리라 평하면서 송시열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몰락을 유도했다고 생각했다.

송시열은 윤증과 김규가 김장생 집안과 자신의 집안을 해치려 한다는 소문을 전한다. 김규(金槿)는 김장생의 서자다.

저번에 어떤 명문가의 자제가 깜짝 놀라 눈을 휘둥글게 해 가지고 들어와 말하기를, “증과 규(槿)가 흉악한 피를 가지고 제일 먼저 김문(金門)의 사람을 죽이고 다음으로 선생님의 집안에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 때문에 감히 깊이 묻지 못하였습니다.” 하더니, 수심 일이 지나자 난리가 일어났으니 일체를 모두 증험하겠네. 이는 대체로 내가 처음에 윤희와 원수가 된 데에서 발단한 것이네. 때때로 회옹(晦翁)의 이른바, “사설(邪說)이 홍수나 맹수의 피해보다 심하다.’ 하더니 근년에 책을 읽으면서는 다만 이 생각만이 떠올라서 앉거나 서거나 수레를 타거나 늘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비록 이러한 연유에서 남들에게 미움을 사 죽게 되리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참으로 달갑고 즐겁게 생각하며 뉘우치지 않는다.”한 말씀을 읊조리네. 항상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가을 햇볕을 쬐이는 듯하며 강한(江漢)에 씻어 내는 듯하네.²³³⁾

윤증은 김집의 문인이었고 김규는 김집의 이복형제다. 이 소식을 전한 이는 김장생의 증손이자 김규의 종손(從孫)인 김만준(金萬竣)이었다. 송시열은 두 사람이 김장생 집안과 송시열 집안을 겨냥했다는 소문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면 확신하게 되었다. 적대자의 모함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233) 『宋子大全』 제89권, 「與權致道(己巳)」, “日者 有名門子弟愕眙而入曰 拯也槿也以凶計將先殺金門 次及先生家 而余以槿故不敢深問矣 居數十日而亂作 一切皆驗焉 此蓋原於初與鑄作仇而然也 時每誦晦翁所謂邪說甚於洪水猛獸 年來讀書 只覺得此意思 參前倚衡 自不能捨 雖知以是爲人所惡 終窮以死誠 甘樂之不自悔也者 每讀之 誠如暴秋陽而濯江漢也.”

6)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시열은 후명을 받고 제주도를 떠나기 전 5월 14일에 권상하에게 이 편지를 쓰게 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인지 직접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적게 했다. 그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공자의 말을 꺼낸다. 자신은 80여 살을 살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며 겸손해하면서도 삶의 전부를 도를 얻는데 두었다며 결연함을 드러낸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성인의 명철하신 가르침인데 80여 살의 나이에도 끝내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그 소중한 천부(天賦)의 성(性)을 저버리게 된 점이 마음에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네.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생을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읽으면서, 그중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였고, 또 알기 어려운 곳도 있었네. 그리하여 그 부분을 초록하여 대략 해설을 붙이고 이것을 동지들과도 상량하고, 또 뒷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줄까 하였는데 아깝게도 끝내지 못하였네. 돌아보건대 지금 세상에 이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은 오직 자네와 중화(仲和) 뿐이네. 모름지기 동보(同甫), 여구(汝九), 미백(美伯)이나 그 밖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협동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²³⁴⁾

송시열은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읽으면서 의심스러운 부분과 알기 어려운 곳을 초록하고 해설을 붙인 『주자대전차의』를 이미 거제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집필을 끝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수정을 거듭하며 제주에서도 매달렸다. 그리고 마무리를 권상하와 중화 김창협에게 부탁했다. 또한 동보(同甫) 이희조(李喜朝), 여구 이기홍(李箕洪)과 미백 최방언(崔邦彦)의 도움을 얻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인다. 이희조(1655-1724)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박세채를 따르기도 했으나 노소분당 이후 송시열을 지지한다. 이기홍(1641-1708)도 송시열의 문인으로 효릉참봉을 지내다가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가게 되자, 동문 40여 인과 함께 이를 변론하다가

234)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朝聞夕死 聖人明訓 而八十餘年 終不得聞而死焉 孤負天界之重矣 此爲婉恨於心耳 又有所銜於心者 一生讀朱子大全語類 其中不無可疑者 亦有難解處 切欲抄錄 略爲解說 以與同志商量 亦以示後來之人矣 惜乎 未能成緒 顧念今世以此相託者 惟吾友與仲和耳 須與同甫汝九美伯其餘可與共事者 協同整理 如何如何.’

죄를 얻어 회령(會寧)에 유배되었다. 최방언(1634-1724)도 송시열에게 배웠고 1689년 인현왕후의 폐위에 반대하고 송시열이 사사된 후 신원을 주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에 은거했다. 세 사람 모두 학문적 수준이 높았기에 권상하에게 협업을 당부했다.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유언을 대신하여 자신의 사상적 핵심을 전한다. 공자와 맹자, 주자의 언어를 통해 사상적 유언을 남긴 것이다.

주 선생이 일찍이 절실하고 요긴한 한마디 말로 문인을 가르치기를, “다만 『맹자』의 도성선(道性善)과 구방심(求放心) 두 장으로 노력하는 바탕으로 삼으라.” 하였고, 또 돌아가실 때 문인들에게 직(直)이란 한 글자를 주시며,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것과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은 오직 직일 뿐이다.” 하였네, 대체로 공자는 ‘사람의 생리(生理)는 직이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으로 면한 것이다.’ 하였고, 맹자가 앞 세상의 성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은 호연장(浩然章) 한 장인데 역시 이 ‘직’ 한 글자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요점을 삼았으며, 주자 또한 큰 영웅이었으면서도 반드시 극히 조심하고 삼가는 면으로부터 실천하여 왔으니 성인의 전수하는 심법(心法)을 쉽게 알 수 있을 걸세. 내가 지난날에 이를 난숙하게 읽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행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못하여 평범한 사람이 됨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뉘우친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충분히 경계가 될 것 같아서 감히 말해 주는 것이네. 중화 앞으로도 가깝스로 위로의 편지를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일들은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네. 만나는 기회에 조용히 그에게 말해 주는 것이 어떨겠는가. 끝으로 천만 노력하길 바라며 서로 만나 영결하지 못하는 한이야 자네와 내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너무도 피곤하여 내가 손수 쓰지 못하고 대략 이렇게 입으로 불러 적게 하였네.²³⁵⁾

공자는 “사람의 생리는 직이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살아 있는 것은 요행으로

235)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朱先生嘗以切要一言 教門人曰 只取孟子道性善求放心二章 爲用力之地 又於易箕時 授門人以直之一字曰 天地之所以生萬物 聖人之所以應萬事 直而已 蓋孔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 孟子發前聖之所未發者 浩然一章 而亦以直之一字 爲養之之要 朱子又以大英雄 必從戰兢臨履做出 聖人傳授心法 斷然可知矣 日前非不講之熟矣 而行之不力 未免爲常人 慙悔何及 此足以爲戒 故敢以奉告 仲和前才成慰書 而餘事不忍及焉 見時從容說及如何 自餘千萬努力 不得面訣之恨 彼此何殊 慙甚不能自書 略此口呼.”

면한 것이다²³⁶⁾”라고 하면서 인간다움의 근본을 곧음[直]으로 보았다. 맹자는 “그 호연의 기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곧은 것으로 길러서 해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느니라(基爲氣也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²³⁷⁾”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송시열은 호연지기를 맹자가 공자를 넘어서는 지점으로 보았다. 주자는 늘 제자들에게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고[求放心], 인간 본성을 탐구하라고[道性善] 가르쳤다. 그리고 천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것과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 모두 곧음[直]으로 봄으로써 존재론과 인간론을 곧음을 축으로 연결하였다. 송시열은 올바르게만 살지는 못 했다면 자책하면서도 권상하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전했고 아버지를 잃은 중화 김창협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부탁했다.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주자대전차의』, 『정서분류』 등 여러 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화애 김창협과 같이 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서분류』는 송시열이 『이정전서(二程全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엮은 책으로 권상하가 발문을 썼다.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와 『정서분류(程書分類)』 외에도 또 적어 놓은 약간의 책들이 있네. 모름지기 손자 아이들로부터 찾아다가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등속의 일들을 꼭 화애(和哀)와 함께 하였으면 하는 것은 내가 일찍이 청음(淸陰) 선생을 뵈자 태극도설(太極圖說)의 주(注)를 가져와 지체를 낮추시어 나와 같은 사람과 상량해 보시고 또 시를 지어 주시어, ‘무원의 정맥을 좇는다[婺源追正脈]’ 하였고, 문곡(文谷) 대감께서도 『차의』에 기울으신 뜻이 적지 않았었네. 그리하여 계술하는 책임이 바로 오늘날의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부탁하는 것이네.²³⁸⁾

송시열은 학문적 유업을 전하면서 자신과 김상헌, 김수항과의 학문적 연대를 거론한다.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늘 동지와 함께 하면 학문적 성취를

236) 『論語』, 「雍也」.

237) 『孟子』, 「公孫丑」上.

238)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劄疑分類外 又有所錄若干小冊子 須徵於孫兒輩見之如何 此等事 必欲與和哀共之者 曾見淸陰先生取太極圖說註 俯與商量 又贈詩曰 婺源追正脈云云 而文谷大爺 亦於劄疑 致意不淺 繼述之責 正在今日 故如是耳.”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한다. 그는 김상헌이 전한 「지평 송시열의 운에 차운하다」를 떠올린다.

황하수가 맑아짐을 볼 수가 없고
봉황새가 우는 소리 들을 수 없어
세상의 일 생각하매 마음 상하고
어진 이를 생각하매 먼 정이 이내
은미한 말 수사 연원 끊기어졌고
옛 음악은 함영 아득 멀어졌지만
어느 누가 알겠는가 용문의 선비
가슴속에 태평책을 품고 있을 줄
고상한 이 세상 피해 숨어 사는 곳
물가에다 다시금 또 구름 가이매
꿈은 깊은 산골짜기 뚫고서 가고
글은 옥천 시냇물을 지나서 오네
무원의 정맥 찾아 올라가 보고
회상의 남은 편을 완미하거니
우리 도가 뻗어가지 못하는 이때
그대 다시 확 넓히길 기대하누나²³⁹⁾

여기에서 무원은 주회를 가리킨다. 김상헌은 자신을 찾아온 송시열과 함께 10일간 같이 지내며 태극도설을 토론하였다.

십 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어 위로가 됨이 실로 많았으며, 아름다운
시를 지어 보내 주었는데 말뜻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이 붉어지
게 하였다. 이에 애오라지 보내온 시의 운을 차운하여 고마운 뜻에 사례한다.
옥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 있어서
삼산의 땅 한쪽 가에 살고 있다네

239) 『淸陰集』 제4권, 「次宋持平時烈韻」, “黃河不見淸 鳳鳥不聞鳴 撫世傷今日 懷賢起遠情 微言絕
洙泗 古樂杳咸談 誰識龍門士 胸中有太平 高人棲遁處 水際復雲邊 夢去穿深峽 書來出沃川 葵
源追正脈 義象玩遺編 吾道遭廻日 期君重廓然.”

현인 좋아 밥상 받음 사양하였고
 도 지키려 장천 역할 자임하였네
 반갑게도 동양에서 와서 들리어
 태극편을 놓고 서로 논하였다네
 갈림길에 임해 다시 맘 슬펐거니
 세상의 일 날로 더욱 쓸쓸해지네²⁴⁰⁾

김상헌은 송시열을 자기 아래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같이 학문을 하는 학자로서
 대등하게 대했다. 그리고 김상헌은 자신이 주희의 뜻을 이었으니 이를 송시열이
 이어주길 기대했다. 그리고 김수항도 이 작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송시열이 권상하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다. 권상하도 스승의 유언을 잊지 않
 았다. 그는 김창협, 이희조, 최방언과 함께 『주자대전차의』, 『정서분류』, 『어류분
 편(語類分編)』, 『울곡별집(栗谷別集)』 등을 정리하는 일에 매진했고, 박세채에게
 감수를 부탁하려고 하였다.²⁴¹⁾

송시열은 현재 천안으로 보이는 호서에 살던 진사 이증명이 신종 황제의 사당
 을 건립하고 양호(楊鎬)와 이여송(李如松)을 배향해달라는 소를 올렸던 일²⁴²⁾을
 꺼냈다. 양호는 정유재란 때 경략조선군무사(經略朝鮮軍務使)로 참전했고 이여송
 은 장수로서 임진왜란 당시 2차 원병(援兵)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현종 때 호서의 한 선비가 상소하여 만력황제(萬曆皇帝)의 사당을 세울 것을 청
 하자 그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핑계하는 말은 ‘높으신 천자를 외진 나라
 에서 제사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제사의 의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네.
 내가 그때 그 의견이 끝내 행해 지지 못할 줄 알고 다만 ‘이러한 말을 이러한
 시국에 꺼냈으니 그 사람이 가상하다. 이 사람을 표창하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만 말하였으나 이 또한 주위에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항상 개탄하여 마지않았네. 그 뒤에 화양동 바위에 숭정황제(崇禎皇

240) 『淸陰集』 제4권, 「酬宋持平時烈」, “十日良晤 慰幸實多 蒙惠佳章 語意太過 令人慙然 聊次來韻
 以謝雅誼 有美人如玉 三山地一邊 好賢辭授粲 衛道任障川 喜遇東陽過 思論太極編 臨分更惆悵
 世事日蕭然.”

241) 『寒水齋集』, 「與李同甫(庚午五月)」.

242) 『顯宗實錄』, 「현종 8년 정미(1667, 강희 6), 6월8일 (신사)」.

帝)의 어필(御筆)을 새기고 또 조각들에 새겨서 환장암(煥章菴)에도 보관하였고, 또 문곡(文谷)이 지은 애사(哀詞)가 있는데 이것이 이 일의 동기가 되었네. 늘 마음속으로, 한 칸 사우(祠宇)를 환장암 뒤 왼쪽에 건립하고 조그만 위판(位板)에 ‘만력신종황제(萬曆神宗皇帝), 숭정의종황제(崇禎毅宗皇帝)’라 쓰고서 봄가을로 무이신(武夷神)의 예(禮)에 의거하여 마른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술은 서실의 기전(基田)에서 나온 쌀로 빚되 아무쪼록 정결하게 하고 오직 축사만은 불가불 성대하게 칭송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네. 이 일에 대하여 그와 같이 마음에 경영하여 온 지는 오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무슨 한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높은 천자를 외진 나라에 제사 드릴 수 없다는 이 말은 실상 무식한 말이네. 243)

그러나 우의정 정치화(鄭致和)는 황제의 사당을 외국에 세운 예가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자 사당 건립은 무산되었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명나라 황제의 사당을 세울 수는 없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당을 건립하려던 일이 무산되자 송시열은 개인적으로 명나라의 신종 만력제와 의종 숭정제를 기리기 위해 만동묘를 지으라고 권상하에게 부탁했다. 신종은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병했고, 의종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였다. 만동은 ‘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니 의지가 있는 것과 같다(其萬折也必東 似志)’²⁴⁴⁾에서 온 말로 중국의 모든 강이 동쪽으로 향한다는 뜻인데 중국 문명이 조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민정중이 1669년(현종 10년) 연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숭정 황제의 어필로 된 ‘비례부동’ 네 글자를 얻어 와서 송시열에게 선물하였다.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글자는 조선 예학의 태두 김장생을 계승하였고 두 차례 예송논쟁의 한 복판에 섰던 송시열로서는 뜻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글자를 화양

243)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顯廟朝 湖西(似是天安) 一士人上疏 請立萬曆皇帝廟 其時異論之人 託言天子之尊 不可祀於偏邦 又其祭儀不亦難乎云 余知其時議之終不可行 只言此言出於此時 其人可尙 此則不可無嘉尙之典 又不肯聽 心常慨然矣 其後華陽石龜 既刻崇禎皇帝御筆 又刻於片石藏之煥章菴 而又有文谷哀詞 此爲之兆矣 常欲建一間祠宇于煥章之後左 以牌子書萬曆神宗皇帝崇禎毅宗皇帝 春秋依武夷神禮 祀以乾魚酒 則用書室基田所出 務其精潔 惟祝辭 不可不盛其稱頌也 此事經營於心者久矣 未果而至於此 恨孰大焉 其以天子之尊 不可祀於偏邦者 此實無識之言也.’

244) 『荀子』, 「宥坐」.

동 절벽에 새기고 옆에 집을 지어 환장암이라 하였다.²⁴⁵⁾ 환장은 ‘빛나는구나, 그 문장이여!(煥乎其有文章)’이라는 뜻으로 『논어』 「태백(泰伯)」에서 가져온 것이다. 원래 이곳은 송시열이 북벌정책을 위해 700명의 무사를 양성하던 곳으로 1655년(효종 5년) 혜일선사(慧日禪師)가 절을 창건하여 환장사(煥章寺)를 지었다고도 한다. 문곡 김수항은 이 일을 기려 「우암을 위해 「제환장암」이라는 시를 지어 부치다」²⁴⁶⁾를 지었다. 또한 그는 1673년(현종 14년) 사신으로 연경에 갔다가 ‘구름 속 황성에 쌍봉의 대궐이오, 빗속의 봄 나무에 만인의 집이라.(雲裏帝城雙鳳闕, 雨中春樹萬人家.)’와 ‘물이 나오는 곳까지 걸어가, 구름이 이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노라.(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라는 구절이 쓰여 있는 송정황제의 글씨 두 폭을 구해오기도 했다.²⁴⁷⁾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시한다. 위판을 모시고 봄가을로 무이신의 예에 의거하여 제사를 드리라 하였다. 무이신은 중국 복건성(福建省) 숭안현(崇安縣)의 남쪽에 위치한 무이산의 신인(神人)인데 한나라 때부터 사당을 세워 마른 고기로 제사를 지냈다.²⁴⁸⁾ 무이산은 주자가 무이정사를 지어 은거하며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하다.

송시열은 정치화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초나라 유민의 초소왕묘와 남한 장식의 우제사를 예로 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퇴지 한유(韓愈)가 초나라 유민의 정성을 기려 시를 남겼고,²⁴⁹⁾ 주자는 남한 장식의 우제사(虞帝祠)를 표장하기 때문이다.

한퇴지(韓退之) 때 초나라 소왕(昭王)의 사당이 전하여져 유민이 자기네끼리 받들어 제사 드렸던 까닭에 퇴지의 시에, ‘그래도 백성이 있어 옛 덕을 기리며 한 칸 초가집에서 소왕을 제사 모시네’ 하였네. 남헌(南軒)도 일찍이 계림군(桂林郡)의 지주사(知州使)를 지내면서 우제사(虞帝祠)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자, 주 선생이 표장(表章)하는 글이 있었네. 이것이 어찌 근거할 만한 법이 아니겠는가. 문곡의 시도 또한 차운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운하게 하여 연이어 크게 편철

245) 『肅宗實錄』, 「숙종 30년 갑신(1704,강희43) 1월 10일(경술)」.

246) 『文谷集』 제4권, 「爲尤齋寄題煥章菴」.

247) 『文谷集』 제26권, 「崇禎皇帝御筆二障購得始末記」.

248) 『史記』 제28권, 「封禪書」.

249) 韓愈, 「題楚昭王廟」, “丘墳滿目衣冠盡 城闕連雲草樹荒 猶有國人懷舊德 一間茅屋祭昭.”

하여 암자 속에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일일 결세.²⁵⁰⁾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김수항의 「우암을 위해 「제한장암」이라는 시를 지어 부치다」를 차운하여 시를 짓게 하고 이 차운시를 모아 시집으로 만든 다음 운한각(雲漢閣)에 보관하라고 권했다.

글자는 노봉 민정중이 가져왔고, 택지 이선(李選)이 돌에 새겼고, 김수항이 이 일을 기려 시를 지었으니 만동묘를 설치하는 일은 세 집안에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비례부동(非禮不動)’ 네 글자는 노봉(老峯)이 만들어 온 것이고 조각돌에 새긴 것은 이택지(李擇之)가 본을 뜬 것이네. 이 일은 마땅히 김(金), 민(閔), 이(李) 집안사람들과 의논하여 성사시키면 좋을 결세. 이 일은 극히 간단하니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결세. 비록 그르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자와 남현의 고사가 기왕에 있으니 무엇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겠는가. 다만 서실의 기전은 서실을 지키는 종의 말을 들으면 후영정(後穎亭)의 종이 내가 거제로 귀양 간 틈을 타서 그 상전의 물건이라면서 빼앗으려 한다고 하였네. 만일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네. 만일 본전을 준비하여 암자의 중에게 주는 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는지. 모름지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하게. 만일 세 집안과 의논한다면 반드시 좋은 꾀가 있을 결세.²⁵¹⁾

후영정은 이휘(李徽)의 별장이다. 서실에 딸린 기전(基田)이 이휘 집안 땅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송시열은 잘 살펴 서실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세 집안이 합심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전한다.

송시열은 효종도 함께 배향할 생각도 하였으나 단념한다. 왕을 개인적 차원에

250)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韓退之時 有楚昭王廟而遺民私薦之 故退之詩云 猶有國人懷舊德 一間茅屋祭昭王 南軒嘗於所守之州 立虞帝祠而祭之 而朱先生有表章文字 此豈非可據之典乎 文谷詩 亦使可廢之人廢之 聯爲大編 藏之於菴裏 亦一事也.”

251)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非禮不動四字 老峯奉來者也 片石所刻 李擇之摹出者也 此事當與金閔李諸人 議而成之則善矣 此事力極簡 不難成矣 雖有非之者 既有朱子南軒故事 何必自沮也 惟書室基田 聞守婢之言 後穎亭奴子 乘我巨濟時 以爲其上典之物而欲奪之云 若然則難矣 若備本錢 付之菴僧 則亦是一道耶 須善思之如何 若與三家議之 則必有良謀矣.”

서 배향을 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시 정세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효종을 배향할까도 생각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는 비단 일 자체가 미안할 뿐 아니라 시속의 사람들이 반드시 큰 죄라고 생각할 것이어서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네. 해마다 제관은, 충현 송공(忠顯宋公) 자손이 본 고을에 살고 있으니, 이를 맡길 만하고, 그 나머지로도 홍(洪), 변(卞) 제군(諸君)도 합당하네. 일찍이 『이정서(二程書)』의 사역(寫役)을 피하였을 때 자네가 모 감사(監司)에게 그 책임을 일임하였는데 그것은 치밀한 생각이었네. 이 일은 더욱 치밀하게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이네. 신종황제의 축문 내용은 위외와 덕에 치중하되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백성이 받은 은혜의 뜻을 덧붙이고, 의종황제에게는 나라가 망하자 임금이 따라 죽은 정의에 치중하도록 하게.²⁵²⁾

가까운 곳에 송시영의 후손이 살고 있으니 그를 제관으로 삼고, 홍씨와 변씨 집안사람도 추천하였다. 송시영은 송시열의 종형으로 병자호란 때 강화로 갔다가 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여 나중에 충현공으로 추증된 인물이다. 송시열은 또한 축문 내용까지 자세하게 일렀는데 신종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운 부분을, 의종은 망국을 맞아 자결한 일을 강조하라고 전했다.

송시열은 주자가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를 비판한 일을 빌어 윤선거를 비판하였다. 아래에서 ‘근세에 어떤 사람’은 윤선거를 가리킨다. 장자는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에 가깝게 하지 말라[爲惡無近刑].”²⁵³⁾고 주장했는데, 주자가 이를 특히 비판하였다.²⁵⁴⁾ 송시열은 윤선거가 윤휴를 두둔했던 일을 이런 행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보기에 윤선거가 사문난적으로 꼽은 윤휴보다도 더 심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윤휴를 두둔하면서도 송시열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교묘하게 양자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은 양비론으로서 두 사람을

252)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始欲配以孝廟矣 更思之此則非但事體未安 時人必以爲大罪 不敢生意矣 年年祭官 則忠顯宋公子孫在本州 此可任之 而其餘洪卞諸君 亦可也 曾謀二程書寫役也 吾友斷置 某按使此義精矣 斯役也 尤不可不審也 神宗皇帝祝辭 主於威德 加於壬辰東人受賜 毅宗皇帝 主於國亡君死之正也.”

253) 『莊子』, 「養生主」.

254) 『朱子大全』 제67권, 「養生主說」.

모두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높임으로써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을 혼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주자가 일찍이 장자(莊子)가 정도(正道)를 해친 설을 논하시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악을 행하더라도 형벌에 가깝게 하지 말라’고 한 구절을 매우 이치를 거스르는 말이라고 하였던. 일찍이 혼자 생각하여 보니 장자의 그 설은 후세의 이익을 좋아하고 편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 가장 알맞은 말로서 그 해는 홍수나 맹수의 재앙보다 심한 것이니 이는 사설(邪說) 중에서도 더욱 심한 것이네. 근세에 어떤 사람의 처세술은 대중의 의사를 따라 몸을 보전하며 모든 이해에 관계되는 설은 바로 장자의 말과 같았으니 주자가 그 말을 집어내어 통렬하게 배척하신 그 뜻이 깊다 하겠네. 그러면서도 『대학』을 논하실 때에는 장자가 도체(道體)를 보았다고 극구 칭찬하고, 또 ‘도(道)를 설명하면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라는 한 구절을 드러내면서 말씀하기를, “이는 공자 문파의 원류를 이은 것이니, 증점(曾點) 등이 바로 이와 같다. 사람들이 모름지기 그 말을 이해하여 자신이 그 근본 의미를 관통하게 되면 이런 등속의 의견에 대하여 저절로 그 높낮음이 분명하게 깨우쳐질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불씨(佛氏)의 좋은 점은 모두 장자에게서 나왔다. 다만 식견이 깊지 못하여 세밀한 공부가 없으니 이른바 ‘현자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에서 주자는 세밀이란 말을 장자에게 돌린 것이네.²⁵⁵⁾

송시열은 주자가 장자를 무조건 비판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장자는 ‘도(道)를 설명하면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語道而非其序則非道也]’²⁵⁶⁾라고 보았다. 주자는 이 구절을 들어 장자가 도체(道體)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는 공자 문파의 원류를 이은 것으로 증점(曾點)과도 비슷하며 불가(佛家)의 장점도 장자에게서 나왔다고 평했다. 증점은 춘추 시대 말기 노(魯)나라 남무성

255)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朱子嘗論莊子害正之說 其中最以爲惡無近刑一句 爲悖理之甚 竊嘗思之 此說 最中後世好利取便者之心 其害甚於洪水猛獸之禍 此邪說之尤者 近世一種(尼尹) 時義從衆保身凡干利害之說 正如此矣 朱子之拈出而痛斥者 其旨深矣 然而至論大學 則極稱莊子見得道體 又表出其語道 而非其序則非道也一句 以爲此承接孔門源流 曾點之徒 正如此人 須理會自家本領 通貫却看此等議論 自見得高下分曉 又曰 佛氏好處 皆出於莊子 但知不至無細密工夫 所謂賢者過之也 此則朱子却以細密歸之莊子也.”

256) 『莊子翼』 제4권, 「天道」 제13장.

(南武城)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이자 증자(曾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다만 주자는 장자가 세밀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장자는 진리에 이르는 길로 이명(以明), 심재(心齋), 좌망(坐忘)을 들었다. 장자는 ‘성인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대신 세상 사람들의 소견에 맡겨 둔다. 이를 본래의 밝음에 따른다고 일컫는다’²⁵⁷⁾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명은 양 극단을 떠나 허명한 심리 상태에서 대상을 관조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진리는 오직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텅 빈 것이 바로 마음이 닦아진 것이다.’²⁵⁸⁾라 하였다. 다시 말해 심재는 반성적 수양을 통해 탐욕과 기교를 씻어내는 수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장자에게 궁극의 인식 방법은 좌망이다. 그는 공자와 안회를 빌어 좌망을 예약과 인의를 잊고 육신과 총명을 버리며 형체와 지각을 벗어나 큰 도와 일체가 되는 것, 즉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본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풀었다.²⁵⁹⁾ 주자는 장자가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았으나 다가서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큰 줄기는 보았으나 방법에 있어 세밀함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한다.²⁶⁰⁾ 격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로 이어지는 주자의 공부법에 비하자면 지식의 가치를 폄하하고 세상을 개혁하려는 측면도 부족하다. 주자에 따르면, 참선으로 대표되는 불가의 수양법은 장자의 인식론에서 많은 것을 빌어 왔으면서도 더 단순한 차원에 머문다는 한계를 갖는다.

송시열은 상산 육구연(陸九淵)의 공부법의 한계도 지적한다. 육구연은 주자의 성즉리(性卽理)를 비판하며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인간의 마음을 이치로 받아들이므로써 세상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기보다는 마음을 돌아보고 맑게 하는데 집중하였다. 그의 사상은 진백사(陳白沙)를 거쳐 양명 왕수인(王守仁)으로 이어진다.

257) 『莊子』, 「齊物論」, “爲是不用 而寓諸庸 此之謂以明.”

258) 『莊子』, 「人間世」, “唯道集虛 虛者心齋也.”

259) 『莊子』, 「大宗師」, “顏回曰 回益矣 仲尼曰 何謂也 曰回忘仁義矣 曰可矣 猶未也 他日復見曰回益矣 曰何謂也 曰回忘禮樂矣 曰可矣 猶未也 他日復見曰回益矣 曰何謂也 曰回坐忘矣 仲尼蹴然曰何謂坐忘 顏回曰墮肢體 黜聰明 離形去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仲尼曰 同則無好也 化則無常也 而果其賢乎 丘也請從而後也.”

260) 『中庸』 제4장,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

대체로 주자가 『대학』에서 이를 논한 것은 아마 『대학』의 공부하는 단계가 극히 엄밀하여 털끝만큼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일 것이니 공자 문파의 가르침을 세운 뜻은 지극하다고 말할 만하네. 후세의 학자들은 그 이치를 알지 못하여 육씨(陸氏) 같은 사람은 격물(格物), 치지(致知) 공부를 내 던져 버리고 오로지 성의(誠意), 정심(正心) 공부에만 열중하였고, 또 먼저 수기(修己)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이들은 끝내 성취가 있을 수 없음을 몰라서였네. 그런 까닭에 일찍이 말하기를, “만일 참으로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있다면 왜 존경하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그것은 결코 이러한 이치가 없음을 말하신 것이네. 이처럼 장자가 말한 ‘도(道)를 설명하면서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라는 한 구절이 참으로 『대학』의 뜻과 부합됨을 아시고서는 칭찬하심이 이에 이르렀으니 학자를 깨우치는 뜻이 깊네. 대체로 주자는 장자의 본말(本末)과 장단(長短)을 조금도 남김없이 보았던 까닭에 그 이치를 해치는 말을 통렬하게 변박하 시면서도 성인의 도(道)와 합치되는 곳에서는 극구 칭찬하였던 것이니 지극히 식견이 높고 마음이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²⁶¹⁾

육구연이 마음에 집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격물, 치지는 소홀히 하였다. 주자는 이 점을 지적하였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가, 치국, 평천하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송시열은 주자를 통해 공부의 순서를 강조하였고 이는 제주 사람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7) 「민사정에게 답함(기사년 4월)」

사정(士正)은 민진강(閔鎭綱)의 자이고 호는 애일당(愛日堂)으로 송시열의 문인이다. 그는 후일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사될 때 그 일을 적어 「초산일기」를 남기기도 했다. 민진강이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자 송시열이 1689년 4월에 답장을

261) 『宋子大全』 제89권, 「奉訣致道(己巳五月十四日)」, “蓋朱子於大學論此者 蓋以大學階級 極其嚴密 不可毫分躐等 孔門立教之意 可謂至矣 而後之學者 不知其理 如陸氏拋却格致工夫而專務誠正 亦有不先修己而遽欲齊治平者 此不知其終不可有成 故嘗曰若真有躐等者 豈不可敬 蓋言其斷無是理也 今者得莊子語道非其序則非道一句 真有合於大學之旨 稱道之至於如此 其警學者深矣 蓋朱子於莊子 見其本末長短 無復餘地 故痛辨其害理之說 而又極稱其契於聖道處 如非識高而心公之至 安能與此哉.”

썼다. 이이와 성혼의 출향이 3월 18일에 결정되고 김수항이 4월 9일에 사사됐는데 이 편지에서 송시열은 양현의 출향에 대해서만 거론하고 김수항이 사사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4월 9일 이전에 쓴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넘어오니 꿈속에서도 고향에 이르지 못하는데, 정중한 문안 편지가 뜻밖에 눈에 들어올 줄을 짐작이나 했겠는가. 놀랍고 위로된 나머지 도리어 참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네. 내가 지금껏 가죽 속에 피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임금의 은혜이니 감사하는 마음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별지는 잘 보았네. 흑수(黑水)가 우계(牛溪)를 모옥하고 멸시하였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흑수를 지성으로 높이고 숭상하였으니 오늘날의 시배(時輩)들이 그 아들로 우두머리를 삼으려는 것이야 어찌 괴이한 일이겠는가. 그 아비의 마음이 벌써 이와 같은데 그 아들이 우두머리가 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이치가 없을 듯하네.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빌 것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자기의 생각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네. 그 아비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오랑캐에게 굽히는 것을 차마 하였으니, 반드시 사람마다 모두 그의 아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네. 지금의 일은, 이미 이 사람이 양현(兩賢)의 계통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감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는 하지만 영예스러움은 지극하네. 죽어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²⁶²⁾

윤휴는 성혼이 임진왜란 초 선조가 피난할 때 행차하는 길목에 살면서도 호종하지 않은 일을 비판하였고, 윤선거는 윤휴와 동조했다. 윤증이 소론의 영수가 되고 윤선거의 견해를 이어받으면서 이이와 성혼을 계승한 사람으로 송시열을 지목하며 그를 비판하였다. 윤선거가 성혼의 외손이기도 했기에 송시열은 윤선거에게 윤휴를 지지하지 말라고 권했으나 윤선거는 윤휴를 훌륭한 학자로 인정하고 옹호했다.²⁶³⁾ 송시열은 자신이 이이와 성혼의 계승자로 인정되는 것을 자랑스럽

262) 『宋子大全』 제102권, 「答閔士正(鎮綱○己巳四月)」, “過此重溟 魂夢亦不到鄉關 豈料鄭重問書居然入眼也 驚慰之餘 反疑非眞耳 此至今皮裏含血 莫非天恩 感祝何量 別紙謹悉 黑水侮蔑牛溪而其人之父至誠尊尙 今日時輩 欲以其子爲領袖 何足怪哉 其父之心既如此 則其子之不肯爲領袖似無其理 至於以我爲乞憐於渠 則是眞恕己而量人者也 其父畏死而忍屈於虜人 必謂人人皆如其父 故做出此言爾 今事既以此漢爲得兩賢緒餘 雖不敢當 而榮幸極矣 死亦何憾.”

263) 이덕일(2011), 『윤휴와 침묵의 제국』, 다산초당, p.74.

게 생각하며 양현 출향에 반대하였다.

송시열은 윤증의 비판을 호굉과 경당 등이 주자와 정이(程頤)를 비판한 일에 빗대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호굉과 경당은 한탁주(韓侂胄) 일파로서 정주학과를 위학이라고 비판하였다.

옛날에 호굉(胡紘)과 경당(京鏜) 등이 주자를 죽이기를 요청하고 아울러 이천(伊川)을 공격하자 문인들이 화를 피할 수 있는 계책을 하도록 청하였네. 주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 길[萬仞]이나 되는 절벽처럼 우뚝 서 있으면 어찌 우리 도[吾道]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하였네. 나는 일찍이 이것을 외고는 격양(激昂)이 되었네. 진실로 터럭만큼이라도 저 무리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어류(語類)] 책을 대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한번 웃음에 부칠 뿐이네.²⁶⁴⁾

호굉(1105-1161)은 호상학과(湖湘學派)의 대표자이자 주희, 여조겸과 함께 동남삼현으로 불렸던 장식(張栻)의 스승으로 성선의 의미에 대하여 주자와 의견을 달리 했다.²⁶⁵⁾ 주자는 장식과 중화논변(中和論辯)을 벌였는데 그 후 호굉의 성체심용론(性體心用論)을 극복하고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확립한다.²⁶⁶⁾ 주자를 찾았다가 주자의 대접이 변변치 않자 후일 주자를 귀양 보내 그곳에서 죽게 했다. 경당은 한탁주가 1196년 경원의 당금을 일으켜 도학과를 탄압할 때 좌상으로서 앞장섰던 인물이다. 호굉과 경당이 주자를 탄핵하려 하자 제자들은 주자에게 몸을 피하라고 하였으나 주자는 거부하였다. 마음은 이해하나 우뚝 선 절벽처럼 당당히 감당하겠다고 말한다. 송시열도 ‘그러나 내가 만 길이나 되는 절벽처럼 우뚝 서 있으면 어찌 우리 도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然得某壁立萬仞 豈不爲吾道之光).’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며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결연한 태도를 제주 사람들에게 상당한 감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264) 『宋子大全』 제102권, 「答閔士正(鎮綱○己巳四月)」, “昔紘鏜等乞斬朱子而并攻伊川 門人請爲避禍之計 朱子答以此固出於相愛 然得某壁立萬仞 豈不爲吾道之光 愚嘗誦此而激昂矣 苟有一毫如渠輩說 則將何以更對語類書哉 此可付之一笑耳.”

265) 홍승표(2005), 『중국유학의 남방 전파』, 계명대학교출판부, p.364.

266) 성광동(2011), 「호굉의 도 개념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60호, p.92.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민사정에게 답함(기사년 4월)」, 「권치도에게 보냄」,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 순으로 볼 수 있다.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에 따르면, 송시열은 바다를 건너면서도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오갔던 편지를 읽으며 사단칠정론을 되새겼다. 이황을 건너뛰면 주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친구의 지적을 무시하지 않았다. 적소에서는 음양과 동정(動靜)의 관계를 고민하며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자의 의견을 구했다.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는 태도는 위대한 학자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40년 넘게 매달렸던 『논맹혹문정의통고』를 윤3월 12일에 마무리하고 나서는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을 쓴다. 교감을 부탁하면서 공부론과 수양론의 접점도 전한다. 인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탐구해야 하고 구체적인 탐구 방법은 독서에 있다고 보았다. 독서는 공부법이자 수양법인 것이다. 양현이 출향되자 「민사정에게 답함(기사년 4월)」을 보내 아쉬움을 전하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벽립만인(壁立萬仞)의 자세를 흐뜨리지 않았고, 주돈이의 중정인의설을 잘못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자 급히 「권치도에게 보냄」을 써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제자의 의견을 물었으며,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권치도에게 보냄(기사)」으로 의연함을 드러냈다.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은 그가 남긴 사상적 유언이라 할만하다. 존재론과 인간론을 관통하는 것이 곧음[直]이므로 이는 궁극적 가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장자는 세밀함이 부족하고 불가는 단순하며 육구연은 격물치지를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한다. 적소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을 쓰며 공자, 맹자, 주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 곧음을 존재론과 인간론을 관통하는 최고 가치로 인정하고,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 독서를 공부론과 수양론을 아우르는 궁극적 방법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철학의 핵심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주자의 팔조목으로 단계별 학습법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또한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에서 대척점의 원류인 이황을 읽고, 「권치도에게 보냄」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제자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위대한 학자의 면모를 드러냈다. 나아가 「민사정에 답함(기사년 4월)」과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을 통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결연한 태도로 깨끗한 선비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3. 잡저(雜著)

송시열은 제주에서 서문, 축문 및 전기를 비롯한 여러 저작을 남겼다. 그는 기유의서를 다시 읽으며 주자를 중심으로 성리학의 범위를 확정하며 「송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를 썼고, 효종의 기일을 맞아 효묘를 세실로 지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을 적었다. 40년 넘게 매달렸던 『논맹혹문정의통고』를 마치고 서문을 적었고, 나압이 결정되고 제주를 떠나기 전에는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로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광씨의 묘에 고한 글」을 썼다. 「임장군경업전」을 남겨 존주대의와 복수설치의 이념을 뚜렷이 하기도 했다.

1) 「송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

송시열 생전에 송정 기사년은 1629년과 1689년이다. 윤보는 윤선거(尹宣舉)의 연보(年譜)를 가리킨다. 연보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낸 일을 시기별로 적은 기록이므로 나이가 들었거나 사후에 적게 된다. 윤선거는 1610년에 태어나 1669년에 죽었다. 따라서 이 글은 송시열이 1689년 4월 6일 제주에서 적은 것이다.

여기에서 윤보는 기유의서(己酉擬書)를 말한다. 기유의서는 1669년(현종 10년)에 윤선거가 송시열에게 보내려고 써 놓았던 편지를 가리킨다. 윤선거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부치지 못했다. 편지에서 윤선거는 송시열에게 윤희와 허목이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비이니 사이 좋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나 송시열은 윤희가 사문난적이므로 그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1673년 윤증이 아버지의 묘문을 부탁하려고 박세채가 써준 행장과 함께 기유의서를 가지고 송시열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회니시

비가 일어나면서 노소 분당의 빌미가 되었다.

윤휴는 주자를 공격(攻斥)하는 일을 자기의 큰 사업으로 삼았으니, 실로 사문의 난적이다. 그런데도 이윤(尼尹)은 사력을 다하여 그를 도왔다. 그래서 그의 형세가 더욱 성해지고 뜻이 더욱 교만해지게 되어 종국(宗國)에까지 화가 미칠 뻔하였다. 『춘추(春秋)』의 법에 의하면, 난신적자를 다스림에 먼저 그 당여(黨與)를 치죄(治罪)하였으니, 이 어찌 밝은 대의가 아니겠는가. 그의 자식이 그 일을 계속하여 당류(黨類)가 더욱 성해지니, 비록 그 만의 하나를 제거하려 해도 근원이 깊고 견고하며 기력이 호웅(豪雄)하여 윤휴 당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마침내는 남몰래 함정[機阱]을 파고 영루(營壘)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재앙의 조짐이 이전보다 갑절이나 불어났다. 대체로 화열(禍孽)을 꾸민 지가 오래되어 발작이 더욱 맹렬한 것이니, 이른바 하류(下流)가 천원(泉源)보다 광대하고 지엽(枝葉)이 뿌리보다 무성하다는 말이 어찌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무리가 예전에는 윤휴 무리의 실상을 엄호하였으므로 사람이 속일 만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시배들이 마침내 윤증 부자는 윤휴와 일체가 되어 회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저절로 이루어진 바꾸지 못할 공론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세를 가만히 보건대, 대체로 주자의 도를 이 세상에 쇄멸시키려는 것이니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어서 모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어찌 구차히 살아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으랴.²⁶⁷⁾

윤휴는 주자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이론을 펼쳤다. 그런데 윤선거, 윤증 부자는 윤휴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 무리가 세력을 얻어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송시열은 생각했다. 평소 곧은 태도를 기를 것[直養]을 주장했던 송시열의 강직한 면모가 잘 드러나는 글이다. 더구나 숙종은 3월 5일 비망기를 내려 윤휴를 복권하였다. 그래서 더욱 송시열이 당시를 한탄했던 것으로 보인다.

267) 『宋子大全』 제134권, 「崇禎己巳四月六日偶見尹譜書」, “尹鏞以攻斥朱子 自以爲大事業 實斯文之亂賊也 尼尹出死力黨助 使其勢益熾志益驕 幾禍宗國 春秋之法 亂臣賊子 先治其黨與 豈非炳然之大義乎 其子繼述 黨類尤盛 雖欲攘除其萬一 而源深根固 氣豪力雄 非復鏞之比矣 遂至暗設機阱 營壘連絡 禍孽之作 倍於曩時 蓋其醞釀愈久 而發作愈猛 所謂流大於源 枝茂於根者 豈不信哉 然而其徒掩 護黨鏞之實 而謂人可欺矣 今者時輩遂使尹之父子與鏞合爲一體 而不可回避 此所謂自然不易之公論也 然竊觀今日氣勢 蓋將使朱子之道衰熄於斯世矣 吾今死矣 死而不見 豈不愈於苟生而目見之乎.”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송시열이 윤선거의 연보를 제주까지 가지고 갔다는 점이다. 죽음에 이를지도 모를 상황에서 연보까지 제주로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가 상당한 양의 서적과 자료를 제주로 가져와 연구와 토론을 이어나갔음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죽은 윤선거의 연보를 챙길 정도면 다른 중요한 서적과 자료가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많은 식솔을 대동하고 제주로 왔으므로 운반이 어렵지도 않았을 것이다. 유배에 처해졌음에도 학자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2)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효종은 1619년에 태어나 1659년에 죽었고 기사년은 송시열 생전에 1629년과 1689년이 있었다. 휘신(諱辰)은 기일(忌日)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1689년 송시열이 제주에서 지내는 동안에 맞이한 효종 제삿날에 쓴 글이다. 스스로에게 글을 썼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도 편지를 주고받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일 기해(己亥)에 효종대왕의 휘신(諱辰)을 맞아 수찰을 새로 빌린 집에 불안하였으니, 대체로 옛날 불안했던 곳은 곤충들이 득실거려서 절대로 존중히 모실 곳이 못 되기 때문이었다. 이날의 비통함은 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였다. 대체로 듣건대, 이 무리들이 효묘(孝廟)의 세실(世室)을 미리 정한 것을 천신(賤臣)의 죄로 삼아 나를 국문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대개 그들 마음은, 효묘의 덕이 세실을 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면서도 감히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효묘의 세실을 정하자고 미리 청했던 것을 칭탁하여 죄를 만든 것이다.²⁶⁸⁾

여기에서 이 무리는 윤희의 일당을, 천신은 송시열을 가리킨다. 송시열은 이날 효종의 수찰을 새로 빌린 집으로 옮겼다. 전에 불안했던 곳은 곤충이 득실거리고 냄새가 심했기 때문이다. 배소를 옮겼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배소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목숨보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효종의 수찰만을 자신이 사는

268) 『宋子大全』 제136권, 「己巳五月四日孝廟諱辰自敘文」, “四日己亥 奉孝宗大王諱 奉安手札于新假家 蓋以舊所奉安處昆蟲臭穢 絕非尊閣之所故也 是日之痛 倍於前時 蓋聞此輩以孝廟世室預定之議 爲賤臣之罪 至請按鞫 蓋其心以孝廟之德 爲不足於世室 而不敢言 故託於預請而以爲罪.”

집과 다른 장소에 보관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송시열은 제주목 성안 산짓골 윤계득(尹繼得)의 집에 기거했다고도 하고,²⁶⁹⁾ 아전 김환심(金煥心)의 집을 적소로 삼았다고도 한다.²⁷⁰⁾ 어느 곳이 먼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거주하기가 더 나았다는 표현으로 보아 아전인 김환심의 집이 두 번째 배소일 가능성이 높다. 송시열은 청빈하기로 유명했다. 그런 송시열마저도 수찰을 보관하기에 마땅치 않다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배소는 상당히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은 조정에서 효묘 세실 문제로 자신을 비판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을 피력했다. 세실이란 불천지위(不遷之位)를 말한다. 조선의 종묘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으로 나뉘는데 정전에는 원래 태조와 태조의 4대 조상을 합쳐 다섯 신위를, 영녕전은 정전에 모시지 않는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셨다. 왕이 승하하면 정전에서 모셨던 왕 가운데 가장 위에 있던 왕의 신위를 영녕전으로 옮기고 승하한 왕의 신위는 정전에 모셨다. 그런데 업적이 뛰어난 왕의 신위는 차례가 되어도 신위를 영녕전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실 즉 불천지위다. 송시열은 1683년 2월 21일 효묘를 세실로 높이자는 소를 올렸고,²⁷¹⁾ 그해 6월 12일에는 태조와 태종의 시호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²⁾ 애초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므로 사대부와 동일한 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다 제2차 예송논쟁에서 패배하여 송시열은 1675년 덕원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장기, 거제를 거쳐 청풍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해배되었다. 그러나 경신환국을 주도했던 김석주와 김익훈의 무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선다. 정치적 실각을 경험했던 송시열은 두 사람을 옹호하며 노론의 입장에 섰고 효종을 폄하했다는 의혹을 벗고자 효묘 세실 문제와 태조 시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더구나 효종의 장례를 담당했던 송시열은 효종의 재궁(梓宮)에 부판(付板)을 썼던 실수도 만회해야 했다. 이에 대해 부수찬 김방걸이 1689년 윤 3월 2일 송시열을 추죄해야 한다고 상소했다.²⁷³⁾ 김방걸은 송시열이 예송논쟁이 벌어

269)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제주 송시열 적거지 '2016.1.1. 인출.

270) 양진건(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p.72.

271) 『肅宗實錄』, 「숙종 9년 계해(1683,강희 22), 2월21일 (계사)」.

272) 『肅宗實錄』, 「숙종 9년 계해(1683,강희 22), 6월12일 (계미)」.

273)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강희 28), 윤 3월2일 (기해)」.

질 때 사종론(四種論)을 제기하여 효종을 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효묘를 세실로 높이고 태조(太祖) 시호(諡號) 문제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김방걸의 상소문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후일 송시열의 문인인 전 별검(別檢) 이기주(李箕疇)와 유학(幼學) 이탁(李鐸)이 소를 올려 스승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숙종은 임금보다도 스승을 우선시킨다며 두 사람을 극변으로 귀양 보내버리면서 구명 노력은 무위에 그치게 된다.²⁷⁴⁾

송시열은 효묘를 세실로 정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주자와 신도가의 고사를 제시했다. 주자는 고종을 세실로 정할 것을 주장했고, 신도가는 문제의 세실을 청했다.

옛날 주자는 고종(高宗) 때에 나서 고종조에 벼슬하고 고종을 세실로 정할 것을 청하였는데도 지금 득세한 무리들은 모두 적휴(賊鑹)의 여당(餘黨)이기 때문에 주자를 본받을 것이 없다고 여겨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한 경제(漢景帝) 원년(元年)에 신도가(申屠嘉)가 문제(文帝)의 세실(世室)을 급히 청했던 것을 보지 못했던 말인가. 이 또한 『사략(史略)』 제2권에 있다. 지금 사람은 이 글을 본 자가 없단 말인가. 만일 효묘의 덕이 부족하다면 어찌 하후승(夏侯勝)이 무제(武帝)에게처럼 바로 배척하지 않았단 말인가. 윤희의 무리들이 일찍이 성자(聖子) 앞에서 명성대비(明聖大妃)를 배척하였으면서도 다만 신손(神孫)의 세대에 효묘(孝廟)는 배척하지 못한단 말인가. 천신(賤臣)은 이 말을 듣고부터 통분하고 원통하였지만 호소할 곳이 없던 터라, 이날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곡성이 하늘에 닿고 눈물이 구천(九泉)에 달하였다.²⁷⁵⁾

남인들이 효묘를 세실로 모시는데 반대한다면 하후승(夏侯勝)이 한 선제(漢宣帝) 때 무제(武帝)의 묘호(廟號) 지정을 반대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내보

274)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 강희 28), 5월30일 (을축)」.

275) 『宋子大全』 제136권, 「己巳五月四日孝廟諱辰自敘文」, “昔朱子生於高宗之時 仕於高宗之世 而請高宗爲世室 時輩皆賊鑹之餘黨 故以朱子爲不足法 而爲此言矣 然獨不見漢景帝元年申屠嘉亟請文帝之世室乎 此亦在史略二卷矣 今人未有見此者耶 若不足於孝廟之德 則何不直斥如夏侯勝之於武帝也 鑹輩曾斥明聖大妃於聖子之前 獨不能斥 孝廟於神孫之世耶 賤臣自聞此說 痛憤冤鬱而無處號訴 於是日 不覺聲之徹天淚之徹泉也.”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후승은 무제가 무분별한 토목공사와 거둬진 군사원정으로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한 점을 들어 반대했다. 송시열은 효종의 북벌정책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면 남인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효묘 세실 지정을 반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성자(聖子)와 신손(神孫) 모두 숙종을 가리키고, 명성대비는 숙종의 어머니다. 숙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명성대비가 정사에 자주 개입하여 남인의 비난을 샀으며 인평대군의 세 아들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이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홍수의 변(紅袖之變)을 일으켜 남인과 대립하게 된다. 남인의 지지를 받은 희빈 장씨를 내쫓기도 했다. 그래서 송시열은 남인이 효묘 세실 지정도 반대한다고 보았다. 구천은 땅속 깊은 밑바닥을 가리키는데 불교에서 죽은 뒤에 नी이 돌아가는 곳을 일컫는다.

송시열은 효묘를 세실로 정해야 하는 이유를 효종이 작은 나라의 임금이면서도 천자국인 중국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멸망했지만 명나라를 조선이 이어나가 『춘추』의 대의를 밝혔다고 보았다.

삼가 생각건대, 효종대왕께서는 마음과 일이 모두 성덕(盛德)과 지선(至善)에 찼었다. 심지어는 이 조그만 편방(編邦)에 있으면서 경사(京師)를 위하여 『춘추(春秋)』의 대의를 밝히기까지 한 일은 진실로 삼성(三聖)의 공훈을 계승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비록 그 뜻과 업적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후세에 무궁한 교화를 드리운 것으로 말하면 『춘추』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니, 어찌 관덕(觀德)의 전례에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시배(時輩)들이 이처럼 방자하게 된 데는 실로 윤선거(尹宣舉)에게 죄가 있다. 선거가 매양 효묘를 비소(非笑)하는 뜻이 있어 말하기를, “구천(句踐)은 거짓된 사람이고, 경연광(景延廣)은 미치광이다.” 하였고, 또는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신하는 효묘를 가리켜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오만하다고 기의(譏議)하였던 것이다. 지금 시배들은 윤선거를 존상(尊尙)하여 세실(世室)이 잘못 되었다고 감히 의논하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²⁷⁶⁾

276) 『宋子大全』 제136권, 「己巳五月四日孝廟諱辰自敘文」, “竊伏惟念孝宗大王無非盛德至善也 至於以眇然編邦 爲京師明春秋大義者 誠足以承三聖之功矣 雖其志業未就 而垂教於無窮 則與春秋無異矣 豈不足於觀德之典耶 抑使時輩如此者 尹宣舉實有罪焉 宣舉每於孝廟 不無非笑之意 常曰句踐詐矣 延廣狂矣 又以盤樂怠傲 議孝廟之憂勤惕厲矣 今時輩尊尙宣舉 而敢議世室之非 痛矣痛矣.”

여기에서 편방(編邦)은 작은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키고, 경사(京師)는 왕실로 천자국인 중국을 이르며, 삼성(三聖)은 우(禹), 주공(周公), 공자(孔子)를 말한다. 구천(句踐)은 월나라 군주로 와신상담의 주인공이다. 그는 거짓으로 오나라 부차의 하인이 되어 그에게 믿음을 얻은 후 월나라로 돌아가 국력을 기르고 나중에 오나라로 쳐들어가 멸망시켰다. 경연광은 후진 출제(出帝) 석중귀(石重貴)의 금군대장으로 금나라에 대해 척화를 주장하다가 나라를 위기에 빠지게 하였다. 윤선거는 무분별한 척화 주장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근거로 경연광을 비판한 것으로 동시에 송시열에 대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송시열은 이 글을 1689년 윤3월 12일에 썼고, 「주자대전차의 서문(朱子大全筭疑序)」도 2월 12일 제주로 오는 도중에 썼다.²⁷⁷⁾ 그는 혹시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자신이 했던 학술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서둘렀다.

『논맹혹문』은 주 선생(朱先生)이 순희(淳熙) 정유년(1177)에 『집주(集註)』와 함께 편정한 것이다. 『집주』는 다시 수정을 더해서 더욱 정밀해졌으나 『혹문』은 선생이, 배우는 이가 글 뜻에만 얽매다가 그 추향이 점차 박해질까 염려한 나머지, 일찍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한 서사(書肆)에서 훔쳐다가 간행하였으므로 선생이 급히 현관(縣官)에게 청하여 그 판목을 찾아다가 두고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 털끝만 한 사이에도 변석(辨釋)하고 취사(取舍)한 것이 실상 『집주』와 상호 발명(發明)되었으니, 성학(聖學)에 관계된 바가 매우 크다.²⁷⁸⁾

주자는 정호, 정이, 장재 등 여러 학자의 주석문을 모아 1172년 『논맹정의(論孟精義)』를 먼저 편찬했다. 그리고 1177년 『논어집주(論語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와 함께 『논맹혹문(論孟或問)』도 지었다. 『논맹정의』는 여러 학자가 『논어』

277)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崇禎62年 己巳」.

278) 『宋子大全』 제139권, 「論孟或問精義通攷序」, “論孟或問 朱先生於淳熙丁酉歲 與集註一並編定者也 集註則復加修刪 益以精密 而或問則先生慮學者綴繞文義 轉而趨於薄 故未嘗出以示人矣 時有書肆人竊取而刊行者 先生亟請縣官 追索其板子而不出 然其辨釋取舍於毫釐間者 實與集註互相發明 其有關於聖學也大矣.”

와 『맹자』에 단 주석을 모아 편찬한 책이고 『논맹혹문』은 여러 학자의 주석에 주자가 논평한 글이다. 주자는 『논어집주(論語集註)』와 『맹자집주(孟子集註)』는 계속 수정을 거치면서 더욱 정밀하게 가다듬었으나 『논맹혹문』은 쉽사리 공개하기를 저어했다. 『논맹혹문』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고 주자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를 가다듬는데 집중하다보니 『혹문』을 수정할 여력도 없어 미완의 저술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혹문』을 구해 읽으려 하니 도서 상인들이 몰래 출판하려고 하였다. 소식을 접한 주자는 현관(縣官)에게 출판을 막게 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개인적으로만 베끼면서 구해 보았다. 그러나 송시열은 『혹문』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주자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논맹혹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종종 때로 보인다. 김안국이 그 책을 중종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기 때문이다.²⁷⁹⁾ 그리고 이 책은 간행되기도 하였다고 송시열은 적고 있다. 그러나 『논맹정의』를 구할 수 없었다. 『논맹정의』가 없으면, 『논맹혹문』에서 논변(論辨)하고 취사한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혹문』을 구해다가 간행한 지 오래다. 그러나 『정의(精義)』가 없으면, 『혹문』에서 논변하고 취사한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어서, 마치 저울은 있어도 무게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는 있어도 길이를 재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내가 이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정의』를 구하려 한 지가 40년이 넘었으나 끝내 구하지 못하였고, 연시(燕市)에서 찾아보게 했지만 설인(舌人)이 매번 ‘두루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승정 정묘년(1687, 숙종13)에 좌시랑(左侍郎) 이공선(李公選)이 연경에 사신 갔다가 서사(書肆)에서 사 가지고 왔으니, 사문(斯文)의 다행히 무엇보다도 컸다. 급히 뽑아서 혹문 각 조목(條目) 밑에 붙여서 읽는 이로 하여금 통고(通攷)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중용혹문(中庸或問)』, 『중용집략(中庸輯略)』과 같은 범례이다. 이런 뒤에야, 『혹문』에서 ‘모씨(某氏)의 논설이 좋다고 이른 것은 이와 같기 때문에 취했고, 모씨의 논설이 의심스럽다고 이른 것은 이와 같기 때문에 버렸다.’는 말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버리고 취한 기준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으니, 바로 『춘추(春秋)』

279) 『中宗實錄』, 「중종 13년 무인(1518, 정덕 13) 11월25일 (신유)」.

의 경(經)에서 반드시 전(傳)으로써 안(案)을 삼은 것과 같다. 아, 『집주(集註)』가 비록 매우 정밀하지만, 이 글로써 우익(羽翼)을 삼지 않으면 끝내 흠족하지 않아서, 마치 정자(程子)가 병통으로 여긴 바와 같을 것이다. 진실로 상호 해설해서 점차 깊이 파고들면, 선생이 이 글을 편집해서 후학에게 좋은 선물로 끼친 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판목을 찾아다가 두고, 세상에 내놓지 않았던 마음도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²⁸⁰⁾

송시열이 40년 넘게 『논맹정의』를 구하려고 설인 즉 역관에게 부탁하여 연경에서 찾아보게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²⁸¹⁾ 그러던 중 1686년 그의 문인이자 예조참판이던 이선(李選)이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논맹정의』를 구하여 왔다. 그가 바로 이 책을 송시열에게 보내자 송시열은 『중용』의 예에 따라 『흑문』의 각 구절 아래에 『정의』를 끼워 넣어서 전서(全書)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래야 『논어』, 『맹자』가 보다 정밀하고 자세하게 되고 정호, 정이와 장재의 서로 다른 점과 잘잘못이 모두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논어집주』와 『맹자집주』가 정밀하기는 하지만 이 책의 도움을 받을 때라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송시열 또한 『논맹정의』를 바로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엄밀하게 교정 작업을 마친 후에 내놓아 세상의 혼란을 피하려 하였던 것이다.

4)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께씨의 묘에 고한 글」

송시열은 이 글을 1689년 5월 26일에 썼다. 그가 제주도를 떠나는 날이었다. 죽음을 예감한 송시열은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글을 지었고 손자 송주석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280) 『宋子大全』 제139권, 「論孟或問精義通攷序」, “我朝得或問書 刊行久矣 然苟無精義則未知或問所以論辨去取者是爲何事 是如有稱而無輕重 有尺而無短長矣 余爲是之病 求得精義者殆四十餘年而終不能得焉 求諸燕市則舌人每以徧求不得爲解矣 歲在崇禎丁卯 左侍郎李公選奉使於燕 市諸書肆而歸 其爲斯文之幸孰大焉 亟取而附諸或問逐條之下 使讀者便於通攷 斯蓋中庸之書或問輯略之凡例也 然後始知或問所謂某說之善矣云者 如是故取之 所謂某說之可疑云者 如是故舍之 其去取之權衡尺度 如指諸掌 正如春秋之經 必以傳爲案者也 嗚呼 集註之書 雖極其精密 然不以此書爲之羽翼 則終未浹洽 如程子所病矣 苟能相說而解 浸沈濃郁 則可知先生纂集嘉惠之本意而當時索板不出之心 亦不可不知也.”

281) 『宋子大全』 제72권, 「答李擇之」.

송정 기사년 5월 26일(신유)에 불초자 시열은 목숨이 다 되겠기에 삼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슬픔을 머금고 글을 지어, 손자 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송주석(宋疇錫)을 시켜 감히 황고 수옹 선생 부군과 황비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광씨의 묘에 고하나이다. 앞드려 생각건대 불초(不肖)가 기(氣)를 받고 태어났을 때에 상서로운 징조가 있었다 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망녕되이 흥기(興起)되는 마음이 있어 성인(聖人)도 배워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이 날 만한 나이에 이르러서는 기질에 구애되고 물욕(物慾)에 가려 하루 사이에도 가르침에 위배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열에서 연아홉은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장차 불세출(不世出)의 가정(嘉徵)을 헛된 곳에 버릴 작정이나?” 하였고, 인하여 또 책려(策勵)하시기를, “주자는 후세의 공자이고 울곡(栗谷)은 후세의 주자이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울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시고는, 드디어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묘록(己卯錄)』, 『해동야언(海東野言)』 등의 책을 손수 베껴 주시면서, “정암(靜菴)을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고, 또 일찍이 청교역(靑郊驛)에서 시를 지어 보이셨는데 그 시에, “매월당 앞의 물이요 [梅月堂前水], 도봉산 위의 구름일세[道峰山上雲]” 하셨으니, 대개 김열경(金悅卿)도 사모하셨던 것입니다.²⁸²⁾

황고(皇考)는 돌아간 아버지, 황비(皇妣)는 돌아간 어머니에 대한 존칭이다. 송시열의 아버지 갑조가 죽은 뒤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기에 어머니 선산 광씨는 정경부인이 되었다. 송시열을 가졌을 때 어머니 광씨는 명월주(明月珠)를 삼키는 꿈을, 아버지 송갑조는 공자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를 찾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준 아이라는 뜻으로 성퇴(聖賚)라는 아명을 지어주었다.²⁸³⁾ 그리고 항상 노력하라고 권면하였다.

송갑조는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스승과 읽어야 할 책도 일러주었다. 공

282)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維崇禎己巳五月二十六日辛酉 不肖子時烈性命將盡 謹北望銜哀撰詞 使孫前弘文校理疇錫 敢昭告于皇考睡翁先生府君皇妣贈貞敬夫人郭氏之墓 伏以不肖受氣降生之時 謂有瑞徵 錫以嘉名 幼稚之時 妄有興起之心 謂聖可學矣 及至省事 拘於坏質 蔽於物慾 一日之間 違教悖理者 十常八九 則常責而勉之曰 將使不世嘉徵 委於虛地耶 因又策勵曰 朱子後孔子也 栗谷後朱子也 欲學孔子 當自栗谷始 遂使讀擊蒙要訣 又手抄己卯錄海東野言等書以授曰 靜菴不可不學 又嘗於靑郊 作詩以示曰 梅月堂前水 道峯山上雲 蓋亦兼慕金悅卿也.”

283) 이덕일(2000), p.25.

자에서 주자로, 주자에서 율곡으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를 확정하면서 『격몽요결』을 추천했다. 이 책은 1577년(선조 10년)에 이이(李珥)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하였다. 조선 전기를 이끌어온 훈구파가 남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문물과 제도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가와 문장[詞章]을 중시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16세기 이후의 사림은 종래의 학문이 근본적인 경학(經學)과 이학(理學)을 소홀히 하여 학자들이 학문의 방향을 알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먼저 자신을 수양[修己]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소학』, 『동몽수지(童蒙須知)』를 비롯한 여러 아동 교육서를 번역하고 널리 보급하였으며, 나아가 박세무(朴世茂)의 『동몽선습』, 유희춘(柳希春)의 『속몽구(續蒙求)』와 같은 교육서도 내놓았다. 이이는 성리학을 체질화한 사림파가 정권을 잡고 그들의 이념을 국정 전반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가던 선조 초년의 정치와 사상을 주도하면서 『격몽요결』을 통해 사림파의 이념을 사회 저변에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송갑조는 송시열에게 정암 조광조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묘록(己卯錄)』과 『해동야언(海東野言)』을 직접 베껴 써주면서 힘써 배우라고 당부하였다. 『기묘록』은 『기묘제현전(己卯諸賢傳)』이라고도 하는데,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과 아울러 중종 때 개혁정치의 주도적 인물로 알려진 김식(金湜)의 현손 김육이 1638년(인조 16년) 충청도관찰사로 있을 때 기묘사화에서 화를 당한 기호지방 출신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인 김정국(金正國)이 지은 『기묘당적(己卯黨籍)』과 안당(安塘)의 손자이고 안처겸(安處謙)의 아들인 안로(安瑠)가 저술한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를 바탕으로 찬술하고 간행하였다. 『해동야언』은 조선시대 허봉(許篈)이 조선 태조부터 명종대까지의 정치, 사상, 제도, 풍속, 시문(詩文) 등과 관련된 인물의 언행, 사건의 비화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송갑조는 이 책들을 통해서 아들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명맥을 잇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랐다. 조광조와 더불어 개혁정치에 앞장섰던 김정은 기묘사화 때 제주로 유배 와서 죽었으며 나중에 제주 오현에 배향되었다. 송시열이 제주에 오자마자 동생과 손자를 시켜 굴림서원에 고하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송갑조는 열경 김시습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기를 사랑했다. 그는 송시열에게

자신이 개성에서 지었던 시를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시에는 ‘매월당 앞의 물이요 도봉산 위의 구름일세’라는 구절이 있다. 매월당 김시습처럼 맑은 물의 맑음과 도봉산 위의 구름처럼 높고 깨끗한 의(義)를 추구하라는 뜻을 담았다.

송갑조는 송시열이 15세 때 과거 공부를 하라고 권했고 가문을 일으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라고 하였다. 아래에서 성동(成童)은 열다섯 살 된 소년을 가리키는데 공자가 학문에 뜻을 두었던[志學] 나이다. 과업(科業)은 과거 공부를, 과영(科榮)은 과거 급제의 영광을, 녹위(祿位)는 벼슬을, 김 선생은 김장생을 이른다.

성동(成童)에 이르러서는 또 과업을 겸하여 익히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가문을 위한 계책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만 전념할까 염려하여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증조부는 팔자가 좋으셔서 어진 두 아드님을 두셨고 사위 또한 명현이었으니, 어찌 과영과 녹위로만 견줄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또 호관을 당하여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가실 때 중도에서 보낸 편지에, “난리가 났다 하여 학업을 게을리 하지 말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은 것이다.” 하셨습니다. 평소에 받은 가르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두 분 부모님을 여윈 뒤로는 더욱 스스로 어리석을 수 없다 생각하고 마침내 김 선생의 문하에 나아갔는데, 사문(師門)의 가르침이 한결같이 주자의 학설을 주로 삼았고 또 율곡을 대유(大儒)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불초는 이때서야 가정에서 얻은 것과 노맥(路脈)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²⁸⁴⁾

송갑조는 증조 송세량(宋世良)을 예로 들었다. 송세량은 1498년(연산군 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거처하면서 학문을 닦았고 음보(蔭補)로 선릉참봉(宣陵參奉)과 건원릉(健元陵) 참봉을 지내다가 고향에 돌아가 은거했다.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큰 아들 송귀수(宋龜壽)는 종묘서봉사(宗廟署奉事)를 지냈고, 둘째 아들 송인수(宋麟壽)는 형조참판에 이르렀으며 사위 성제원(成悌元)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아 보은현감에 제수되었다.²⁸⁵⁾ 이 세 사람이 모여

284)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逮至成童 則又使兼習科業曰門戶之計 亦不輕矣 又慮專意於此 則嘗曰 我曾王考命道好矣 兩有賢胤子 女婿又是名賢 豈但科榮祿位之可比哉 又當胡亂赴行在 中路還書曰 勿以亂離怠於學 朝聞夕死可也 平日受教如此 故自罹匪莪之慟 益不敢自昧 遂就金先生門下 則師門之教 一主於朱子 而又以栗谷爲大儒 不肖於是益知得於家庭者路脈不差也.”

도의를 강론했던 집을 ‘삼현려(三賢閭)’라 하였다.²⁸⁶⁾ 특히, 송인수는 성리학의 대가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횡을 일삼던 김안로의 재집권을 막으려다 제주목사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제주 오현에 배향되었다.

송갑조는 1627년 사옹원봉사에 제수되어 한성부로 가던 도중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난을 피해 남하하는 소현세자를 만나 전라북도 완산으로 수행하면서 송시열에게 편지를 썼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²⁸⁷⁾’는 말을 전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라고 하였다. 국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함이 잘 드러난다. 공부의 두 축인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모두 강조한 것인데, 송시열은 이 말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그의 강직함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1625년(인조 3년) 김장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는데 김장생은 주자의 학설을 근본으로 삼고 이이를 대유(大儒)로 섬겼다. 송시열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스승의 가르침이 어긋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게 된다.

송시열은 1633년(인조 11년)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하여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곧바로 사직하고 송준길과 영남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다. 1635년(인조 13년) 세자시강원으로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을 가르쳤으나 병자호란이 벌어지고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게 되자 충남 황간으로 낙향하여 한천정사(寒泉精舍)를 짓고 은거했다. 아버지가 정묘호란 때 화의가 성립되자 비분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모습을 따랐다. 송시열은 아버지의 당부를 어기지 않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 30이 다 되어 비로소 음사(蔭仕)에 나아가게 되며 고을이나 하나 얻어 모친을 편히 봉양할 계획이었사운데, 갑자기 오랑캐의 변[虜變]을 만나 천지가 뒤집히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정묘년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산중에 은둔하면서 나물 반찬과 거친 밥을 먹으면서 뜻을 길렀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궁색함을 굳게 지키고 의리를 편안하게 여기시

285) 金安國, 「송세량의 묘갈명(墓碣銘)」, 『국조인물고』 제33권.

286) 宋時烈, 「송시담의 묘표(墓表)」, 『국조인물고』 제42권.

287) 『論語』, 「里仁」, “朝聞道 夕死可矣.”

던 절조가 아니었더라면 불초가 어디에서 본받아 끝내 뜻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효종대왕이 즉위하신 처음에 미처서는 외람되게도 부르심을 받았고 어머님께 음식을 내리어 우대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 못 가서 오랑캐에게 간신의 참소가 들어가서 나라가 거의 위태롭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처음의 본분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책이나 읽으며 거친 음식으로 어머님을 봉양하면서 평생을 마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효종께서 큰 뜻을 품고 친구 김익희(金益熙)가 조문 오는 편에 비밀히 성의(聖意)를 전하시므로 불초가 복(服)을 마친 뒤 끝내 은거할 수 없어서 임금의 부르심에 따라 달려갔습니다. 겨우 경기 교외에 이르렀을 때 성후(聖候)가 편치 못하여 더욱 급히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창황(蒼黃)히 도성에 들어가 뵈오니, 계우(契遇)의 밀물(密勿)함이 천고에 드물 정도였으므로 드디어 죽음으로써 도울 것을 결심하였는데, 겨우 반년 만에 갑자기 승하하셨습니다. 이에 가만히 천운(天運)을 관찰하건대, 가는 임을 보내고 계신 임을 섬기는 의리를 제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한 번 현종(顯宗)의 온양(溫陽) 거동에 수행했다가 다시 수문(修門)에 들어간 것은 대개 정릉(貞陵)의 원통함을 위해서였으니, 이것은 아버님이 일찍이 그 단서(端緒)만을 거론하고 감히 끝까지 말씀하지 못한 것이요, 또 우리 쌍청부군(雙淸府君)께서 스스로 피하셨던 일입니다. 예(禮)를 행하던 처음에 침랑(寢郎)에게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조금이나마 선대(先代)의 뜻을 받들었다고 여겼습니다.²⁸⁸⁾

여기에서 오랑캐의 변은 병자호란을, 정묘년은 정묘호란을, 성의는 임금의 뜻을, 계우는 서로 뜻이 잘 맞는 것을, 밀물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수문은 대궐을, 침랑은 종묘, 능, 원의 영(令)과 참봉(參奉)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송시열은 효종이 즉위하고 자신에게 벼슬을, 어머니 곽씨에게 음식을 내린 은혜를 입자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리며 정계에 진출했다. 그러나 사림파가 등장하고 북벌론이 대두되자 위협을 느낀 친청파인 김자점이 청나라에 밀고했다. 송시열은 벼슬을

288)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年將三十 始就蔭仕 要以得一縣 便養慈顏之計 而忽值虜變 天地翻覆 遂奉丁卯歲棄世長往之遺志 隱遁山谷 蔬糲養志 若非府君固窮安義之節 不肖者何所觀法而守志不渝哉 及乎孝宗大王臨御之初 猥蒙收召 以食物優禮慈闈矣 未幾讒入虜中 宗國幾危 遂反初服 杜門讀書 菽水爲養 將以此終身矣 既而孝廟奮發大志 因友人金益熙之來弔 密諭聖意 不肖於服闋之後 不敢終守東岡 敢赴宣召 才及畿郊 已聞聖候違豫 而趣召愈急 蒼黃入國 密勿契遇 超越千古 遂許以死生以之矣 才及半載 弓劍遽遺 默觀天運 未能循送往事居之義矣 其後一隨溫駕 更入脩門 蓋爲貞陵之痛也 此則府君所常舉其端而未敢畢言者 亦我雙淸府君之所以自靖者也 事禮云初寢郎徵異 此則粗酬先志之一端也.”

내놓고 귀향했다. 효종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향에 머물고 있던 송시열을 그의 친구이자 김장생의 손자인 김익회를 보내 조문하며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송시열은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리며 정계로 복귀하여 효종으로부터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북벌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효종이 갑자기 승하하면서 북벌계획은 무산되었다.

송시열은 현종 때에도 여러 차례 벼슬은 하사받았으나 조정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제1차 예송논쟁으로 목숨을 담보할 수도 없었던 상황 탓이다. 그는 정릉 복원을 위해 입궐했던 일만 적고 있다. 정릉은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의 능이다. 신덕왕후는 제1차 왕자의 난에 자기 소생인 방변, 방석 두 왕자와 사위 이제를 잃었고, 정릉은 태조 사후 파괴되고 이전됐다. 8대조 송유(宋愾)가 13세에 신덕왕후가 봉어한 뒤 태조묘에 부해지지 않자 이를 한탄하는 글을 지어 올리고 관직을 버린 후 고향 회덕으로 돌아가 쌍청당(雙淸堂)을 짓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아버지 송갑조도 정릉을 복원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송시열에게는 정릉 복원이 8대조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 효를 실천하는 일이었다. 또한 삼강오륜을 예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정릉을 복원하는 일은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²⁸⁹⁾ 송시열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와 관학 유생이 소를 올리자 현종이 마침내 윤허하였다. 후일 정릉 참봉이 된 권유가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 신덕왕후가 나타나 송시열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송시열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해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권유는 송시열의 말사위고, 그의 아들 권이진은 후일 『논맹혹문정의통고』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송시열은 윤희(尹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희의 아버지 윤�효전(尹孝全)은 북인 계열 정치인이었으나 일찍 죽었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면서 윤희도 출세가 어려웠다. 윤희는 학문을 닦고 각지를 유람하면서 송시열과 윤선거를 비롯한 여러 재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특히 송시열과는 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다. 그러나 윤희가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에 반대하였고, 나아가 주희를 목수하려는 태도를 배격하고 『대학』, 『중용』, 『효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주희와 대등한 입장에 서려고

289) 『顯宗實錄』, 「현종 10년 기유(1669,강희8) 1월 27일(신유)」.

하면서 송시열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때까지도 윤휴의 견해를 학문적 토론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여겨 그를 경연관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²⁹⁰⁾ 아래에서 피언(諛言)은 편벽된 말을, 서감(西監)은 서경 국자감(西京國子監)을, 성모(聖母)는 명성왕후를, 장옥(場屋)은 과거시험장을, 수조(手詔)는 임금이 직접 쓴 조서(詔書)를, 고태후(高太后)는 송 영종(宋英宗)의 비를, 영해(瀛海)는 제주를, 송추(松楸)는 산소 둘레에 심는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선영을 말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윤휴란 자가 있는데, 그는 간얼로 생긴 자입니다. 그가 일찍이 얕은 소견으로 주자의 도를 헛뜯으매, 명가(名家)의 자제인 윤선거(尹宣舉)는 젊은 무리를 거느리고 그의 말이 크게 행세하고 그의 세력이 성해지도록 도왔습니다. 때문에 불초가 매우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스스로를 해아리지 않고 나서서 감히 맹자와 주자의 피언(諛言)을 막고 간사함을 물리치던 뜻을 본받아 죽을힘을 다하여 배척하고 억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원수를 만들어 지난 갑인년과 을묘년에는 끝내 윤휴의 모함을 받아 비로소 북쪽 변방으로 귀양 갔다가 북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남에서 다시 더 남쪽인 해상에 위리안치된 지 6년 만에 성은을 입어 풀려났고 이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불초도 자신의 종적이 편안하기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감히 정자(程子)가 서감에 나갔던 의(義)를 따랐으며, 이어 성모에게서 머물러 있으라는 수찰(手札)을 받았으니, 이것은 대개 부군(府君)께서 젊으실 적에 장옥에서 지으신 ‘수조로 사마광(司馬光)을 만류한 고태후이다.’ 한 고사와 같았으므로 마음에 적이 감동되어 그럭저럭 몇 달 동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나간 것은 오로지 존주 대의(尊周大義)와 효묘 세실(孝廟世室)을 위해 대법을 밝히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윤휴의 잔당들이 밤낮으로 기회를 엿보아 다시 오늘날의 화를 조성하였으므로 영해로 귀양 가게 되었다가, 다시 나국(拿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성화같이 엄하고 속박은 수없이 많은데 쇠잔한 몸엔 천식이 심하니, 아마도 중도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 영릉을 바라보고 동쪽으로 송추를 쳐다보매 이로부터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고,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애성(哀省)하는 예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 슬픈 일입니다.²⁹¹⁾

290) 『顯宗改修實錄』, 「현종 1년 경자(1660, 순치 17) 5월3일 (정사)」.

291)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不幸有尹鑄者 姦孽之所生也

그러나 제2차 예송논쟁을 거치면서 송시열은 윤휴와 완전히 결별하였다. 그는 제2차 예송논쟁으로 실각하여 덕원, 웅천, 장기, 거제, 청풍 등지로 귀양살이를 하면서 목숨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6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고 영중추부사로 임용되었다. 송시열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이(程頤)가 휘종(徽宗) 원부(元符) 3년(1100)에 귀양지인 부주(涪州)로부터 돌아와서 서경 국자감(西京國子監)에 제수되자, 명을 받고는 곧 나아가 알현(謁見)한 고사에 따른 것이었다.²⁹²⁾ 그리고 명성왕후가 수찰을 통해 벼슬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기에 아버지 송갑조가 과거시험장에서 송나라 선인태후(宣仁太后)와 사마광(司馬光)의 고사를 썼던 기억이 나서 입조하였다. 그러나 원자정호 문제로 제주로 유배 왔고, 다시 나국되어 올라가면서 천식까지 더해 영릉과 선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송시열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다. 2차례나 유배를 갔고 당쟁으로 여러 사람과 반목하게 된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자기주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주자를 높이고 춘추대의를 밝힌 데 자부심을 느꼈고, 아버지의 유지를 저버리지 않은 점과 이이와 성혼과 함께 배척을 받게 되어 오히려 기쁘다고 하였다. 성현의 소상(塑像)이 파괴되고 정자가 참수형에 처해질 위기에 이르고 주희도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주희가 오히려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고사를 거론했다.

대저 불초가 교시받기에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오래도록 교시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나, 기질이 편벽되고 순일되지 못하여 남들과 부합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의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큰 불효이오나 이제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불초가 이렇게 된 근본을 따져 보면 주자를 높이고 춘추 대의를 밝힌 데에서 비롯하였으니, 이는 끝내 아버님의 유교(遺敎)를 저버리지 않

早以蠡管之見 誣毀朱子之道 而尹宣舉以名家之子 率諸少黨助 其說大行 其勢克熾 不肖憂懼之甚 不自量度 竊不自遜 敢效孟朱距詖闢邪之義 苦死排抑 以致仇怨溢世 乃於甲乙之年 竟被鐫肆毒 始竄北荒 自北而南 自南而復南 栴棘海上 六年而蒙恩 仍有恩召 非不知蹤跡之難安 而敢遵程子西監之義 仍被聖母手札之留 此蓋府君少時場屋所賦手詔勉留高太后故事也 心竊感動 因仍數月而歸 其後一出 專爲尊周大義孝廟世室以明大卞也 自是之後 鐫之餘孽 日夜窺伺 復成今日之禍 始謫瀛海 又有拿鞠之命 令嚴星火 束迫多端 殘骸危喘 勢將中途而盡矣 北望寧陵 東眺松楸 從此永訣矣 瞻泣哀省之禮 不復盡其誠心矣 嗚呼悲夫.”

292) 『二程全書』, 「伊川先生年譜」.

은 것이요, 또 울곡과 우계 두 현인과 더불어 한가지로 파패(破敗)당한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 소인배들이 학궁(學宮)을 헐어 버릴 적에 성현의 소상(塑像) 허리와 어깨를 자르고, 또 위로는 정자를 공격하여 참(斬)하기를 청하는 모욕을 가하고 마침내 주자에게까지 그 화가 미치게 되었는데, 주자는 스스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자만이 헐뜯기는 무함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적휴는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도 휘(諱)할 것이 없다.’ 하였고 또 하인의 복장을 했던 것을 공자가 송(宋) 나라를 지날 때 입었던 옷에 비교하였으며, 공자를 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글제로 해서 대성전(大成殿)에서 과거를 보이기까지 하였으니, 그 놀랍고 참혹함이 소상의 허리와 어깨를 절단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²⁹³⁾

송시열은 윤희가 주자는 물론 공자까지 비판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윤희가 공자까지도 꺼릴 것 없다고 한 말과 공자를 비판하는 글제를 과거 시험에 낸 일에 실망했다. 또한 윤선거가 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강화도를 빠져나온 것을 공자가 송나라에서 사마환퇴의 공격으로 죽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자 평민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빠져나온 일에 빗대는 주장도 비판하였다. 맹자는 “공자가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뜻을 얻기 못해 송나라로 갔다. 그때 송나라의 사마 환퇴가 길목을 지키고 공자를 죽이려고 하자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자가 변복 차림으로 송나라를 지나갔다. 이때 공자가 진후의 주신 사성정자의 집에 기숙했다.(孔子不悅於魯衛 遭宋桓司馬 將要而殺之 微服而過宋 是時孔子當陋 主司城貞子 爲陳侯周臣)”²⁹⁴⁾며 당시를 기록했다. 공자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²⁹⁵⁾라며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송시열은 공자에 빗대 윤선거를 두둔하는 윤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293)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大抵不肖受教 非不勤矣 非不久矣 而氣質偏駁 與人寡合 以有今日 此則不孝之大者 罪咎何及 然而推原原始則實本於尊朱子明春秋 則終不負遺教也 又與栗牛兩賢 同其破敗 昔群小毀易學宮 聖賢塑像 腰膂斷絕 又上攻程子 而請斬之辱 竟及於朱子 則朱子自以爲光華 今日則不但朱子蒙被詆誣 賊鑄曾謂孔子不足諱 又以奴服擬之於孔子過宋之服 以至於以譏侮孔子之語 試士於大成殿下 則其爲驚慘 何異於塑像之腰膂斷絕乎.”

294) 『孟子』, 「萬章」 上.

295) 『論語』, 「述而」.

송시열은 퇴지 한유가 평생 『춘추』만 연구했던 노동(盧仝)을 칭찬하며 그 자손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을 거론한다. 또한 청음 김상헌의 공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 김수항이 진도에서 사사되고, 김수홍이 장기에 유배된 일을 안타까워했다. 김수홍은 이듬해 배소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옛날에 노동(盧仝)은 『춘추(春秋)』 하나를 가지고 평생 동안 사건의 종시(終始)를 연구하였을 뿐인데도 퇴지(退之)가 말하기를, “그 자손은 마땅히 10세를 두고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청음 선생(淸陰先生)께서는 몸소 천경(天經)과 지의(地義)를 도맡아 천하 후세에 말할 수 없이 큰 공을 남겼는데도 현재 그 손자가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고, 또 그 손자가 충정으로써 원통한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 이것은 더욱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대개 영욕이란 때에 따라 번복이 있는 것이므로 다만 어떠한 사람과 함께하였는가를 따질 뿐입니다. 그리하여 좋지 못한 이름이 비록 위로 아버님께까지 미쳤사오나 불초는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효종께서 총애하고 장려하시던 덕음(德音)이 해와 별처럼 환하게 빛남이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청음 선생은 아버님의 대절(大節)을 묘갈문에 드러냈고, 신재(愼齋) 김 선생은 웅건한 필력으로 표액(表額)에 휘(諱)자를 써서 가상히 여기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표문(表文)은 아버님이 칭찬하시던 종제 송준길의 글입니다. 제현(諸賢)의 표장(表章)이 이와 같으니, 저 여우와 쥐 같은 무리들의 음사(淫辭)야 어찌 유무(有無)를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²⁹⁶⁾

하지만 송시열은 김상헌이 송갑조의 묘갈문을 지었고 신독재 김집이 글씨를 썼으며 송준길이 표문을 써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다. 일시적인 영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지키고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

296)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昔盧仝但以抱春秋究終始 退之猶謂苗裔當蒙十世之宥 今淸陰先生身任天經地義 有功於天下後世如何 而今其孫乃不保性命 又其孫以忠正而抱冤 此尤國人之所悲也 大抵榮辱以時 惟其所與同如何耳 以故不韙之名 雖上及府君 而不肖之心不以爲羞也 況孝廟寵獎德音 炳如日星者乎 不寧惟是 淸陰先生發揮大節於碣文 愼齋金先生以健筆書諱字於表額 以寓嘉尙之意 其表文又府君所賞賞之宗弟浚吉文也 諸賢之表章如此 則其狐鼠輩之淫辭 何足爲有無哉.”

송갑조는 정묘호란 때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선거의 아버지 팔송(八松) 윤황(尹煌)이 송갑조를 송나라 담암 호전(胡銓)에 빗대었다고 썼다. 호전은 금나라와의 강화(講和)를 주장한 왕륜(王倫), 진희(秦檜), 손근(孫近)을 참해야 한다는 상소문으로 이름을 떨쳤다.²⁹⁷⁾ 또한 윤황은 송갑조의 뇌문(誄文)과 만사(挽辭)를 지어 송갑조가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仁穆大妃)를 배알한 일을 칭송하기도 했다. 그토록 가깝던 두 집안이 서로 반목하게 된 상황이 송시열은 안타까웠다.

그러나 한 가지 괴이한 것은 아버님께서 정묘호란 때에 불초에게 주신 편지에, 윤팔송(尹八松)을 송(宋) 나라 호담암(胡澹菴)에 비교하셨고, 팔송이 지은 아버님의 뇌문(誄文)과 만사(挽辭)에는, 서궁(西宮)에 배알하신 것을 극히 칭도하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 그 손자가 감히 망극한 무함을 하고 있으니, 이는 그 죄가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관
계이겠습니까. 아, 말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뜻은 한이 없습니다. 더구
나 죽음에 임박한 즈음이어서 말에 차서가 없사오니, 존령께서는 아울러 밝게
굽어 살피소서.²⁹⁸⁾

윤증은 할아버지 윤황이 송갑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송시열이 윤선거에 대해 비판적인 점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시열은 원칙을 벗어나는 일에 눈 감을 수는 없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해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였고, 축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기 생각에 확신을 드러냈다. 효성 깊은 삶과 자기 확신을 잃지 않는 모습은 제주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5) 「임장군경업전」

권상하는 스승이 제주에서 「임장군경업전」을 썼다고 적었다.²⁹⁹⁾ 송시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임경업 장군의 전기를 쓴 것이다. 임경업이 존주대의와

297) 『宋史』 제374권.

298) 『宋子大全』 제151권, 「告皇考睡翁先生皇妣貞敬夫人郭氏墓文」, “所可怪者 府君於丁卯賜不肖書比尹八松於胡澹菴 八松於府君誄挽 極稱西宮之拜 而今其孫乃敢爲罔極之誣 是其罪不獨在於吾家 而在於渠家矣 此何關焉 嗚呼 言有盡意無窮 又且臨絕之際 語無倫脊 伏惟尊靈並垂昭鑑焉.”

299) 『宋子大全附錄』 제19권, 「記述雜錄」

복수설치 면에서 송시열과 가장 부합했기 때문이다.

장군 임경업은 자가 영백(英伯)이다. 충주 달천에 살았는데 젊어서부터 궁마(弓馬)를 업으로 삼았고, 대장부라는 세 글자는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글 읽기도 좋아하였다. 일찍이 개연히 스스로 탄식하기를, “내가 천지의 기를 타고 나서 어떤 물건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 중에도 여자가 되지 않고 남자가 되었건만 이 편방(偏邦)에 태어나 장차 좁은 곳에 구속되어 일생을 보낼 일이 안타깝다.” 하였다.³⁰⁰⁾

임경업은 활쏘기와 말 타기는 물론 글 읽기도 좋아하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송시열은 임경업 장군이 대장부임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편방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데 임경업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했다. 송시열의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우월주의 그리고 중화주의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임경업은 정묘호란 때 우리나라가 금나라에 굴복해 강화를 맺자 크게 분개하여 울분을 토했다. 또한 병자호란에 패배한 후 승정 정축년(1637년, 인조 15년) 소현세자와 함께 척화파인 장령 홍익한이 심양으로 끌려갈 때는 의주 부윤으로 홍익한을 따뜻하게 영접했다.

정묘호란 때 조정이 오랑캐와 강화하여 군대를 물리치자 장군은 이때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터였는데 매우 분격하여 말하기를, “조정에서 나에게 정예한 포병 4만 명만 준다면 가서 저 오랑캐를 섬멸하고, 압록강에서 창검을 씻어 가지고 돌아오겠다.” 하였다. 승정 정축년에 노(虜)가 우리 왕세자를 심양으로 붙들어 가고, 또 척화한 사람으로 장령 홍익한을 잡아가서 죽이려 할 때 연로(沿路)의 수재(守宰)들은 두려워서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하였으나, 장군은 이때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있으면서 길에 나와 홍익한을 영접하고 손을 잡고서, “사대부가 죽을 곳을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의 이름은 장차 태산, 북두와

300)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林將軍慶業字英伯 居忠州達川 少以弓馬爲業 大丈夫三字 常不絕於口 亦好讀書 常慨然自歎曰 吾稟天地之氣 不爲物而爲人 不爲婦人而爲男子 惜乎生此偏邦 將局束以送一生也.”

높이를 겨룰 것입니다.” 하고, 매우 풍족하게 대접하고 또 노자도 매우 후하게 주어 보냈는데, 담소하면서 송별하였고 노고를 슬퍼하는 말은 전혀 없었다.³⁰¹⁾

여기에서 노(虜)는 호(胡)와 마찬가지로 ‘오랑캐’를 뜻한다. 임경업은 홍익한에게 사대부는 구차하게 살기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라며 위로하였다. 임경업의 강직한 성품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송시열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임경업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칭찬하였다. 아래에서 노추(虜酋)는 오랑캐의 우두머리로 청태종 홍타이지를 이른다. 그는 1637년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한 명군을 치기 위해 조선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며 이름을 날리던 임경업을 출전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임경업은 마지못해 출전하여 가도에 주둔한 명나라 도독 심세괴(沈世魁)에게 출전 사실을 미리 알려 가도를 청에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때에 노추(虜酋)가 장군의 명망을 듣고 꼭 그를 쓰기 위해, 무릇 가도(假島)를 공격할 때와 명나라를 침범할 때는 반드시 우리 조정으로 하여금 그를 장수로 임명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군은 계책을 써서 노(虜)를 속였지만, 노는 전혀 장군의 계책에 빠져서 속는 줄도 몰랐다. 개주(蓋州)의 해중(海中)에 이르러서는 명나라 군사와 서로 만나게 되자 노가 가장 가까이 믿는 자 두어 명으로 하여금 한 배에 같이 타고서 사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군은 또한 기미를 따라 기계(奇計)를 내어, 한창 싸울 때에 포병을 시켜 은밀히 토환(土丸)을 쓰게 하였고, 명나라 군사도 활을 쏘면서 또한 고의로 이쪽 진영에 미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양군이 한 명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 장군은 갑자기 수영을 잘하는 병졸 두 명을 시켜 본국의 충정을 명나라 장수에게 전하고 이어서 노인(虜人)의 기밀과 정형(情形)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하루는 탄식을 하면서 동지에게 말하기를, “평소에 먹었던 마음이 정작 오늘날에 달려 있다.” 하였으니, 대체로 범순(犯順)을 매우 원통하게 여겨 명나라 조정으로 들어가려는 뜻이었다. 어떤 이가,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마는 본조(本朝)에 화(禍)

301)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丁卯虜變 朝廷與媾 以却其兵 將軍時不甚知名 舊曰 朝廷與我精砲四萬 則將往殲彼虜 洗劍鴨水而歸耳 崇禎丁丑 虜以我王世子入瀋陽 又執斥和人洪掌 令翼漢以去 將殺之 沿路守宰 恐懼莫敢與語 將軍時爲義州府尹 出迎執手曰 士大夫死得其所難矣 公名將與太山北斗爭高矣 供奉甚豐 又資送極厚 談笑送別 絕無嗟勞語.”

가 미치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하니, 장군이 마침내 탄식하면서 중지하였다.

302)

임경업은 1640년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주사상장(舟師上將)에 임명되어 개주(蓋州)까지 출전했다. 개주는 현재 랴오닝성 가이저우시를 가리킨다. 그는 여기에서도 명군을 향해 흙으로 만든 포탄인 토환(土丸)을 쏘는가 하면 청군의 기밀 및 정세를 명군에 몰래 알려주기도 하였다. 위에서 범순은 반역이라는 뜻으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침략한 것을 가리킨다. 임경업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명군에 투항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조선에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주변의 권고 때문에 단념하기도 했다.

임경업은 끝내 명군을 공격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패배하여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1642년 청나라의 금주위 공격이 성공하고 명의 홍승주가 투항하면서 임경업의 행위가 발각되었고 그는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처음 노가 명나라 공격 계획에 꼭 믿었던 인물은 곧 장군이였다. 그러나 장군이 명나라와 싸울 때마다 후퇴하여 마침내 퇴군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는 장군으로 하여금 수로를 따라 귀국하도록 하였으니, 대체로 우리 군사가 저들의 지경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장군이,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하루가 급하니 어찌 수로를 따라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겠는가마는, 다만 선박들이 모두 부서졌고 양식도 없으므로 육로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하니, 노장(虜將)이 그 말을 믿어줌으로써 마침내 노지(虜地)를 거쳐서 돌아왔다. 이윽고 노가 자기들이 속은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또 장군이 명나라 장수와 몰래 통했던 일이 발각되어, 노가 우리 조정을 협박하여 장군을 잡아 보내게 하였다.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행장(行裝)을 꾸려 칼 한 자루를 짊고 길을 떠나면서 탄식하기를, “하늘이 남자를 내었을 때는 반드시 쓸 데가 있을 터인데,

302)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時虜酋聞將軍名 必欲用之 凡擊蝦島及西犯 必使朝廷爲將而送之 將軍以計誑虜 虜一切墮將軍計中而不覺也 至蓋州海中 與天兵相遇 虜使其親信者數輩同載一船 以察事情 將軍亦隨機出奇 方其戰時 使砲兵密用土丸 天兵發矢 亦故使不及 故兩軍一無所傷 將軍忽使善水者二卒佯墮水 潛傳本國忠愍於天將之船 因通虜人機密情形 一日喟然謂同志曰 平生素心 正在今日 蓋以犯順 爲至痛極冤 欲投入天朝也 或曰 豈不好乎 奈禍及本朝何 將軍遂歎息而止.”

이제 공연히 노정(虜庭)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중도에서 탈출하였다. 노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본조(本朝)를 힐책(詰責)하자, 본조가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장군은 강호(江湖) 등지를 왕래하면서 장사꾼들과 섞여 일을 하기도 하고, 중들과 어울리기도 하며 성시(城市)에 드나들었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장군이 장사꾼의 배를 타고 몰래 명나라에 들어가 명나라 장수에 의해 장직(將職)에 임용되었는데, 이후의 일은 그 일록(日錄)에 상세히 기재되었다.³⁰³⁾

임경업은 청나라에 잡혀가 죽을 순 없다며 탈출하였다. 장사꾼들과 섞여 일을 하기도 하고 승려로 변장하여 지내기도 하다가 명나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끝내 명나라에서 장군으로 임명되어 청나라와의 전투에 참전하였다.

갑신년(1644년, 인조 22년) 마침내 북경이 함락되면서 임경업도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항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조선으로 송환된다.

갑신년에 북경이 함락되어 노인(虜人)이 그곳에 응거함으로써 온 천하가 그들의 영역이 되자, 장군은 마침내 그들에게 체포되었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절의로 대항하므로 노가 끝내 장군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드디어 본조(本朝)의 사신 편에 내보내었는데, 장군은 명나라의 의복을 그대로 입었고 머리도 깎지 않았었다. 이때에 적신 김자점이 국사(國事)를 담당하여 그를 죽였다. 장군은 죽음에 임하여 큰소리로, “천하의 일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나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장군이 죽은 뒤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장군을 의롭게 여겨 슬퍼하였다. 이산(尼山)의 적(賊) 유탁(柳濯)이 장군의 성명(姓名)을 빌어 난을 일으키면서, “노(虜)를 토벌해서 치욕을 씻을 것이다.” 하자, 어리석은 백성에서부터 승도(僧徒)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므로, 연양(延陽) 이시백(李時白)은 금병(禁兵)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이윽고 난민(亂民)들이 장군

303)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始虜所恃以爲西犯之計者 將軍也 及見將軍屢戰輒退 遂爲退軍計 使將軍由水路歸國 蓋不欲我師涉其境也 將軍曰 我之思歸 一日爲急 豈不欲由水路速歸 但舟楫皆傷敗 且無糧食 不由旱路 無以得達 虜將信之 遂由虜地而歸 既而虜追覺其見欺之狀 又潛通天將之事發露 虜脅我朝執送將軍 將軍聞卽束裝杖劍就道 歎曰 天生男子 必有所用 今乃無端就死於虜庭乎 遂於中路逃竄 虜聞之益怒 詰責本朝 本朝大索 終不能得 將軍往來江湖間 或與商賈雜作 或混跡僧徒 或出沒城市 而人莫能知也 年月日 得商賈船 潛入大明地 爲天將所任用 此後事詳載其日錄.”

이 아님을 알고 즉시 해산하였으므로, 역수(逆豎)들은 도신(道臣)에게 체포되어 주멸(誅滅)되었다.³⁰⁴⁾

임경업은 조선으로 송환되자 김자점의 주도로 처형당하였다. 김자점은 임경업이 명나라로 몸을 피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를 처형하였다.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이상 임경업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어서 그를 서둘러 제거했던 것이다. 유탁(柳濯)이 이산(尼山)에서 임경업의 이름을 빌어 난을 일으키자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이 토벌하려 하였고 유탁을 따르던 무리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해산하자 도신(道臣), 즉 관찰사(觀察使)가 유탁을 체포하였다.³⁰⁵⁾ 이산은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의 옛 지명이다.

나아가 송시열은 홍익한과 더불어 오달제, 윤집의 의기를 기렸다. 누르하치에게 후금을 이어받은 홍타이지는 1627년 가도의 모문룡을 진압하고 조선을 침입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그 후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 1636년 나라 이름을 청(淸)으로, 연호를 승덕(崇德)으로 정했다. 조선에도 용골대와 마부대를 사신으로 보내 복종을 강요했다. 송시열은 이를 금나라가 송나라를 가르치려했던 고사에 빗대며 비판하였고, 홍익한은 소를 올려 청나라 사신을 죽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래에서 금로(金虜)는 금나라를, 강남은 송나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조유(詔諭)란 임금이 명령을 내려 깨우친다는 의미이다. 청이 갈수록 강성해지면서 몽고도 포섭된다.

상고하건대, 승정 병자년에 노인(虜人)이 제호(帝號)를 참칭(僭稱)하고 사신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금로가 강남을 조유한 것과 같다. 몽고 사람도 노를 함께 제(帝)로 존숭하려고까지 하였다. 우리 관학의 유생들이 궐하(闕下)에 모여서 소를 올려 두 사신을 베 죽일 것을 청하니, 두 사신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조정에서는 이를 명나라 조정에 주문(奏聞)하고 격문(檄文)을 군문(軍門)에 전하였다.

304)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甲申北京破 虜人入據而天下爲其區域 將軍遂被執 抗節矢死 虜終不能屈 遂付本朝使价出送 身猶漢衣服而頭不剃矣 時賊臣金自點當國殺之 將軍臨死大言曰 天下事未定 不可殺我矣 既死 國人無不義而哀之 尼山賊柳濯 假將軍姓名作亂曰 將討虜雪恥 愚民以至僧徒 一時雲集 李延陽時白 自請率禁兵往討 已而亂民知非將軍 卽解散 故逆豎被擒於道臣而誅滅之.”

305) 『仁祖實錄』 제47권, 「인조 24년 4월 1일 정축」.

때에 장령 홍익한이 시골에 있으면서 소를 울리기를, “신은 듣건대, 노사(虜使)가 배 죽일까 두려워하여 도망갔다 하니, 좋아서 필적필적 뛰며 의기(義氣)가 백배나 더합니다.” 하고, 인하여 호담암(胡澹菴)이 진희(秦檜)를 배척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주화신(主和臣)을 배척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축년(1637, 인조15)에 화의가 성립되자 노가 본조를 위협하여 공을 잡아갔는데, 때에 국가가 막 패전한 터라서 모두가 홍공(洪公)에게 화의를 배척하여 노병(虜兵)을 불러들였다고 나무랐으며, 또 노를 겁내어 홍공을 감히 위문하지도 못하였다. 그러자 임장군만은 홍공을 매우 탄상(歎賞)하고 그가 죽을 곳을 얻었음을 매우 기뻐하였으니, 의기가 서로 투합한 것이 이와 같았다. 홍공은 끝내 오달제, 윤집 두 학사와 함께 의를 취하고 인을 이루었으니 나라를 빛냄이 어떠한가.³⁰⁶⁾

용골대와 마부대가 돌아간 후 조선의 반청 분위기를 감지한 청나라는 조선을 다시 침공하여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당시 홍익한, 오달제, 윤집, 세 사람은 삼학사(三學士)로 척화파 중에서도 강경론자로서 청을 오랑캐라 하여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다가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후 심양에 끌려가 처형당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주자학의 입장에서 충군애국 사상과, 명나라에 대한 모화(慕華)사상에 충실했다.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던 송시열에 삼학사의 의기는 받들어 마땅한 존재였다. 그래서 송시열은 이들의 행위를 금나라와 강화할 것을 주장했던 왕륜, 진희와 손근의 머리를 베라고 소를 올렸던 담암 호전보다 더 훌륭하다고 기렸다. 모두가 홍타이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홍익한을 따듯하게 환송했던 임경업은 당연히 송시열이 존송해야 할 존재였다.

임경업과 삼학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았다. 우선 임경업이 김자점에 의해 처형당했다. 아래에서 적신(賊臣)은 김자점을 가리킨다.

그 후에 장군이 성취한 것은 더욱더 우뚝하고 위대하여 고금에 찾아보아도 실로

306)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按崇禎丙子 虜人僭號 遣使於我 有同金虜之詔諭江南者 然 蒙人亦至 欲共尊爲帝 館學諸生 大會闕下 上疏請斬二使 二使懼而逃去 朝廷奏聞天朝 傳檄軍門 時掌令洪翼漢 在鄉上疏曰 臣聞虜使懼誅逃去 曲踊距踊 義氣百倍 仍請斥主和臣 不翅如胡澹菴之於秦檜 丁丑媾成 虜威脅本朝 執公以去 時國家新破 無不咎洪公以斥和招兵 又畏虜不敢慰問 獨林將軍深加歎賞 喜其死得其所 其氣義之相感如此 洪公竟與吳尹兩學士 取義成仁 其爲國家之耿光何如哉.”

장군과 짝할 이가 드물다. 공자가 『춘추』를 지어 만세에 법을 드리웠는데, 『춘추』를 끝마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천 년 동안에 걸쳐 이 글을 읽은 자는 많지만, 빛나는 그 대의를 능히 아는 자는 대체로 적었다. 지금 장군은 해외의 배신(陪臣)으로서 존주(尊周)의 한 마음이 끝내 동(東)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 비록 노의 흉포로도 끝내 굴복시키지 못하였으니, 실로 천백 년 만에 하나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적신이 그를 끝내 죽이고야 말았다. 그리고 삼학사의 대절(大節)은 온 천하가 다 아는 것인데도 허적(許積)은 의사(義士)가 아니라고 배척하였으니 유독 무슨 심술인가. 권순장, 김익겸은 관직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차마 예의를 가진 몸으로 짐승 같은 오랑캐의 무리가 되기를 달게 여길 수 없어 죽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더욱 가당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 소위 유자라는 명칭을 가진 자가 감히 그들을 반드시 죽을 만한 의가 없었다고 배척하니, 그 이치에 어그러지고 풍화(風化)를 손상시킴이 더욱더 심하였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그를 추장(推獎)하기에 겨를이 없었으니, 천상(天常)과 민이(民彝)가 그 얼마나 진멸(盡滅)되기에 이르렀는가.³⁰⁷⁾

허적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과격한 주장만 일삼았다며 삼학사를 비판했다. 그리고 윤증은 채진후(蔡振後)와 유직(柳稷) 등의 주장을 빌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에 반대했다.³⁰⁸⁾ 송시형(宋時瑩)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하자고 주장하자 채진후는 이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는데,³⁰⁹⁾ 이이는 불교에 종사하였던 일 때문에, 성혼은 임진왜란 당시 서울이 함락되고 임금이 의주로 피난 가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보필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에 급급하였던 일 때문에 문묘 종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송시형은 송시열의 사촌이자 그의 양자 송기태의 친부이기도 하다. 경상도 진사 유직도 1650년 소를 올려 양현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였다.³¹⁰⁾ 그 또한 이이의 불교 귀의를 비판하였고, 성혼은 특별한 학문

307)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其後將軍之所成就 尤卓犖奇偉 求之古今 實罕其儔 孔子作春秋 垂法萬世 自獲麟以至於今二千年 所讀此書者多矣 而能知其大義炳然者蓋寡矣 今將軍以海外陪臣 尊周一心 始終如水 雖以虜之凶暴 終不能屈 可謂千百年一人而已 賊臣之必殺而後已 及如三學士之大節 天下皆聞之 而許積斥以非義士 獨何心哉 權順長金益兼 不論有官無官 不忍以禮義之身甘爲犬羊之類 視死如歸 尤可尙矣 而今有以儒爲名者 乃敢斥之以無必死之義 其悖理傷化抑又甚矣 而世方推獎之不暇 天常民彝 幾何不至於盡滅也.”

308) 『肅宗實錄』 제16권, 「숙종 11년 4월 9일 무술」

309) 『仁祖實錄』 제31권, 「인조 13년 5월 11일 경신」.

310) 『孝宗實錄』 제3권, 「효종 1년 2월 22일 을사」.

적 성취가 없고 정신을 보존하고 아껴야 한다는 주장으로 도가로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며 비판하였다. 윤증은 또한 권순장과 김익겸이 반드시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³¹¹⁾ 김상용은 당시 강화유도대장이었으니 강화도가 함락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는 있었으나 권순장과 김익겸은 공직을 맡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면서 아버지 윤선거가 강화도를 빠져나온 데 대한 변호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송시열은 이 같은 주장이 천상(天常)과 민이(民彝)를 해친다고 보았다. 천상은 하늘이 정한 상도(常道)를, 민이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이른다.

남송 시대에 태어난 주희가 당시 퇴락한 세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의리를 다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표장하였다. 정신을 바로 세워야만 국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옛날 주부자(朱夫子)는 송나라가 남도(南渡)한 세대에 태어나서 사설(邪說)과 폭행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것을 매우 마음 아프게 여겼다. 그러므로 만일 의리에 죽은 사람만 있으면 비록 그가 산승(山僧)이나 천졸(賤卒)일지라도 모두 표장(表章)하였다. 이는 대체로 쇠퇴한 세상의 뜻이니, 진정 슬프다 하겠다. 이제 주자의 도는 적후(賊鏞)로 인하여 여지없이 어두워지고 파괴되어, 감히 그 도를 병자해서 만분의 하나라도 사설, 폭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아, 한심하기 그지 없다. 옛말에, “세상이 어지러우면 법도를 고치지 않는 군자를 생각한다.” 하였는데, 내가 임장군의 가전(家傳)을 읽고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이미 전(傳)을 만들어 야사(野史)를 집필하는 자에게 고하고 인하여 그 당시 의리에 죽은 선비들을 언급하였다.³¹²⁾

송시열은 당대의 어지러움을 윤휴가 주자의 도를 흔들어놓은 탓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주자처럼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로 「임장군경업전」을 쓴 것이

311) 『肅宗實錄』 제16권, 「숙종 11년 4월 9일 무술」.

312) 『宋子大全』 제213권, 「林將軍慶業傳」, “昔朱夫子生乎宋朝南渡之世 邪說暴行 肆行無忌 蓋甚傷之也 故苟有死義之人 則雖山僧賤卒 無不表章焉 蓋衰世意也 可謂戚矣 今朱子之道 因賊鏞而晦剝無餘 將不敢憑藉其道以拒邪暴之萬一矣 嗚呼 可勝寒心哉 古語曰 世亂思君子不改其度 愚讀林將軍家傳而有感焉 既爲之立傳 以告于野史之秉筆者 而仍及其當時死義之士焉.”

다. 제주에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아 송시열은 임경업과 관련된 사료들도 제주로 올 때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학문적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송시열의 노력의 결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임경업은 1706년(숙종 32년) 충민(忠愍)이라는 시호를 받게 된다.³¹³⁾

위에서 살펴본 저작을 시간에 따라 보면, 윤3월 12일 「논맹혹문정의통고서」, 4월 6일 「승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 5월 4일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5월 26일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광씨의 묘에 고한 글」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임장군경업전」은 구체적인 저술 시기를 알 수 없다. 「논맹혹문정의통고서」는 공자, 맹자, 주자로 이어지는 도통을 기반으로 학문을 규정하는 교육철학적이고도 교육과정적 의의를 담고 있고, 「승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는 주자를 비판한 윤희를 사문난적으로 파악하면서 학문의 기준 문제를 통해 교육철학적 함의를 가진다.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에서 효묘 세실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교육철학적 의의를 나타내고,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광씨의 묘에 고한 글」은 효심을 내보이고 있어서 교육철학적 의미와 함께 가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임장군경업전」은 가치론적 함의를 담고 있어서 교육철학적 의의가 있다.

송시열이 제주에서 쓴 저작을 김수항이 사사된 4월 9일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반궁의 요령 앞에 이르러」, 「탐라 적소에서」 시 3편,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민사정에 답함(기사년 4월)」, 「권치도에게 보냄」 편지 4통,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승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는 전기,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부질없이 읊다」, 「무제」,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오월 사일」, 「치도를 생각하다」 시 6편,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 편지 3통,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광씨의 묘에 고한 글」은 후기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임장군경업전」은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짓기 어렵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13) 『肅宗實錄』 제31권, 「숙종 23년 12월 9일 을묘」.

<표 7> 시간순 제주 유배기 저작

시기	종류	제목	출처
전기	시	「봄날 선산을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시	「탐라 적소에서」	『송자대전』 제2권
	시	「반궁의 요려 앞에 이르러」	『송자대전부록』 제11권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자대전』 제89권
	편지	「민사정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02권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89권
	서문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송자대전』 제139권
	잡저	「송정 기사년 4월 6일에 우연히 윤보를 보고 쓰다」	『송자대전』 제134권
후기	시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송자대전』 제2권
	시	「부질없이 읊다」	『송자대전』 제2권
	시	「무제」	『송자대전』 제4권
	시	「단장의 해문에서 수평선 바라보니」	『송자대전부록』 제11권
	시	「오월 사일」	『송자대전』 제2권
	시	「치도를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송자대전』 제89권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편지	「박화숙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68권
	잡저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송자대전』 제136권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미상	전기	「임장군경업전」	『송자대전』 제213권

전기와 후기 저작을 비교하면 시의 경우에는 전기에 비해 후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다른 종류의 글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후기에 시를 많이 쓴 이유는 아마도 김수항이 사사된 후 동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르가 시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글에서도 김수항 사사에 따른 슬픔 때

문에 격한 어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송시열이 제주에서 남긴 시에서는 충성, 효도, 자애, 신뢰 등 오류와 상통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의의를 담고 있고, 제자와 토론하던 일을 떠올리거나 차운시를 적으면서 교육방법적 의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 편지에는 더 구체적으로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는데 자신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면서 제자에게도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연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늘 서로 의견을 구하며 협업을 권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권치도에 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는 공부법과 수양법의 근본으로 독서를 권장했고,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는 곧음[直]을 존재론과 인간론을 관통하는 기준으로 삼아 도가와 불가뿐만 아니라 유가의 다른 학파와도 차별적인 성리학의 입지를 세웠다. 『논맹혹문정의통고』를 마침으로써 성리학의 경전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여 교육철학적이고도 교육과정적 의의를 새겼고, 「임장군경업전」을 통해 인간이 따라야 할 가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철학적 의의를 담았다.

V. 제주를 떠난 후 저술활동

송시열은 1689년 5월 17일 배소를 떠나 별도포로 가서 10일 동안 바람을 기다리다가 26일 발선하여 27일에 남해 중도에 닿았다. 28일 해남, 6월 3일 장성을 거쳐 7일 정읍에 이르러 8일에 후명을 받았다.³¹⁴⁾ 제주를 떠난 다음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 시, 소, 편지 등 글을 여러 편 남겼다.

<표 8> 제주를 떠난 후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시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2	시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3	소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송자대전』 제20권
4	소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	『송자대전』 제20권
5	편지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자대전』 제113권
6	편지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송자대전』 제128권
7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8	전기	「삼현려기」	『송자대전』 제145권
9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그는 원래 많은 글을 남겼지만 제주를 떠난 후에는 짧은 기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글을 썼다. 장르도 다양했는데 고령인데다가 바쁜 여정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죽음을 앞둔 탓인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1. 시(詩)

송시열은 정응신과 박중회를 위해 시를 지었다. 정응신은 반청 인사였고, 박중회는 송시열이 제주로 갈 때 만덕사를 찾아 토론을 나눴던 인물이었다.

314) 『宋子大全附錄』 제11권.

1)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야수(野叟)는 정응신(鄭應莘)의 호로 보인다. 정응신은 병자호란 때 인조의 항복을 반대하다 해남에 유배된 인물이다. 송시열은 1689년 5월 28일에 이 시를 지었다. 그가 제주를 떠난 것이 5월 26일이므로 제주를 떠난 지 이틀 만에 해남에 이른 것이다.

효열과 충신인 어머니 아들 손자들
나라 표창 못 받아 백년의 원통되었네
세상일 이같이 공도가 없으니
삼강이 한 가문에 있음 누가 알겠나³¹⁵⁾

삼학사가 심양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것이 1637년이었고 충신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송시열이 「삼학사전」을 쓴 1671년 이후였다. 정응신은 해남으로 유배되었을 뿐 복권되지는 못 했다. 따라서 송시열은 자신이 끌려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신이었던 정응신의 복권을 위해 그의 시를 빌어 그의 공적을 기렸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요부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송시열은 이 시를 1689년 6월 3일 광주(光州) 선암역(仙巖驛)에서 지었다. 요부는 송나라 학자 소옹(邵雍)의 자이고 시호는 강절(康節)이다. 수여(受汝)는 박중회(朴重繪)의 자다. 송시열이 제주로 유배가는 길에 만덕사에 머물 때 박중회는 박광일, 안여해와 함께 찾아가 학문적 토론을 나눴던 인물이다. 비록 그들이 송시열을 따라 제주로 오지는 않았지만 송시열과 토론을 하던 가운데 생겨난 문제들을 계속 고민했던 것이고 송시열이 제주를 나오자 그를 찾아가 다시 토론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 역시 제주에서도 그들과의 토론 내용을 고심했을 것이다.

315) 『宋子大全』 제2권, 「次花隱亭鄭野叟(應莘)韻(己巳五月二十八日)」, “孝烈忠臣母子孫 天褒未及百年冤 世間由是無公道 誰識三綱竝一門.”

분분한 말로에 도가 참되지 못했는데
오직 주자께서 성신을 이으셨네
물고기 뛰고 솔개 날음 발명한 후엔
천 년 동안 사람 없다 말하지 마오³¹⁶⁾

송시열은 1, 2행에서 꿇졌던 유가의 명맥을 주자가 되살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 시대에는 유가는 세력을 잃었고, 도가와 불가가 득세했다. 송나라에 와서 소옹, 장재, 주돈이, 정호, 정이와 주자로 이어지면서 유가가 성리학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그 정점에 선 주자를 송시열은 따랐던 것이다.

3, 4행에서 송시열은 주자 이후에 뛰어난 사람으로 박중회를 인정한다. 그만큼 박중회의 학문적 수준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주자 이후 천 년 동안 나왔던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박중회를 들고 있는 것이다. 양득중(梁得中)은 영암 출신으로 본관이 제주인데 박중회와 안여해의 만시³¹⁷⁾를 남겼다. 그가 소론 입장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만시를 남긴 것을 보면 박중회와 안여해의 학문적 성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에는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라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고,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에서는 주자를 지향한다는 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하여 교육철학적 지향점을 나타냈다. 2편 시 모두 차운시이고 박중회는 직접 만나 학문적 토론을 나눴다는 점에서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깊다.

2. 소(疏)

송시열은 육지로 나온 후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를,

316) 『宋子大全』 제2권, 「用堯夫先生意 次朴受汝(重繪)韻 (己巳六月三日 到光州仙巖驛作)」, 「紛紛末路道非眞(一云岐多路惑摠非眞) 惟有閩翁繼聖神 魚躍鳶飛揮發後 莫言千載更無人.」

317) 『德村集』 제6권, 「挽安進士」, 「挽朴受汝」.

죽음을 앞두고서는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를 남겼다. 전자에는 효묘 세실 논의를, 후자에는 효종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담았다.

1)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송시열은 5월 17일 별도포로 옮겼고, 26일 발선하여 27일 남해 증도에 도착했다. 별도포는 제주시 화북동에 있던 포구를 가리키는데 ‘베린넷개’라고도 한다. 조천포와 더불어 조선시대 육지와 뱃길을 이어주던 2대 포구 가운데 하나다. 송시열은 제주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별도포를 이용했다. 후일 김정희와 최익현도 여기를 거쳐 제주로 들어왔다. 증도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섬이다. 제주에서 증도로 가는 배에는 금오랑(金吾郎) 권처경(權處經)이 허락하지 않아 자손이나 노비가 동승하지 못하고 송시열 혼자 타고 갔다. 금오랑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의 별칭이고, 권처경은 권대항(權大恒)의 손자이자 권덕휘(權德徽)의 아들이다.³¹⁸⁾ 송시열은 28일 해남 읍내로 들어갔을 때 인현왕후의 폐위와 오두인이 폐위를 반대하다 국문을 받고 의주로 유배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를 적었다.³¹⁹⁾ 인현왕후는 5월 2일 폐위되었고,³²⁰⁾ 오두인은 5월 7일 파주에서 죽었다.³²¹⁾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신은 나압(拿押)의 명이 있는 뒤로 천지에 사무치는 원통함을 청실(淸室)에서 한 번 토설하고 죽음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다행하게 여깁니다. 다만 신이 지난겨울 선달부터 거둢 위장병에 걸려 밥 한 숟갈도 못 먹은 지가 이미 오래된 데다가 길에 나선 뒤에는 서풍(暑風)에 거둢 감촉되고 게다가 수질(水疾)까지 겹쳐서 그대로 쓰러진 지가 여러 날 껴입니다. 지금 신이 나아가 원통하고 답답한 것에 대한 말씀을 다 아뢰려 하나 끝내 꺾하(闕下)에 달려가 하소연할 수 없으므로, 신이 어쩔 수 없어 감히 망극한 죄를 잊은 채 이렇게 진소(陳疏)의 계획을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논자(論者)들이 한층 더 무거운 죄안(罪案)을 가할 줄 알고 있습니다.³²²⁾

318) 許穆, 『記言別集』 제25권, 「東昌尉權公神道碑銘」.

319)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崇禎62年 己巳」.

320) 『肅宗實錄』 제21권, 「숙종 15년 5월 2일 정유」.

321) 『肅宗實錄』 제21권, 「숙종 15년 5월 7일 임인」.

322) 『宋子大全』 제20권, 「自耽羅就拿出陸後遺疏(己巳五月)」, “伏以臣自有拿命以後 竊自幸窮天極

위에서 청실(淸室)은 죄를 달라고 청하고 기다리는 곳으로 감옥을 가리킨다. 송시열은 누명을 반박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미리 소를 올렸다. 위장병에 서풍(署風), 수질(水疾)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서풍은 여름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는 병이고 수질은 배멀미를 이른다. 83세라는 고령의 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송시열은 효종을 칭송한다. 효종은 전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래에서 양구(陽九)는 양의 오액(五厄)과 음의 사액(四厄)을 합친 것으로 재액(災厄)을 일컫는데 송시열은 당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하고 중원을 차지한 일을 잣대 신이 뒤바뀐 가치 전도의 시대로 파악했다. 효종 역시 송시열과 의견을 같이 하여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적으로는 춘추대의를 분명히 하고, 외적으로는 명나라 숭정제의 원수를 갚고 선대 인조의 치욕을 씻기 위해 애썼다.

신이 원통하고 답답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효종대왕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양구(陽九)의 세대를 당하시어 천지가 뒤집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고 잣대 신이 도치된 것을 분개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춘추대의를 잡고 두절(杜絶)된 정리(正理)를 밝혀서, 위로는 황상(皇上)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선왕(先王)의 치욕을 씻으려는 뜻을 세우고서, 심지(心志)를 가지심이 바로 청천(靑天)의 백일(白日)과 같이 뚜렷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조심하시어, 항상 임금이 되심을 즐겁게 여기지 않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시되, 반드시 더욱 학문에 부지런하셨습니다. 본말이 차서가 있고 채용이 한곳에 근원하였으므로, 천지를 범위(範圍)하나 어긋나지 않았고 한서(寒暑)를 흠장(翕張)하나 틀림이 없었으니, 이른바 ‘서, 질, 명, 토’가 그 가운데 찬연히 빛났습니다. 일찍이 고 상신(相臣) 이경여(李敬輿)의 소에 대한 비답(批答)에 발포(發布)하신 덕음(德音)이 해와 별같이 빛나서 비록 어리석고 무지한 보통 사람이라도 주자(朱子)의 이른바 ‘마음 아프고 원통하지만 부득이해서이

地之冤 庶幾一吐於淸室 然後就死矣 第臣自去冬臘月 重嬰胃疾 絕粒已久矣 就道之後 重觸暑風 加以水疾 仍以頓撼累日 今將就盡 臣甚恨所痛鬱者 終不能赴愬於闕下 故臣不得已敢忘罔極之罪 爲此陳疏之計 臣固知論者加之以一層重案也.”

다.[忍痛含冤 迫不得已]’는 여덟 글자를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천지간에 세워 놓아도 어그러지지 않고, 귀신에게 질정해도 의심이 없고, 백세(百世)를 두고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³²³⁾

특이한 점은 송시열이 효종의 복벌정책에서 군비를 확충하거나 군사를 조련했던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심지(心志)를 바르게 하고 학문에 힘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서(叙), 질(秩), 명(命), 토(討)가 분명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서는 오전(五典) 즉 오륜(五倫), 질은 오례(五禮)를 말하며, 명은 작상(爵賞), 토는 형벌을 말한다.³²⁴⁾ 여기에서 송시열의 복벌정책이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송시열은 효종이 이경여의 소(疏)에 대해 비답을 내렸던 일을 떠올렸다. 이경여는 영종추부사로 있으면서 효종에게 차자를 올려 간언의 수용과 폐단의 제거를 청하자 효종이 ‘지극히 원통함이 마음에 있는데,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至痛在心 日暮途遠]’이라는 비사(批辭)를 내렸다.³²⁵⁾ 또한 송시열은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쫓겨 양자강 이남으로 간 것에 대해 주자가 했던 말, ‘마음 아프고 원통하지만 부득이해서이다.(忍痛含冤 迫不得已)³²⁶⁾’을 거론하며 어려운 조선의 상황을 걱정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이 말을 남기며 학문은 주자를 따르고 사업은 효종의 유지를 이으라고 당부하였다.³²⁷⁾

송시열은 1680년 경신환국에서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자신에게 언찰을 보냈던 일도 거론했다. 아래에서 여중요순은 원래 송나라 영종의 후(后)이자 철종의 모후인 신인태후(宣仁太后)를 이르지만 여기에서는 명성왕후를 가리킨다. 명성왕후는 남인을 숙청하고 서인을 등용하는 경신환국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재야에 머물던 송시열에게 조정에 나오라는 언찰을 보냈다.

323) 『宋子大全』 제20권, 「自耽羅就拿出陸後遺疏(己巳五月)」, ‘臣之痛鬱者 何也 惟我孝宗大王以天縱之聖 當陽九之世 痛天地之顛覆 憤冠履之顛倒 秉春秋之大義 明黜絕之正理 將以上報皇上之讎 下雪先王之恥 立志秉心 正如青天白日 憂勤惕厲 常不樂乎爲君 夙夜宥密 尤必勤於典學 本末有序 體用一源 範圍天地而不違 翕張寒暑而無忒 所謂絃秩命討 燦然於其中矣 嘗因故相臣李敬輿之疏批 渙發德音 炳如日星 雖蠢愚無知之常漢 猶知朱子所謂忍痛含冤迫不得已八字 直所謂建諸天地而不悖 質諸鬼神而無疑 百世以俟而不惑者也.’

324) 『書經』, 「皐陶謨」 제6장, “天敍有典 勅我五典 五 惇哉 天秩有禮 自我五禮 有 庸哉 同寅協恭 和衷哉 天命有德 五服 五章哉 天討有罪 五刑 五用哉 政事 懋哉懋哉.”

325) 『孝宗實錄』 제18권, 「효종 8년 5월 5일 정미」.

326) 『朱子書節要』, 「與陳侍郎書」.

327) 『宋子大全續拾遺附錄』 제2권, 「楚山日記」.

신이 경신년 이후부터는 종적이 더욱 불안하여, 비록 여중 요순(女中堯舜)께서 언찰로 힘써 만류하시는 교유(敎諭)를 받았으나, 감히 스스로 조정에 있기를 편안히 여기지 못한 것은, 대개 윤휴(尹鑄)의 여당(餘黨)이 옆에서 끊임없이 엿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름을 받들고서 나아가고 물러오곤 하여 오가는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우러러 성의(聖意)를 엿보고 아래로 민심을 살펴서, 시의(時議)로 더불어 중례(重禮)를 말할 만한가를 알고 난 다음에 감히 효묘 세실(孝廟世室)의 의논을 우러러 주청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전하께서 즐거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때에 대신 김수항이 백료(百僚)를 거느리고 몸소 그 책임을 맡고서 드디어 백세토록 옮기지 않을 종호(宗號)를 올렸습니다. 옛말에, “주상(主上)이 명성(明聖)하신데도 덕이 온 천하에 퍼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유사(有司)의 죄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김수항은 이 죄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러러 전하의 불세출의 성효(聖孝)를 도운 바가 큼니다.³²⁸⁾

원래 명성왕후와 송시열은 적대적인 관계였다. 명성왕후의 조부는 김육(金堉)으로 대동법과 화폐 유통 정책으로 송시열과 대립했고, 큰아버지 김좌명과 아버지 김우명은 한당으로 송시열과 김집을 중심으로 한 산당과 대립했다. 게다가 명성왕후가 1661년 숙종을 출산했을 때 송시열은 축하인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명성왕후가 효종 상중에 왕과 동침하여 원자를 낳았기 때문에 송시열이 축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숙종이 즉위한 후 명성왕후는 사촌 시동생 복선군(福善君), 복창군(福昌君)과 복평군(福平君)의 존재를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아버지 김우명을 통해 복창군과 복평군이 궁녀와 간통하여 자식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홍수의 변(紅袖之變)을 일으킨다. 그러나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지자 김우명은 낙향하여 술로 세월을 보내다 죽는다. 그리고 윤휴, 허목을 중심으로 한 남인은 명성왕후를 비판하였다. 이에 명성왕후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사촌인 김석주(金錫胄)가 김익훈(金益勳)과 함께 정승 허적(許

328) 『宋子大全』 제20권, 「自耽羅就拿出陸後遺疏(己巳五月)」, “臣自庚申以後 則蹤跡益不安 雖蒙女中堯舜諄札勉留之教 猶不敢自安於朝廷 蓋以尹鑄餘黨 傍伺不已故也 然猶承召去就 不避往來之煩者 誠欲仰窺俯察 知時議可與言重禮 然後敢以孝廟世室之議仰請 而殿下樂聞焉 其時大臣金壽恒率百僚 身任其責 遂上百世不遷之宗號 語曰 主上明聖 而德不布聞 有司之罪也 臣竊以爲壽恒不但免此罪 所以仰贊殿下不世之聖孝者大矣.”

積)의 서자 허견이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의 3형제와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면서 발생한 삼복의 옥(三福之獄)을 일으킨다. 삼복의 옥으로 허적, 허견, 윤희가 사사되고 남인이 몰락하는 경신환국으로 이어진다. 김익훈은 김장생의 손자이자 김석주의 처외숙부이고, 그의 조카인 김만중과 김만기는 김석주의 처외사촌이 된다. 김석주와 김익훈은 남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김환, 전익대 등을 사주하여 허영, 허새 등 남인들이 모역한다고 고변하게 하는 등 음모를 꾀하였다. 이 사건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다. 노론은 두 사람을 옹호하였고 소론은 두 사람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명성왕후가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놓였던 송시열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이때 송시열이 들고 나온 문제가 효묘 세실 논의였다.³²⁹⁾ 위에서 “주상이 명성하신 데도 덕이 온 천하에 퍼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유사(有司)의 죄이다”는 『사기(史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 나오는 말로서 송시열은 효묘 세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강조한 것이다.

부수찬 김방걸은 송시열이 예송논쟁을 통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했고 숙종의 원자 정호도 비판하여 비난을 받게 되자 이를 감추려고 효묘 세실 논의를 끌어 들였다고 비판하였다.³³⁰⁾ 그래서 송시열은 효묘 세실 논의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어찌서 오늘날 제신들이 곧 이것을 옳지 못한 거조(擧措)라 하여 신의 죄를 나열하는 데에도 이 한 가지 일을 큰 조목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히 곧바로 지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리 결정하였다.[豫定]’는 데에 가탁하여 말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감히 말하지 못하리라 여겨 기만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자는 고종(高宗)의 세대에 태어나서 출신(出身)하여 고종을 섬겼어도 고종이 붕(崩)한 뒤에는 세실(世室)로 삼기를 건청(建請)하였습니다. 대저 고종은 아버이를 망각하고 원수를 섬긴 임금인데도 간난(艱難)한 중에서도 국사를 일으켜 종사를 끊기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으로 삼았으니, 고종을 어찌 감히 우리 효종대왕께서 번방(藩邦)의 처지인데도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밝히신 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체(事體)의 경중이 이와 같은데

329) 『肅宗實錄』 제14권, 「숙종 9년 2월 21일 계사」.

330) 『肅宗實錄』 제20권, 「숙종 15년 윤3월 2일 기해」.

도 오히려 ‘미리 정하였다.’는 것으로 말하는데, 신은 감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³³¹⁾

송시열은 주자가 고종 세실을 주장하였던 일을 거론했다. 송 고종은 금나라에 굴복하였던 인물인데도 종사를 끊기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실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효종은 복벌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기에 세실로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송시열은 주장했다.

효묘 세실 논의가 이르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한 경제 원년에 신도가(申屠嘉)가 경제의 아버지인 문제의 세실을 주장했던 고사를 들었다. 아래에서 태종은 문제(文帝)를 가리킨다. 신도가는 한 고제를 도와 서초패왕 항우와 싸웠고 혜제 때 회양태수를 거쳐 문제 때 승상이 되었으며 경제 때까지 벼슬을 했는데 기원전 156년 경제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태종의 세실을 청했다.

주자의 정미한 의리는 비록 사람마다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경제(漢景帝) 원년에 신도가(申屠嘉)가 급히 태종(太宗)의 세실(世室)을 청했으니, 이는 미리 한 중에 미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도가의 죄라고 하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의 조정 신하 중에 누가 『사략(史略)』 제2책을 읽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효종의 덕에 불만을 가져 ‘미리’라는 한 글자에 가탁한 것은 그 뜻을 엄폐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신의 이 뜻이 폄박(貶薄)함을 엄폐하고자 한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부자(富者)가 되려면 인(仁)을 할 수 없고, 인을 하려면 부자가 될 수 없다.” 하였는데, 양호의 뜻은 실상 부자가 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가 인을 한다면 말은 실로 천리이기 때문에, 맹자가 특별히 취하여 표창(表彰)한 것입니다. 저 무리들이 과연 효종의 덕이 과연 세실로 삼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이 의논이 신에게서 나왔다 하여 떠들면서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여기에 대하여 실로 통곡스러움을 감당하지

331) 『宋子大全』 제20권, 「自耽羅就拿出陸後遺疏(己巳五月)」, “夫何今日諸臣 乃以此爲不臆之舉 臚列臣罪 而此一事爲一大條目 然猶不敢直斥 而假託於豫定爲辭 此則以一國之人 皆爲不敢言而欲瞞之也 昔 朱子生乎高宗之世 出身以事 而高宗崩後 建請爲世室 夫高宗忘親事讎之君也 猶以建事艱難 不殄宗祀爲功 此豈敢比擬於我孝宗大王以藩邦而明春秋大義哉 其事體之輕重如此 而猶以豫爲言者 臣不敢知也。”

못하여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³³²⁾

송시열은 또한 노나라 양호의 고사를 들었다. 양호는 노나라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계평자의 가신이었는데 계평자가 죽자 정세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던 자다. 그는 공자를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나 공자는 그의 사람됨을 알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³³³⁾ 맹자는 그가 노나라를 쫓겨나면서도 금은보화를 쟁겼던 일을 알면서도 그가 했던 말, “부자가 되려면 인을 할 수 없고, 인을 하려면 부자가 될 수 없다.”³³⁴⁾는 의미 있는 언명으로 받아들였다. 송시열은 맹자의 평가를 빌어 자신이 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빌미로 세실 논의를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시열은 효종의 업적이 후대에 잘 계승되기를 원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발명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래에서 경경은 걱정거리가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건대, 제신들이 효종의 대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오히려 이것을 들어 말하는 것은, 어찌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효종의 뜻과 일이 장차 영영 묻혀서 만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신은 삼가 절통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것이 신이 이른바, 절통하고 답답하게 여겨서 반드시 진술하여 아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신의 죄를 늘어놓은 데 대해서는 비록 더없이 원통한 일이라 할지라도 신이 감히 하나 둘 들어서 떠들어 대며 스스로 발명(發明)하려는 죄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경경(耿耿)한 이 마음은 태양만이 증명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심하시고 불쌍히 여겨 살펴 주소서.³³⁵⁾

332) 『宋子大全』 제20권, 「自耽羅就拿出陸後遺疏(己巳五月)」, “朱子之精義 雖非人人之所敢知 而漢景帝元年 申屠嘉亟請太宗之世室 可謂豫之豫矣 而未聞以此爲嘉之罪也 今之廷臣誰有不讀史略第二冊之書者哉 特以不滿孝廟之德 而託之於豫之一字者 其意難掩也 設使以臣此意 爲出於欲掩貶薄之意云 而亦有所不然者 陽虎曰 爲富不仁 爲仁不富 陽虎之意 實出於爲富之意 而其爲仁之言 則實天理也 故孟子特取而表章焉 渠輩果以孝廟之德 爲果宜於世室 則何敢以此議之出於臣而倡言排之哉 臣於此 實不勝痛哭而求死不得也.”

333) 『論語』, 「陽貨」,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 而往拜之 遇諸塗 謂孔子曰 來予與爾言 曰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曰不可 好從事而亟失時 可謂知乎 曰不可 日月逝矣 歲不我與 孔子曰 諾吾將仕矣.”

334) 『孟子』, 「滕文公」上, “陽虎曰 爲富 不仁矣 爲仁 不富矣.”

송시열이 물으로 나와 처음 올린 소에서 효묘 세실 논의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다. 자신을 구명하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충성을 주제로 한 글을 지은 것은 당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

송시열은 죽음을 앞두고서 조광조의 고사를 가져왔다. 조광조는 마지막 말씀을 왕에게 올리려 하였으나 감명도사(監命都事) 유엄(柳澣)이 허락하지 않아 진언할 수가 없었다. 송시열은 그가 남긴 말은 없으나 그의 뜻은 후대에 잘 이어져왔다고 보았다.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선정(先正) 신(臣) 문정공(文正公) 조광조가 적소에서 절명할 때를 당하여 품었던 회포를 진언하고 죽으려 하였는데, 그때에 감명도사 유엄이 재촉하는 뜻이 있었으므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건대, 조광조가 조정에 있을 때에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말을 하면 자세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군소배들의 시기를 받아 필경에는 화의 빌미가 되었으니, 조광조가 지난 일을 징계(懲戒)삼아 아무 말 없이 죽음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충의를 끝까지 바치려던 정성은 백세 후에도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머금고 마음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³³⁵⁾

송시열은 우선 죽음을 앞두고 소를 올리는 데 대해 비판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였던 것 같다. 그렇지만 자신은 조광조와 달리 마지막 품은 뜻을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송시열은 갑인년(1674년, 현종15년)과 을묘년(1675년, 숙종 1년)에 죄를 지어 유배를 가게 됐던 일을 거론한다. 원래 효종의 능인 영릉(寧陵)은 태조의 묘인

335) 『宋子大全』 제20권, 「自耽羅就拿出陸後遺疏(己巳五月)」, “抑臣反覆思之 諸臣非不知孝廟之大德 而猶以此爲言者 豈有所畏而然耶 若然則孝廟之志事 將永晦昧 而不表著於萬世也 臣竊痛焉 此臣所謂痛鬱而必欲陳白者也 此外臚列臣罪者 雖極萬萬冤痛 而臣不敢一二以增嘵嘵自明之罪 耿耿此心 只有證在天日而已 惟聖明留神而矜察焉.”

336) 『宋子大全』 제20권, 「臨命時遺疏(己巳六月)」, “伏以先正臣文正公趙光祖臨命於謫所也 將以所懷進言以死 而其時監命都事柳澣有迫促之意 故不果焉 臣竊以爲光祖在朝 知無不言 言無不盡 以致群小媚疾 竟爲禍崇 則爲光祖者 當懲前事 默然就盡 而其畢義願忠之誠 百世之下 猶使人飲泣而摧心也.”

건원릉(健元陵) 오른쪽 산등성이에 있었다. 영릉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은 송시열의 비롯한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³³⁷⁾ 윤선도를 비롯한 남인들은 수원부 청사 뒷산등성을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15년간의 현종의 재위 내내 영릉의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드는 문제점이 생겨 1673년(현종 14년) 세종의 능 옆으로 옮겼다. 그러자 남인들은 송시열을 공격했다. 송시열은 소를 올려 결백을 주장하였다.³³⁸⁾ 그리고 을묘년에는 예송논쟁으로 귀양의 명을 받는다.³³⁹⁾

지금 신도 품은 것이 있으니, 비록 이 창황하고 엄급(嚴急)한 때일지라도 어찌 감히 품은 것을 진술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성명(聖明)을 저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본심까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갑인년과 을묘년에 매우 무거운 죄를 받았는데, 신에게 ‘바다를 건너가 도적을 불러다가 날을 정하여 대궐을 범하려 했다.[越海招寇 指日犯闕]’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이괄(李适)과 한명련(韓明璉)의 죄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하가 서로 청대(請對)하여 기필코 사형에 처하라는 명을 얻어 내교야 말 기세였으나, 성자(聖慈)의 지극하신 인애는 마침내 신의 위명(危命)을 보존하게 하셨으니, 비록 하늘과 땅의 덮어 주고 길러 주는 은혜라 할지라도 이 은혜와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³⁴⁰⁾

1679년 5월 25일 호남 유생 채범하(蔡範夏)가 상소를 올려 송시열의 안율(按律)을 청했고³⁴¹⁾, 호서 생원 이지린(李之麟)이 상소하여 송시열을 무고하였다.³⁴²⁾ 송시열은 그들의 배후로 윤휴와 윤선거, 허적을 꼽았다.³⁴³⁾ 그들은 송시열이 ‘바다를 건너가 도적을 불러다가 날을 정하여 대궐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337) 이덕일(2000), p.150

338) 『顯宗實錄』 제22권, 「현종 15년 1월 15일 경진」.

339) 『肅宗實錄』 제2권, 「숙종 1년 1월 12일 신미」.

340) 『宋子大全』 제20권, 「臨命時遺疏(己巳六月)」, “今臣亦有所懷 雖此蒼黃嚴急之際 何敢有銜不祛以負我聖明而自孤其素心哉 臣甲乙之年 受罪甚重 至以臣爲越海招寇 指日犯闕 雖适璉之罪 無以加此 又大臣以下相率請對 期得處死之命而後已 而聖慈至仁 竟保危命 雖天地覆幬之恩 將無以易此也.”

341) 『肅宗實錄』 제8권, 「숙종 5년 5월 25일 무오」.

342) 『肅宗實錄』 제8권, 「숙종 5년 5월 27일 경신」.

343) 『宋子大全』 제131권, 「雜錄」.

하였다. 송시열을 이괄과 한명련처럼 역모를 꾸미려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괄은 인조반정의 공신이었으나 반역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렀고, 한명련도 여기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숙종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송시열은 숙종에게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송시열이 해배되자 숙종은 1680년 10월 3일 그를 영중추부사로 제수했다. 송시열은 정이(程頤)가 부주(涪州)로 귀양 갔다가 풀려 돌아와서 다시 서경 국자감의 벼슬에 임명되자 출사하였던 고사를 근거로 조정에 나갔다. 그러나 부인의 이장, 건강, 성묘 등을 이유로 귀향하려고 했으나 인경왕후가 10월 26일 승하하면서 뜻대로 하지 못 했다.³⁴⁴⁾

방환된 뒤 부르심을 받음에 미처서는 신이 스스로 정자가 부주에서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감(西監)에 나갔던 의(義)에 비교하여, 외람됨을 무릅쓰고 입사(入謝)했으나 감히 그대로 서울에 있지 못하고 곧바로 교외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우리 명성성모께서 10행의 언찰을 보내 진정으로 측은히 여겨 힘써 만류하셨는데, 그 친절하신 말씀의 뜻은 귀신을 울릴 만하였으니, 이것은 옛날 여중요순이었던 송나라 고태후가 사마광에게 베풀었던 은총이었습니다. 신이 그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할 줄은 잘 알고 있었으나 한편 국세가 이처럼 위태하고 인심이 헤아리기 어려움을 생각함과 동시에 우러러 자성(慈聖)께서 우심 초사하시는 뜻이 감히 시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여겨 즉시 신을 신을 겨를도 없이 들어와 사은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상(內喪)을 당하여 장사 준비에 바빴으므로 우물쭈물 끌어오다가 장사가 끝난 뒤에는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끝내 감히 오래 머무르지 못한 것은 진실로 놀라움이 아직도 남아 있고 외로운 회포가 더욱 두려워서였습니다.³⁴⁵⁾

그런 가운데 명성왕후가 1680년 12월 22일 10행 분량으로 언찰을 직접 쓰고 김

344) 『宋子大全附錄』 제8권.

345) 『宋子大全』 제20권, 「臨命時遺疏(己巳六月)」, “及其放還而被召也 臣竊自擬程子涪州後西監之義 冒昧入謝 而不敢因在輦轂之下 卽出郊外矣 不料我明聖聖母 以十行諄札 懇惻勉留 其丁寧辭意 可泣鬼神 此古女中堯舜所以施於司馬光者 臣極知其不敢當 而顧念國勢艱危 人心難測 仰惟慈聖焦憂之意 不敢以無益於時爲解 卽不俟屢 冒入陳謝 適遇內喪臨期 廠衛將戒 因循荏苒 以及出塹而歸 終不敢久留者 誠以餘忝尙存孤懷增惕也.”

석연(金錫衍)을 통해 전하면서 국사를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시열은 명성왕후의 청까지 더해지자 송나라 고태후가 사마광을 발탁했던 고사를 근거로 출사했다. 이때 고태후는 사마광에게 직접 쓴 조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송시열은 한양에 계속 머물지는 못했다. 1681년 1월 28일에는 장손부(長孫婦) 박씨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³⁴⁶⁾

송시열은 전에 올린 소가 불경스러웠던 점에 대해 숙종에게 사죄한다. 원자 정호를 비판한 데 대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고령인 탓에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적는다.

그리고 전번에 올린 소(疏)는 비록 매우 망녕되고 외람된 일이나 곧 그 본정(本情)은 다만 외로운 마음이 경경(耿耿)하여 감히 스스로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일호(一毫)인들 다른 뜻이 그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늙고 병들어 정신이 어둡고 아득해져서 말에 두서가 없으므로, 스스로 대려(大戾)를 자초하였으니, 아마도 죽을 때가 다가오매 하늘이 녀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이 기해년 4월 말에 효종대왕의 밀찰(密札)을 은밀한 곳에서 받았는데, 그때에 현종대왕(顯宗大王)께서 친히 전해 주셨으나, 미처 회대(回對)를 올리기 전에 효종대왕이 승하하셨으므로, 신이 매양 휘일(諱日)을 맞을 때마다 그것을 받들고 통곡하였습니다.³⁴⁷⁾

효종은 1659년 4월 말에 송시열에게 밀찰을 내렸으나 5월 4일에 승하하였다. 그래서 송시열은 답장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서 송시열은 늘 효종의 휘일, 즉 제삿날을 맞을 때마다 밀찰을 받들고 통곡하면서 효종을 기렸다.

송시열은 효종에게 받은 밀찰을 손자 주석을 통해 올리겠다고 하였다. 당나라 배도(裴度)의 고사를 근거로 밀찰을 올리려 하였으나 사관(史官)에게 쉽사리 넘길 수도 없고 밀찰에 담긴 뜻을 자세하게 서술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이유를 적었다.

346) 『宋子大全附錄』 제8권.

347) 『宋子大全』 제20권, 「臨命時遺疏(己巳六月)」, “日者之疏 雖甚妄猥 乃其本情 則只緣孤衷耿耿 不敢自閤也 寧有一毫他意於其間哉 然而老病昏荒 語無倫脊 自速大戾 豈死期將至 天奪其魄而然耶 今茲所欲言者 臣於己亥四月之末 蒙受孝宗大王密札於深處 其時顯宗大王親自傳授 未及回對 龍馭上賓 臣每於奉諱之日 奉之痛哭矣.”

신의 나이가 더욱 노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터에 마침 당나라 신하 배도(裴度)가 선제(先帝)에게 받았던 물건을 도로 올리는 표문(表文)을 보니, 거기에, “감히 지하(地下)에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또 인간에 머물러 두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여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 이 뜻에 의거하여 임금께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성명(聖明)께서 대신의 말을 들으시어 신으로 하여금 받들어 올리게 하였습니다만 신이 또한 범연(泛然)히 사관(史官)에게 돌려주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겹하여 또 밀찰 속에는 교유하신 곡절이 매우 많아서 상세히 진달하려 한다면 많은 날짜가 소비되어야하기 때문에 곧바로 명을 받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엄하신 꾸지람을 입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신이 이제 천손(賤孫) 전 현령(縣令) 송주석(宋疇錫)에게 오늘 부탁하고 죽습니다. 대개 송주석은 바로 시종(侍從)으로 있던 자인만큼 사체(事體)로 따지더라도 그리 외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조만간 그에게 진입(進入)하라 하시어 조용히 받들어 살펴보신다면, 천향(天香)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수택(手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성충(聖衷)에 슬프신 감동이 계셔서 소민(小民)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용병(戎兵)을 군세에 다스려 성고(聖考)의 뜻에 보답하신다면, 더욱 계술(繼述)하는 마음에 부합되실 것입니다. 또 판부사(判府事) 신 정재숭(鄭載嵩), 전 부사(府使) 원만춘(元萬春), 전 참판(參判) 이선(李選), 전 부사(府使) 심익선(沈益善) 등이 감히 종사(宗社)를 위하는 일에 다 죽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알겠습니다. 신이 하고 싶은 말은 진실로 이뿐만이 아니나 매우 황급하여 단지 이것으로 그치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밝게 살펴 주소서.³⁴⁸⁾

송시열은 숙종이 효종의 유지를 잘 받들길 바랐다. 그리고 정재숭, 원만춘, 이선, 심익선(沈益善) 등이 종사를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네 사람 모두 서인이다. 정재숭은 영의정을 지냈던 정태화의 아들로 서인이었으나

348) 『宋子大全』 제20권, 「臨命時遺疏(己巳六月)」, “臣年益衰 死亡無日 適見唐臣裴度還進先帝所賜物件表文曰 既不敢將歸地下 又不合留在人間 臣竊有感於斯 欲竊附此義而進御矣 適會聖明以大臣言使臣奉進 臣又不敢泛然替授史官以進 兼且密札中所教 曲折甚多 欲以詳細陳達 則當費多日 故未即承命 而適被嚴譴 以至今日矣 臣今附賤孫前縣令疇錫而死 蓋渠是出入侍從者 則揆以事體 或不甚猥濫矣 伏乞早晚使之進入 從容奉審 則天香不沫 手澤猶存 伏想愴感於聖衷 而其懷保小民 繕詰戎兵 將以酬聖考之意 尤豈不符於繼述之心哉 又知判府事臣鄭載嵩, 前府使元萬春 前參判李選前府使沈益善等之不敢不盡死於宗社之義矣 臣之所欲言者 固不止此 而倉卒惶悚 只此而止 伏惟聖明哀憐而鑑照焉.”

당색이 강하지 않고 숙종의 신임이 두터워 기사환국 당시 판중추부사로 남아 있었다. 원만춘은 좌의정을 지냈던 원두표의 아들로 당시 수원부사 임기를 채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있었다. 이선은 우의정을 지낸 이후원(李厚源)의 아들로 이조참판을 지내다가 탄핵을 받고 기장으로 유배되었다. 심익선은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沈之源)의 계자(繼子)이자 삼학사 홍익한의 사위로 부사를 지냈다. 송시열은 숙종이 네 사람을 중용하여 남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정국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에서 효묘 세실 논의를 담았다면,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에서는 효종과 명성왕후의 편지를 펼쳤다. 2편 모두 효종을 축으로 충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교육철학적 의의를 새겼다.

3. 편지

송시열이 제주를 떠난 후 박광일과 송종석에게 편지를 쓴다. 박광일은 송시열이 제주로 갈 때 만덕사를 찾았던 제자이고 송종석은 송시열의 장손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와 가족을 살뜰히 챙겼다.

1)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시열은 사원 박광일에게 1689년 6월 2일 답장을 쓴다. 박중회의 시를 차운하여 시를 적은 것이 6월 3일이므로 박광일은 이 때 박중회와 함께 오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송시열이 박광일의 편지를 제주에서 받았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박중회가 그를 찾으며 편지를 전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송시열이 학문적 교류를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맹자(孟子)』 호연장(浩然章)에 대한 문답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으나 대개(大概)는 알겠네. 대저 이 장의 말이 꿇졌다 이어졌다 한 듯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아보기 어렵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혈맥이 관통하여 지극히 정밀하네. 공손추(公孫丑)가 처음 물을 때 하나의 심(心) 자로서 중심이 되는 글자를 삼은 것은 특별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러므로 전장(全章)에 심(心) 자를 말한 것이 가장 많으니, 직양(直養), 집의(集義), 지언(知言), 덕행(德行), 설사(說辭) 및 이윤(伊尹), 백이(伯夷) 등의 일이 심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네.³⁴⁹⁾

송시열은 『맹자』 「호연」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논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호연」은 원래 「공손추 상」 제2장이지만 유명한 호연지기에 대한 논의가 들어있어서 「호연」이라고도 한다. 송시열은 이 장의 중심은 마음[心]이고 직양, 집의, 지언, 덕행, 설사 및 이윤, 백이 등의 고사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공손추가 마음을 묻자 맹자는 공자가 40세에 불혹(不惑)한 것처럼 자신은 부동심(不動心)을 갖게 되었다고 답한다. 맹자의 부동심이 남다른 점은 그가 말을 알고[知言],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는 것이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을 안다는 것은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인지적 접근이 부동심을 기르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호연지기는 곧음을 기른다면[直養]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운다. 그러므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다 보면[集義]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재아와 자공은 말을 잘 했고 염우와 민자, 안연은 덕행을 잘 말했는데 공자는 둘을 겸했다(宰我子貢善爲說辭 冉牛閔子顏淵善言德行 孔子兼之)’³⁵⁰⁾에 비추면 말을 잘 한다는 것이 인지적이고 지식론적인 측면이라면 덕행이 높다는 것은 정의적이고 윤리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행을 겸한 공자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성인에 이르는 길은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백이는 세상이 다스려지면 벼슬길에 나아갔고 어지러워지면 물러났다[治則進 亂則退]. 그러나 이윤은 임금의 누구든 백성이 누구든, 세상이 다스려지든 상관하지 않고[治亦進 亂亦進] 자신의 도를 행했다. 그런데 공자는 모든 것을 시세에 맞게 처신했다.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물러나야 하면 물러났으며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었고 빨리 떠나야 하면 빨리 떠났다[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 可以

349) 『宋子大全』 제113권, 「答朴士元(己巳六月二日)」, “孟子浩然章問答 雖未能細看 然大槩得之 大抵此章遺辭 若斷若續 故使人難看 然細觀之則血脈貫通 極其精密 公孫丑發問之初 特以心之一字爲眼目 極有意思 故全章說心字最多 而如直養集義 知言德行說辭及伊尹等事 無非出於心者.”
350) 『孟子』, 「公孫丑」 上.

久則久 可以速則速]. 인과 의를 펼친 점에서는 모두 같지만 시세를 거스르지 않은 점은 공자가 유일했고 이로 인해 성인의 반열에 오른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맹자와 공손추는 서로 지언(知言)과 양기(養氣)를 다른 순서로 제시했다. 송시열은 차이를 『맹자집주』와 『주자어류』를 근거로 설명한다.

맹자는 지언(知言)을 먼저 말하고 양기(養氣)를 뒤에 말했는데 공손추는 반대로 양기를 먼저 묻고 지언을 뒤에 물었는데, 주자는 집주(集註)에서, “상문(上文)에 바야흐로 기에 대한 설을 논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양기를 먼저 물은 것이다.” 하였고,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는, “추(丑)가 지언을 뒤에 둔 것은, 지언은 바로 격치(格致)의 일이니 『대학(大學)』에 먼저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를 말하고 정성(正誠)에 이른 뒤에 격치로써 합침(合尖)한 것과 같다. 누가 ‘모가 죽자 그 전(傳)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가?” 하였으니, 이는 대개 추(丑)가 맹자의 전을 얻었다고 여긴 것이네. ‘합침(合尖)’은 수습하여 맺는다는 말과 같네.³⁵¹⁾

주자는 『맹자집주』에서 공손추가 양기를 먼저 묻고 지언을 다음으로 들린 것은 앞서 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기를 먼저 물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자어류』에서는 『대학』이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 정성(正誠), 격치(格致)의 순으로 배열한 것에 따라 양기를 먼저 두고 지언을 다음에 두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손추가 맹자와는 다른 순서로 양기와 지언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본뜻이 서로 다르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맹자는 공손추를 수제자로 삼은 것이다.

「호연」은 맹분, 북궁유, 맹시사, 증자, 자양, 고자, 재아, 자공, 염우, 민자, 안연, 백이, 이윤 및 공자에 대한 인물평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무분별하게 제시되지도, 무질서하게 제시된 것도 아니다. 거친 데[麤]에서 정밀한 곳[精]으로, 작은 것[小]에서 큰 것[大]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자의 위대함을

351) 『宋子大全』 제113권, 「答朴士元(己巳六月二日)」, “且孟子先知言後養氣 而丑之反問 先養氣而後知言 朱子於集註 以爲上文方論氣說 故承此而先問養氣 語類則以爲丑以知言在後者 知言是格致事 如大學先言明明德於天下 以至正誠而後以格致合尖也 誰謂某之死 不得其傳 蓋謂丑得孟子之傳也 合尖猶言收殺結末也.”

끌어냈다. 송시열은 「호연」이 결코 논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장 첫머리에 맹분(孟賁), 고자(告子), 맹시사(孟施舍), 북궁유(北宮黝), 증자(曾子), 자양(子襄)의 일을 잡다하게 말하여 추(麤)로부터 정(精)에, 소(小)로부터 대(大)에 들어갔고, 편(篇)의 마지막에는 마침내 안자(顔子), 민자(閔子), 이윤(伊尹), 백이(伯夷) 등 여러 사람을 거론하고 드디어 공자의 지정(至精), 극대(極大)를 언급하여 끝맺었으니, 그 뜻은 대개 ‘성인의 일은 이와 같은 것이니, 내가 말한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부동심뿐이 아니다.’는 것이네. 그 수미(首尾)의 관건(關鍵)이 이와 같네. 일찍이 지평(砥平)의 외재(畏齋) 이상공(李相公)이, “호연장을 알기가 어렵지 않은데 모(某)가 어렵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기뻐서 그와 왕복하면서 하나의 통설(通說)을 만들었는데 그 설이 매우 많으니, 바라건대 내 손자에게 달라고 하여 그 가부를 정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352)

송시열은 「호연」의 논리성에 대해 외재 이단하(李端夏)와 의견을 같이 하여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통설(通說)을 만들었다. 그는 박광일에게 손자, 아마도 주석에게 그 글을 빌어 한 번 살펴보고 논의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부탁한다.

주자는 맹자가 「호연」을 통해 사단을 밝히고 이단을 물리쳤다고 평했다. 지지, 양기, 집의, 정조는 사단을 밝혔고, 지언은 이단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뜻을 갖고 [持志] 기를 기르며[養氣] 의로운 일을 쌓고[集義] 바른 일을 돕는 것[正助]이 사단, 즉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아우르는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라면 말은 아는 것[知言]은 이치를 밝혀 이단을 물리치는 일이다.

주자가 일찍이 말하기를, “맹자(孟子)가 사단(四端)을 밝힌 것은 사직(社稷)을 편안하게 한 공이 있는 것이요, 이단(異端)을 물리친 것은 변경을 방어한 공이 있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 장(章)의 지지(持志), 양기(養氣), 집의(集義), 정조(正助) 등과 같은 설(說)은 바로 사단을 밝힌 일이고, 지언(知言)을 말한 한 문단은

352) 『宋子大全』 제113권, 「答朴士元(己巳六月二日)」, “又章首雜說孟賁告子舍黝曾子子襄 故由麤入精 由小至大 於篇終卒舉顔閔尹夷諸人 而遂及孔子之至精極大而終焉 其意蓋曰聖人之事如此 而吾之所言在此 不但不動心而已也 其首尾關鎖如此 嘗聞砥平畏齋李相公以爲浩然章知之不難 而某以爲難何也 愚喜聞而與之往復 爲一通說 其說頗多 幸討於孫兒而訂其可否如何.”

바로 이단을 물리치는 일이니, 맹자의 학문이 이 장에서 극진히 드러났다 하겠네. 울곡(栗谷)은 이 장에서 ‘행일불의살일불고득천하불위(行一不義殺一不辜得天下不爲)’의 말을 표출(表出)하여 자신을 권면하고 남도 권면하였으니 학자들이 알지 않아서는 안 되네.³⁵³⁾

그래서 이이는 ‘한 가지의 불의(不義)를 행하거나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천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했다. 한 가지라도 정의롭지 못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 편지는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의의가 깊다. 양기와 지언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순서를 정하는 문제와 같기 때문이다. 현대의 교육과정이 난이도를 축으로 교육의 순서를 정하고, 현실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세계를 더 가치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교육의 길을 놓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순서를 정했던 조선의 교육이 갖는 의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송시열은 자신이 죽기 전 1689년 6월 5일 장손인 종석(宗錫)에게 편지를 쓴다. 송시열에게는 형 송시묵(宋時默)과 동생 송시도(宋時燾), 송시걸(宋時杰)이 있었다. 송시묵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첫째가 송기학(宋基學)이고 둘째는 송기덕(宋基德), 셋째는 송기억(宋基億)이다. 송기덕은 숙부 송시걸의 양자가 되었고, 송기억은 숙부 송시도의 양자로 갔다. 송기학도 아들 셋을 두었는데 첫째가 송종석, 둘째가 송기덕(宋基德)이고 셋째가 송우석(宋禹錫)이다. 송종석은 송시열에게 장손(長孫)이자 종손(從孫)이 된다.

너는 우리 선부군의 적통이다. 내 너를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보아왔으니 너도

353) 『宋子大全』 제113권, 「答朴士元(己巳六月二日)」, “朱子嘗言孟子明四端 是安社稷之功 關異端是捍邊境之功 此章如持志養氣集義正助等說 是明四端之事 知言一段 是關異端之事 孟子學問盡於此章矣 栗谷於此章 表出行一不義殺一不辜得天下不爲之語 嘗自勉而勉人 學者不可不知也.”

네 자신이 중요한 처지임을 어찌 모르겠느냐. 모름지기 공부를 하고 행실을 닦아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말기를 천만번 빌고 빈다. 제사는 모두 『가례(家禮)』를 따르되 모르는 데가 있으면 『격몽요결』을 참고하도록 하여라.³⁵⁴⁾

송시열은 죽음을 앞두고서 장손 종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행실을 바르게 닦기를 당부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법은 『가례』를 기본으로 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격몽요결』을 참고하라고 하였다. 『가례』는 주희가 일상적인 가정 예절을 모아놓은 책이고, 『격몽요결』은 이이가 초학자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비록 송시열이 장손에게 제사를 제대로 모시기 위해 읽어야 할 책을 권한 것이기도 했으나 학생이 배워야 할 교과서의 순서를 정하는 측면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과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모두 교육과정적으로 의의가 깊다. 앞의 것이 인간과 세계를 더 가치롭게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 뒤의 것은 『가례』와 『격몽요결』을 핵심 교재로 선정했다.

4. 잡저(雜著)

송시열은 자손을 위해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를 적었고, 조상을 기리기 위해 「삼현려기」도 썼다. 이 또한 모범적인 조상을 통해 자손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사된 김수항을 위해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을 지었는데 그의 뜻이 세파에 바래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탓이다.

354) 『宋子大全』 제128권, 「宗錫訣書(己巳六月五日)」, “汝是吾先府君嫡統也 吾視之異於他兒 汝亦豈不自知汝身之爲重也 須讀書修行 勿墜家聲 千萬至祝至祝 祭祀一從家禮 如有窒礙處 參以擊蒙要訣可矣.”

1)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시열은 6월 3일 장성에 도착했다. 선암 죽림촌사에 머물렀다고 하였는데 죽림서원으로 보인다. 원래 장성군 진원면에 있었으나 현재 장성군 북이면으로 옮겨졌다. 이수(李隨)를 주향하였고 윤홍(尹泓)을 추배하였는데 윤홍은 송시열의 문인이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서원이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도 있다. 강경읍 죽림서원에는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과 함께 송시열이 배향되었고, 장기면은 송시열이 유배되었던 곳으로 죽림서원에는 그가 배향되어 있다.³⁵⁵⁾ 모두 송시열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그는 이 날 후손에게 유서나 다름없는 이 글과 함께 「삼현려기(三賢閔記)」와 「문곡김공묘지명(文谷金公墓誌銘)」을 지었다.³⁵⁶⁾

주자는 음양(陰陽), 의리(義利), 백흑(白黑)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용감하고도 엄격하기가 마치 한 칼로 두 조각을 내듯 하여 감히 조금도 의위(依違)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대학(大學)』 성의장(誠意章)의 일이다.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끝내 아성(亞聖)의 지위에 이르러 만 길이나 되는 굳은 절벽과 같은 자세로 공이 만세에 미쳤으니, 도리어 자사(子思), 맹자(孟子)보다도 더 훌륭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성으로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함이 아니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격물(格物), 치지(致知)를 반드시 먼저 가르친 이유이다.³⁵⁷⁾

송시열은 우선 판단에 있어 의위, 즉 흔들림 없이 언제나 용감하고도 엄격했던 주자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당부하였다. 주자는 강직한 태도로 아성의 반열에 올랐고, 송시열은 주자가 자사와 맹자를 넘어선다고 보았다. 흔들림 없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대학』 「성의」에 잘 나와 있는데, 다만 이치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의」에 앞서 『대학』 「격물」과 「치지」를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송시열은 강직하고 결연한 태도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인간은 스스로 가

355) 『燃藜室記述別集』 제4권, 「祀典典故」.

356) 『宋子大全附錄』 제11권, 「崇禎62年 己巳」.

357) 『宋子大全』 제134권, 「示諸子孫姪孫等」, “朱子於陰陽義利白黑 剖判之勇且嚴 如一劍兩段 不敢少有依違因仍之意 此正大學誠意章事也 其如是 故卒至於亞聖地位 壁立萬仞 而功被萬世 則反有過於思孟者 然非讀書窮理之至 何以與此 此大學之教所以必先於格致也.”

다들지 않으면 쉬이 해이해져 음과 이와 흑에 빠진다. 편안한 것을 찾는 안일한 습성 때문이다. 흑은 『논어』에서 말한 ‘자리가 바르지 못하다.[席不正]’는 것과, 『소학(小學)』에서 말한 ‘사특한 맛[邪味]’을 가리킨다.

대체로 선악의 사이에 의위하는 자는 끝내 반드시 음(陰)과 이(利)와 흑(黑)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대개 인정(人情)이 이를 편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는 음과 양이 있고, 일에는 의와 이가 있으며, 물건에는 백과 흑이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 속에 늘 서로 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경계하여라. 덮어진 전철(前轍)을 가까이서 보면 두려운 마음이 더욱 깊은 법이니, 너희들은 이윤(尼尹)을 보지 않았느냐. 흑수(黑水)가 주자를 공격(攻斥)할 때에, 윤선거가 처음에는 대체로 이리저리 망설이다가 끝내 그와 심신(心神)이 융회(融會)되어 겹으로는 배억(排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를 도와 세력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큰 화가 하늘에 창일하고 가국(家國)이 패망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맹자와 주자가 사설을 물리치되 죽도록 미워하기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는 데에 이르렀던 것이다.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어긋난 것도 나중에는 천리 거리만큼 어긋나게 되는 것인데, 더구나 처음부터 크게 어긋난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인들 종말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이야 어찌 알았겠느냐. 애석하기 그지없다. 나는 변변치 못한 하찮은 사람으로 망녕되어 맹자와 주자가 사설을 배척한 일을 본받아, 난 신적자는 누구든지 그를 죄줄 수 있다는 교훈을 독신(篤信)한 소치로 결국 유배되는 참사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³⁵⁸⁾

위에서 이윤과 그 사람[渠]는 윤선거를, 흑수는 윤휴를 가리킨다. 송시열은 윤선거를 경계하라고 하는데 윤휴가 주자를 비판할 때 그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자신이 실각하고 유배를 오게 된 근본 원인도 윤휴와 윤선거를 철저하게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358) 『宋子大全』 제134권, 「示諸子孫姪孫等」, “大抵依違兩間者 終必入於陰與利與黑 蓋皆人情之所便也 人有陰陽 事有義利 物有白黑(論語席不正 小學邪味) 此日用之相接者也 汝等戒之哉 觀轍近則懼敗深 汝等不見尼尹乎 當黑水之攻斥朱子也 初蓋依違 卒與之心融神會 陽抑陰助 以成其勢 卒至於大禍滔天 家國破敗 此孟朱關邪說 至於苦死如仇敵也 毫釐之差 千里之謬 況所差非毫釐耶 渠亦豈知末流之至此哉 惜矣惜矣 余以眇末無狀 妄效孟朱距熄之事者 篤信亂賊人人得而誅之之訓 以至於流殛之慘 然我則不悔也.”

송시열은 윤희가 공자와 주자를 부정하고 명성왕후를 비판한 일로 국가 기강이 흔들렸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보았다. 아래에서 성모는 명성왕후를, 양현은 이이와 성혼을, 성무는 문묘를 가리킨다. 윤희는 제1차 예송논쟁에서 허목과 함께 3년복설을 주장하였지만 허목이 장남에 대한 예의로 3년복을 입는다는 자최삼년설(齊衰三年說)을 주장한 반면 윤희는 대비도 임금 앞에서는 신하에 불과하다는 신모설(臣母說)을 주장하며 참최삼년설(慘衰三年說)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윤희가 명성왕후를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대체로 흑수(黑水)는 ‘공자의 이름도 휘(諱)할 것이 없다.’ 하였고, 주자를 공격하는 것을 사업(事業)으로 삼았으며, ‘자식으로서도 어머니를 신하로 삼을 수 있다’ 하여 성모(聖母)를 침체(侵毀)하였다. 그 여파가 서로서로 이어져 마침내는 공자를 조롱하고 업신여긴[譏侮] 말을 시제(試題)로 삼아 대성전(大成殿) 아래 내거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효묘(孝廟)의 세실(世室)을 너무 빨리 작성했다고 칭탁하여 기의(譏議)를 하였고, 성모도 재차 비방을 입어 선인(宣仁)의 화(禍)가 있게 되었으며, 양현(兩賢)이 성무(聖廡)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문곡(文谷)은 성모를 높이 두둔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였고, 타우(打愚)는, 흑수(黑水)가 윤이흠(尹以欽)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것을 분개하게 여기다가 방금 투옥(投獄)되었다. 그리고 광해군(光海君)의 폐모(廢母)를 극력 찬성했던 자는 은혜를 입어 방환(放還)되었고, 그 감히 말하지 못할 대사는 또한 차마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진정 이때에 죽었더라면 이것이 욕이 될지,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³⁵⁹⁾

그리고 송시열은 1688년(숙종 14년) 봄 대사성 박태손(朴泰遜)이 당시 금기였던 『장자』 「어부」에서 시제를 냈던 일도 윤희의 영향으로 보았다. 특히 「어부」는 공자를 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컸다. 또한 자신이 주장한 효묘세실 문제를 시기상조라고 반대한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윤희가 허목, 윤선거와

359) 『宋子大全』 제134권, 「示諸子孫姪孫等」, “蓋惟黑水謂孔子爲不足諱 以斥朱子爲事業 謂子可以臣母而侵毀聖母 其餘孽轉相紹述 卒至譏侮孔子之說 爲試士之題 而揭於大成殿下 孝廟世室 托於預而見議 聖母再被訾詆 將有宣仁之禍 兩賢見黜於聖廡 文谷尊衛聖母而竟至戮死 打愚憤黑水服以欽事未盡善而方在縲紲 力是光海之廢母者蒙恩赦還 其大事之不敢言者 亦不忍說矣 吾正以此時而死 是辱乎宜乎.”

더불어 이이, 성혼의 문묘 배향을 반대했던 일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문곡 김수항이 사사되고 타우 이상(李翔)이 완강지변(完姜之變)으로 인해 투옥된 점, 광해군의 폐모를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세력이 복권된 점도 비판하였다.

선인(宣仁)의 화(禍)는 장돈(章惇), 채변(蔡卞) 등이 선인태황태후인 송 영종의 황후 고씨를 폐위하려고 했던 일을 말한다. 어린 철종을 섭정하면서 여중요순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던 그녀는 철종이 친정을 펼치게 되면서 탄핵 위기를 맞았던 때가 있었는데 선인의 화는 그때를 가리킨다. 송시열은 홍수의 변을 일으켰던 명성왕후가 남인들에 의해 비판받았던 일을 선인의 화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윤이흠은 남원부사였던 윤계(尹檠)의 아들이자 삼학사인 윤집(尹集)의 조카다.³⁶⁰⁾ 윤계는 병자호란 때 근왕병이 되려고 남한산성으로 가다가 적에 잡혀 죽음을 당했고 윤집은 척화를 주장하다 청나라로 끌려가 죽었다. 명문가 출신인 윤이흠이 계모 완강과 음증(淫蒸)을 벌였다.³⁶¹⁾ 그런데 윤휴는 윤이흠 가까이에서 살면서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윤이흠을 두둔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은 윤휴를 비판하였다. 이상은 1688년 5월 11일 인척인 유두성(柳斗星)을 근친상간으로 고발하였는데³⁶²⁾ 나중에는 이상이 재산을 노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유두성을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시열은 이 일을 완강지변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문인인 이상이 투옥된 일을 안타까워하며 이상의 아우 이숙(李勳)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³⁶³⁾

주자는 공자의 소상(塑像)이 부서지고 정이(程頤)의 학문이 금지를 당하며 주자를 처형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여러 학자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도 도망가라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쳤다. 아래에서 선성은 공자를, 조자직은 조여우(趙汝愚)를, 여자약은 여조겸(呂祖謙)을, 채계통은 채원정(蔡元定)을 가리킨다. 조여우는 송나라 재상으로 한탁주와 함께 영종을 옹립하였으나 나중에 한탁주와 대립하다가 실각하였다. 그 후 그가 추천했던 주희도 위학으로 물리게 되었다. 여조겸은 주자, 장식(張栻)과 함께 동남삼현으로 불렸는데 주자와 육구연의 학문을 조화시키려 하였고 형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이택서원(麗澤書院)을 창건하기도

360) 『國朝人物考』 제64권.

361) 『宋子大全隨笥』 제8권, 「隨笥」.

362) 『肅宗實錄』 제19권, 「숙종 14년 5월 11일 임오」.

363) 『宋子大全』 제79권, 「答李重卿(己巳正月)」.

하였다. 채원정은 주자의 문인으로 경원의 당금 사건으로 주자학과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도주(道州)로 유배되었다. 주자도 조여우를 변호하고 한탁주를 비판하는 소를 썼으나 채원정의 권유로 점을 쳐보니 돈괘(遯卦)가 나와 소장을 태워버렸다. 돈괘의 패사가 소인의 세력이 점점 왕성해지므로 군자가 은둔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르기 때문이다.³⁶⁴⁾

주자가 선성(先聖)의 소상(塑像)이 허리가 끊기고, 이천(伊川)의 도학이 금제(禁制)를 받는 때를 당했을 적에, 주자를 배 죽이자라는 소장이 끝내 한탁주의 무리에 가서 나왔고, 조자직(趙子直), 여자약(呂子約), 채계통(蔡季通) 등 제현(諸賢)이 서로 이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도, 문인 중에는 혹 안면을 바꾸어 과거를 보기도 하였다. 어떤 이가 주자에게 화를 당하지 말고 남몰래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풍간(諷諫)하자, 주자가, “내가 만일 만 길이나 되는 절벽처럼 굳게 서 있다면 어찌 우리 도를 빛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우둔장(遇遯章)을 지었는데, 비록 이 글을 올리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가슴속이 후련하다.” 하였으니, 결코 후회하지 않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³⁶⁵⁾

송시열은 기사환국을 경원의 당금으로 보았다.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피하지 않고 부딪쳐 돌파하려는 강직함을 내보였다. 일단 피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물리쳤던 주자처럼 송시열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주자는 이치를 밝히고[窮理], 마음을 기르며[存養] 이를 실천하고 확충하면서 공경[敬]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곧음[直]을 강조하였다. 공자가 그러했고 맹자도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있어 곧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체로 주자의 학문은 이치를 궁구하고 심성을 존양하여 이를 몸으로 실천해서 확충시키는 것을 주로 삼고, 공경[敬]으로써 시종을 통관하는 공(功)으로 삼았던

364) 박일봉(1990), 『주역』, 육문사, p.293.

365) 『宋子大全』 제134권, 「示諸子孫姪孫等」, “朱子當先聖塑像腰膂斷絕 伊川學見禁之時 請斬之章 竟發於侂冑之黨 趙子直呂子約蔡季通諸賢相繼死於目前 門人或換面以赴學 或諷朱子以微服過宋 則曰我若壁立萬仞 豈不益爲吾道之光 又作遇遯之章 雖不果上 而然猶曰胸中猶勃勃決死不悔也無疑矣.”

바, 임종 시에 이르러 문인에게 진결(眞訣)을 주었으니, 즉,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과 성인이 만사에 대응하는 것은 곧음[直]뿐이다.” 하였고, 다음날 문인이 또 청했을 때는, “도리가 다만 이러할 뿐이니, 모름지기 괴로움을 극복하고 굳게 지켜야 한다.” 하였다. 대체로 공자는, “사람이 사는 것은 곧음뿐인데, 곧지 못하게 사는 것은 요행히 재앙을 면한 것일 뿐이다.” 하였는데, 맹자가 호연의 기를 기른 것도 다만 이 직(直) 한 글자뿐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공자, 맹자, 주자 세 성인이 똑같은 법칙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글을 읽어서 이치에 밝지 못하면 곧지 못한 것을 곧게 여기는 자도 있는 것이다. 우리 사문(師門)의 교훈은 이러할 뿐이다.³⁶⁶⁾

송시열은 세 성인이 모두 곧음[直]을 강조하였기에 자손들도 이를 잘 지키라고 하였다. 다만 독서를 통해 학문을 닦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학문에 매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송시열은 조상의 덕을 잘 이어받으라고 당부하였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세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이 주변에서 찾아 익히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교육적 접근법을 긍정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선덕(先德)으로 말하자면, 유씨(柳氏) 할머니가 소년 시절 굳은 절행(節行)을 지킨 일과, 쌍청부군(雙淸府君)이 자취를 감추고 은둔한 일과, 서부부군(西阜府君)이 금조(禽鳥) 같은 미물을 감동시킨 효성과 문충공 규암 선생(圭菴先生)이 목숨을 버리고 충성을 다한 것과, 이씨 할머니가 얼첩(孽妾)을 사절한 일과, 습정 선생(習靜先生)이 간혹한 무리를 척절(斥絕)하다가 비명횡사한 일과, 나의 선부군(先府君) 수옹 선생(睡翁先生)이 몸을 돌보지 않고 절개를 세워 포전(褒典)이 빛난 것과, 충현공(忠顯公) 야은(野隱)이 대의를 부식(扶植)하여 백세를 용동시킨 일 등은 모두가 주문(朱門)의 정법(正法)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366) 『宋子大全』 제134권, 「示諸子孫姪孫等」, ‘蓋朱子之學 以窮理存養 踐履擴充爲主 而以敬爲通貫 始終之功 至於臨簣而授門人眞訣 則曰天地之所以生萬物 聖人之所以應萬事 直而已 明日又請 則曰道理只如此 但須刻苦堅固 蓋孔子曰人之生也直 罔之生也幸而免 孟子所以養浩然之氣者 亦惟此一字而已 是孔孟朱三聖同一揆也 然不能讀書明理 則以不直爲直者亦有之矣 吾師門之教如此而已.’

아, 너희들은 힘써야 한다. 법도를 가까운 데서 보면 공(功)을 거두기가 쉬운 것이니, 너희들이 모름지기 가까이는 선덕(先德)을 지키고 멀리는 주문(朱門)을 본받는다면, 나는 죽더라도 저승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숭정(崇禎) 기사년 6월 3일에 선암(仙巖)의 죽림촌사(竹林村舍)에서 쓰다.³⁶⁷⁾

송시열의 8대조이자 은진 송씨 증시조(中始祖)인 쌍청부군 송유(宋愉)의 어머니 고흥(高興) 유씨(柳氏)는 22세에 남편을 여의었으나 재가하지 않고 개성에서 회덕으로 옮겨와 자녀를 잘 키웠다. 송유는 조선 태조, 정종 때 이미 벼슬에 올라 호분위(虎賁衛) 부사정(副司正)에 이르렀고 태종의 궁마지우(弓馬之友)였으나 태종이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를 태조묘에 모시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송촌으로 돌아갔다. 송시열은 이러한 기상을 높이 샀다. 또한 그는 증조 서부부군 송귀수(宋龜壽)는 어버이 상(喪)을 당해 여막에 거처하면서 예를 다하였는데 흰 제비가 찾아오자 주변에서 효성의 결과라고 칭찬하였던 일³⁶⁸⁾과 종증조 규암 송인수(宋麟壽)가 을사사화로 실각하여 사사받으면서도 충성을 다한 일도 강조했다. 송시열은 조부 송응기(宋應期)가 윤원형(尹元衡) 이웃에 살았는데 윤원형이 권력을 잡고 첩 정난정을 정처(正妻)로 삼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렸으나 조모 이씨는 왕래를 끊었던 일과 백부 습정 송방조(宋邦祚)가 명이 후금을 칠 때 평안도병마평사(平安道兵馬評事)로 참전하여 명나라로 가는 보병사(報聘使)의 짐을 검색하려고 용천관(龍川館)에 갔다가 비명횡사한 일, 아버지 수옹 송갑조가 인목왕후를 배알했던 일, 종형 야은 송시영(宋時榮)이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를 따라 강화(江華)로 갔다가 성이 포위당하자 자결한 일을 거론하며 훌륭한 조상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당부했다.

2) 「삼현려기」

송시열은 1689년 6월 3일 장성에 도착하여 이 글을 쓴다.³⁶⁹⁾ 삼현려에 대한 기

367) 『宋子大全』 제134권, 「示諸子孫姪孫等」, “若以先德言之 則柳祖妣之少年苦節 雙清府君之泯跡遯世 西阜府君之孝感禽鳥 圭菴文忠之盡忠成仁 李祖妣之謝絕孽妾 習靜先生之斥絕姦兇 沒不以命 我先府君睡翁先生之忘身立節 褒典輝光 忠顯野隱之扶植大義 聳動百世 此皆無愧於朱門之正法矣 嗚呼 汝等勉之 觀法近則收功易矣 汝等須近守先德 遠宗朱門 則吾可以瞑目於九原矣 崇禎己巳六月初三日 書于仙巖之竹林村舍.”

368) 宋麟壽, 『國朝人物考』, 「宋龜壽 墓碣銘」.

록은 청주 흑암에 있는 송세량의 묘에 모재 김안국(金安國)이 쓴 묘갈명에 나와 있다.³⁷⁰⁾ 김안국은 김굉필의 문인으로 조광조, 김정 등과 함께 지치주의 사립파의 선도자였다. 송시열은 김안국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내용이 소략하여 상술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 흑암 부군(黑巖府君)의 묘문(墓文)은 모재(慕齋) 김 선생이 지은 것으로 삼현(三賢)의 사적을 칭도(稱道)함이 비록 간략하나 그 기상과 규모를 대개 짐작할 수 있으며, 그 글이 김 선생의 문집에 실려 있어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알고 있다. 당시에 그 마을을 지나는 자는 반드시 몸가짐을 엄숙히 하고 공경하면서, 여기는 세 어진 이가 살던 곳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는 실로 한양의 반송방(盤松坊) 유점동(鑪店洞)에 있다. 이제 이곳 청주(淸州)의 마암리(馬巖里)는 부군이 돌아와 노년을 보내던 곳이고 무덤이 있는 곳이며, 문충공(文忠公)이 목숨을 마친 곳이다. 성동주(成東洲)의 부인의 무덤이 부군의 무덤 곁에 있고 서부부군(西阜府君)의 무덤도 5리 가까이에 있어, 삼현의 유적이 여기에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 이름이 이곳에 일컬어진 지도 역시 오래다.³⁷¹⁾

삼현려는 송시열의 고조 송세량(宋世良)의 두 아들 송귀수와 문충공 송인수, 사위 동주 성제원(成悌元)이 살았던 곳을 일컫는다. 원래 한양의 반송방 유점동을 가리켰는데 송세량이 청주 마암리로 낙향하여 노년을 보냈고 송귀수, 송인수 및 성제원의 묘를 비롯한 유적이 많아서 이곳을 삼현려로 불렀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문오마을 입구에 삼현려비가 있는데 송시열이 죽기 직전에 그 글씨를 썼다고도 한다.

삼현만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송시열은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후손들이 기억해주기를 바랐다.

369) 『宋子大全附錄』 제11권.

370) 金安國, 『國朝人物考』, 「宋世良 墓碣銘」.

371) 『宋子大全』 제145권, 「三賢閭記」, “維我黑巖府君墓文 慕齋金先生所撰也 稱道三賢事行雖約 而蓋知其氣象規模也 其文刊行於金先生文集 舉世皆知之矣 當時過其閭者 無不肅恭曰 此三賢所居也 故有此名焉 其居實在漢師之盤松坊鑪店洞 今此淸州馬巖里者 府君歸老之所 衣履之藏 而文忠公畢命之地也 成東洲夫人墓 附在府君傍 西阜府君墓 亦五里而近 三賢遺跡 蓋多在此 此名之稱於此亦久矣.”

아, 삼현의 사적이 사람의 이목(耳目)에 빛남은 말할 것도 없고, 척암(楊菴) 김근공(金謹恭)도 부군의 측실(側室) 소생의 사위로서 유학(儒學)으로 야사(野史)에 매우 드러나게 칭도되었으니, 이 어찌 당시의 덕성(德星)이 편벽되게 부군의 집에만 비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가 삼현의 수(數)에 들지 못함은 연배(年輩)가 조금 뒤인 까닭이 아니겠는가. 이후에도 부군의 증손인 습정공(習靜公) 휘 방조(邦祚)가 청명(淸名)과 직도(直道)로 세상 사람에게 존중되었고, 우리 선부군(先府君)인 수옹공(睡翁公) 휘 갑조(甲祚)와 종씨(從氏)인 충현공(忠顯公) 휘 시영(時榮)이 절의가 뛰어나서 포장(褒獎)하는 은전이 빛났으므로, 그 후로 이 마을이 더욱 먼 후세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덕이 많은 자는 덕을 후세에 전한다는 말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문충공이 후명(後命)을 받을 때에 부군의 사판(祠版)에 극히 영이(靈異)한 일이 있어 이 일이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에 실려 있고, 지난날 내가 처음 화를 받을 때에도 그러하였으니, 이른바 ‘부자, 조손이 유명(幽明)의 길을 달리한다.’는 말은 진실로 천리를 알지 못한 것이다. 흑암 부군의 휘는 세량(世良), 자는 정부(貞夫)요, 서부 부군의 휘는 귀수(龜壽), 자는 기수(耆叟)이며, 문충공의 휘는 인수(麟壽), 자는 미수(眉叟)이고, 성동주의 휘는 제원(梯元), 자는 자경(子敬)인데, 서부 이하가 이른바 삼현으로, 흑암 부군의 아들과 사위이다. 송정 기원 후 62년 기사년 6월 일에 서부공의 증손 시열은 삼가 쓴다.³⁷²⁾

송시열은 척암 김근공도 송세량의 사위로 학문으로 유명했으나 연배가 낮은 탓에 삼현에 들지 못했다고 하였다. 김근공의 아내가 서녀였고 자신도 김모(金瑠)의 서자인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세량의 증손 송방조, 송갑조, 및 현손 송시영도 훌륭한 선비로 칭송되었다. 송시열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조상의 덕을 높임으로써 가문의 영예를 확립하려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송인수를 높임으로써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를 분명히 제시하려고 하였기 때

372) 『宋子大全』 제145권, 「三賢間記」, ‘噫 三賢事行 固赫赫照人耳目 而金楊菴謹恭 亦府君側出女壻也 其以儒學見稱於野史者 甚彬彬焉 豈當時德星 偏照於府君一家也耶 然其不入於三賢之數者 豈以其年輩差後故耶 自是以後 府君曾孫則有習靜公諱邦祚 淸名直道 爲世所宗 我先府君睡翁公諱甲祚 從氏忠顯公諱時榮 樹立卓然 褒典輝煌 自後此間益著顯於無窮矣 德厚者流光 豈不信哉 文忠公受後命時 府君祠版 極有靈異 茲事載在名臣言行錄 昔余初受禍時亦然 其謂父子祖孫幽明異塗者 誠不知天理者也 黑巖府君諱世良 字貞夫 西阜府君諱龜壽 字耆叟 文忠公諱麟壽 字眉叟 成東洲諱梯元 字子敬 西阜以下 卽所謂三賢 而寔黑巖府君之子與壻云 崇禎紀元後六十二年己巳六月日 西阜公曾孫時烈謹識.’

문이다. 송인수는 을사사화로 낙향하였다가 끝내 사사되지만 그의 종제 송기수는 당시 도승지로서 을사사화에 가담하여 공신으로 책봉되었는데 송시열로서는 훈구세력을 거부하고 사림의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다. 송인수가 사사되던 날 참봉 부군 송세량의 신주가 감실로 내려와 벽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고 송시열이 갑인예송에서 패배하여 유배를 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³⁷³⁾ 교육적으로 의의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므로 이 글 또한 교육적 의의가 높다 할 수 있다.

3)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시열은 문곡 김수항의 묘지명을 1689년 6월 3일에 썼다.³⁷⁴⁾ 그해 4월 9일 진도에서 사사된 김수항은 한성부 동대문 밖 율북리에 안장되었다. 그의 조부 석실산인(石室山人) 김상헌 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아, 동문 밖 율북리(栗北里)는 석실(石室)의 대묘(大墓)에서 몇 리 떨어진 곳인데, 그곳은 문곡(文谷) 김공이 묻힌 곳이다. 숭정(崇禎) 기사년에 상이 앞으로 큰 처분을 내리려고 급히 승순(承順)하는 사람을 진용(進用)하였는데, 그들의 동류가 형세를 타고 일을 꾸미었다. 공은 진도로 귀양 갔다가 그해 4월 9일에 사약을 받고 졸하니 환갑 되던 해였다. 죽음에 임하여 의사와 기운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 뒷일을 처리하고 자손에게 훈계하기를 자세한 일이라도 빠뜨리지 아니하였고, 또 주자의 고사를 인용하여 고산일곡(高山一曲)을 추작(追作)하고 팔괘정(八卦亭) 시를 지어 율곡, 우계 두 선생을 경모(景慕)하는 뜻을 보이니 그 지조의 굳음과 함양(涵養)의 깊음을 속일 수 없었다. 아, 오늘날에 어디서 다시 만나 보랴.³⁷⁵⁾

373) 『宋子大全』 제215권, 「恩津宋氏家傳」.

374) 『宋子大全附錄』 제11권.

375)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嗚呼 此國東門之外栗北里 去石室大墓幾里而近者 文谷金公衣履之藏也 崇禎己巳 主上將有大處分 亟進用承順之人 則其諸類乘勢媒孽 公始謫珍島 其四月九日 承後命以終 壽命甲子一周也 臨命 意氣安閒 處置後事 訓戒子孫 纖悉無遺 又用朱子故事 追作高山一曲八卦亭詩 以寓景慕栗 牛兩先生之意 其持守之固 涵養之深 不可誣矣.”

송시열은 김수항이 죽음을 앞두고도 초조해 하지 않았고 자손에게도 자세히 훈계하였다는 점을 들어 칭송하였다. 김수항이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 윤3월 21일³⁷⁶⁾이었고 사사된 것이 4월 9일이므로 채 20일이 안 되는 기간 사이에 유배에 이은 사사 결정으로 김수항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태이었을 것이나 그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은 송시열이 강조했던 곧음[直]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었다.

또한 송시열은 김수항이 고산일곡(高山一曲)과 팔괘정(八卦亭) 시를 지어 보낸 것을 두고 이이와 성혼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곧은 지조와 깊은 마음씨를 드러냈다고 긍정하였다. 송시열은 1687년 주희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 첫 수에 차운하여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의 첫 수를 지어 권상하에게 보냈다.

오백 년 만에 하늘과 땅 영기를 모아
울곡의 자품 빼어나고 청아하도다
고산의 아홉 굽이 그윽한 곳에
잔잔히 흐르는 증점의 비파 소리인 듯³⁷⁷⁾

송시열은 김수항, 송규렴, 정호 등에게 「무이구곡가」를 차운하여 「고산구곡가」한 수씩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수항은 내내 시를 짓지 못하다가 진도로 유배 가는 길에 지었다.

일곡이라 술숲 사이로 옥선 띄우니
관암의 갓 뜬 해가 앞 개울을 비추네
지팡이 들고 좋은 벗 앉아서 기다리니
먼 뗏부리와 들판에 아침 연기 피어나네³⁷⁸⁾

그는 이 시를 송시열이 제주에 있을 때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송시열은 제주에

376) 『肅宗實錄』, 「숙종 15년 기사(1689) 윤 3월 21일(무오)」.

377) 『宋子大全』, 제2권, 「詠高山九曲歌 寄示權致道(尙夏)」, “五百天鍾地炳靈 栗翁資稟秀而清 高山九曲幽深處 汨瀾寒流點瑟聲.”

378) 『文谷集』 제6권, 「高山一曲 次朱子武夷一曲韻」, “一曲松間漾玉船 冠巖初日映前川 携筇坐待佳朋至 遠岫平蕪卷曙煙.”

있으면서도 김수항의 사사 소식을 듣고 시를 짓기도 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김수항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유배 가는 길에 한때 송시열이 거처했던 여산 죽림서원을 지나다가 서원 옆에 있는 팔괘정을 보고 시를 지었다. 죽림서원은 1626년 지방 유림들이 이이, 성혼,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황산사(黃山祠)가 1665년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된 곳이다. 이때 조광조, 이황까지 배향되었고, 1695년에는 송시열이 추가 배향되기도 한다. 1653년에는 송시열이 윤선거를 만나 윤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예전에 대로께서 노닐었던 곳이라
 사람 때문에 이곳 더욱 아름다워졌지
 창문으로 복희씨 팔괘 배열했고
 마음으로 안연의 심재 터득하셨지
 먼 봉우리들 다투어 사립에 들고
 맑은 강물은 섬들을 적실 듯한데
 유배 길이라 부질없이 슬프게 바라보니
 좋은 구경 괴롭게도 뜻대로 되기 어렵구나³⁷⁹⁾

위에서 대로(大老)는 송시열을 가리킨다. 김수항이 죽림서원을 지날 때 그곳에 있던 선비들이 찾아와 호곡 남용익(南龍翼)이 지은 시를 빌어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당시 남용익도 숙종의 원자 정호를 반대하다가 1689년 2월 18일 삭탈관작되고,³⁸⁰⁾ 나중에는 명천으로 귀양을 가게 되고 1692년 2월 2일 유배지에서 죽었다.³⁸¹⁾ 김수항은 선비들의 청을 받아 시를 지었다. 송시열과 남용익을 모두 기린 것이다.

김수항은 김상헌의 손자이자 김광찬의 셋째 아들이다. 외할아버지는 김내이고 외증조는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의민공(懿愍公) 김제남(金悌男)인데 김제남은

379) 『文谷集』 제6권, 「次壺谷韻 寄題八卦亭」, “大老曾遊地 因人境更佳 窓排庖昊卦 心得巷顏齋 遠岫爭穿戶 澄江欲浸階 嚴程空悵望 勝賞苦難諧.”

380) 『肅宗實錄』 제20권, 「숙종 15년 2월 18일 병진」.

381) 『肅宗實錄』 제24권, 「숙종 18년 2월 2일 임오」.

인목왕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조선 최대 명문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화이는 중국과 주변 국가를 아우르고 주문공은 주회를 이른다.

공은 안동인(安東人)이다. 석실(石室) 노선생(老先生)의 손자이며 동지(同知) 휘(諱) 광찬(光燦)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 연안 김씨(延安金氏)의 아버지는 목사(牧使) 내(疎)이며, 조(祖)는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의민공(懿愍公) 제남(悌男)이다. 노선생이 몸소 천하의 강상(綱常)을 담당하여 이름이 화이(華夷)에 떨쳤는데 그 뿌리를 살펴보면 주문공(朱文公)의 『소학(小學)』이니 주문공이 논한, “진정한 대영웅은 반드시 전전궁궁하기를 깊은 못에 임하거나 살얼음을 밟는 것같이 한다.” 한 말이 이에서 더욱 증명된다. 공이 가정의 학문을 받았는데 『소학(小學)』의 경신편(敬身篇)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노선생이 안동(安東)에 있으면서 구용장(九容章)과 사물장(四勿章)을 써서 부쳐 격려하였으니 그 기대한 바가 깊고도 멀다. 공은 어려서부터 온종일 걸터앉지 않고 꿇어앉았으며 어깨와 등이 똑바르고 조금도 몸을 기대거나 기울이지 않으면서 ‘외면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심지(心志)를 잃게 된다.’ 하였다. 문사(文辭)는 전아(典雅)하고, 화려함을 힘써 없애니 노선생이 일찍이 ‘쓸모 있는 글이다.’ 하고 인정하였다.³⁸²⁾

김상헌은 늘 삼가는 태도로 이름을 얻었고, 가학에 있어서도 『소학』 「경신」을 중시하였다. 김수항이 바른 태도로 공부에 매진하자 김상헌은 손자에게 구용과 사물을 직접 써 보내며 격려했고 손자가 쓴 글을 칭찬하기도 하였다. 구용과 사물은 이이의 『격몽요결』 「지신(持身)」에 실려 있는 것으로 구용은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고[收斂身心 莫切於九容], 사물은 예를 통해 몸을 수양하는 요점이다[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修身之要也].

김수항은 과거를 보고 입신한 이후 성공가도를 달려 44세 되는 해 우의정에까지 이르렀다. 아래에서 반궁은 성균관을, 태학사과 문형은 대제학을, 장옥은 과거

382)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公安東人 文正公石室老先生之孫同知諱光燦之第三胤 妣延安金氏 考牧使疎 祖延興府院君懿愍公悌男也 老先生身任天下綱常 名聞華夷 第考其根基 則文公小學也 文公論真正大英雄 必以戰兢臨履爲言者 益驗焉 公受家庭學 最主於小學敬身一篇 老先生在安東 書寄九容四勿以勉之 其所期待深且遠矣 公自少終日危坐 未嘗箕踞 肩背竦直 不少跛倚 以爲外面有些罅隙 則心志從而走失 文辭典雅 務去靡麗 老先生嘗識之曰 有用之文也.”

시험장을 가리킨다.

17세에 반궁(泮宮)에 나아가 시험을 보았는데 태학사(太學士)택당(澤堂)이공(李公)이 상등(上等)에 뽑아 놓고 말하기를, “근세(近世)의 문체를 변형시킬 것이다.” 하였다. 다음해엔 사마시(司馬試)에 장원하였고, 그 후 수년간은 장옥(場屋)에 들지 아니하고 성리(性理)에 관한 여러 책에 뜻을 두고 스스로를 배양(培養)하였다. 23세에 알성 문과(謁聖文科)의 제일(第一)로 뽑히니 조정에서는 인재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다. 28세에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통정(通政)에 승직되고, 31세에 가선(嘉善), 34세에 자헌(資憲)이 되고, 신해년(1671, 현종12)에는 승정(崇政)에 승직되고, 임자년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었는데 그때 나이 44세였고, 그사이의 경력은 모두 현요직(顯要職)이었다. 처음 대간(臺諫)이 되어 일을 논의하다가 상의 뜻을 거슬렀으나 그 뒤 경연(經筵) 강의에서 은총이 나날이 높아졌다. 문형(文衡)을 주관할 때 시론(時論)이 화합하여 서로 다투어 본을 받았기 때문에 재상이 되어서도 그대로 겸임하고 갈지 않았으며, 여러 번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어 등용하고 뽑아 씀이 밝고 공정하니 사람들이 감히 헐뜯는 의론을 하지 않았다.³⁸³⁾

김수항은 학문이 높아 경연(經筵)에서 남달랐기에 임금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다. 우의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제학을 겸임했고 이조판서일 때에서 공정한 인사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기도 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다.

김수항은 재상의 반열에 올라서서도 임금이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래에서 중씨는 김수항의 둘째 형 김수홍을, 동조는 명성왕후를, 양궁은 숙종과 그의 어머니 명성왕후를 말한다.

재상이 되어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경제(經濟)의 재주가 없으니 옛 대신의 사업은 감히 바라볼 수 없으나 근래의 재상된 사람들이 군덕(君德)의 결실(闕失)을

383)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十七 出試泮宮 大學士澤堂李公取置上游曰 可以變近世文體也 明年 魁司馬試 間數年 不就場屋 留意性理諸書 以自培養 二十三 擢謁聖文科 第一 朝廷賀得人焉 二十八 中重試陞通政 三十一嘉善 三十四資憲 辛亥 陞崇政 壬子 拜右議政 時年四十四 其間所履歷 無非極選 始爲臺諫 論事忤旨 及後筵講 恩顧日隆 其主文衡也 時論翕然 爭相速肖 以故至於入相而仍兼不遞 累拜吏判 登明選公 人不敢訾議.”

자기의 책임으로 삼지 않고 하나같이 대각(臺閣)에 떠맡기니 이것은 보필하고 바로잡는 의(義)가 아니다.” 하고, 오로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았다. 현종은 허적(許積)에게 전임하였지만, 공이 바르고 성심이 있어 큰일을 부탁할 만함을 알았기 때문에 빈청(賓廳)에서 예를 의논한 뒤 중씨(仲氏)와 여러 관리가 많이 귀양 가거나 벌을 받았는데도 공은 도리어 좌상에 임명되었고, 고명(顧命) 때에도 매우 정녕하게 면유(勉諭)하고 위안하였다. 금상(今上)께서도 처음 즉위하여 더욱 융숭하게 예우하였는데 적휴(賊鑷)가 흉포를 자행하여 혹 불손한 말로 동조(東朝)를 헐뜯으므로 공은 말하기를, “이것은 국가의 윤리 기강에 관계되는 것이니 일차 주상에게 말하여 깨닫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마침내 윤휴(尹鑷), 홍우원(洪宇遠), 조사기(趙嗣基) 등의 무패(誣悖)한 형상을 극론(極論)하니 군중의 감정이 고슴도치처럼 일어나 도리어 공을 양궁(兩宮)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하며 남쪽 끝으로 멀리 귀양 보냈다. 이보다 앞서 명성모후(明聖母后)가 상과 함께 편전에서 수렴(垂簾)하고 허적(許積)을 접견하면서 통곡하며 반복하여 교유(敎諭)하고 이어 이르기를, “내 음식을 전폐하고 죽고 싶다.” 하였으니, 이것은 지성측달(至誠惻怛)에서 나온 것인데 끝내 한 사람도 나가 사죄함이 없으니 그 심사는 길 가는 사람이라도 알 것이라 할 수 있었다.³⁸⁴⁾

서인이 남인에게 제2차 예송논쟁에서 패배하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수홍은 춘천으로 유배되었으나 김수항은 좌의정으로 임명되었고 현종은 죽음을 앞두고서 그에게 뒷일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윤휴, 홍우원 및 조사기는 명성왕후가 국사에 간여하는 데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고, 명성왕후가 홍수의 변을 일으키자 더욱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김수항은 윤휴를 비롯한 남인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전라남도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영암에서 철원으로 이배되었던 김수항은 삼복의 옥[三福之獄]이 일어나면서 영의정으로 등용되었다. 아래에서 정은 복창군, 남은 복선군을 가리키는데 복평군

384)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其爲相 自以爲無經濟才 古大臣事業 固不敢望而至於輓近爲宰相者 君德闕失 不以爲己責 而一付之臺閣 此非輔弼匡救之義 故專以是自任焉 顯廟專任許積 然察公貞亮 可屬大事 故賓廳議禮之後 仲氏及諸官多被譴罰 而公旋拜左相 至於顧命之際 所以勉諭慰安者 極其丁寧 今上初服 禮貌愈隆 及賊鑷肆兇 或有不遜語侵及東朝 公以爲此關國家倫紀 不可不一爲上言之 以冀開悟 遂極論鑷宇遠嗣基等誣悖狀 群憾蠭起 反以公爲離間兩宮而遠謫南荒 先是明聖母后夜與上同御便殿 垂簾引積 痛哭而反復教諭 因曰 予欲閉口不食而死 此出於至誠惻怛 而終無一人出而謝罪者 其心可謂路人所知也.”

과 함께 인조의 손자이자 인평대군의 아들이다. 허견은 허적의 서자이고, 오정창은 삼복의 외숙이다. 이들은 역모를 꾸몄다고 고변이 들어가면서 몰락하게 된다. 윤희는 사사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경신년에 정(楨), 남(栢), 허견(許堅), 오정창(吳挺昌)의 역모를 꾀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당이 혹 처형되고 혹 귀양 갔는데 윤희는 상이 특명하여 죽이고 또 그의 모든 아들을 가두었다. 이때 공은 적소(謫所)에서 명을 받고 옥사를 주관하면서 거의 평반(平反)하였고, 이원정(李元楨), 유혁연(柳赫然) 같은 자는 여러 적도와 호응하였으나 공은 정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석방하기를 청하였는데 뒤에 다시 적도의 공초에 나와 일이 더욱 심하여 비록 구하여 풀어 주려 하여도 할 수 없었다. 이때에 명성모후가 이르기를, “김상(金相)이 여러 해 귀양 다녔는데도 옥사를 밝고 진실되게 처리하고 조금도 통쾌하게 분풀이하는 의사가 없으니 가상하다.” 하였다. 이때에 간흉은 이미 벌을 받았고 군현(群賢)이 무리 지어 나아가니 모두 공으로 영수(領袖)를 삼았고, 상도 특별히 예우함이 우이(優異)하니 공 역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어 원우(元祐)의 소강(小康) 치적을 이루었으나 시의(時議)에 견제받았다. 대체로 벌주고 제거한 공(功)은 실로 사류 중의 외척에서 나왔다. 그런데 부박(浮薄)하고 일을 좋아하는 무리들은 힘써 깊이 욕하고 준열하게 공격하는 것으로써 공(功)을 삼았는데 공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사직을 편안히 한 공(功)은 있어도 아직 두드러진 죄과(罪過)는 없으니 심하게 밀어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 하였다.³⁸⁵⁾

삼복의 옥에 이어 경신환국이 일어나면서 이원정, 유혁연을 비롯한 남인 대다수가 탄핵을 받고 실각하였다. 김수항은 이때 옥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고 하여 원우(元祐)의 소강(小康)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우는 송 철종의 연호이고 소강은 사회가 좀 건강해지고 편안해진 것을 가리킨다. 원우의 소강은 고태후가 사마광을 등용하여 신법과를 탄핵하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온 일을 이른다. 경

385)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庚申 楨栢堅挺昌謀逆事覺 其黨或誅或竄 而鐫則上特命誅之 又囚其諸子 時公自謫所膺命主讞 率多平反 及如元楨赫然爲諸賊援引 則公以情節未著 卽請放釋矣 及後復出賊招 事益狼藉 雖欲救解而不可得矣 當是時 明聖聖母爲言金相累年竄逐之餘 按獄明允 少無乘快洩憤之意 可尙也 爾時奸兇旣誅 群賢彙征 咸以公爲領袖 上亦尊禮優異 公亦鞠躬盡瘁 聚精會神 以成元祐小康之治 而時議遽已掣肘矣 蓋誅除之功 實出土類中威畹 而浮薄喜事之輩 務以深詆峻攻爲功 公以爲彼有安社稷之功 姑無顯然罪過 甚以排擯爲不韙.”

신환국은 김석주와 김익훈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김수항이 남인들의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김석주는 숙종의 외종숙이였고 김익훈은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의 종조부로 둘 다 외척이었다. 김수항은 김석주나 김익훈보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수준이 높았으나 드러난 죄과가 없는 사람까지 벌주지는 않았다.

경신환국을 주도한 김석주는 남인을 완전하게 축출하기 위해 임술고변을 조작하였다. 김환을 사주하여 허새와 허영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을 하게 하였다. 김석주는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자 김익훈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김익훈은 역모로 몰아가려고 했으나 무고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젊은 무리들이 공이 자기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恨)하며 비로소 공을 불쾌하게 여겼다. 옛 송(宋)의 재상 조여우(趙洙愚)가 소희(紹熙) 연간에 처리한 일은 사실 명분과 실재가 순(順)함을 거역하는 형세가 있으므로 주자(朱子)가 대변(大變)이라 여기면서도, 그 죽고 삶을 생각하지 않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킨 것은 불세출의 공이 되므로 명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 성심으로 협동하여 함께 왕실을 도왔다. 더욱이 지금은 훈척(勳戚)이 충성으로 반역을 토벌하였으니 조공(趙公)의 입장과는 견줄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공을 공격하는 자는 스스로 주자(朱子)보다 어질다고 여기는 것인가. 이런 까닭에 더욱 시배(時輩)와 배척(背馳)하게 되었는데 허새(許璽), 허영(許瑛)의 옥사(獄事)를 말하는 자는 김익훈(金益勳)을 갈수록 심하게 몰아세워 심지어 옥사의 실정까지 의심하게 되었다. 공은 말하기를, “허새, 허영의 반역한 죄상은 본디 의심할 것 없고 김익훈이 정탐한 것은 사실 부탁 받음이 있었는데, 고발한 것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여 이 옥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김익훈에게 심한 죄를 주려 함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³⁸⁶⁾

위에서 소희는 송 광종(光宗)의 연호이고 훈척은 김우명을 가리킨다. 송시열은 주희의 고사를 근거로 김수항을 옹호하였다. 송 효종이 죽었으나 광종은 상을 치

386)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少輩恨公不與己同 始不快於公矣 昔宋相趙汝愚紹熙處置 實有名實逆順之勢 故朱夫子以爲大變 而然其捨死生安宗社 爲不世之功 故承命入朝 誠心協同 共獎王室 況今勳戚以忠討逆 非趙公所遭之比 然則今之攻公者 自謂賢於朱子耶 由是益與時輩背馳焉 及璽瑛之獄 言者持金益勳益急 至或致疑於獄情 公以爲璽瑛逆節 本無可疑 益勳詞察 實有所受 今以發告之不審 遂疑此獄爲無實 而欲深罪益勳則不可.”

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조여우는 헌성태후(憲聖太后)에게 청하여 가왕(嘉王)을 받들어 영종(寧宗)으로 즉위시켰다. 주희는 이 일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출사하였다. 송시열은 김우명이 홍수의 변에 가담했던 일도, 김석주와 김익훈이 임술고변을 통해 남인을 일망타진하려고 했던 일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했던 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윤휴가 이황, 이이, 성혼을 비판하고 주자와 공자까지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데 윤중은 윤휴를 옹호하였다. 송시열은 그들을 사문난적이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김수항 또한 송시열을 지지하였다. 아래에서 노선생은 김상헌을 가리키는데 그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은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며 이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조화와 화합만을 이루려는 태도는 일을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수항은 조부의 조언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시의(時議)가 더욱 시끄러워져 마침내 공과 동의하는 자까지 함께 공격하여 갈수록 어그러지고 과격하게 되었는데 이윤(尼尹)의 논쟁이 더욱 극도에 이르렀다. 대체로 적휴(賊鑪)가 퇴계, 율곡, 우계 세 선생을 헐뜯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아가 주자를 배척하고 마침내 공자까지도 휘(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에 이르러서 실로 사문(斯文)의 난적(亂賊)이었다. 그런데 이윤이 그 당(黨)을 도우며 때로는 겉으로 배척하는 척하면서 몰래 보호하므로 내가 자신을 해아리지도 못하고 통렬하게 배척하였다. 그러자 공이 나의 재주는 약한데 적이 강함을 안타깝게 여겨 때로 구해 주려는 말을 하니 시배(時輩)들이 공을 더욱 좋지 않게 여겼다. 공이 노선생에게 배우기를, “술수를 부리는 것은 심술이 올바르지 못하고 이것과 저것을 조정하는 것은 일하는 데 매우 해롭다.” 하였고, 주자도 일찍이 말하기를, “송원헌(宋元憲)의 농락은 나는 못하고 건중정국(建中靖國)의 조정은 난을 불러오는 방법이다.” 하였으니 공의 가법(家法) 연원(淵源)이 본래 이러하였다. 그러므로 항상 사마온공(司馬溫公)의, “하늘이 만약 송(宋)을 도운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한 말을 마음에 두고, 범충선(范忠宣)이 몰래 후일의 안전을 도모한 것으로 경계를 삼았으니, 이것이 시의(時議)와 서로 배치되고 특별히 간당(奸黨)의 원수같이 미워함이 된 것이다. 무릇 주자는 성인이자 공이 주자의 도를 따르다가 그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주자의 도

가 나쁜 것일까.³⁸⁷⁾

원헌 송기(宋庠)는 향시(鄉試), 회시(會試), 전시(殿試)에서 모두 장원한 인물로 동생 송기(宋祁)와 함께 이송(二宋)으로 이름을 떨쳤다. 성격이 온화하고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으나 특별한 업적이 없었고 아우 송기의 허물을 덮어주려다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위에서 건중정국은 송 휘종(宋徽宗)의 연호다. 휘종은 신법파를 등용하고 구법파를 배척했으며 정사를 돌보지 않고 예술에만 빠져 금나라에 잡혀가게 되는 정강(靖康)의 화를 자초했다. 사마온공은 사마광(司馬光)이 온국공(溫國公) 작위를 받으면서 불린 이름이다. 사마광이 신법을 폐기하려 하자 장돈(章惇), 여혜경(呂惠卿) 등이 봉당의 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였다. 그는 훗날의 화를 빌어 옳은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소신을 꺾지 않았다. 충선공 범순인(范純仁)은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화합을 가져오기 위해 조제보합론(調劑保合論)을 주장했는데 시비분별론(是非分別論)을 주장했던 주자는 조제보합론을 범순인의 보신책이라고 폄하하였다. 송시열은 김수항이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김수항은 용모가 뛰어났고 효성이 지극했다. 노사(虜使), 즉 청나라 사신들도 그의 됴됨이를 인정하고 칭찬하였다.

공은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여 매번 조회 때 띠를 매고 홀(笏)을 쥔고 공수(拱手)하고 엄연히 서 있으면 정중(廷中)이 모두 주목하며 ‘사람 가운데 난곡(鸛鵠)이다.’라고 하였고, 노사(虜使) 역시 공경하며 칭찬하였다 한다. 이것을 미루어 말한다면 가정의 효성과 공경의 독실함과 안방의 윤리가 올바른 것은 남들이 의의가 없을 것이다. 아, 유지(劉摯)와 양도(梁燾)의 죽음은 천하가 슬퍼하고 여자약(呂子約), 채계통(蔡季通)의 화(禍)는 지금도 원송(冤訟)하니, 그렇다면 당시의

387)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於是時議益譁然 遂並攻與公同意者 輒轉乖激以至尼尹之爭而極矣 蓋賊端始疵退栗牛三先生而轉斥朱子 遂至於不諱孔聖 此實斯文之亂賊 而尼尹挺身黨助 時亦陽擠陰護 愚不自量而痛軋之 公矜余才弱敵強 時有營救之言 時輩之不悅於公於是尤甚 公受教於老先生 以爲機關籠絡 心術之不正 調停彼此 事爲之深害 蓋朱子嘗曰 宋元憲籠絡之事 吾所不能 建中之調停 致亂之道 公之家法淵源 本來如此 故常以司馬公天若祚宋必無此事爲心 而以范忠宣陰爲他日自全之計爲戒 此其所以動與時議相背 而特被奸黨所仇嫉者也 夫朱子聖人也 公從朱子道而不獲其利 豈朱子之道非耶.”

책임자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제공(諸公)의 죽음은 영화이지 욕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 선모(宣母)가 무고당하고 성사(聖妣)가 폐욕(廢辱)을 당하고 양현(兩賢)이 성무(聖廬)에서 쫓겨났으니 이러한 때 죽은 공은 영화롭지 않겠는가. 노선생이 일찍이 시를 나에게 주어 주자의 학문으로 나를 권면하였는데, 나 또한 가만히 보면 그분이 스스로 한 것도 요약하면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생의 제손(諸孫)이 모두 주자서(朱子書)를 좋아하였고 공은 더욱 일삼아 익혔다.³⁸⁸⁾

유지는 송나라 철종 때 구법파 세 당과 가운데 북쪽 세력인 삭당(朔黨)의 영수였다. 철종이 친정을 펼치며 신법파를 중용하자 유배형에 처해져 축출되었다. 양도도 삭당의 한 사람으로 유지와 함께 유배형을 받았다. 자약 여조검(呂祖儉)은 조여우와 주자를 몰아낸 한탁주를 비판하다 유배를 떠났다. 계통 채원정(蔡元定)은 주자의 문인으로 그 또한 경원의 당금 사건으로 좌천되었다. 송시열은 김수항의 죽음과 자신의 유배를 한탁주에게 탄핵되었던 송유의 처지에 빗댄 것이다. 또한 선모 즉 명성 왕후가 비판을 받고, 성사 즉 인현 왕후(仁顯王后) 폐비되며, 양현이 출향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김수항이 꺾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김상헌이 송시열에게 주자의 학문을 권했고 그의 자손들도 유지를 따랐는데 송시열은 김수항이 그중 가장 뛰어났다고 평했다. 또한 송시열은 『주자대전차의』를 지을 때 김수항이 교정에 참여하는 등 기여를 한 점에 대해서도 칭찬을 잊지 않았다.

내가 일찍이 망녕되게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를 편집하여 교정을 청하였더니 공이 기꺼이 함께 고증 산삭하여 흠됨이 적었으니 공의 학문을 여기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 주자가 운명할 때 제생에게 진결(眞訣)을 주었는데, “천지가 만물을 생성함과 성인이 만사에 옹함은 직(直)일 뿐이다.” 하였고, 다음날 또,

388)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公容貌端秀 每朝會 垂紳搢笏 張拱儼立 廷中咸目屬以爲人中之鸞鵠 虜使亦起敬稱贊云 推此以言 則家庭孝敬之篤 閭門倫理之正 人亦可以無間焉 嗚呼 劉梁之死 天下悲之 呂蔡之禍 至今冤訟 然知當時用事者何如人 則諸公之死 榮也非辱也 況今宣母被誣 聖妣廢辱 兩賢見黜於聖廬 公以此時死之 顧不亦榮乎 老先生嘗以詩贈我 勉以朱子之學 余亦竊觀其自爲者 要不出此矣 以故老先生諸孫 皆喜朱子書 而公尤服習.”

“도리(道理)는 다만 이러할 뿐이니 마땅히 굳게 각고(刻苦)하라.” 하였으니, 이 어찌 공자와 맹자의 ‘사람 삶은 곧다. 곧음으로 길러야 한다.’는 정법(正法)이 아니겠는가. 공의 일생 언행(言行)이 굴곡(屈曲)하고 회호(回互)됨이 없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 얻은 것이리라.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죽음에는 악시도 있고 영시도 있다. 아 공의 시기는 내 감히 알지 못하겠네.” 389)

주자가 유언으로 직(直)을 강조했고 그 가치는 공자와 맹자 모두 인정하는 바였다. 송시열은 김수항이 평생 곧음[直]을 잘 지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으니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송시열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 인성을 닦으려면 먼저 이치를 이해해야 하는데 궁극적 인성이 곧음[直]이라면 이치를 이해하는 길은 독서에 있다고 하였는데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의의가 깊다. 「삼현려기」를 통해서는 은진 송씨가문에서 삼현으로 일컬어지는 송귀수, 송인수, 성제원을 중심으로 훌륭한 조상의 삶을 되짚었다. 이로써 그가 모범으로 삼은 인물이 어떠한가를 자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으로는 김수항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과 「고산구곡가」를 짓고 『주자대전차의』를 편집하고 교정하는 일을 부탁했던 떠올리고 『소학』 「경신」과 『격몽요결』 「지신」을 강조했다. 문인들과의 교류는 학습공동체적 측면에서, 『소학』 「경신」과 『격몽요결』 「지신」을 강조했던 일은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송시열이 제주를 떠나 사사될 때까지 지은 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시간순 제주를 떠난 후 저작

날짜	종류	제목	출처
5.28.	시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389) 『宋子大全』 제182권, 「文谷金公墓誌銘(并序)」, “余嘗妄編大全筭疑而就正焉 則公樂與之證訂刪潤而疵類寡焉 公之所學 據此可見矣 朱子臨寶 授諸生真訣曰 天地之生萬物 聖人之應萬事 直而已矣 翌日又曰 道理只是如此 但當堅固刻苦 此豈非孔孟人生直 以直養之正法耶 公之一生言行 無所屈曲回互者 其有得於此耶 其有得於此歟 銘曰 死有惡時 亦有榮時 嗟公之時 吾不敢知之.”

5.28.	소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송자대전』 제20권
6.2.	편지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자대전』 제113권
6.3.	시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6.3.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6.3.	전기	「삼현려기」	『송자대전』 제145권
6.3.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6.5.	편지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송자대전』 제128권
6.7.	소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	『송자대전』 제20권

5월 28일 해남과 6월 3일 장성에서 쓴 글이 대부분이다. 특히 6월 3일은 노령과 여독 때문에 곡기를 끊은 지 오래되었으나 계지술사(繼志述事)하기 위해 손님을 받고 글을 남겼다.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에서 주자를 학문의 중심에 두고,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에서는 효종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주자가 세운 성리학과 효종이 부르짖었던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라는 정치적이념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깊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와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가 모두 차운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는 소옹과 주자를 박중회가 이해하였다고 칭찬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 학자 사이의 협업을 강조한 점도 의의가 있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 독서와 곧음[直]을 강조하고,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에서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에서 『가례』와 『격몽요결』을,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 『소학』 「경신」과 『격몽요결』 「지신」을 강조했던 부분이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삼현려기」를 통해 자손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준 일은 가정교육적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VI. 송시열 저술활동의 교육적 의의

송시열의 문인은 1,000여명에 이른다.³⁹⁰⁾ 그가 끼친 교육적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수치다. 따라서 그의 저술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가정교육 및 학습공동체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교육철학

교육철학은 교육의 개념·목적 등에 관한 원리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³⁹¹⁾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찾는 과정을 담당하는 영역인 것이다. 합당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근거는 또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송시열이 교육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저술활동에서 찾는다면 학문적,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목적을 분석하기 전에 교육목적의 바탕이 되는 교육이념을 먼저 살펴보겠다.

1) 교육이념

교육이념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관념³⁹²⁾으로 교육목적을 구체화하는 데 기본 바탕이 된다. 송시열은 교육이념으로 삼을 만한 가치로 곧음[直]을 강조하였다. 조문석사(朝聞夕死)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조선의 핵심가치인 오륜을 담은 글도 여럿 지었다.

390) 이연숙(2002), p.83.

391) 『두산백과(term.naver.com)』, 교육철학; 2017.12.24. 인출

392) 『두산백과(term.naver.com)』, 교육이념; 2017.12.24. 인출

<표 10> 교육이념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편지	「정혼원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15권
2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3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4	편지	「민사정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02권
5	잡저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자대전』 제136권
6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7	축문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8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송시열이 곧음을 강조한 이유는 주자가 곧음을 통해 존재론과 가치론을 연결함으로써 그의 사상에 있어 핵심적 자리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상적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곧음을 강조한 내용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정혼원에게 답함」에서는 주자가 곧음을 문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일을 적었다.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는 공자, 맹자와 주자 모두 강조한 것이 곧음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민사정에게 답함(기사년 4월)」에서는 주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만 길이나 되는 절벽처럼 우뚝 서 있겠다[壁立萬仞]고 다짐했던 고사를 전했다.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곧음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옳은 것을 성실히 구하고 그른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곧음을 기르는 방법이자 학문을 하는 요점으로 유가의 공부론과 수양론이 만나는 접점이다. 그러나 글을 읽어서 이치를 관찰해야 끝지 못한 것을 끝게 여기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는 주자가 음양, 의리(義利), 백혹을 판단하는 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곧음으로 아성의 지위에 오르고 만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송시열은 아버지에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평생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제주로 오는 배 안에서 조문석사를 떠올리며 주자를 배웠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을 썼다.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는 조문석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에서는 아버지가 정묘호란을 겪는 중에도 그에게 편지를 보내 조문석사를 일깨우며 학업을 게을리 하지 말라 하였던 일을 떠올렸다.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조문석사의 자세로 살았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탄식했다.

송시열은 오류도 강조했다. 그가 남긴 거의 모든 글이 오류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니다. 공자의 인을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사단³⁹³⁾과 오류³⁹⁴⁾으로 이었는데 오류는 우리나라에서 유교가 관학으로 정립된 조선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장려된다. 1431년(세종14)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간행되고, 1518년(중종13)에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가 간행되며, 1797년(정조21)에 이르러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로 확립되었다.³⁹⁵⁾ 박세무는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동몽선습』을 썼는데 오류를 출발점으로 삼았다.³⁹⁶⁾ 1666년에 김수항은 현종에게 원자 교육을 위해 진강할 책으로 『동몽선습』을 추천했다.³⁹⁷⁾ 송시열은 1670년에 「동몽선습 발문」³⁹⁸⁾을 썼고, 1671년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겸하기도 했다. 이처럼 송시열은 오류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었고, 수양론을 통해 오류를 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자연스럽게 그의 저작에도 그런 삶의 자세가 배었다.

위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구현된 이상적 인간형은 이치를 궁구하고 심성을 존

393) 『孟子』, 「公孫丑」,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394) 『孟子』, 「滕文公」, “后稷 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 熟而民人 育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 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3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오류행실도 '2017.10.30. 인출.

396) 박세무 외(2012), 조기영, 『동몽선습 외』, 지식을만드는지식, p.154.

397) 『顯宗實錄』, 「현종 7년 병오(1666, 강희 5) 3월25일 (을사)」.

398) 『宋子大全』 제146권, 「童蒙先習跋」, “孟子曰 讀其書誦其詩 不知其人可乎 余幼時 見人家子弟初學者 無不以是書爲先 而第不知出於何人之手矣 今朴上舍廷儀氏來謂余曰 此吾高祖諱世茂之所編也 余不覺驚喜曰 今日始知其人矣 公爲明廟朝名臣 其學問有淵源 而門路亦甚正 觀於此編則可知矣 其該括約說 無非學問中體認一大公案 而所序歷代 又史家之總目也 或疑編內所輯理氣性命等說 非童學所能知 此則不知作者本意所在也 朱子嘗論仁說曰 此等名義 古人之教 自小學之時 已有白直分明訓說 得知此道理 不可不著實踐履 所以實造其地位也 若茫然理會不得 則其所以求之者 乃其平生所不識之物 復何所向望慕愛而知所以用其力耶 今之童學 略識諸般名義界限 終有所歸宿者 必於此書而得之 其功豈不大哉 竊聞今上殿下每臨筵 喜說此書 睿學之明 其必有以識此矣 公字景蕃 咸陽人 登第始爲翰林 官止監正 蘇齋盧相公守慎以嘗著此書 訓其子弟 載公墓碣云 崇禎紀元之商橫閭茂陽月日 恩津宋時烈謹跋.”

양하여 이를 몸으로 실천해서 확충시키는 존재로서 모든 일을 공경[敬]으로 임한다. 송시열은 주자 학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 적었다.

2)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

송시열은 공자와 맹자를 이어 주자를 중심으로 한 송대 성리학자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학문적 측면에서 교육목적으로 두었다. 아래는 송시열의 저작 가운데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과 관련된 글을 모은 것이다.

<표 11>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시	「탐라로 가는 배에서」	『송자대전』 제2권
2	시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송자대전』 제2권
3	시	「부질없이 읊다」	『송자대전』 제2권
4	시	「무제」	『송자대전』 제4권
5	시	「반궁의 요리 앞에 이르러」	『송자대전부록』 제11권
6	시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7	편지	「박화숙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68권
8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9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10	편지	「민사정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02권
11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12	축문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13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14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탐라로 가는 배에서」에는 정이가 염역을 건널 때 파도가 심한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고사를 실었고,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에서는 주자와 이이를 이었다고 밝혔다. 「부질없이 읊다」에서는 이이와 성혼이 문묘에서 출향된 일을 주자를 배척했던 경원 당금에 빗대고 김수항의 죽음을 슬퍼했으며, 「무제」에서 정자와 주자의 학문이 비판당하고 김수항이 사사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반궁의 요리 앞에 이르러」에서는 양현 출향을 공자상이 파괴됐던 일에 빗댔다. 「요부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에서는 끊어졌던 공맹의 도를 주자가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박화숙에게 보냄(기사년 5월 16일)」에서는 효종이 공맹의 정통을 받은 이가 주자고 주자에 정통한 이로 송시열을 인정한 일을 담았고, 윤휴와 윤선거가 공자와 주자를 비판한 일을 두고 맹자가 양자와 묵자를 비판한 것처럼 자신도 윤휴와 윤선거를 비판한다고 적었다.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에서는 김익희가 송시열에게 이황을 배우지 않고 주자를 배운 점을 비판하자 제주로 오는 배위에서도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오갔던 편지를 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 맹자, 주자 모두 곧음[直]을 강조했던 일과 김상헌과 『태극도설』을 놓고 토론했던 일도 적었다. 또한 한유와 장식의 고사를 인용했고, 장자와 육구연을 비판했으나 증점은 높이 평가했다. 「민사정에게 답함」에서는 윤휴, 윤선거, 윤증을 비판하고 자신은 양현을 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경원 당금 사건을 거론하며 호평과 경당을 비판하고 주자와 정이를 옹호하였다.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는 주자가 곧음을 철저하게 실천하였기에 아성(亞聖)에 이르렀고 자사, 맹자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며, 양현 출향을 주장하고 명성왕후를 반대한 윤휴와 윤선거를 비판하였다. 경원 당금에 주자와 함께 화를 입은 조여우, 여조검, 채원정과 자신을 같은 처지로 받아들였다.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에서는 요, 순, 우를 집대성한 공자와 주돈이, 정호, 정이 및 장재를 아우른 주자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이와 김장생이었다고 주장하고, 윤휴, 윤선거, 윤증이 이이를 비난한다고 비판하였다.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에서는 아버지 송갑조가 공자, 주자, 이이, 조광조, 김시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과 스승 김장생이 주자와 이이를 중심으로 삼았던 일을 되새겼다. 그리고 윤휴가 양현을 출향시키고 공자와 주자를 무함했던 일을 비판했다.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는 김수항이 이이와 성혼을 기리고 할아버지 김상헌의 뜻에 따라 『소학』과 『격몽요결』을 공부한 일을 긍정했고, 윤휴가 이황, 이이, 성혼과 주자, 공자까지도 비난한 일을 거론하며 자신과 김수항이 겪는 고초를 주자와, 유지, 양도, 여조검, 채원정이 겪은 일에 비꼴다.

송시열은 요, 순, 우를 거쳐 유가를 세운 공자와 증점, 자사를 거쳐 유가를 발전시킨 맹자, 그리고 한유, 소옹,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를 이어 장식, 조여우, 여조검, 채원정과 함께 유가의 부흥을 이끈 주자를 도통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이, 성혼, 김장생을 축으로 김시습, 조광조, 이황, 김상헌을 긍정하

였다. 그러나 맹자가 양자와 목자를 비판하고, 주자가 장자와 육구연을 비판했던 것처럼 송시열은 윤휴, 윤선거와 윤증을 비판하였다. 결국 송시열은 성리학을 확립한 주자를 중심에 둔 학파를 받아들이고 이와 다른 입장에 서거나 반대하는 이들은 비판하였다 하겠다. 그가 평소 남녀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온화한 태도로 모든 이를 대했으나 주자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엄격했던 것은 주자의 성리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에게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은 주자에 대한 철저한 존송을 바탕으로 성리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

송시열은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를 기치로 효종에게 충성하는 것을 정치적 측면에서 교육목적으로 두었다. 그는 선조 때 태어나 인조 때 벼슬을 시작하여 효종, 현종을 거쳐 숙종까지 섬겼으나 정치적 입장은 효종과 함께 하였다. 아래는 송시열의 저작 가운데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과 관련된 글을 모은 것이다.

<표 12>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시	「탐라 도중에서 외제, 헌석에게 보내다」	『송자대전』 제2권
2	시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3	시	「암각시문」	양순필(1992)
4	시	「오월 사일」	『송자대전』 제2권
5	소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송자대전』 제20권
6	소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	『송자대전』 제20권
7	소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송자대전』 제20권
8	소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	『송자대전』 제20권
9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10	잡저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	『송자대전』 제136권
11	서문	「화포집서」	『송자대전』 제139권
12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곽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13	전기	「임장군경업전」	『송자대전』 제213권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에서는 제주로 오는 도중에 효종 생각하며 울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사활을 걸었던 것이 주자와 울곡을 계승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임금이나 백정보다도 도통을 중시했다는 것은 그가 사회의 핵심을 사대부에 두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에는 효종과 북벌을 꿈꾸었지만 갑작스럽게 효종이 세상을 뜨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담았다. 「암각시문」에서는 효종이 담비갓옷을 하사했던 일을 떠올렸다. 효종은 문약에 빠진 사대부를 일깨워 북벌을 추진하고자 송시열에게 갓옷을 선사했다. 「오월 사일」은 효종의 휘일을 맞아 그리움을 담았다.

송시열은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에서 효종과의 기해독대와 수찰, 명성왕후의 언찰을 거론했다. 특히 편지로 논의했던 북벌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적었다. 그는 기해독대를 송 효종과 장식 사이의 악대에 빚었다. 북벌을 통한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를 기치로 삼은 것이다.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올리는 소」에서는 효종의 수찰과 명성왕후의 언찰을 가지고 바다 건너 유배지까지 가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임금에게 올리겠다고 하였다. 그는 수찰이 배도의 옥대보다 가치 있다고 하였는데 효종에게 받은 담비갓옷을 올리겠다는 뜻은 적지 않아 수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에서 효종의 북벌정책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기리기 위해 효묘 세실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에서는 명성왕후와 효종의 편지를 올리겠다는 말과 함께 효종의 휘일은 빠짐없이 기렸던 일도 적었다.

송시열은 권상하에게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을 보내 신종 만력제와 의종 승정제를 기리기 위해 만동묘를 지으라고 권했다. 만동묘는 존주대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는 이미 승정제가 쓴 ‘비례부동’ 글씨를 구해 화양동 바위에 새겼고 김수항은 이 일을 기려 시를 지은 적이 있다. 「기사년 5월 4일 효묘의 휘신에 자서한 글」에서는 배소 상황이 열악하여 효종의 수찰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다른 곳에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과 효묘 세실 문제를 거론한다. 「화포집서」는 복수설치를 부르짖었던 홍익한의 뜻이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적었다.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껍씨의 묘에 고한 글」에서는 효종과 뜻을

함께 했으나 갑자기 승하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아쉬워하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의 정통 복원을 위해 애썼던 일을 적었다. 『임장군경업전』에서는 존주대의와 복수설치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임경업의 일대기를 쓰면서 삼학사의 뜻도 기렸다.

2.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을 조직한 것이다.³⁹⁹⁾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순서와 내용은 중요한 과제다. 송시열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글을 여러 편 써서 자손과 문인들에게 보냈다. 아래는 그가 남긴 글 가운데 교육과정과 관련이 깊은 저작을 모은 것이다.

<표 13> 교육과정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2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자대전』 제89권
3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4	편지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자대전』 제113권
5	편지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송자대전』 제128권
6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7	서문	「주자대전차의서」	『송자대전』 제139권
8	서문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송자대전』 제139권
9	축문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괘씨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10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399) 『두산백과(term.naver.com)』, 교육과정 ; 2017.12.24. 인출

송시열은 제주로 오는 배에서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 오갔던 편지를 읽었던 일을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에 적었다. 그는 주자와 이이의 학문을 잇는 것을 학문적 입장으로 삼았으나 이황의 사상도 받아들일 부분을 수용하여 이황과 이이를 종합하려고 애썼다.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도 『퇴계집』을 보며 지은 책을 권상하에게 감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자대전』, 『주자어록』에 더해 『주자실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는 『주자대전차의』와 『정서분류』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정서』 사역(寫役) 작업을 칭찬하였다. 또한 주자가 『대학』에 제시된 공부법의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을 강조하며 격물치지를 건너뛰고 성의정심에 매달렸던 육구연을 비판하였다. 수기마저 지나치고 제가, 치국, 평천하로 넘어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에서는 맹자와 공손추가 지언(知言)과 양기(養氣)를 가지고 문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격치(格致), 정성(正誠), 명명덕어천하(明明德於天下)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맹분, 고자, 맹시사, 복궁유, 중자, 자양을 거론하다 안자, 민자, 이윤, 백이를 거쳐 공자에 이른 것을 따라 공부도 거친 데[麤]에서 정밀한 곳[精]을 거쳐 가장 정밀한 곳[至精]으로, 작은 것[小]에서 큰 것[大]을 거쳐 가장 큰 것[至大]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에서는 장손에게 『가례』와 『격몽요결』을 권했다.

장손에게 남긴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 송시열은 『대학』에 따라 격물, 치지를 먼저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황이 『주자서절요』와 『주자서절요기의』, 정경세가 『주문작해』를 펴냈으나 『주자대전』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미진한 데가 있어 『주자대전차의』를 펴냈다. 주자가 『논어집주』, 『맹자집주』, 『논맹정의』 및 『논맹혹문』을 지었는데 송시열은 모두를 종합하여 『논맹혹문정의통고』를 지었다. 『주자대전차의』와 『논맹혹문정의통고』는 교육과정의 결정체인 조선의 교과서와 다름없다. 그는 「황고 수옹 선생과 황비 정경부인 광씨의 묘에 고한 글」에서 아버지가 『격몽요결』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기묘록」과 「해동야언」을 통해서 조광조를 배우고 김시습도 잊지 말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는 김상헌이 『소학』과 『격몽요결』을 강조했던 일을 적었다.

3. 교육방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더라도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교육방법은 중요하다. 유가의 학습법은 공자의 공부론에서 비롯하여 맹자의 사단과 양기론을 거쳐 송대 성리학에 이르러 격물치지와 거경공리로 완성된다.⁴⁰⁰⁾ 따라서 송시열의 교육방법도 격물치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론과 거경공리를 축으로 하는 수양론으로 분석할 수 있다. 송시열은 공부론과 수양론으로 양분되는 유가의 학습법에 따라 각각에 알맞은 교육방법으로 공부론에서는 독서와 토론, 수양론에서는 끝음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독서와 끝음은 공부론과 수양론을 관통하는 방법도 된다. 아래 표는 교육방법과 관련된 그의 저작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교육방법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소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송자대전』 제20권
2	편지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113권
3	편지	「아들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5권
4	편지	「무원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8권
5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6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자대전』 제89권
7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8	편지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자대전』 제113권
9	잡저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자대전』 제136권
10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11	축문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송자대전』 제151권
12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1) 공부론

현대에 와서 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학습법이 소개되고는 있으나 전통적인 학습법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도 효과성이 인정되어 널리 받아

400) 정학섭(2010), 「유가사상 공부론과 수양론의 탐색」, 『동양사회사상』 21, p.231.

들이는 방법이 바로 독서와 토론이다. 송시열은 공부방법으로 독서와 토론을 중시하였다. 독서는 여러 글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였고, 토론은 그의 삶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성의정심 앞에 격물치지를 두었는데 격물치지의 방법으로 독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책은 유학의 경서이므로 선현의 책을 읽어 사람 사는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기 전에 지언(知言), 즉 궁리(窮理)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원에게 부침」에서는 매일 공부하고 방과(放過)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는 방심(放心)을 피하는 방법을 독서라고 주장했는데 독서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점에서 독서는 공부법인 동시에 수양법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에서는 맹자의 지언(知言)을 통해 이단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으며,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독서를 통해 이치를 파악하지 않으면 곧지 못한 것을 곧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격물치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교육에 있어 토론학습법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는 변증법(dialectics)이나 공자를 위시한 제자백가가 벌였던 치열했던 사상투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대에 이르러 CEDA 토론학습법, 피라미드 토론학습법, 신호등 토론학습법, 터부 토론학습법, 찬반논쟁 토론학습법, 패널 토론학습법,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토론학습법 등 다양한 학습법이 개발되었지만⁴⁰¹⁾ 타자의 존재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적 성격과 기존 지식을 답습하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을 계발한다는 근본정신은 달라지지 않았다. 송시열은 글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 이름 높다. 글은 기본적으로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자와 독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상호적이자 민주적이다. 비록 그가 봉당정치의 한복판에 있었기에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입장을 취할 때도 많았으나 토론을 바탕으로 학문적 교류도 적지 않았다. 편지와 소는 분명하게 독자를 위해 쓰는 글이고 그가 썼던 시 가운데 차운시가 많았던 점은 그가 소통을 중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에서는 효종과 독대했던 일과 현종과 서연을 열었던 일을 적었다. 두 가지 모두 토론을 기본으로 한다.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401) 황연성(2011), 『신나는 디베이트』, 이비컴, p.22.

7일)」에서는 만덕사에서 박광일, 박중희 등과 함께 호연지기를 놓고 토론을 벌였던 일을 적었다. 그리고 권상하와 『태극도설』을 논하며 ‘선현의 글은 뒷사람이 감히 한 글자도 고치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선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 수양론

송시열은 곧음을 수양론의 주요 방법이자 존재론과 인간론을 관통하는 핵심적 가치로서 공부론과 수양론을 관통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곧음은 공자와 주자 모두 강조했고 맹자의 호연지기도 곧음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에서 수양론의 궁극 목표는 맹자의 호연지기와 부동심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았고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에서는 맹자의 지지(持志), 양기(養氣), 집의(集義), 정조(正助)를 통해 사단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주자의 말을 빌어 학문의 핵심은 무슨 일이든지 그 옳은 것을 성실히 구하고 그른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문을 통해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고 모든 일에 사곡(私曲)스러운 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는 사람에게는 음양(陰陽), 일에는 의이(義利), 물건에는 백흑(白黑)이 있는데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여 쉬이 음, 이, 흑으로 빠지므로 항상 경계하여 양, 의, 백을 구하라고 권했다.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는 진정한 대영웅은 깊은 못에 있거나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항상 전전긍긍한다는 주자의 말을 빌어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기르라고 하면서 곧음이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고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기준이니 늘 곧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공부론과 수양론의 통합

송시열은 공부론과 수양론을 별개로 보지 않았고 둘을 통합할 때라야 진정한 인간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을 통해 지성과 인성을 통합적으로 계발했을 때라야 바람직한 인간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 『맹자』를 빌어 도성선(道性善)과 구방심(求放心)을

통해 마음을 수렴하고 집중하여 극기구인(克己求仁)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극기구인은 치지(致知)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널리 배우되 뜻을 독실히 하고 간절히 묻되 생각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도 『맹자』의 도성선(道性善)과 구방심(求放心)을 거론하며 곧음이야말로 공자, 주자 모두 강조했던 것으로 곧음을 통해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아들에게 부침」에서 아들에게 기품이 뛰어나나 과단성이 없다고 평하고 다른 이를 비판할 때에는 곧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는 주자의 학문이 이치를 궁구하고 심성을 존양하여 이를 몸으로 실천하고 확충시키되 공경[敬]을 시종을 관통하는 축으로 한다고 하면서 곧음이 공자, 맹자, 주자 모두 강조했던 가치니 잘 기르라고 하였다.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에서는 주자를 박문약례(博文約禮)와 공부역행(工夫力行)을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로 평가했다. 박문은 인식적 영역을 격물치지를 통해 도문학(道問學)하는 것이고, 약례는 실천적 영역에서 성의, 정심, 수신을 통해 존덕성(尊德性)하는 것이다. 공부와 역행, 지성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다.

4. 가정교육

송시열은 가정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제주까지 따라온 손자와 시를 주고 받기도 하고 향교에서 빌려온 책을 같이 읽기도 하였다. 또 고향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자손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도 하고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손자와 증손 교육에도 힘써 격대교육적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아래는 가정교육과 관련된 글을 모은 것이다.

<표 15> 가정교육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편지	「아들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5권
2	편지	「은석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6권

3	편지	「무원에게 부침」	『송자대전』 제128권
4	편지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송자대전』 제128권
5	잡저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	『송자대전』 제136권
6	잡저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송자대전』 제134권
7	전기	「삼현려기」	『송자대전』 제145권

「아들에게 부침」에서는 아들 기태에게 선조 묘와 사당을 보존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당부하고 자녀교육에도 신경을 쓰라고 권했다. 기품이 뛰어나나 과단성이 없는 성격을 안타까워하며 어렵더라도 법도에 따라 가정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맏손자에게도 「은석에게 부침」을 보내 농사일을 잘 살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비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손자에게는 「무원에게 부침」을 보내 몸을 돌보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무원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주자의 고향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고, 김상헌이 송시열에게 주자를 계승하였다고 칭찬하는 시를 지어준 일도 있었다고 전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매일 공부하라고 권했다. 송시열은 장손에게도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을 보내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만덕사까지 따라와 자신을 배웅한 외손에게는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을 전하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도록 애쓰라고 권했다.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를 적어 모든 자손에게 유념할 바도 남겼다. 사람이 편안한 것을 좋아하다보면 음, 이(利), 흑에 빠지기 쉬우므로 항상 경계하고, 훌륭한 조상을 본받아 이치를 궁구하고 심성을 존양하며 몸으로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삼현려기」도 지어 훌륭한 삶을 살았던 조상인 삼현려, 송귀수, 송인수 및 성제원에 더해 김근공, 송방조, 송갑조, 송시열의 삶을 기리면서 후손들이 잘 본받고 살기를 바랐다.

송시열은 가정교육에 극진한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이기주의적 측면도 없지 않다. 그는 맏손자 은석에게 보낸 편지인 「은석에게 부침」에서 자신의 증손이자 은석의 조카가 되는 무원의 재산을 잘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의 아버지가 곤궁했고 그 또한 벼슬한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증손에게까지 땅을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5. 학습공동체

송시열은 김장생, 김집, 김상헌 등 훌륭한 스승에게 배웠고,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고 교육에 힘써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대에는 고독한 천재보다는 협업을 통한 집단 지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당연히 교육에 있어서도 독학보다는 학습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송시열이 보여준 문인들과의 교류를 일러주는 바가 크다. 특히 제주유배기에는 학문적 과업을 완수하고자 권상하를 중심으로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래는 학습공동체와 관련된 저작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학습공동체 관련 저작

번호	종류	제목	출처
1	시	「탐라 도중에서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송자대전』 제2권
2	시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3	시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4	시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송자대전』 제2권
5	시	「부질없이 읊다」	『송자대전』 제2권
6	시	「치도를 생각하다」	『송자대전』 제2권
7	시	「무제」	『송자대전』 제4권
8	시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	『송자대전』 제2권
9	편지	「송도원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70권
10	편지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113권
11	편지	「정훈원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15권
12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3월 7일)」	『송자대전』 제89권
13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	『송자대전』 제89권
14	편지	「권치도에게 보냄」	『송자대전』 제89권
15	편지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	『송자대전』 제89권
16	편지	「민사정에게 답함」	『송자대전』 제102권
17	편지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	『송자대전』 제113권
18	서문	「주자대전차의서」	『송자대전』 제139권
19	서문	「논맹혹문정의통고서」	『송자대전』 제139권
20	묘지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	『송자대전』 제182권

송시열은 제주로 오는 동안 「탐라 도중에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를 지어 이단 하와 박세채에게 보내 자신의 입장을 알렸고,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와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는 만덕사로 찾아온 박광일과 안여해와 토론을 나누며 지었다. 정치적 동지이자 아끼던 문인이었던 김수항을 보내면서 「주석의 운에 차하여 옥주를 통곡하다」, 「부질없이 읊다」 및 「무제」를 지었고, 유배지에서 지내는 쓸쓸한 마음을 「치도를 생각하다」에 담았으며, 육지로 나온 송시열을 다시 찾은 박중회를 만나 「요부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를 지었다.

송규렴에게 「송도원에게 보냄」을 통해 송상민을 위해 정문(旌門)을 세워달라고 부탁했고, 만덕사에서 토론을 나눴던 박광일과 박중회에게는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으로 미진했던 『맹자』 호연지기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전했으며, 정이에게는 「정혼원에게 답함」을 보내 끝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상하에게는 「권치도에게 보냄(기사 3월 7일)」을 통해 『주자대전차의』를 정리할 때 김창협과 함께 한다면 좋겠다고 하였고,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는 40여 년을 애쓴 끝에 이선의 도움으로 구한 『논맹정의』를 『논맹혹문』과 대조하고 보충하여 『논맹혹문정의통고』를 완성한 다음 김창협, 이희조, 이기홍, 최방언과 함께 살펴달라고 부탁했으며, 「권치도에게 보냄」에서는 주돈이의 『태극도설』 가운데 중정인의설을 놓고 주자와 장식이 나눴던 토론을 해석하는 과정에 자신의 과오를 발견하고 권상하의 의견을 물었고,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는 『주자대전차의』, 『정서분류(程書分類)』, 『어류분편(語類分編)』, 『율곡별집』 등을 김창협, 이희조, 이기홍, 최방언과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부탁했으며 민정중이 구해온 ‘비례부동’이란 송 의종의 글씨를 이선이 돌에 새기고 김수항이 「우암을 위해 「제한장암」이라는 시를 지어 부치다」로 기렸으니 만동묘를 지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민진강에게는 「민사정에게 답함(기사년 4월)」으로 양현이 출향되었으나 자신의 입장은 바꿀 수 없다는 결의를 전했고, 박광일에게는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을 보내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호연지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송시열은 「주자대전차의서」에서 이황의 『주자서절요』와 정경세의 『주문작해』를 종합하여 『주자대전차의』를 짓고 나서 김수항에게 감정을 부탁했고, 그 과정

에서 김수중과 김수홍의 견해도 참고했으며 권상하와 김창협에게 마무리를 당부하였다. 「논맹혹문정의통고서」에서는 『논맹혹문정의통고』를 짓는데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후학들이 잘 활용하기를 바랐으며,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는 『주자대전차의』를 교정하면서 애를 많이 쓴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송시열은 토론과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공동체를 강조하였으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학설을 정교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편견을 극복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당파성에 빠져버리는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VII.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1. 굴림서원과 제주 오현 배향

제주유배 기간이 111일에 불과했던 송시열의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예는 굴림서원(橋林書院)에 제주 오현의 한사람으로 배향된 사실이다. 송시열의 내도 자체가 제주유림에는 교육적 충격이었으며 큰 자극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갑술옥사(甲戌獄死)(1694)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그가 신원(伸冤)되자마자 서둘러 굴림서원에 향사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굴림서원에 송시열을 합향하고자 청하는 상소는 제주의 유학(幼學) 김성우(金聖雨)가 올렸는데⁴⁰²⁾ 숙종의 재가를 받아 일을 처리했던 것은 도승지 김진구(金鎭龜)다.⁴⁰³⁾ 김진구는 숙종의 제1비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자 김만중의 조카이며 김장생의 현손(玄孫)이다. 김성우 이름으로 소를 올렸다고는 하나 실제로 소를 쓴 사람은 김춘택이다. 결국 아들이 소를 쓰고 아버지가 소를 처리한 셈이다. 더구나 김진구는 숙종의 1689년 제주로 유배되었고 김춘택은 아버지를 제주로 오기도 하였다. 제주로 가는 김춘택을 만난 송상기가 그에게 지어준 시가 남아있다.

너는 제주로 가고
나는 석실서 왔네
산 넘고 바다 건넌다 말하지 마라
그래도 저승에 있음보단 나으리
세상사 한없이 변해가니
인정도 더욱더 슬퍼진다
갈림길에서 한 잔 술 마시며
이별의 한 못 견뎌 하노라⁴⁰⁴⁾

402) 『肅宗實錄』 제28권, 「숙종 21년 2월 11일 계묘」.

403) 『書院謄錄』, 「숙종 21년 6월 19일」.

404) 『玉吾齋集』, 「成歡驛 逢金伯雨濟州省觀之行 口號書贈」, 「爾向瀛洲去 吾辭石室來 休言經嶺海

송상기의 아버지는 송시열, 송준길과 함께 삼송으로 불리던 송규렴이고, 어머니는 김상헌의 손녀다. 그래서 송상기와 김춘택은 외종형제가 된다. 김진구는 김석주와 함께 무고한 옥사를 선동하였다는 죄로 1689년 6월 21일에 제주로 유배에 처해진다.⁴⁰⁵⁾ 송시열이 제주를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후에 제주로 온 것이다. 1694년 4월 1일에 해배되자마자⁴⁰⁶⁾ 호조참판으로 제수된다.⁴⁰⁷⁾ 김춘택도 세자를 모해했다는 혐의로 제주로 1706년 4월 2일에 유배되어⁴⁰⁸⁾ 1712년 5월 13일까지 지냈다.⁴⁰⁹⁾ 그러므로 송시열의 서원 배향은 김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가 제주로 유배 왔을 때 김춘택은 아버지를 보필하려고 제주로 왔다. 그때 제주 유생 김성우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관계는 사제관계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유배인과 제주 사람들 사이에 교육적 관계가 실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 송시열의 증손 무원은 김진구의 사위이기도 하다.⁴¹⁰⁾

송시열은 1695년 8월 28일에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는데 목사(牧使) 이익태(李益泰), 판관(判官) 노삼석(盧三錫) 및 교수(教授) 정희량(鄭希良)이 제주의 많은 선비들과 함께 서원에 봉안하고 제사를 행했다.⁴¹¹⁾ 굴림서원은 1578년(선조 11년)에 조인후(趙仁後) 판관이 1521년(중종 16년)에 기묘사화로 유배와 사사(賜死)된 김정의 묘를 위로하기 위하여 묘(廟)를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⁴¹²⁾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당대의 명문장가인 임제(林悌)가 절도사인 부친을 뵈고자 내도하였다가 조인후의 부탁으로 기(記)를 썼고,⁴¹³⁾ 1659년(효종 10년)에 이회(李檜) 목사가 제주유림 김진용(金晉鎔)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수당(藏修堂)을 건립하자⁴¹⁴⁾ 1665년(현종 6년)에 최진남(崔鎭南) 판관이 김정의 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이를 사(祠)로 하고 장수당을 재(齋)로 하여 굴림서원이라 현액(懸額)하였다.⁴¹⁵⁾

猶勝隔泉臺 世事看逾變 人情覺轉哀 臨歧一杯酒 離恨兩難裁.”

405) 『肅宗實錄』 제21권, 「숙종 15년 6월 21일 병술」.

406) 『肅宗實錄』 제26권, 「숙종 20년 4월 1일 무진」.

407) 『肅宗實錄』 제26권, 「숙종 20년 4월 3일 경오」.

408) 『肅宗實錄』 제43권, 「숙종 32년 4월 2일 기축」.

409) 『肅宗實錄補闕正誤』 제51권, 「숙종 38년 5월 13일 을미」.

410) 『肅宗實錄』 제43권, 「숙종 32년 4월 2일 기축」.

411) 『書院謄錄』, 「숙종 21년 10월 초6일」.

412)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十一年 春 判官趙仁後 建沖庵廟于嘉樂川東.”

413) 林悌, 『南溟小乘』, “金先生祠宇成 趙侯屬余記之.”; 李元鎮, 『耽羅志』, 詞廟條.

414) 金錫翼, 前揭書, “牧使李建藏修堂 是因金晉鎔議 遂建學堂于南城內 高得宗舊基 扁藏修 倅興學事.”

굴림서원에는 김정, 김상헌, 정은, 송인수 그리고 송시열 이렇게 5명의 유현이 배향되었다. 김정이 1578년에 처음 배향되고 1695년에 끝으로 송시열이 배향된 것을 보면 그 기간이 대략 백여 년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 제주 유생 양응도(梁應渡)가 소를 올려 굴림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도록 하였다.⁴¹⁵⁾ 배향을 통해 제주인들의 교육적 의욕과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적 활동을 조정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분명히 교육지도성의 모범이다.

한국교육사의 서술 과정에 있어서 ‘오현(五賢)’이란 단지 다섯 명의 사상가를 거론하는 산술적 의미만을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식내용으로서 한국교육사의 의미와 깊은 관련을 맺는 중요한 교육학적 개념이다. 일찍이 한국 성리학의 도통(道統) 계보 형성에 있어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을 이른바 오현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 김굉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학(道學) 연원(淵源) 확정 작업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상의 정당한 계보(系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이가 창도한 율곡학과(栗谷學派)에서는 따로 그들의 오현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이는 특정 사상가의 주관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었고 그의 주관과 어우러져 성립된 당대의 지성 풍토, 규범 체계, 생활 관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조망해 보려는 노력으로서 넓게는 영남학과(嶺南學派)와 기호학과(畿湖學派) 간의 사상적 갈등을 의미하는 사례이기도 했다.

이렇게 오현의 계보 설정이란 곧 문묘 종사의 갈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묘 종사의 심각성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문묘종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유롭게 모시고 싶은 유현들을 모셔 놓고 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백 명에 달하는 유현들이 전국 각처의 서원들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이른바 굴림서원에 배향된 ‘제주 오현’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제주 오현은 그 기원이 도통의 확립을 둘러싼 치열한 이념 논쟁에서 결과된 것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제주 지방 자체의 자의적 수준에 의해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목민관이나 유배 등의 이유로 입도(入島)하여

415) 金錫翼, 上揭書, “顯宗 六年 判官崔鎮南 移建沖庵廟于藏修堂南 揭額橘林書院.”

416) 『書院謄錄』, 「숙종 8년 6월 21일」.

제주와 관계를 맺은 유현들 가운데서 오현이 선정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한 상호 설명력을 구성할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도의 교학질서를 해명하는 방향을 암시한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인(李瑱)이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조부인 이약동(李約東)을 의논도 하지 않고 삼현 위에 위패를 모시자 1675년(숙종 1) 부호군 이선(李選)이 어사로 순무하다가 제주의 폐막(弊瘼) 40조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이약동의 위패를 철거하라는 어명이 내려져 제주 오현에서 빠지게 되었던 예도 있다.⁴¹⁷⁾ 그런가 하면 송인수의 배향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그는 김안로를 비판하다 도리어 탄핵당해 1534년 제주목사로 좌천되었으나 병을 칭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최익현이 1875년 3월 25일⁴¹⁸⁾ 굴림서원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제문⁴¹⁹⁾을 지었는데 제주 사람들이 오현을 기리는 이유를 쓰면서도 송인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데에서도 드러난다.

제주 오현 가운데 김정과 정은 그리고 송시열은 유배인으로서, 김상헌은 안무어사로, 송인수는 목사로서 각기 내도하게 된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사회 역사적 위상 속에서도 몇 가지 점에서 상호관련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제주도에 끼친 교육적 영향이란 시혜적 차원의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 교육사상의 정당한 질서인 도통(道統)과의 연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들이 당대를 계승하는 시대정신의 문맥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인 관련성을 찾게 된다.

즉, 김상헌과 송시열은 도통의 핵심세력으로 조선시대 교육사상을 발전적으로 주도하였던 기호계열의 큰 스승(大師)이며 김정이나 송인수, 정은은 영남계열의 학자들과 사제 혹은 종유관계를 통해 성리학의 도통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417) 『肅宗實錄』 제4권, 「숙종 1년 9월 25일 경술」, 「副護軍李選巡撫濟州 歸奏島中弊瘼四十條 有曰 先正臣文簡公金淨 文正公金尙憲 文簡公鄭蘊 或編配或奉使 前後入島 金淨舊有祠 後以金鄭追享 牧使李瑱又以其祖父李約東 不議於士林 置之三賢之上 有辱三賢 莫此爲甚 不當仍置 三臣書院 亦宜宣額 下備局 備局回啓言 賜額事重 有難輕議 李瑱置其祖於三臣之上 不無循私妄作之迹 位版使之撤去 上允之.」

418) 『勉菴集附錄』 제1권, 「年譜」.

419) 『勉菴集』,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

김상헌과 정온이 활동하던 선조(宣祖)대는 명·청 교체의 격변기로 이러한 정세의 급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리학적 도통이 무너지는 것인 만큼 존주(尊周)의 대의(大義)가 절규되었고 그런 명분을 통하여 이협(夷狹)의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의 저항이 척화의 이름으로 강조되었는데 김상헌과 정온이 청의(淸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또한 상호관련을 맺는다.

이들이 굴림서원에 향사된 것도 그들이 병자호란 중의 충신과 의사로서 제주도와 관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헌의 경우는 청의와 문명(文名)이 송시열의 추승으로 후인에게 더욱 널리 알려졌는데 송시열은 평소 김상헌을 대의의 종주(宗主)라 생각하고 서지(書贊)를 올려 사제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굴림서원에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향된 셈이다.

송시열이 굴림서원에 향사되던 숙종 21년은 이조판서 윤지선(尹趾善)이 서원첩설(書院疊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 지방관과 감사의 논죄를 청하자 국왕은 모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방관의 연대책임 하에 서원첩설이 금지되었던 시기로 향사인물 선정 금령이 엄격하던 때였다.⁴²⁰⁾ 이런 와중에 송시열이 향사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클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목사였던 장인식(張寅植)은 후일 굴림서원을 정비하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특히 송시열 배향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그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암선생의 휘는 시열(時烈)이요, 자는 영보(英甫),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선현(先賢)의 학업을 이어받고 후진을 열어주어 크게 사문(斯文)에 공이 있었고,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왕도(王道)를 진작시켜 편벽되고 음란한 행위를 막았으며, 사악한 학설을 그치게 하여 말학(末學) 후생(後生)으로 하여금 그 말을 외우고 그 일을 본받아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랑캐와 금수의 지역을 면하게 한 것은 실로 공(公)이 홍수를 막고 맹수를 몰아낸 데 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이 일찍이 정통(正統)을 높이고 이적(夷狄)을 물리치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은 것도 또한 주부자(朱夫子)의 심법(心法)인 까닭으로, 일찍이 말하기를, ‘주자(朱子)는 공자(孔子) 이후에 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나 또한 말하기를, ‘선생은 주자(朱子) 이후의 한 사람’이라 하겠다. 아, 다섯 선생이 강설(講說)한 바는 주자(周子), 이

420) 『肅宗實錄』, 「숙종 21년 을해(1695) 6월 2일(임진)」, “吏曹判書尹趾善 仍陳書院求請之弊 請禁疊設 左議政柳尙運 又請 如有疊設新建之祠 則地方官及監司論罪之事 定式施行 上皆許之.”

정자(二程子), 주자(朱子) 네 부자(夫子)의 도(道)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그 도학(道學)과 공업(功業)은 사람의 이목에 있는 것이니, 말학(末學)으로서는 감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우리 우암선생은 율곡(栗谷)과 사계(沙溪) 두 선생의 적통(嫡統)으로 전해 오므로써 이미 충암, 규암 제선생(諸先生)의 정맥(正脈)을 이어 받았고, 그 병이(秉彝)와 집중(執中)의 대의(大義)인 즉은 청음, 동계 두 선생의 사적(事跡)에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선배들이 이른바 우암선생은 곧 동유(東儒)가 대성(大成)한 것을 모아놓았다 한 것도 실제로 정확한 논거였다. 숙종 기사(숙종 15년, 1689) 3월에 귀양 와서 겨우 한 달을 지내고 압송되어 가다가 중도에서 후명을 받았으니, 기사(己巳)(숙종 15년, 1689)의 화(禍)를 또한 차마 말할 수 있으랴. 선생은 일찍이 무인(武人)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서생(書生)의 투필(投筆)은 예전에도 있었으나 금일 바라는 바는 옥문관(玉門關) 밖의 일뿐만이 아니라 한 부의 춘추(春秋)를 또한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자(小子)가 여기에 깊이 힘쓰고 마음에 남기어 잊지 아니하였으나 춘추(春秋)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늦게나마 손오(孫吳)의 술(術)을 좋아하였다고 하지마는 현인(賢人)을 사모하는 정성은 여느 사람보다 배나 간절하여, 선생의 유허비각(遺墟碑閣)을 수리하고 서원의 외대문(外大門)과 내신문(內神門)을 창건하여 새롭게 하였다.⁴²¹⁾

굴림서원은 1871년(고종 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원되기까지 근 212년간을 존속되었는데 서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통을 추증하고 한편으로는 철학과 역사의 큰 스승[經史大師]을 흠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교육적 기능으로서 그 가치는 큰 것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421) 張寅植, 「橘林書院廟庭碑記」, “尤庵宋先生 諱時烈字英甫諡文正 繼往開來 大有功於斯文 而闢異端陳王道 距詖謠息邪說 使末學後生 論其言法其事 至今得危於夷狄禽獸之域者 實功可擬於抑洪水驅猛獸 而先生嘗以尊揚爲己任 亦朱夫子心法 故嘗曰 朱子是孔子後一人 余亦曰 先生是朱子後一人也 噫 五先生之所講 不出乎周程朱四夫子之道矣 其道學功業在人耳目 而非末學之所敢知 然惟我尤庵宋先生 以栗谷沙溪二先生之嫡傳 既承冲圭諸先生之正脈 而其所秉執之大義 則於清桐二先生之事 尤有光矣 先輩所謂尤庵先生 卽集東儒之大成云者 信的論也 肅廟己巳三月 入來纔踰月 被逮而去 受後命於中道 己巳之禍 尙忍言哉 先生嘗戒武人曰 書生投筆 古亦有之而今日所望 不但玉門關外事而已 一部春秋亦不可不讀 小子於此 深有所倦倦服膺 粗解春秋之義 故雖晚悅孫吳之術 慕賢之誠則倍切餘人 修治先生遺墟碑閣 創建書院外大門及神門而新之 因伐石而遂立 牲繫于三分一之庭 而刻文其上云 崇禎紀元後 四上章闡茂 四月 日 通政大夫濟州牧使玉山後人 張寅植 述.”

큰스승[大師]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2. 교육사상의 전파와 제주교육

1) 논쟁의 전파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는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이자 송시열의 수제자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다가 제주도에 유배를 왔던 권진웅(權震應)의 증조부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이론적 탐구에 있어 절정인 경우가 두 차례였다. 그 한 경우가 16세기 중엽에 발생한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이기론적 해석의 논쟁이라면 또 한 경우는 18세기 초두에 발생한 ‘인성물성(人性物性)’의 동이문제(同異問題) 논쟁이다. 특히 후자의 논쟁을 일컬어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 하는데 이 호락시비는 이이와 송시열의 학풍을 계승하는 권상하의 문하에서 처음 발단한 것이다.

권상하의 문하에는 소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로 일컬어지던 8명의 학자들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특히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이 가장 널리 알려진 학자로서 이들이 곧 논변을 벌인 주인공이다. 당시 한원진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이간은 서로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견해의 대립을 보였다. 그들의 논쟁은 친구나 제자들에게 미쳐 이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은 두 견해 중 어느 한 편을 지지 동조함으로써 마침내 많은 학자들이 학파적 대립양상을 띠게 되었다. 제주 유배인이었던 권진웅은 바로 한원진의 제자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송시열, 권상하, 한원진, 권진웅으로 이어지는 송시열 교육사상의 전파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유배인 이존중(李存中) 역시 강문팔학사 이간의 제자였다. 그는 1751년(영조 27)에서 1753년까지 제주도 정의현 적소에서 지방유생과 자제들에게 학문과 도덕을 교학하였는데 권진웅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대표적 논쟁인 호락논쟁의 과정을 제주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송시

열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2) 가족의 영향

송주석(宋疇錫)은 송시열의 손자이자 송기태(宋基泰)의 아들이다. 송주석은 송시열을 모시고 제주로 왔다. 유배지에는 송시열의 동생인 송시도(宋時燾), 송시걸(宋時杰)도 동행했다. 송주석은 제주에서는 송시열과 함께 『주자대전』, 『주자어류(朱子語類)』, 『역학계몽(易嬾啓蒙)』, 『강목(綱目)』을 읽었다. 연보⁴²²⁾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송주석은 제주로 올 때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굴림서원에 고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동행했던 가족들을 통해서도 송시열의 영향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다.

권이진(權以鎭)은 송시열의 외손이다. 22세까지는 송시열에게 배웠으나 그 후에는 윤중(尹拯)의 문인이 되었다.⁴²³⁾ 송시열의 문인인 김춘택(金春澤)과도 가까웠다. 그는 1720년 안동부사로 있을 때 송시열이 제주 유배 중에 쓰고, 권상하가 교정한 『논맹혹문정의통고』를 간행하였다. 또한 제주 오현의 한 사람인 정은을 기리는 모리유허비(某里遺墟碑)⁴²⁴⁾ 비문을 쓰기도 하였다. 권이진과 가까웠던 김춘택은 김장생의 후손으로 『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종손(從孫)이다. 기사환국에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김만중은 남해 노도로, 아버지 김진구는 제주로 유배를 왔으며, 김춘택도 제주에서 1701년에서 1712년까지 유배 생활을 하였다. 1708년 순한글 대화체로 『별사미인곡』을 썼고,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겼으며, 『주자시설(朱子是說)』, 『설학강리(設學講理)』 등도 저술했다. 조부인 김만기가 송시열의 문인이었고 김춘택도 노론 일파였다. 1694년 제주도 유생 김성우가 갑술환국으로 송시열이 복권되자 굴림서원에 배향하기를 청하는 소를 올렸는데⁴²⁵⁾, 그 글을 김춘택이 대신 썼다.⁴²⁶⁾

422) 『宋子大全附錄』 제11권.

423) 이종성(2009), 「명재와 유희당의 교유관계 및 사상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동철학』 제48집, 대동철학회, p.75.

424) 『桐溪集續集』 제3권, 「某里遺墟碑」.

425) 『肅宗實錄』, 「숙종 21년 2월 11일 계묘」, “濟州幼學金聖雨等上疏 請以先正臣宋時烈 合享於橘林之祠 上命該曹稟處 橘林祠金淨宋麟壽金尙憲鄭蘊妥靈之所也.”

426) 양진건(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p.77.

3) 제자들의 활동

제주목사였던 이인(李璘)은 동지사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주희의 『논맹정의(論孟精義)』를 구해 1687년 송시열에게 전했다.⁴²⁷⁾ 이 책을 구하려 했으나 40여 년을 기다려야 했던 송시열은 크게 기뻐했다. 이인과 조부 이약동은 모두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청렴했고 이바지한 바가 커서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인의 묘지명을 권상하가 썼을 정도로 송시열의 문인들과도 가까웠고, 묘지명에 송시열의 뜻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⁴²⁸⁾ 이인이 굴림서원에 조부 이약동을 배향하려던 것을 제지했던 이선(李選) 역시 제주순무어사로 송시열의 제자였다. 목사 이인이나 순무어사 이선 등은 송시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제주도에 전파한 경우들이다.

송시열의 제자이자 권상하의 증손인 권진웅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권정성(權定性)의 아들로써 1771년 제주로 유배 와서 대정현 강필발(姜弼發)의 집을 적소로 정하고 그 곳을 ‘창주정사(滄洲精舍)’라 하여 지방유생들을 교학하였다. 원래 창주정사는 주자(朱子)가 죽기 전에 있었던 곳으로 권진웅은 주자의 뜻을 기리려고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창주’는 경치 좋은 은자의 거처를 뜻하므로 권진웅은 제주를 그런 곳으로 여긴 것으로도 보인다. 그는 송시열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기려 1772년(영조 48년)에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를 세웠다. 여기에 송시열의 영향이 드러나 있다.

오호라, 제주의 동쪽 성안 산지골은 송시열선생께서 귀양살이하던 옛터이다. 선생께서는 기사년(숙종 15년, 1689) 3월에 오셔서 달을 넘겨 체포되어 가는 도중 다음의 어명을 받았다. 이 터는 고을 아전인 김환심의 집이었는데 갑진년에 불타고 지금은 밭이 되어 있다. 신묘년 봄에 권진웅공이 선생에 대한 일을 상소하였다가 대정현에 안치되었다. 귀양이 풀린 다음 고을 선비들과 옛터를 찾아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선생의 성대한 도덕과 위대한 업적에도 백년이 못 되어 그 자취를 찾기가 어려우니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닌가 하므로 삼읍의 선비들이 의논하여 짧은 비석을 세워 표시함에 목사 양세현 사도가 도움을 주었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선생께서 귀양살이를 할 때 다른 일은 별로 없었고, 고을 향고의

427) 이덕일(2000), p.349.

428) 『國朝人物考續考』 제3권, 「李璘 墓誌銘」.

경적을 가져다 읽었다. 떠나올 때에 과일, 포, 술을 갖추어 와서 축문을 지어 손자인 주석을 시켜 굴림사에 제사를 올렸다. 하루는 지팡이를 들고 (굴림서원의) 뜰을 둘러보고 빈 땅에 손수 생강을 심었다. 이 모두가 옛일을 갖추려 한 일이므로 부기한다. 순정기원 뒤 3번째 임진년(영조 48, 1772) 2월 일 후학 김량행이 짓고 이극생이 쓰다.⁴²⁹⁾

이 비문을 지은 김량행((金亮行)은 권상하의 사위이자 권진웅의 대고모부다. 권진웅이 비를 세우려고 했을 때 비문을 지었던 것이다. 또한 이 비문을 쓴 이극생(李克生)은 1771년 제주 대정현으로 유배와 있었다.⁴³⁰⁾ 이렇게 권진웅, 김량행, 이극생 등을 통해 제주도 사람들에게 송시열의 영향을 널리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 비를 세우게 도와준 목사 양세현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4) 사상의 계승

조선후기에 들어서도 제주도에서 송시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계속되는데 김정희와 최익현의 덕이 매우 컸다. 김정희(金正喜)는 노론이기는 하나 집권층이었던 노론 내부에서 발달했던 실학파의 한 가지인 북학파에 속했다. 1840년에서 1848년까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송시열의 유배지를 방문하고 시를 남겼다. 노론의 최고봉인 송시열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것이다.

길 가는 사람들도 단비 앞에 말 내리니
 김환심의 집에서 옛 자취를 전해오네
 굴림에 잔 올려 심사를 밝혔으니
 생강 심던 그 해는 지금도 눈물짓네⁴³¹⁾

429) 「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 “嗚呼惟此濟州東城內山底洞卽尤庵宋先生棘遺墟也先生以己巳三月入來 臘月被逮而去受後命於中途遺墟始以州吏金煥心之家火于甲辰今已煙廢爲田辛卯春權公震應疎陳先生志事安置大靜旣蒙宥從州人士訪遺墟而得之歎曰已先生盛德大業未及百年遺 己難尋豈非士林之羞乎遂議于三邑章甫立短碑以識之牧使梁候世絢助成焉故老相傳先生存棘中無所事惟取州校經籍裸嘗出行果脯具酒爲文使其疇錫祭橘林祠一日扶杖而循庭手自種薑於隙地此皆可備故事故附記焉崇禎三壬辰二月日後學金亮行識李克生書.”

430) 『日省錄』, 「영조 47년 신묘(1771, 건륭 36), 2월 9일 경진」.

431) 『阮堂全集』 제10권, 「尤齋遺墟碑」, “行人下馬短碑前 金煥心家舊蹟傳 一酌橘林明志事 至今彈淚種薑年.”

시 속에는 많은 제주 사람들이 송시열을 기리고 있으나 그 자취가 퇴색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잘 묻어나 있다.

조정철도 유허비를 보고 시를 남겼다. 그는 1777년 정조시해사건과 연루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굴림서원 내에 있던 우암송선생적려 유허비를 보면서 시를 남긴 것이다.

동성에 높이 높이 선 돌은
우옹이 옛날 적거하던 집
큰 이름 북두칠성처럼 우러러
지극한 덕 짐승과 물고기도 감동시키네
세상 어지러우면 도는 항상 굽히나
우리의 쇠퇴 허약함에서 회복되는 꿈꿔
제생의 바른 길로 향하며
굴림에서 제사 모시네.

당시 유배정객이던 조정철이 굴림서원이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는 것에 깊은 위안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익현(崔益鉉)은 노론 화서학파의 지도자이자 노론 위정척사파의 중심인물이었고, 1905년 을사조약에 저항한 의병장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인정되었고, 송시열과 송준길, 권상하, 한원진과 이간, 이항로를 잇는 노론의 정통으로 간주되었다.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를 올렸다가 상소의 내용이 과격하고 방자하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위리안치되는 형을 받았다.⁴³²⁾

최익현은 연보에서 제주도에 “선생은 출입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매일 주자서를 외고 또 교궁에 간직된 우암집 1권을 빌어 잠심완색(潛心玩索)하며 귀양살이의 괴로움을 아주 잊어 버렸다.”⁴³³⁾고 하였던 것처럼 주자와 송시열에 빠져 있었다. 교궁(校宮)은 향교를 가리키는데 제주향교에 『우암집』이

432) 『承政院日記』, 「고종 10년 계유(1873, 동지 12). 11월 9일 갑인」.

433) 崔益鉉, 『勉菴先生文集附錄』, 「年譜」, “先生杜門燕居 日將朱子書 循環誦讀 又借校宮所儲尤菴集一帙 潛心玩索 頓忘湘累之苦.”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내가 한가할 때 송서(宋書)를 보니, 지나간 세월만 허송하여 전문이 얇은 것이 날로 부끄럽다.”⁴³⁴⁾고 아들에게 서간으로 전하기도 하고 “누생은 망령되게 송서를 두어 달 가까이 보고 있는데, 요령을 만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으니 읽는 법을 두세 줄 글로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⁴³⁵⁾라고 동문인 김평묵에게 송시열에 대한 외경을 서간으로 전했다.

부친에게 보낸 장문의 서간에도 “송시열선생 문집을 한번 섭렵하였는데 제대로 맛을 음미하지 못하였습니다. 글을 읽는 사이에서도 알지 못하겠는 것이 열여덟아홉이 되는데 하물며 그 의리와 사업에 대하여 힘을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선생의 문학은 아무리 작은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이치와 일이 관통하고 모두 근거가 있으며 융합하고 통철하여 마치 강물을 터놓은 것과 같으니 경서를 읽는 것처럼 많이 읽는다 해도 오히려 부족할까 근심입니다.⁴³⁶⁾”라며 송시열에 대한 외경심을 숨기지 않는다.

최익현은 이황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승 이항로의 제자이자 자신의 동기였던 양현수가 제주목사로 지내면서 남긴 덕을 느낄 수 있으며 송시열을 비롯한 오현의 자취가 여전함을 즐거워했다.⁴³⁷⁾ 이러한 최익현으로서 송시열이 제주유배생활을 하던 자취를 돌아보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송시열의 제주유배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廬遺墟碑)를 둘러보고 쓴 시가 「우유허비(右遺墟碑)」이다.

초산에서 하룻밤은 강개만 북받치고
남은 마음 여기 왔건만 다시 어찌리
생강 심고 예론 떠낸 그때의 일이
오히려 맑은 바람으로 얼굴 스쳐 들어가네⁴³⁸⁾

434)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제15권, 「答永祚(甲戌四月十日)」, “余閑中看宋書 日愧前者浪度 淺之爲見也.”

435)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제6권, 「上金重菴(甲戌十月二十二日)」, “繫生 妄以宋書 近數朔掛目而未得其領要之萬一 幸以讀法數三行 下示如何.”

436) 勉菴崔益鉉先生崇慕事業會(2009), 『최익현 선생 편지집』, 문학공원, p.59.

437)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제7권, 「與李黃溪」.

438) 崔益鉉, 『勉菴先生文集』 제1권, 「右遺墟碑」, “一宿楚山慷慨多 餘心到此更如何 種薑編禮當年事 猶有清風拂面過.”

최익현은 1874년 3월 송시열의 적거지에 들러 그곳에 세워진 유허비를 살펴보고 천일정(天一亭), 운주당(運籌堂)을 거쳐 굴림서원(橘林書院) 옛터에 들렀다.⁴³⁹⁾ 그는 유허비를 보고 송시열을 생각하니 비분강개를 억누를 수 없었다. 또한 황폐해진 굴림서원을 보면서도 분노했다. 만동묘를 폐지하고 서원을 철폐했던 홍선대원군을 비판하다 제주로 유배 온 그로서는 더더욱 심사가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오현이 제주에 끼친 영향 덕분에 제주의 풍습이 개선되었기에 그들을 위해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삼성이 처음 개척한 땅이요
오현이 제사 받는 곳이니
남은 풍교 다함이 없으니
느낀 마음에 봄날이 기네⁴⁴⁰⁾

여기에서 삼성(三姓)은 제주의 신인으로 바위 구멍에서 나왔다고 하는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를 가리킨다. 삼성이 몸을 낳았다면 오현은 정신을 불어넣었기에 제주의 풍습이 고양되었다고 찬양한 것이다. 그렇기에 최익현은 1875년 3월 16일 해배령이 내려지자 3월 25일 굴림서원 옛터를 찾아 「굴림서원유지제오선생문」⁴⁴¹⁾을 지어올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⁴⁴²⁾

이렇듯 송시열에 대한 최익현의 외경은 대단했다. 여기에는 송시열 역시 한때는 제주도 유배인이었던 까닭에 정서적 연대가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익현의 송시열에 외경은 무엇보다 조선시대 도학의 이념적 기반인 주자의 경학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던 당대의 거유이기도 했으며, 송시열이야말로 화서학파의 원류였기에 최익현에 대한 외경의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 최익현의 이러한 송시열에 대한 외경은 그가 접촉했던 제주도 사람 안달삼(安達三), 김희정(金羲正), 강기석(姜基碩), 김용징(金龍徵), 김훈(金燾), 김치용(金致瑬), 김양수(金養洙)⁴⁴³⁾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제주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439) 『勉菴集附錄』 제1권, 「年譜」.

440) 崔益鉉, 『勉菴先生續集』, 「謫廬偶感」, “三姓開荒地 五賢配食場 餘風猶不沫 興感春暉長.”

441) 『勉菴先生文集』 제24권, 「橘林書院遺址祭五先生文」.

442) 『勉菴先生文集附錄』 제1권, 「계유년(1873, 고종10) 선생 41세」.

443) 『勉菴先生文集附錄』 제1권, 「계유년(1873, 고종10) 선생 41세」.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친러파가 득세하자 김윤식은 을미사변과 관련하여 탄핵을 받고 1897년 12월에 제주로 유배되었다. 그는 제주에 머물면서 같은 처지의 유배객들과 굴원아집이라는 시 모임을 가졌다. 그중 일곱 번째 모임에서 황폐해진 굴림서원을 안타까워하며 오현을 기렸던 일을 노래했다.

삼도 모든 마을 돌로 문을 만들었고
 곳곳마다 긴 대숲 대낮에도 어둡하다
 탕자나무 외딴 성의 전쟁 흔적 생각하며
 황폐한 굴림서원에서 충혼을 위로했네
 섬의 밭들 자갈투성이라 원래 세금 없고
 방아노래의 사투리 알아들을 수 없네
 다행히 하늘 개고 물결 잔잔한 날이면
 물고기며 자라와 길이 이웃하며 은혜에 젖네⁴⁴⁴⁾

굴림서원은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폐원되었다. 그러므로 김윤식이 굴림서원을 찾은 것은 폐원된 지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후였다. 당연히 서원은 황폐해졌을 것이고 김윤식은 서글픔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황폐한 자리에서도 충혼을 기리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유배객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우의를 다지는 모습은 제주 사람들에게도 인상적으로 다가섰을 것으로 보인다.

444) 『雲養集』 제5권, 「第七會(十二日會于橘園)」, “三徒通巷石爲門 處處脩篁晝亦昏 枳子孤城懷戰蹟 橘林廢院吊忠魂 島田磽确原無稅 杵曲嘔哇不可聽 幸際天晴波晏日 長隣魚鱉共涵恩.”

VII. 결론

우암 송시열은 송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조선후기 정치계 및 사상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숙종의 원자 정호를 비판하다 제주로 유배를 온다. 그가 제주에서 지낸 시간은 111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굴림서원에 배향되어 제주 오현으로 추앙받았다. 더구나 그는 제주 오현 마지막 인물로서 오현을 완성하였다. 이는 곧 송시열의 제주 유배가 제주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시열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제주 사람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를 굴림서원에 배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제주 유학 김성우라는 사실과 그를 배향할 때 많은 제주 유림들이 모여 그를 기렸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장기와 거제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서당을 열어 지역민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제주에서도 서당을 열지는 못 했다하더라도 제주 사람들을 가르쳤을 개연성은 높다. 또한 서원 배향은 단순히 위패만 모시는 것은 아니다. 굴림서원에 배향된 정온의 경우에도 제주 유생이 서울까지 정온의 손자를 찾아 그의 문집을 구해오기도 했고, 최익현도 제주향교에서 『우암집』을 빌어 읽었던 것으로 보아 송시열의 문집도 굴림서원에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송시열이 고향을 떠나 제주에서 지내다가 정읍에서 사사될 때까지 썼던 시, 소, 편지, 서문 등 48편을 분석하여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존 연구는 그의 삶에 대한 기록과 몇몇 저작을 중심으로 그가 제주에 끼친 교육적 영향을 일반적으로 차원에서 살피는 데 그쳐 깊이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 했다. 또한 제주유배기에 한정하다 보니 고향을 떠나 제주로 오는 과정과 제주를 떠나 정읍에서 사사될 때까지 그의 마지막 시간을 관통하는 사과의 과정을 짚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그의 글에 담긴 교육적 의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가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으나 그가 남긴 글과 그의 가족과 문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

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파악하여 그의 교육적 의의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였다.

Ⅲ. 제주 도착 전 저술활동에서는 시 5수, 소 3편, 편지 6통, 잡저 1편, 서문 2편, 축문 1편을 분석하였다. 「탐라 도중에 외재, 현석에게 보내다」,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사계 선생의 묘에 고한 글」, 「주자대전차의서」에서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밝혔고,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효종의 어찰을 올리려던 소」, 「화포집서」에서는 북벌정책을 비롯한 정치적 입장을 나타냈다. 도통을 축으로 한 학문적 입장과 북벌을 축으로 한 정치적 입장은 존주대의에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점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을 수 있으므로 교육철학적 함의를 담는다. 「탐라로 가는 배에서」,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정혼원에게 답함」, 「무원에게 부침」,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학문적 요체가 곧음[直]에 있음을 강조했고, 「주자대전차의서」와 「화포집서」는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적 의의를 갖는다.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 「박사원, 박수여에게 보냄」, 「정혼원에게 답함」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여의치 않으면 편지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 학습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보여준다. 특히, 「만덕사에서 박생의 운에 차하다」와 「만덕사에서 안생의 운에 차하다」는 차운시의 형식을 빌어 형식면에서도 토론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아들에게 부침」, 「무원에게 부침」, 「해상에서 북으로 가는 권씨와 윤씨 두 외손을 보내는 설」에서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대 교육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나 격대교육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Ⅳ. 제주에서의 저술활동에서는 시 9수, 편지 7통, 잡저 2편, 서문 1편, 축문 1편, 전기 1편을 분석하였다. 전기와 후기 저작을 비교하면 시의 경우에는 전기에 비해 후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다른 종류의 글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후기에 시를 많이 쓴 이유는 아마도 김수항이 사사된 후 동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르가 시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글에서도 김수항 사사에 따른 슬픔 때문에 격한 어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송시열이 제주에서 남긴 시에서는 충성, 효도, 자애, 신뢰 등 오류과 상통하는 가치를 담고 있

어 교육철학적 측면에서 의의를 담고 있고, 제자와 토론하던 일을 떠올리거나 차운시를 적었기에 교육방법적 의의를 담고 있기도 하다.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교육적 의의를 갖고 있는데, 자신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면서 제자에게도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연구에만 매몰되지 않고 늘 서로 의견을 구하며 협업을 권하는 일도 많았다. 특히 「권치도에게 보냄(기사년 4월 2일)」에서는 공부법과 수양법의 근본으로 독서를 권장했고, 「치도를 결별함(기사년 5월 14일)」에서는 곧음[直]을 존재론과 인간론을 관통하는 기준으로 삼아 도가와 불가뿐만 아니라 유가의 다른 학파와도 차별적인 성리학의 입지를 세웠다. 『논맹혹문정의통고』를 마침으로써 성리학의 경전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제공하여 교육철학적이고도 교육과정적 의의를 새겼고, 「임장군경업전」을 통해 인간이 따라야 할 가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철학적 의의를 담았다.

V. 제주를 떠난 후 저술활동에서는 시 2수, 소 2편, 편지 2통, 잡저 1편, 전기 1편, 묘지 1편을 분석하였다.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에서 주자를 학문의 중심에 두고,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 「탐라로부터 나압되어 육지에 나온 뒤 남긴 소」, 「절명할 때에 임하여 남긴 소(기사년 6월)」에서는 효종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주자가 세운 성리학과 효종이 부르짖었던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라는 정치적 이념은 교육철학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깊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화은정 정야수의 운에 차하다」와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가 모두 차운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요부 선생의 뜻으로 박수여의 운에 차하다」는 소옹과 주자를 박중희가 이해하였다고 칭찬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 학자 사이의 협업을 강조한 점도 의의가 있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에서 독서와 곧음[直]을 강조하고, 「박사원에게 답함(기사년 6월 2일)」에서 교육과정 구성 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에서 『가례』와 『격몽요결』을, 「문곡 김공 묘지명(병서)」에서 『소학』 「경신」과 『격몽요결』 「지신」을 강조했던 부분이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종석을 결별함(기사 6월 5일)」, 「자손, 질손 등에게 보이다」, 「삼현려기」를 통해 자손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준 일은 가정교육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VI. 송시열 저술활동의 교육적 의의는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 가정교육 및 학습공동체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교육철학적 차원에서 송시열은 학문적,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과 함께 교육이념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가 강조했던 교육이념으로는 곧음, 조문석사, 오륜을 들 수 있다. 특히, 곧음은 공자, 맹자, 주자를 관통하고 존재론과 가치론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핵심적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아버지가 남겨준 조문석사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고 오륜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글도 많이 지었다. 그리고 그는 주자에 대한 철저한 존송을 바탕으로 성리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학문적 측면의 교육목적으로 삼았다. 정치적 측면의 교육목적은 존주대의와 복수설치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효종의 북벌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구성 원리를 제시하고 독서 순서를 정했으며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책을 펴냈다. 구성 원리로는 격물치지를 거쳐 성의정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과 거친 데서 정밀한 곳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서의 순서는 『소학』, 『격몽요결』로 시작하여 『논어』, 『맹자』, 『주자대전』으로 가는 것을 기본축으로 하되 『가례』, 『기묘록』, 『해동야언』도 강조했다. 그리고 『주자대전차의』와 『논맹혹문정의통고』를 지어 공자, 맹자, 주자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후학들이 학문에 힘쓸 때 교과서로서 삼을 수 있도록 도왔다. 셋째, 교육방법적 차원은 공부론과 수양론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송시열은 공부법으로는 독서와 토론을, 수양법으로는 곧음을 제시했다. 독서는 또한 방심을 제어하는 수양법으로도 의의가 높다. 곧음은 수양법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공부론과 수양론을 관통한다. 곧음은 존재론과 인간론을 관통할 뿐만 아니라 공부론과 수양론, 즉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중추적 방법이자 가치인 것이다. 넷째, 가정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송시열은 자손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책을 읽으며 토론하기도 하며 시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썼다. 훌륭한 선조를 기리는 글을 지어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늘 공부하고 곧음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서 증손에게까지 유산을 남길 정도로 재산을 모았다는 점은 그의 청렴성을 의심하게 하였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다섯째, 학습공동체적 차원에서 송시열은 협업을 통한 집단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훌륭한 스승을 모셨고 많은 제자를 두었으며 그들과의 교류에도 힘썼

다. 유배길에서도 죽음을 앞두고서도 토론을 벌였고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책을 펴고 편집과 교정을 문인들에게 당부했다. 권상하를 중심으로 김창협, 이희조, 이기흥 등 여러 문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편협성과 당파성이라는 한계를 노출했다.

VII.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서는 먼저 그가 굴림서원에 제주 오현으로 배향되게 된 과정과 의의를 다루고, 그의 교육사상이 논쟁과 가족, 제자의 차원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제주 유학 김성우가 소를 올려 송시열이 굴림서원에 배향되었는데 김장생 후손인 김진구, 김춘택 부자가 많이 도왔다. 후일 제주목사 장인식은 굴림서원묘정비를 세워 그의 뜻을 기리기도 하였다. 권진웅과 이존중은 제주에 인물성동이논쟁을 전했고, 송시열을 따라 제주로 왔던 동생 시도, 시결과 손자 주석 외에도 외손 권이진이 『논맹혹문정의 통고』를 간행하고 제주 오현 정운의 유허비문을 쓰기도 하였다. 송시열 직전제자로 목사 이인, 순무어사 이선을 비롯하여 권상하의 손자 권정성은 목사, 중손 권진웅은 유배로 제주에 왔다. 특히, 권진웅은 창주정사를 세워 유생을 가르쳤고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를 세웠다. 조정철, 김정희, 최익현, 김윤식도 송시열을 기려 시를 지었다. 특히 최익현은 굴림서원에 보관된 송시열 문집을 빌려다 읽기도 하였고 안달삼, 김희정, 강기석, 김용정, 김훈, 김치용, 김양수 등 제주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의 사상을 전했다.

본 연구에서 송시열이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는 동안에 펼쳤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다. 이는 그가 위리안치로 인해 제주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기가 어렵기도 하였고 그의 유배 생활을 기록한 사료가 부족한 데서 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제주 오현의 마지막 인물로 선정되면서 오현을 완성하였고 굴림서원에 배향되면서 제주교육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그가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을 살피는 일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송시열이 제주에서 머무는 동안 다양한 저술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관계를 통해 오랫동안 제주교육에 영향을 끼친 점을 드러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송시열과 제주학통의 관계를 밝히고 송시열의 교육적 영향이 제주에 지속되는 과정을 규명

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면 조선시대 제주교육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자료

『高麗史』

『國朝人物考』

『論語』

『孟子』

『史記』

『三國史記』

『書經』

『宋史』

『荀子』

『承政院日記』

『雲養集』

『燃藜室記述』

『二程全書』

『日省錄』

『莊子』

『朝鮮王朝實錄』

『朱子書節要』

『中庸』

權尙夏, 『寒水齋集』

金尙憲, 『淸陰集』

金錫翼, 『耽羅紀年』

金壽恒, 『文谷集』

金正喜, 『阮堂全集』

宋相琦, 『玉吾齋集』

宋時烈, 『宋子大全』

宋時烈, 『宋書續拾遺』
 梁得中, 『德村集』
 李元鎮, 『耽羅志』
 李宜顯, 『陶谷集』
 李恒老, 『魯西先生遺稿』
 林悌, 『南溟小乘』
 鄭蘊, 『桐溪集』
 朱熹, 『醉下祝融峰』
 焦竑, 『莊子翼』
 崔益鉉, 『勉菴集』
 韓愈 「題楚昭王廟」
 許穆, 『記言』
 「橘林書院廟庭碑記」

■ 단행본

김권섭(2010), 『선비의 탄생』, 다산북스
 리귀원(2009), 김세영 옮김, 『중국 문인의 비정상적인 죽음』, 에버리치홀딩스
 면암최익현선생숭모사업회(2009), 『최익현 선생 편지집』, 문학공원
 박세무 외(2012), 조기영, 『동몽선습 외』, 지식을만드는지식
 박일봉(1990), 『주역』, 육문사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_____(2012), 『제주유배길에서 만난 사람들』, 제주대학교출판부
 이덕일(2000),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김영사
 _____(2011), 『윤휴와 침묵의 제국』, 다산초당
 한정주(2015),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다산초당
 홍승표(2005), 『중국유학의 남방 전파』, 계명대학교출판부
 Hirschberger, Johannes(1988), 강성위 옮김, 『서양철학사 하권 근세와 현대』, 이문출판사

■ 논문

- 강동호(2013), 『조선시대 제주유배교육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16), 「『남사록』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제52권
- 강동호·양진건(2015), 「면암 최익현의 제주학통 연구」, 『탐라문화』 제48권
- _____ (2016), 「동계 정은의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학문태도와 선비정신
고찰」, 『교육사학연구』 제26권
- 고창석(1996), 「조선시대 제주의 사학-정사와 향학당을 중심으로」, 『제주도사연구』
제5권
- 고창석·양진건(1989), 「제주도 유배에서의 면암 최익현의 교학활동연구」, 『탐라문
화』 제9권
- 곽신환(2008), 「송시열의 변통법과 개혁사업」, 『유교사상연구』 32집
- _____ (2010), 「우암 의리학의 율곡 연원과 후원-石潭과 石室」, 『율곡사상연구』
Vol.21, 율곡학회
- 김대식(2015), 「권상하 문하의 강학 활동 연구-강문팔학사를 중심으로」, 『교육사
학연구』 제25권 제2호
- 김문준(2004),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 문화』 23
- _____ (2008), 「수암 권상하의 춘추정신과 도학사상」, 『한국철학논집』 23집
- _____ (2011), 「우암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儒學研究』 제24집
- 김봉곤(2011), 「문중고문서를 통해 본 호남지역의 사회와 문화: 조선후기 호남지
역 사족의 정치, 사회적 동향-17세기 광주 순천박씨 가문의 성장
과 노론으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8집
- 김상기(2016), 「유진하의 학문과 문인들의 민족운동」, 『한국사상사학』 52
- 김성용(1998), 「송시열 산문의 권위적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1집
- 김성태(2015), 「송시열의 제주유배한시의 교육적 의미」, 『제주도연구』 44
- 김성태·양진건(2014), 「우암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석당논총』
59집
- 김유리(2012), 「규창 이건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제20권

- _____ (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제40권
- 김익수(2008), 「송시열의 직철학과 교육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42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인기(2011), 『조선후기 면암 최익현이 제주교육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업(1977), 「조선조 제주도 교육에 대한 논고」, 『제주대학교논문집』 제9권 1호
- 김해영·김유리(2012), 「제주교육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41호
- 김현수(2008), 「송시열의 예학사상 고찰-시의적, 의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Vol.48, 한국동서철학회
- 문석윤(2009), 「조선 후기 성리학에서 『맹자(孟子)』 ‘호연장(浩然章)’ 논란과 그 의의」, 『한국문화』 47
- 박성순(2007), 「면암 최익현 心主理說 연구-우암 송시열 心說에 대한 그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7집
- 박종배(2011), 「조선시대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3(3)
- 배상현(2008), 「송시열의 예학사상과 그 의리화」, 『한국사상과문화』 Vol.42, 한국사상문화학회
- 성광동(2011), 「호굉의 도 개념 연구」, 『동서철학연구』 제60호
- 신창호(2011), 「『동몽선습』에 나타난 아동교육과정의 특징」, 『한국교육사학』 33(3)
- 안은수(2008), 「우암 심성론 특징과 의의-미발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Vol.48, 한국동서철학회
- 양순필(1992), 「우암 송시열의 제주유배시 소고」, 『백록어문』 제9권
- 양순필·양진건(1987),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6권
- 양은숙(2012),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진건(1986),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 도통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권
- _____ (1988), 「제주 오현의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7권

- _____ (1990),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23권
- _____ (1991), 「제주도와 충승의 전통교육 비교」, 『탐라문화』 제11권
- _____ (1992), 「일제 하 제주도 초등학교 개설운동」, 『초등교육연구』 제1권
- _____ (1992), 「조선조 제주도 교육시설」, 『탐라문화』 제12권
- _____ (1992),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육사상 연구」, 『제주도연구』 제9권
- _____ (1994), 「제주 우도의 교육: 해방 이후」, 『탐라문화』 제14권
- _____ (1995),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제4권
- _____ (1996), 「탐라국의 유학수용 연구: 제주교육의 정체성 규명을 위하여」, 『한국교육사학』 제18권
- _____ (1997), 「일제하 제주도 교육사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19권
- _____ (1997), 「미군정기 제주교육」, 『탐라문화』 제17권
- _____ (1997),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제18권
- _____ (1998), 「조선조 제주도 기술교육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0권
- _____ (1999), 「제1공화국시대 제주교육행정사 연구」, 『백록논총』 제1권
- _____ (1999),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 제21권
- _____ (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제4권
- _____ (2002), 「면암 최익현의 제주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4권
- _____ (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5권
- _____ (2004),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제24권
- _____ (2005), 「세종조 도서보급 정책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사상연구』 제16권
- _____ (2005), 「제주교육행정의 역사적 정리: 60년대~80년대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제26권
- _____ (2006), 「조선조 제주삼읍 향교의 신창, 증창, 이건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19권
- _____ (2006), 「조선후기 제주교육에 끼친 척사논의의 영향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0권

- _____ (2010),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제24권
- _____ (2011), 「조선후기 제주도주민의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제주도주민의 표류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33권
- _____ (2012), 「추사 교육전통의 남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학술논문집』
- 양진건·강동호(2013),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서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학』 제35권
- _____ (2014), 「면암 최익현 제주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 제35권
- _____ (2014), 「제주근대교육에 미친 유배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4권
- 양진건·현은선(2014), 「추사 김정희 제주유배기록에 나타난 화목의 교육적 의미」, 『철학·사상·문화』 제17권
- 오석원(2008), 「우암 송시열의 의리사상」, 『유교사상연구』 Vol.33, 한국유교학회
- 오송희(2001), 「조선후기 제주향교 운영실태」, 『제주도사연구』 제10권
- 오항녕(2008), 「기억의 시냅스: 효종과 송시열, 그리고 정조」, 『동서철학연구』 48집
- 우경섭(2006), 「송시열의 華夷論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집
- _____ (2008), 「송시열의 許衡 인식과 文廟黜享論」, 『진단학보』 Vol.106, 진단학회
- _____ (2008), 「우암 송시열의 호연지기론」, 『동서철학연구』 Vol.48, 한국동서철학회
- 윤경희(2012), 「우암 송시열의 여성인식 재고-비지문, 제문, 행장 등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9,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기용(2007), 「우암 송시열의 리기, 심성론 연구」, 『한국철학논집』 Vol.21, 한국철학사연구회
- 이봉규(2010), 「함양론과 교육과정으로 본 조선성리학의 개성」, 『퇴계학보』 128
- 이상익(2004), 「우암 송시열에 있어서 이와 기의 상호주재 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Vol23, 한국사상문화학회
- 이상주(2006), 「조선후기 산수평론에 대한 일고찰-華陽九曲을 중심으로-」, 『한문학보』 14집

- 이선열(2009), 「17세기 우암학단의 虛靈개념 논변」, 『동양철학연구』 Vol.58, 동양철학연구회
- _____(2009), 「17세기 율곡학파의 인심도심 논변-이세필, 송시열, 윤증의 “氣用事” 논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Vol.57, 동양철학연구회
- _____(2010), 「송시열과 박상현의 미발 논변-미발과 기질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Vol.3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이연숙(2002),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제23집, 역사실학회
- 이종묵(2006), 「우암 송시열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10집
- 이종성(2009), 「명재와 윤희당의 교유관계 및 사상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동철학』 제48집, 대동철학회
- 임부연(2009),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Vol.1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전재동(2008), 「송시열과 박세채의 퇴계설 비판-『退溪四書質疑疑義』 “논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Vol.42, 한국한문학회
- 정경훈(2003), 「우암 비지문의 미학적 검토」, 『한문학보』 9집
- _____(2005), 「우암 송시열의 散文에 나타난 『春秋』의 한 양상-奮發據義와 傳疑之法에 대하여-」, 『율곡사상연구』 10집
- _____(2008), 「우암 송시열 散文의 문예적 면모」, 『한국사상과 문화』 42집
- _____(2009), 「〈幄對說話〉의 사실성과 의미」, 『동방한문학』 39집
- _____(2010), 「송시열 문학의 影響源과 異端的 면모」, 『한문학논집』 31집
- 정낙찬(2011), 「송시열의 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제43집, 한국교육철학학회
- 정민(2008), 「우암 선생 <首尾吟> 134수 管窺」, 『한국사상과 문화』 42집
- 정재훈(2004), 「우암 송시열의 정치사상-주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23집
- _____(2008), 「17세기 우암 송시열의 정치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42집
- 조규희(2006),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집
- 조남호(2009), 「조선후기 유학의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 유학에서 허령지각과 지의 논변-송시열, 김창협, 한원진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Vol.3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조성산(2003), 「17세기말-18세기초 낙론계 문풍의 형성과 주자학적 의리론」, 『한국사상사학』 21집
- _____(2004), 「송시열의 성리학 이해와 현실관」, 『한국사학보』 Vol.17, 고려사학회
- 조준하(2008), 「우암 송시열의 주체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42집
- 지두환(2008), 「우암 송시열의 경세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42집
- 팽영일(2013), 「교육사상 연구의 방법과 한계」,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3년 연차 학술대회』
- 한기범(2008), 「우암 송시열에 대한 후대인의 추송과 평가」, 『한국사상과 문화』 42집
- _____(2009), 「예송기 이유태의 왕조례 예설과 예사상」, 『한국사상과문화』 Vol.46, 한국사상문화학회
- 한석수(2008), 「중원지역 전통문화의 문학지리학적 고찰; 華陽洞의 문학-우암 송시열과 그 제자들의 한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3집
- 함영대(2008), 「경전 해석과 한국한문학; 『孟子或問精義通考』와 우암 송시열의 학술정신」, 『한국한문학연구』 Vol.42, 한국한문학회
- 황의동(2006),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과 학문적 차이」, 『동서철학연구』 Vol.40, 한국동서철학회
- _____(2008), 「우암의 성리학과 학문적 위상」,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 홍정근(2008), 「우암 송시열의 心體에 대한 견해 고찰」, 『동서철학연구』 Vol.48, 한국동서철학회

■ 기타

- 『한국고전번역원(www.itkc.or.kr)』
-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 『두산백과(term.naver.com)』

<Abstract>

Uam Song Siyeol's Writing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Seong-Tae Kim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This study clarifies Uam Song Siyeol's writing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while he was exiled to Jeju and later imprisoned in Jeongeup, before he was executed. He stayed in Jeju for 111 days, but his spirit tablet was enshrined as the last person of Jeju Ohyeon. Jeju Ohyeon were five influential scholars in Gylrimseowon, which was th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Jeju.

Song Siyeol studied under Kim Jangsaeng and Kim Jip. He followed the ideas of Chu Hsi and Yi I, and he acknowledged Yi Hwang. He supported King Hyojong's northern expedition policy for Jonjudaeui, which is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 and Boksuseolchi, which was the revenge on the Qing Dynasty. He was exiled to Jeju, because he opposed King Sukjong proclaiming his own newborn son the crown prince. He borrowed some books from hyangggyo, which was a Confucian temple and school, read them, and wrote some books of his own. He wrote some poems with his grandson, and exchanged letters with his students.

This study analyzes Song Siyeol's 16 poems, 5 written addresses to King Sukjong, 15 letters, 3 prefaces, 2 written prayers, 2 biographies, 1 epitaph, and 4 other writings. Additionally, this study considers the activities among Song Siyeol, his family members, and student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ong Siyeol's writings was examined in the aspects of philosophy of education, curriculum, instructional method, family

education, and studying community. First of all, he claimed uprightness, Jomunseoksa, which is a proverb from the *Analects* which means, “I would be able to die at sunset if in the morning I were to gain knowledge of the correct path,” and Oryun, which is the Confucian Five Relations, as ideals of education. He also proposed Neo-Confucianism centering on Chu Hsi as a scholarly goal of education, and he suggested Jonjudaeui and Boksuseolchi that King Hyojong propounded for his northern expedition policy as a political goal of education. Secondly, he suggested the principles for organizing curriculum, and he determined the order of reading, and he wrote *Jujadaejeonchaui*, an annotation of Chu Hsi’s writings, and he wrote *Nonmaenghokmunjeonguitonggo*, an annotation of the *Analects* and *Mencius*, too. Thirdly, he proposed reading and debate as an effective study method, and he highlighted uprightness as a desirable method of moral culture in the aspect of instructional method. He emphasized uprightness a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hat penetrates both ontology and the theory of man, and also the study method and method of moral culture. Fourthly, he taught his descendents by reading and debating with them, and he sent the letters to some who lived far away, requesting they study hard. Fifthly, he put his effort into studying eagerly by debating continuously with great teachers and outstanding students, and he highlighted collaboration, and organized studying communities to encourage one another. In addition, he ensured his ideas would continue by writing books after the intense debates, so that his students could develop their own theories.

Kim Seongu, a Jeju student, sent King Sukjong a written address, in which he desired to enshrine Song Siyeol at Gyulrimseowon to pay a tribute to his influence on Jeju education. Some of his descendents and students came to Jeju as government officials and exiled people. They extended Song Siyeol’s influence. Gwon Jineung and Yi Jonjung let Jeju people know the debate about human nature and the property of matter. They also taught many Jeju students. Gwon Jineung erected a memorial stone for Song Siyeol, and Jang Insik erected another for Gyulrimseowon. Jo Jeongcheol, Gim Jeonghui, Choe Ikhyeon, and Gim Yunsik

wrote poems about him.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ong Siyeol's writings on the aspects of philosophy of education, curriculum, instructional method, family education, and studying communities. If the study hereafter deter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other figures including Song Siyeol, by discovering historical records, the educational history of Joseon Dynasty will be enlarged and deepened.

Key Word: Song Siyeol, Exile, Jeju, Writing, Educational Significance